



# 1980년대 청계피복노조 활동 — 2024 전태일노동구술기록 5

## 꺼지지 않는 불꽃: 청계피복노동조합

2020년부터 시작된 전태일노동구술기록 사업이 어느덧 다섯 번째 기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번 기록은 1980년대 청계피복노조를 중심으로 노동자들이 이룩한 투쟁과 연대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전태일의 헌신과 희생을 시작으로, 수많은 노동자가 단결해 노동의 존엄을 지키고 권리를 쟁취하려는 과정에서 나타난 용기와 노력은 오늘날 우리 사회의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구술기록 작업은 전태일의 친구들로부터 시작하여 그의 가족, 어머니 이소선의 기억과 기록으로 확대되었고, 나아가 청계피복노동조합과 그들의 활동 이야기를 통해 모두의 이야기로 발전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전태일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전태일이 지핀 변화의 불꽃이 한 시대를 관통하며 펼쳐 나가는 과정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본 작업은 급변하는 현대사의 한 궤를 쫓아가는 중요한 과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다섯 번째 구술기록은 4회차에 이어 1980년대 청계피복노동조합의 활동과 아프리 사건으로 시작됩니다. 계속해서 함께 목소리를 내고자 했던 청계피복노조는 결국 강제 해산의 위기를 맞이했지만, 노동 운동에 대한 열망과 전태일에 대한 기억은 사라지지 않았고, 이는 전태일기념사업회로 이어지게 됩니다.

청계피복노조의 문화패 활동을 통해 노동 운동이 어떻게 화합하고 연대해 나갔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노동자들 간의 단결과 의식 고취를 위한 문화적 접근이었으며, 청계피복노조의 정체성과 조직력을 문화·문예 운동으로 꽃피운 이 과정은 구로동맹파업에서 나타난 강한 결집력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들의 연대 의식은 노동조합의 동

맹 결성으로 이어졌고, 학생 및 시민단체와 협력하여 민주 노조로서의 역할을 다하며 민주화 운동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그 유산은 오늘날까지 이어져, 이 구술기록을 엮고 있는 아름다운청년 전태일기념관의 건립 계기가 되었습니다.

전태일기념관은 이번 다섯 번째 구술기록을 맞이하며, 그동안의 기록을 하나의 장으로 묶을 수 있었습니다. 앞서 서술한 것처럼 이 기록은 전태일로 시작하지만, 전태일을 통해 한 시대와 그 시대의 수많은 이의 헌신과 희생을 되새기는 이야기입니다.

이번 구술기록이 발간되기까지 많은 분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당대 노동 운동에 몸담고 활동하셨던 분들, 귀중한 이야기를 들려주신 선생님들, 그리고 이 기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오늘날까지 남겨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참여와 헌신이 이 소중한 역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책이 단지 과거를 기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오늘날의 노동 문제를 돌아보고 해결할 지혜를 제공하는 데 이바지하길 바랍니다. 전태일이 꿈꾸었던 ‘사람이 존중받는 세상’이란 메시지가 이번 노동구술기록 작업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2월

아름다운청년 전태일기념관 관장 전순옥



1987년 7월 청계피복노조 사무실 탈환 이후 사무실 앞 조합원들,  
1987.07, 전태일기념관 (김영대 기증)

사회 김태현

장소 전태일기념관

---

## 차례

---

인사말	2
1부 1980년대 청계피복노조 활동 (인터뷰 1회차   임현재, 김영대, 박재익, 신순애)	8
2부 청계피복노조의 문화 활동 - 탈춤반 활동 중심으로 (인터뷰 2회차   김영대, 류이)	78
3부 청계피복노조의 연대 활동 - 구로동맹파업 중심으로 (인터뷰 3회차   김영대, 김영미)	120
4부 노동자 대투쟁 속 청계피복노조 - 합법성 쟁취 투쟁 중심으로 (인터뷰 4회차   김영대, 양수일)	178
5부 합법성 쟁취 이후의 청계피복노조 (인터뷰 5회차   김영대, 김정호, 이정기)	228

# 1부

## 1980년대 청계피복노조 활동

### 인터뷰 1회차

2024년 6월 28일(금) 13시~  
전태일기념관 4층



왼쪽부터 신순애, 박재익, 김태현, 임현재, 김영대

## 1. 1980년 초반 청계피복노조의 투쟁

**사회자** 안녕하십니까. 전태일기념관은 지난 2020년부터 전태일 열사와 이소선 어머니, 그리고 그들과 함께 투쟁했던 동지들의 삶과 활동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노동구술기록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번 사업은 1980년대에 청계노조에서 활동했던 분들을 모시고 총 5회에 걸쳐 기록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의 제4차 노동구술기록 사업을 통해 청계노조가 전태일 열사의 분신을 계기로 어떻게 결성이 되었는지, 그리고 70년대에 어떤 활동을 해왔고, 비슷한 고민과 투쟁을 전개했던 다른 민주노조와는 어떻게 연대해서 엄혹한 시절을 견디며 투쟁해왔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70년대에 비해서 80년대의 청계노조 활동에 대해서는 여전히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남겨진 자료나 회고도 빈약하고, 그러다 보니 활발하게 연구가 되지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전두환 정권에 의해서 노조가 해산되고 상당 기간 법외 노조, 비합법 조직으로 활동했던 역사에 기인한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웠던 시기임에도 청계노조가 열심히 투쟁하고, 1987년 이후 합법 노조로 가기 위한 토대를 쌓는 활동들이 전개되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진행할 노동구술기록 사업에서는 청계노조 활동 중에서 상대적으로 공백기로 남아 있는 80년대 상황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듣고, 기록으로 남기고자 합니다. 이것은 80년대 한국 현대사를 쓰기 위한 기초 자료를 만든다는 측면에서도 유의미한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80년대 초반 청계노조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고, 당시의 구성원들은 이에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중심으로 청계노조에서 활동했던 임현재, 김영대, 박재익, 신순애 네 분 선생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간단한 자기소개를 먼저 부탁드립니다. 우선 당시 지부장을 맡으셨던 임현재 선생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노조에서 맡았던 역할과 활동 등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현재** 동지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얼굴들 보는데, 특히 김영대 동지는 참 오랜만에 만났고, 박재익 동지, 그리고 신순애 동지는 이번에 아파서 수술하느라고 고생 많았는데 문병도 못 가서 미안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1980년대 초 노조가 해산될 때까지, 제일 좋은 시기에 지부장을 맡았었는데, 결과적으로 노조를 빼앗겨 버리는 그런 불운한 지부장으로 남아 있습니다.

**박재익** 박재익입니다. 79년도에 임현재 지부장님을 위주로 한 새 집행부가 구성이 돼서, 그 당시에 조사통계부장 업무를 맡고 같이 활동했었습니다.

**신순애** 저는 78년도부터 노조 강제 해산 때까지 부녀부장을 맡은 신순애입니다.

**김영대** 저는 당시 그냥 조합원이었고, 현장에서는 재단사를 했던 평조합원 김영대입니다. 반갑습니다.

**사회자** 80년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79년 박정희 죽음부터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청계노조는 79년 3월에 임현재 지부장님 체제가 등장하게 되고, 단체 협상을 진행해서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었고, YH무역노조 농성에 연대하는 등 힘차게 투쟁을 전개합니다. 그러던 와중에 박정희가 죽고 80년이 되어 소위 ‘서울의 봄’이 펼쳐지면서 청

계노조에서 임금 인상과 노동 기본권 쟁취 투쟁을 전개합니다.

저도 당시 78년도에 학생 운동으로 구속되었다가 박정희 죽고 나와 가지고 80년도에 학교에 복귀를 해서 서울의 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부장님은 기억 못 하실 텐데, 당시에 저도 청계노조 투쟁하는 데 찾아가서 만나 뵙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급변하는 정세와 사회 분위기에 청계노조 활동이 상당한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당시 청계노조 활동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80년 당시에 청계노조 임금 인상 단체 교섭 투쟁이 열정적으로 전개됐고, 농성 투쟁도 전개하고, 성과도 굉장히 많이 남았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5월에 한국노총 민주화를 위해서 농성 투쟁도 전개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재 선생님께서 지부장을 하셨기 때문에 당시 시대상과 임금 인상 투쟁 등 활동에 대해서 간단히 먼저 말씀해 주시고, 다른 분들이 보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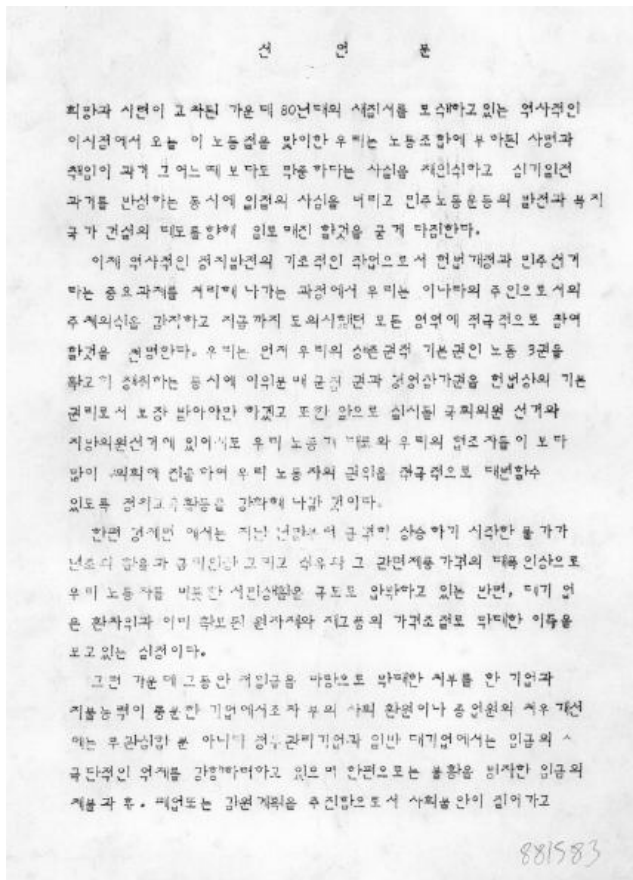
**임현재**      당시 시대를 되돌아보면 가장 중요한 사건은 10·26 박정희의 사망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박정희의 사망이 겉으로 보기에는 부하의 총탄에 의한 사망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전부터 민주화 운동이 거세게 바람이 불고 있었고, YH노조의 신민당사 점거 투쟁, 부마 항쟁, 그리고 점점 더 거세지는 민주화의 물결과 노동 운동의 활발한 전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계피복노동조합 같은 경우는 70년 11월 13일 전태일 열사의 분신 항거 이후, 전태일 열사의 일기에 의한 투쟁 정신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조직하고, 교육하고, 이렇게 해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단일 직종이지만 연합체의 노조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는 청계노조로서는 단결을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지점이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전태일 정신을 조합원들한테 교육하고, 또 조직하고, 이렇게 해서 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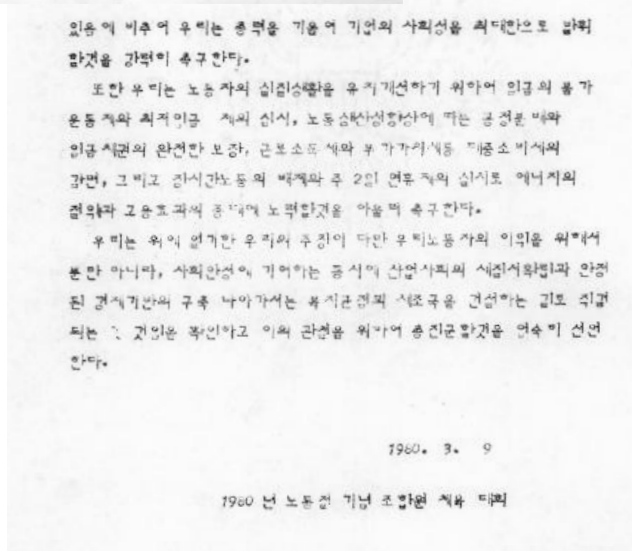
끈한 조직체를 이루어 왔어요. 지난 후에 되돌아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은 사업주가 엄청 많은 환경 속에서 그들을 규합해서 대표성을 부여하고, 그래서 사용자 대표 단체를 만들고, 우리는 노동자 단체로서 노사 교섭을 할 수 있었던 거죠. 노사 교섭을 통해서 우리 조합원들의 임금, 근로 조건의 개선, 이런 것들을 해 왔다는 게 매우 중요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중간에 이러저러한 곡절로 저도 조합을 떠나기도 했었는데, 다시 조합 업무에 복귀한 때가 78년으로 기억합니다. 그때 김영문 지부장이 몇 개월 하다가 사업하러 간다고 나갔고, 제가 지부장을 맡아서 했는데, 저는 그 시기가 우리 청계피복노동조합으로서는 아주 왕성한 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노조 업무에서 떠나갔을 때, 그때 이미 조합원들의 의식은 상당한 수준에 올라왔었고. 예전에 노동 교실에서 우리와는 별도로 추도식을 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노조 집행부에서는 굉장히 화를 냈고, 거기에 어머니도 같이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우리는 사실 빠져 가지고 노동조합 집행부를 그만두는, 밖으로 나가는 그런 사태가 있었죠. 그래서 그걸 다시 정상화하겠다는 명분으로 79년 3월에 다시 지부장으로, 말하자면 복직을 한 거죠.

그때부터 다음 단체 협약을 상당히 열성적으로 준비했다고 생각하는데, 80년 3월에 노동절을 앞뒤로 놓고, 동국대학교에서 체육대회를 했었죠. 그 체육대회에 노·사·정이 다 모였어요. 정부 쪽에서는 노동부 서울사무소 소장이 왔었고, 사용자 측에서는 업주 대표로 노사 협의회 대표 최용갑 사장이 오셨고, 우리 노동자들은 거기 조합원으로 참석했고. 제가 이 자리에서도 강하게 임금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던 개회사를 했어요. 그러면 분위기를 고조시켰고. 그때 한국노총에서도 마침 ‘5인 가정 실질 생계비’ 그래 가지고 57만 얼마던가, 발표했고, 그거를 근거로 해서 “우리 임금을 이만큼 올려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죠. 그래도 다행인 것은 우리가



선언문 「노동절 기념  
선언문」, 1980.03.09,  
전태일재단



71년부터 매해 노사 협의회를 통해서 단체 협약을 갱신해 온 덕분에 어느 정도 혼란이 돼 있다고 그럴까, 그럴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대회에서 임금 대폭 인상, 근로기준법 적용을 안 받는 16인 이하 사업장에 퇴직금 주기, 시다 임금도 상당한 수준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합니다. 물론 긴 농성, 단식, 끈질긴 회의 이런 과정을 겪었지만, 좋은 단체 협약을 맺고 매우 흥분됐다고 할 정도로 즐거웠던 짧은 기간이 지나고, 그때 이미 군부 세력은 밑에서 쿠데타를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건 모르고 계속 파티를 즐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나중에는 했습니다. 후회를 아주 많이 했죠. 그때 분위기에서 우리가 했던 것은 그 정도예요.

**사회자** 그때 당시의 배경과 상황을 중심으로 얘기해 주셨는데요. 박재익 선생님도 당시의 기억나시는 활동들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익** 그때 당시 우리가 8시 퇴근제를 쟁취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어서 평화시장에 중심하고 있는 동화상가, 통일상가, 을지상가 이 3개동에 있는 사업장은 8시 근무제가 잘 시행이 됐었습니다. 전기를 내린 다든지 뭐 이런 방법으로 해서요. 그런데 그 외곽지역에 있는 사업장들은 8시 근무제가 잘 지켜지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청계7가나 8가 쪽, 신당동 지역 쪽에 있는 업장에서는 그게 지켜지지 않아서 저희가 2명, 3명씩 조를 이뤄서 8시 이후에 작업을 하지 못 하도록, 소위 저희 용어로 해서 ‘단속’이라는 걸 다니기 시작했었죠. 예를 들어서 8시 40분이면 8시 40분이라고 적고, 사업주로부터 사인도 받아서 퇴근시키라고 하면 그쪽에서는 못 한다고 하고, 그런 걸로 인해서 마찰도 상당히 있었던 기억들이 생각이 납니다.

**사회자** 신순애 선생님은 농성하는 과정에서 기절까지 하셨던 거 같은데, 당시 활동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신순애      농성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까 박재익 씨가 얘기한 대로 저녁 8시에 상가 내에서는 일을 못 하게 하니까 사장이 몰래 이사를 갔어요. 월요일 날 딱 와 보니까 공장이 없는 거예요. 빈 공간이야. 임현재 선배님 생각나시려나 모르겠는데, 그게 통일상가 삼정사였거든요. 근데 이 삼정사 사장이 신당동 자기 집으로 이사를 간 거예요. 그래서 “너네들이 이리로 출근을 해라”고 했어요. 다행히 삼정사는 와이셔츠였는데, 당시 78년도, 80년도 요 때는 와이셔츠 공장의 노동자 90% 이상이 조합원들이었어요. 이분들이 다 노조 사무실을 찾아온 거예요. “우리 공장이 우리한테 허락도 없이 이사를 갔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대책을 세운 게 “우리는 거기 교통이 불편해서 못 가겠다. 다시 이리로 오면 출근을 하겠다”고 그런 투쟁 아닌 투쟁을 해서 결국에는 삼정사 사장이 원위치로 복귀한 사례도 있어요. 그렇게 공식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사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단속 나갔는데 사장이 때려서 고발한 사건 등등 있었고.

80년 당시 근로기준법이 16명 이상이어야지 퇴직금을 주게 돼 있었어요. 사장들도 좀 똑똑해졌거든요. 이게 상시 고용 인원이야. 그러니까 여름에 “야, 5번, 7번. 니네 한두 달 쉬었다 와.” 이러면 16명이 안 되어서 퇴직금을 안 주는 사례들이 비일비재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최소한 임금 인상은 안 해도 좋으니까, 우리 퇴직금만큼은 관철하자. 그래서 10명 이상 사업장은 퇴직금을 지급하게 됐어요. 노조가 생기고 최초로 근로기준법 이상의 것을 쟁취한 거기 때문에 저로서는 노조 활동에서 가장 의미 있는 거였어요. 80년도가 되면 전태일 동지가 죽은 지도 10년이었고, 노조가 생긴 지도 10년이거든요. 그동안은 늘 근로기준법을 지키라고 그랬는데, 근데 딱 그 10년 맞게 그 이상을 쟁취했죠. 10주년답게 노조가 잘 성장했다고 봤는데, 정부의 강제 진압에는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손을 들고 말았습니다.

**1980년도 임금인상 기본 목표**

**1) 임금인상 목표**

(1) 소만원 모두가 최소한의 사립다운 생활을 할수 있도록 최저 생계비액 보장을 요구 한다.

(2) 물가 폭등에 따른 실질임금의 격차를 보상하기 위한 임금물가 연동제 및 상여금 지급 제도확립을 요구 한다.

(3) 각직종을 세분화하여 합리적인 임금인상을 요구 한다.

**2) 임금 지급 제도 개선 목표**

(1) 각종 미상사의 생계급 (기본급)을 요구 한다.

(2) 현재의 임금 지급 방편을 8시간 기본급 제로 개혁하여  
가) 8시간기본급 제를 생계비에 근거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나) 시간외수당, 휴일근로수당등은 근로기준법 제42조 및 제46조의 규정  
이외하여 기본급을 기준으로 계산지급 하며  
다) 월차 상비 추후 년차수당등도 근로기준법외의가 지급 하며  
마) 임금 대상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2조 서식에따라 사상이 근거하여  
작성하며.

※따라서 임금 계산 방식을 다음과같이 하도록 요구 한다.

임금 총액 = 기본 내임금 (8시간 당 기본급 + 각종수당)  
+ 기본외임금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 부가급부 (주휴수당, 월차수당, 연장수당, 상비수당)

(3) 퇴직금 지급을 근로기준법에 상응하는 (원환수익관계없이) 조건으로  
제도화 하며.

**3) 고용안정을 위한 목표**

영세기업에 조세관련 혜택을 주어 영세기업은 보호육성 하도록 하  
며  
폐업을 방지하여 영세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요구 한다.

1980년도 임금 인상  
기본 목표, 1980, 전  
태일재단

**직종별 임금인상 요구 내역 (단)**

직종	요구액	1979년도 현재 현상 체임액	현상 임금	요구율(%)	근	가	비고
시 자	72,167	63,000	63,498	85.82	1인생계비이하 최저비, 35%미		
비정보조	92,995	62,000	78,204	90.81	3인생계비이하 최저비, 44%미		
재단보조	115,186	90,000	95,902	84.46	1인생계비이하 최저비, 35%미		
미상사	120,554	120,000	120,000	100.00	2.4인 가주 생계비 이하		
지부계사	155,510	90,000	128,723	82.89	2.6인 가주 생계비 이하		
귀분림	192,701	—	150,833	78.15	2.9인 가주 생계비 이하		
마포매사	132,581	—	69,285	52.30	2인 가주 생계비 이하		
지판사	—	—	193,643	—	—		

※ 미상사 최저를 생계비 이하의  
기본급으로 요구 하다

**사회자** 혹시 농성을 들어가게 된 계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기억나시는 게 있으세요?

**신순애** 우리는 농성을 하면 물도 먹으면 안 되는 줄 알고, 물도 안 먹으니까 1번으로 쓰러지는 게 늘 저였어요. 탈수가 돼서 쓰러지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농성에 들어갈 때 “야, 이번에는 우리 좀 약게 굴자.” 그래서 입고 있던 조끼 주머니에다 견과류를 넣어서 갖고 가서 몰래 먹으면서 버텼어요. 그래도 여전히 1번 타자로 제가 쓰러지고 말았었습니다.

**김영대** 저도 80년 농성에 참여를 했거든요. 그때는 세 분이 다 상근하시는 간부였잖아요. 그래서 아마 저는 잘 기억도 안 나실 거예요. 제가 그때 남대문의 숙녀복 재단사였습니다. 그러니까 가게가 남대문시장의 한 영상가에 있었고, ‘미스 하 컬렉션’이라는게 상호인데, 아마 재단사가 노조 가입하고 이렇게 활동한 건 제가 처음일 거예요. 당시 제가 재단사일 때 30만 원을 받았으니까. 이미 그때 제가 신광용을 통해서 활동하고 의식화 되고 이런 과정이 있었고, 그러면서 농성에 참여했는데, 결혼 전이니까 제가 하숙을 어디서 했냐면 녹번동에서 했어요. 그래 가지고 옥상에서 농성에 참여하고, 2박 3일 뒤 이렇게 지나는데 사장이 찾으러 왔어요. 어떻게 소문 듣고 와 가지고 나를 끌고 내려가면서 하던 그때 말이 생각나요. “미친X들하고 농성 같이하는 거냐?”고. (웃음) 근데 저는 말을, 대답을 못하겠더라고요.

당시 농성에 참여하고 결국은 이기게 됐죠. 마지막에 해산하고 집에 들어가는데, 제가 탔던 157번 버스가 녹번동하고 답십리 왔다 갔다 하는데, 얼마나 농성을 잠을 안 자고 했냐면 버스를 타고 157번 종점 갔다가, 다시 답십리 갔다가. 앉아만 가면 종점으로 가는 거예요. 다시 타고 오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서 서서 왔어요. 그래서 다리가 꺾인 기억이 납니다. 그때 당

시 제가 재단사로 있으면서 나중에 전노협<sup>1)</sup> 문화국장 하는 신재걸이라고 학생 운동 했던 친구를 재단 보조로 데리고 있었어요, 남대문에서. 그래서 저랑은 이해관계가 별로 없었지만, 그때 그 농성에 계속 참여하면서 그 농성이 결국 승리로 끝나는 것까지 지켜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회자** 지부장님은 그때 당시에 계속 단식 농성 하시고, 어머니까지 농성에 돌입했었고요. 그때 당시에 노조 사무실이 평화시장 옥상에 있었잖아요.

**김영대** 평화시장 옥상에 있었죠.

**사회자** 청계노조가 단체 협약을 맺어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근로기준법 이상으로 10인 이상 사업장은 다 퇴직금을 주는 걸로 하고, 임금도 상당히 올랐죠? 29% 인상되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4월 17일, 6시간 반의 교섭 후 극적 타결 했다는데요. 그 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까요.

**임현재** 그때 당시에 우리 조합원들도 굉장히 성숙했죠. 이미 시간 단축 투쟁, 9·9사건, 이런 걸 승리하면서 의식들이 굉장히 고조돼 있는 상태였고. 나도 지부장이 되고 이게 첫 번째 단체 협약 갱신인데 잘 해내야지. 얼마나 고심했겠어요? 그러니까 3월 체육대회부터 시동을 건 거죠. 사용자들 다 불러다 놓고 있는데, “고혈을 빨아서” 뭐 이런 연설이 나오더라고요. (웃음) 그래서 이렇게 먹고살고, 골프 치러 다니고, 누구 피를 먹고, 뭐 어찌고저찌고. 이제 사장들을 아주 나쁜 놈들이라고 비난을 했죠.

---

1) 전국노동조합협의회.

또 이론적으로도 굉장히 준비를 잘한 거였어요. 시다 임금 통계, 미싱사들의 평균 임금, A, B, C 이렇게 준비도 잘했고. 그리고 처음부터 작전도 좋았어요. 최용갑 회장을 노사 협의회 소위원 대표로 참여시키고, “근로감독 과장도 회의할 때마다 나와서 보고 있어라.”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노사 협의회를 몇 번 했는데, 처음에는 그냥 곁돌죠. “아이고, 뭐 이거 보나 마나지. 이렇게 많이 올려달라고 하면 우리 망하지.” 이렇게 말하고 그냥 나가기도 하고. 슬슬 한 사람씩 빠져나가기도 하고. 몇 번 노사 협의회를 했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사용자 대표 최용갑 씨를 설득했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누가 몇 놈 죽더라도 우리는 해야 하니까 회장님이 알아서 좀 중재하십시오.” 그랬더니 그다음 회의부터 “이제부터는 이 회의가 타결될 때까지 화장실 가지 말기.”

**박재익** 화장실 먼저 간 측이 지기. (웃음)

**임현재** 그래서 우리는 화장실도 안 가고 버티고 앉아 있었던 생각도 나고. 그러다가 조합 사무실에서는 농성을 시작했죠. 그런 농성이 평화시장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나중에 전노협 이런 데서 모방을 많이 했었을 거야. 워낙 창의적이었으니까. 갑자기 어느 날은 상여가 들어와 가지고 관을 메고 나가는 이런 기발한 농성들을 진행하고. 그런 것들이 유인규 회장<sup>2)</sup>한테는 다 들어가는 거지. 사용자 측 대표인 그 양반한테는 다 정보가 들어갈 거고. 우리는 우리대로 그걸 계속 확산시키고. 뭐 좀 양보도 많이 했지만, 양보는 우리가 처음부터 계산했으니까. 이를테면 8천 원 받을 거면 1만2천 원 정도 부르는 식으로 덤을 얹어서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목표했던 것보다는 관찮은 수확을 거두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

2) 당시 동화상가주식회사 사장.

었습니다.

**사회자** 5월이 되면 당시 한국노총이 정부의 하수인 노릇 비슷하게 하면서 민주노조를 탄압한다는 이유로 한국노총 민주화 투쟁 한다고 농성단이 들어가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결국은 다 끌려나오긴 하지만. 청계노조가 노총 민주화 운동이나 이런 부분에는 같이 좀 결합을 하셨어요?

**임현재** 그때 다 같이 했죠. 처음은 한국노총이 먼저 시작한 거예요. 무슨 성토대회던가. 하여튼 이제 민주화의 봄이 슬슬 오고 있으니까, 자기네들 가만히 있다가는 곤란해질 거 같으니까 시작했는데. 그때 당시 원풍모방 방용석 지부장이 단상으로 확 뛰어 올라가면서 마이크를 잡고 완전히 무대를 장악해 버려, 그 분위기를. 그런데 나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중앙 무대에서 뭐.

**사회자** 초짜 비슷하게? (웃음)

**임현재** 그러니까 별로 두각은 나타낼 연설은 하지도 않고. 그래도 나중에 몇 마디 가서 하기는 했던 거 같아. 그때 금속노조 쪽, 화학의 어디 지부장이었더라, 하여튼 이 친구가 동원한 조합원들. 또 원풍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좀 많이 왔죠. 그래 가지고 그 분위기를 완전히 민주노조들이 장악하는 걸로 바뀌 버린 거지. 그랬는데 길게 가지는 못 했고. 나도 그런데까지 세세하게 지금 생각은 안 나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사회자** 네. 지도부 중심으로 그렇게 하셨고. 그때 참여하지는 않으셨죠, 한국노총 농성장이나?

신순애      그런 자리는 참석하죠.

사회자      갔었어요?

김영대      갔었죠. 나도 갔으니까.

신순애      제가 기억하기로는 당시 삼성제약 지부장하고.

사회자      예. 김은임.

신순애      한일합섬인가 거기 조합원하고. 제가 청계에서 감옥을 갔다 나와 가지고, 나는 그 친구를 기억 못 하는데 그 친구는 나를 기억하더라고요. 내 재판에도 왔다 갔다고 해서 “신순애 동지 왔냐”고 인사하기도 하고. 그래서 몇 번 참석하기는 했죠. 근데 조용히 그냥 참석하고 말았지, 저는 올라가서 발언하고 뭐 그 정도는 아니었으니까요.

사회자      그렇죠. 이게 5월 13일부터 ‘노총 개혁하라’고 한국노총 농성을 하면서, 당시에 위원장이 섬유노조 위원장 출신인가, 하여튼 대표적으로 노조 탄압의 주범이었던 인물이 안 물러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임현재      김영태?

김영대      김영태.

사회자      네. 김영태, 맞아요. 5·18 직전에 서울의 봄, 서울역으로



임현재

가기 위해서 서울대 관악산에서 나오다가 여의도 지나가면서 거기서 농성하는 분들 향해 손 흔들고, 그리고 갔던 기억이 나요.

**김영대** 그때 “김영태는 물러가라”가 대표적인 구호였던 거 같고, 그때 알음알음 청계, 원풍 여러 군데에서 참여는 했는데, 청계가 주도하거나 이러지는 않았던 거 같아요.

**임현재** 그리고 며칠 못 갔잖아.

**사회자** 며칠 못 갔어요. 바로 5·18이 됐기 때문에 며칠 못 가고 바로 농성을 해산할 수밖에 없었죠.

**김영대** 거꾸로 그때 분위기를 살려서 당시 대학생 시위가 이어지거든요.

**신순애** 그러기 전에 사북 사건<sup>3)</sup>이 일어나죠. 사북이 이슈가 완전히 크게 되어서 아주 심각하게 봤죠.

**사회자** 그렇죠. 신군부 쪽에서는 거의 폭동 수준으로 몰아붙였었죠. 거기다 사실은 어용노조 민주화 투쟁이었는데.

**김영대** 그때 이소선 어머니가 내려가시지.

---

3) 1980년 4월 21일부터 24일까지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에 위치한 동원탄좌 사북 광업소에서 발생한 광부들의 항쟁이다. 오랜 기간 쌓여 온 갈등이 폭발하여 벌어진 투쟁이었으나, 신군부 측에서는 사회를 어지럽히는 광부들의 ‘유혈 폭동’이라고 선전했다.

**신순애** 네. 그래서 제 기억에는 사북 사건에 대해서 “절대 우리는 물러설 수 없다.” 이러면서 불이 막 올라왔던 거 같아요.

**사회자** 예, 맞습니다. 이제 청계노조 차원에서 보면 임금 인상 투쟁도 승리하고 일정한 승리를 거두는 상황이었지만, 한편으로 5월 중순부터는 학생들이 대대적으로 가두시위에 나오고 사회적으로 계엄령 해제라든가 민주화를 요구하는 운동이 되면서, 전두환 군사 독재 차원에서는 사북 사건이나 이런 걸 또 몰아세우고 학생 민주화 운동을 탄압하는 식으로 세상이 이렇게 바뀌는 거 같습니다. 또 5·18 민주 항쟁을 총칼로 진압하면서 군사 쿠데타를 완성하게 됩니다.

**김영대** 잠깐 제가 한 마디 첨언하면 청계노조가 임금 인상 투쟁하고, 그걸 승리하고 나니까 신문에 났어요.

**사회자** 네. 신문에 대대적으로 났어요.

**김영대** 그게 나름대로 확산이 된 것이 사북 사태.

**신순애** 그럼요.

**박재익** 시발점이었다고.

**김영대** 그다음에 저쪽 부산 동명목재인가.

**사회자** 동명목재, 맞습니다.

김영대 이렇게 임금 인상 투쟁이 본격적으로 올라온 거고, 그러면서 이게 노총 민주화 얘기 나오는 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영향을 주었던 것이거든요.

신순애 그럼요.

박재익 그럼 그림.

김영대 그래서 결국 탄압이 제일 먼저 들어온 게 청계노조였어요.

신순애 그럼요. 제일 먼저였죠.

김영대 이게 그냥 우연히 이뤄진 게 아니고, 시대적으로 보면 그런 연관성이 있었다는 걸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2. 전두환 정권의 청계피복노조 탄압

사회자 예. 그래서 바로 전국 비상 계엄이 선포되고, 5·18 민주 항쟁이 나지요. 박정희 때 5·16 쿠데타는 노조 전체를 해산해 버리고 막 그랬었잖아요. 전두환 신군부는 민주노조를 중심으로 탄압하고, 학생 운동이나 민주화 운동가를 탄압하게 되는데. 한편으로는 5·18 광주 항쟁 관련해서 박재익 선생님이 약간 연관이 있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박재익 제 기억으로는 5·18이 나고 며칠 정도 지났는데, 발신인은 없고 수신인은 '전국연합노동조합 청계피복지부 조사통계부장 박재익'

이라고 명확하게 쓰여 있는 편지 한 통을 제가 받았어요. 편지를 받아 보니까 그 안에는 일곱 장으로 되어 있는 편지였는데, 반을 나눠서 깨알같이 글씨를 썼었어요. 당시에 저희는 타자 프린트가 없어서 가리방(등사기)으로 굵어서 유인물 만들고 할 때였는데, 글씨가 너무 작아 가지고 제가 편지지로 다시 옮겨 쓰니까 열다섯 장인가 열여섯 장인가 나왔어요. 근데 그거 쓰면서 보니까 5·18 광주의 전모가 실려 있는 그런 내용이었던 거예요. 쓰면서 저도 굉장히 놀랐었죠. 뭐 구타는 기본인 거고, 약을 먹은 특전대들이 와서 구타하는 과정에서 뭐 가슴을 난도질했다는 등, 임신한 임신부의 배를 차고 그랬다는 등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었으니까.

그거를 가지고 있다가, 당시에 야학을 할 때 와서 담당을 해 주던 야학 교사였던 외대 총학생회장 박미옥 씨라고, 그분하고 만나서 “야, 광주에서 이러이러하더라.” 그러면서 그 편지를 제가 전달해 줬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편지를 가지고 가고, 그거를 복사해서 각 대학에 다 전달이 되고, 그로 인해서 5월 23일인가……, 26일, 27일서부터 서울에서 대학생들이 거리로 밀려 나오기 시작했던 거였었고. 제가 나중에 합수부에 끌려갈 때, 거기 가서 제가 좀 고생했던 이유였었죠. 그때 당시에는 제가 그거를 보고 박미옥이라는 사람한테 전해주고. 제 친구 중에 이낙현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같이 조합 활동했던 친구인데, 그 친구하고 저하고 버스를 타고 광주를 내려가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비아 검문소에서 검문을 하면서 버스 출입을 안 시켰었어요. 광주로 들여보내지를 앓았었어요. 그래서 그 버스를 타고 다시 그대로 올라왔던 기억이 있는데. 아마 그때 광주 들어갔었으면 저는 여기 없었을 겁니다.(웃음)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회자 5·17 비상 계엄이 전국으로 선포되고 난 다음에 노조 정화 조치라고 해서 민주노조 간부들이 상당히 많이 끌려갔는데, 묘하게 청계노조에서는 정화 대상자가 없었던 거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머님

이 또 끌려가셔서 구속되는 사태가 있었고. 그다음에 연말이 되어서야, 12월 8일에 보안사 헌병 경찰들이 와서 지부장 포함해서 연행되고, 수사받고, 1월에 노조 해산 조치까지 이어지는 거 같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노조 탄압 양상이라든가, 연행·구속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지부장님부터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일단 어머니가 7월 16일에 체포돼서 군사 법정에서 재판도 있었어요.

**임현재** 광주 민주화 운동이 강제로 그렇게 마무리되고, 그들은 이제 피를 너무 많이 묻혔기 때문에 물러설 데가 없는 거지. 그 사람들은 사생결단하고 덤비는 상태였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학생 운동이 그때 그래도 좀 저항을 많이 했고, 노동 운동은 일정 부분 좀 겁먹고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런데 대기업 노조라든지, 어느 정도 일정한 규모의 사업장들에 대해서는 간부들을 정화 조치를 시켰어요. 그래서 삼청교육대로 보냈는데, 청계피복 같은 경우는, 애네들은 그냥 해산만 시켜도 어느 정도 목표는…….

**사회자** 달성하지 않을까.

**임현재** 예. 그런 계산을 했었는지 하여튼 잘 모르겠는데, 우리는 삼청교육대나 이런 데는 가지를 았았고. 이제 해산으로 결정된 거죠. ‘해산이 너네들 마음대로 되겠나?’ 이렇게 우리는 조금 안이하게 생각했었죠. 왜 그러냐면 노조는 법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거고 유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재네들이 “해산” 그러면 “무식한 소리 하지 마라.” 우리는 이제 그렇게 생각했는데, 정말로 무식하게 해산을 시키더라고요.

근데 그러기 전에 사실 정부에서는 여러 저항 단체들을 자기네 나름대로 분류해서 관리하고 있었어요. 내가 그 김새를 알아차린 게 뭐였냐면, 몇

월인지 잘 모르겠는데, 노동청의 근로 감독 과장이 나를 좀 보자 그래서 갔어요. 둘이 사적으로 있을 때는 자기 동생처럼 그냥 말을 하고 지내는 사이였으니까. “임현재. 야, 너무 골치 아프다. 이거 겁난데이.” 이러면서 “이럴 때는 2보 전진을 위해서 1보 후퇴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너 좀 그래 보면 어떻겠나?” 그래서 “무슨 얘지요?” 그랬더니 “분위기가 아주 심상치 않은데, 네가 이럴 때 제스처로 ‘군부를 지지한다.’ 이런 성명서를 하나 발표하는 게 어떻겠노?” 그러는 거야. 그래서 “택도 없는 소리 하지도 마소.” 그러고 웃어 버렸더니 “그러재? 할 수 있겠나.” 그랬던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관계 기관 대책 회의라는 게 있어서 중앙정보부, 보안사령부, 경찰, 노동부 모여서 회의를 해요. 근데 이 사람은 노동부 대표로 들어갔고, 상당한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던, 노동계에 대해서는 최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의리상 우리한테 그 얘기를 해준 거지. 그 생각이 가끔 나요. 그래서 거기서 내가 죽일 놈 되고, 성명서 하나 탁.

**사회자** 할까 그런 생각도 있었어요? (웃음)

**임현재** 했었으면 싶지. 그때는 못 했지. (웃음) 그때는 ‘내가 왜 그 짓을 해?’했죠. 노조를 팔아먹는 길로 생각을 했지.

**사회자** 그렇지.

**임현재** 근데 그게 구하는 길이었던 말이야. 근데 그거 인정을 안 해주겠지. 임현재 저놈이 충정에서 그랬다고 안 하고, 저 새끼 출세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그러겠지. 마음이 약해 가지고 그걸 못 했어. 탁 받았어야 돼. (웃음)

**사회자** 그때 보안사하고 경찰들에 의해서 연행되고 하셨던데, 수사 과정이나 연행 과정에서 특별한 거는 없었어요?

**임현재** 그거는 뭐 별로 맞은 사람 없었어요. 처음에 갔을 때 겁주느라고 좀 저저하고는, 그 뒤에 이제 진술서 쪽 쓰라고 했잖아. 몇 번 썼잖아, 그거. 언제 여기 들어와서 어떤 일을 어떻게 어떻게 하고 누구를 만나고 뭐 어찌고저찌고, 다 쓰라고 그래서 그거 몇 번 썼지. (웃음)

**박재익** 근데 우리가 합수에 연행될 때는 우리 노동 조합을 해산시키기 위한 전 단계로 하나의 수순이었던 것 같았어요. 제가 아침에 출근을 할 때 못 보던 지프차 대여섯 대가 평화시장 사무실 입구에 있었고. 그러고 올라가서 사무실 딱 들어서서 “누구시죠?” 하는데 그냥 이유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양쪽에서 둘이서 옆구리 끼고 내려갔다는 얘기죠. 그리고 차에 딱 태워서 출발하자마자 안대를 씌우고 가는데,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육군본부 지하실이었다는 게 알려진 거고. 당시에 제 조서관이었던 담당자 이름이 조용휘라는 사람인데,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데요.

**사회자** 아, 이름도 기억하시네요. (웃음)

**박재익** 예. 하도 이 사람이 악랄하게 생겨 가지고. 생긴 건 잘생겼는데 눈빛이 얼마나 무섭게 생겼는지. 그리고 그 사람한테 맞기도 무지하게 맞았어요, 저는.

**사회자** 지부장님은 그래도 상당히 양반 대접받았네? 지부장이라고. (웃음)

**박재익** 지부장님하고 이승철 씨 그 형님하고는 그랬는데. (웃음) 그 담당자가 하는 얘기가 “너네 노동 조합 없어질 거다.” 그때 당시에 저한테 그랬거든요.

**사회자** 그때 벌써 그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박재익**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랬더니 “서울대학교 하나도 없앨 수 있다. 하도 시끄러우니까. 서울대학교 하나 없어지는 건 손목 하나 자르는 거라 생각하면 되는 거고, 너네 노동 조합 하나 없애는 건 손가락 하나 베는 것밖에 안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 줬어요. 그리고 나서 1월에 저희가 해산이 됐으니까요. ‘아, 이게 전초인가?’ 싶은 거죠. 그리고 거기서 제가 다른 분들보다 조금 심하게 당했던 게, 제가 광주 전모를 담은 편지를 돌렸던 거.

**사회자** 발각이 됐었구나.

**박재익** 박미옥 씨가 내가 없는 사이에 우리 집에 왔다가 그걸 놓고 갔던 모양이에요. 근데 저희 부모님은 잘 모르니까, 누가 와서 주니까 중요한 건가 보다 하고 그걸 아무 데나 놔 뒀죠. 제가 그때 결핵을 앓고 있었어요. 우리 집에 압수 수색을 간다고 그래서 “그러면 결핵약 좀 갖다 주세요.” 하고 집의 어디에 있다고 그랬는데. 그거 가지러 갔다가 편지를 가지고 온 거예요. (웃음) 그러면서 조서관이 하는 얘기가 “박재익이, 너는 광주 사태에 대해서 얼마나 아나?” 그래서 “뭐 얼마나 알기는. 들은 대로만 압니다.” 그랬더니 “근데 네가 뭔데 나서서 이렇게 자필로 써서 이러느냐?”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게 발견됐는지도 몰랐고, 그래서 시치미를 떼고 있었죠.





박재익

**사회자** 이미 밝혀진 데다가 시치미까지 떼니 이건 더 악랄한 놈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웃음)

**박재익** 그랬더니 느닷없이 “일어서!” 그러더니 정강이를 차기 시작하는데, 구둣발로 한 30대를 맞았어요. 그래서 정신도 없고 그러고 있는데, 다시 앉으라 그러더니 뭘 하나를 이렇게 책상에 툭 던져 줘서 보니까 그 편지인 거야. 그때는 가슴이 철렁할 정도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 걸로 인해서 좀 심하게 고통도 당하고, 3일 동안 잠 안 재우는 고문도 당하고, 좀 많이 맞고 그래서 지금도 그 사람 생각이 나요. 아주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지금까지 얼굴이랑 이름이 생각나고. 계급장이 노란 밥풀때기, 준위였었고. “내가 광주 사태 진압을 하러 내려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회자** 그리고 어머니가 먼저 구속되셨잖아요. 신순애 선생님도 그 상황에 대해서 기억나는 거 있으면 같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순애** 그 전에 제가 77년도 9·9 사건으로 감옥 갔다가 나와서 보니까 노동 교실이 없어져서, 9·9 사건 나기 전의 분위기하고 너무 달라졌어요. 우리가 말하는……, 그래도 조금 의식이 있는 조합원들이라고 그럴까, 그런 조합원이 거의 없는 거예요. 임현재 선배님이 부녀부장을 하라고 해서 어쨌든 상근을 하긴 했는데, 조합원들 저녁에 만나는 장소가 중국 집이에요. 그 돈도 만만치도 않고. 우리 지부장님한테는 그 당시에 비밀로 했습니다. (웃음) 왜냐하면 그런 것도 새 나가면 골치 아프니까. 그래서 제 사비로 충당했어요.

제가 창신역 1번 출구 약 300m 정도 되는 데서 쪽방 하나를 얻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매일 모임을 하는 거예요. 매일 모임을 하는데, 그 당시 최

한배 선생님이 저보고 뭐라 그러냐면 “일주일 내내 그렇게 사람을 만나면 에너지가 떨어진다”고. 일주일에 한 번은 쉬라는 거야. 쉬는데 그냥 쉬지 말고 자기랑 같이 쉬자 그래서 최한배 선생님, 나, 서재덕, 김한영. 영대 씨가 아는 김한영 말고 또 있었어요. 선주랑. 이렇게 다섯이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났어요. 하루는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야, 우리 노동 교실도 없으니까 새로 시작하는 의미로 한글 공부부터 시작하자”고 했어요.

제가 66년도에 평화시장 들어가니까 일감이 그 당시에는 스몰(S), 라지(L), 미디움(M), 엑스라지(XL), 투엑스라지(XXL) 이렇게 있어요. 다른 거는 뭐, XL는 니은 자가 있으니까 표시가 나는데, 이 M자를 옆에 있는 1번 시다가 계속 잘못 자르는 거야. 옷이 10장이면 라벨을 10장을 주는데, 잘못 자르면 그게 더블유(W)가 되잖아요. 그래서 맨날 혼나는 거야. 가서 라벨 더 받아 오라 그러면, 애는 가서 또 야단맞고. 그래서 하루는 내가 “야, 1번 시다. 너 왜 자꾸 라벨을 잘못 잘라?” 그러니까 “야, 7번 시다. 내가 한글도 모르는데 영어를 어떻게 알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올 때 ‘제발 M자 일감만 받지 않길’ 하고 기도를 하면서 온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게 얼마나 많았는지 몰랐는데, 나중에 노조를 하고 보니까 그런 애들이 많았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글 공부를 하자고 그랬어요. 그런데 공고 내기도 전에 이미 7명이 나한테 접수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선생을 소개해 줄까 하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애들이 별로 좋아하지를 않아요. “언제부터 할 거예요, 언니?” 하고 물어봐서 “기다려 봐. 어떤 선생님이 좋은지 고민하고 있어.” 그랬더니 애네들이 시큰둥해. 재네들이 왜 그럴까 했더니 자기가 한글을 모른다는 사실이 남에게 알려지는 게 자존심이 상하는 거야. 그래서 “좋다. 그럼 나하고 하자.” 느낌으로 딱 알고 제가 시작했거든요.

얘기가 약간 엇나갔는데, 그러면서 제가 노조 간부를 하기까지 계속 저한테 압력과 회유가 들어왔어요. 어떤 회유가 들어왔냐면 “신순애, 너 말

도 잘하는데 새마을 교육원에 가서 새마을 지도자 교육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장기표 씨 재판을 가서 새마을 교육이 잘못됐다는 건 알고 있었거든요. 내가 그 교육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버텼더니 결국은 우리 집주인한테 압력을 넣은 거야. 집주인이 무서우니까 “당신 딸이 간첩이라는데, 우리 집에서 나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소선 어머니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야, 그러면 너 쌍문동 208번지 우리 집으로 신고를 해.” 그래요. 대한민국에서 위장 전입자 1호가 저일 거예요. 78년도에 위장 전입을 했으니까. 지금도 서류 떼니까 나오더라고요, 쌍문동 208번지. 그래서 어머니하고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었어요.

또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그때 최선을 다해서 노조 활동을 하니까, 어머니는 어떻게 해서든지 신순애를 음으로 양으로 보조해 줘야 한다는 그런 어떤 것도 있었을 것 같고. 이소선 어머니가 야단을 잘 치는데, 저는 한 번도 야단맞아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어머니가 잡혀가시니까 저는 너무 기가 막혔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죽기 살기로 싸웠던 거 같아요. 전태일 씨가 죽을 때도 그 당시 내가 있었으면 저분이 죽지 않았을 건데 하는 자괴감이 있었는데, 어머니만큼은 우리 손으로 지켜야 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선배님하고 기억이 조금씩 다른데, 제 기억에는 임현재 선배님이 나갔다가 들어오더니 “할 수 없다. 다 가서 조사받고 오자.”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나갔더니 차 하나에 한 사람씩 타는데, 운전사랑 제 양쪽에 해서 딱 4명. 타자마자 눈을 안대로 가려서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고. 하여튼 합수에 끌려갔는데 “너 여기서 나가라”고 그래도 못 나갈 거 같더라고요. 문을 서른 개는 더 지난 거 같아요. 여기 지나면 또 문, 저기 지나면 또 문. 그래서 저는 지금도 문소리에 굉장히 트라우마가 있어요. 들어가니까 일단 야전 침대 하나 있고요, 책상 하나 있고, 내복 한 벌 있고, 담요 하나가

있더라고요. 조사관이 하는 말이 이래. “야, 신순애. 그래도 우리 군인들이 경찰보다 낫지? 경찰은 웃도 안 줬잖아. 우리는 내복도 준다.” 그래서 속으로 ‘세금 갖고 했을 거면서 어지간히 생색내네.’ (웃음) 제가 책에도 썼는데, 그분이 나보고 데모를 183번인가 몇 번 했대요. 저는 그렇게 많이 한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그분이 “그렇게 많이 했으니까 다 적어라.” 그러면서 종이 뭉치를 탁 던져 주더라고요.

사회자 모든 활동했던 걸 다 쓰라 이거지.

신순애 네. 근데 쓰는 것도 자신이 없었지만, 그 순간 기도를 했어요. ‘최소한 나 때문에 다른 조합원이 여기 오는 건 막자.’ 부처님, 하나님 다 찾았더니 문득 생각나는 게, 그렇게 두들겨 맞고 못 쓴다고 버티다가 나중에 생각난 게, “나 한글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또 때리더라고요. “야, 한글도 모르는 X이 무슨 노조 활동을 하나?”고. 그래서 “아니, 나 활동한 적 없다. 배고파서 월급 올려달라고 한 것뿐이 없다”고. 그래 가지고 맞기도 많이 맞았어요.

저는 백열등을 아래에 꽂아놓더라고요. 그러니까 위에서 쬔다는 게 아니라 얼굴 밑에서 쬔어서 그냥 보고만 있어도 눈물이 줄줄 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제일 힘들었구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성 고문 사건이 유행할 때라, 그 안에서 내가 성 고문당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 이런 것 때문에 늘 배로 긴장하고 있었는데, “너 거짓말하면 죽여 버린다”고. 그래서 그 순간에는 ‘차라리 얼른 죽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했어요.

근데 나갔다 오더니 내가 초등학교 졸업장이 없다는 걸 알았나 봐요. 또 때리더라고요. “이 쌍X이.”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이렇게 사람 같지도 않은 애를 뭘 어떻게 하라고 저러는지…….” 우리보고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한테 하는 말이 “너 여기서 거짓말했다가는 죽어. 네 목숨은 개미

목숨보다 못하다”고. 근데 마주 앉아서 있는데 글씨가 보이잖아요. “제가 그렇게 말 안 했는데요.” 이러면 또 때리고. “이 쌍X아. 글 모른다며.” 그래서 “읽을 줄은 알아요.” (웃음) 그래서 제가 합수에서 글씨를 하나도 안 쓰고 버텼어요. 물론 맞기는 했지만. 제가 한홍구 선생님 수업에 가서 이런 얘기 하면 한홍구 교수님이 “합수에 가면 볼펜 두 다스는 닳아야 나온다는 데…….” 나보고 대단하다고 해요. 그래서 맞기는 많이 맞았어요.

사회자 김영대 조합원께서는 당시에 연행되거나 그러지는 않았었나요.

김영대 저는 조합원이었으니까 그러지는 않았고…….

사회자 어머니 구속되고 그랬을 때 재판 방청 같은 것도 안 가시고?

김영대 그때 저는 어머니도 잘 몰랐을 때죠.

사회자 어머니 구속된 게 사유가 정확하게 뭔가요?

신순애 첫 번째는 법정모욕죄. 장기표 재판에서 소란 피웠다고.

사회자 그거는 옛날 아니에요?

신순애 77년.

사회자 그러니까, 80년 7월 16일에 검거되자마자 구속됐던 이유

는 뭔지.

신순애 계엄법이었나?

김영대 사복 간 것 가지고 그랬던 거 아닌가?

신순애 그랬을 거예요. 아, 제3자.

박재익 제3자 개입.

신순애 맞아. 제3자 개입<sup>4)</sup>.

김영대 그때 가서 인터뷰도 하고 막 이랬던 것 때문에.

신순애 연설하고 그래 가지고. 예. 맞아요.

김영대 그때 어머니 연설하는 게 신문에도 나고 그랬어.

신순애 맞아. 그래서 보통 군법 회의인가 뭐 그리로 넘겨졌죠.

---

4) 과거 노동 쟁의 조정법과 노동조합법에는 '제3자 개입 금지'라는 조항이 있었다. 쟁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쟁의 행위에 조종·선동·방해 또는 개입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었는데,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활동을 제약하는 대표적인 노동 악법으로 비판받았다. 1997년 노동조합 관계 법령이 개정되면서 삭제되었으나, 여전히 개입 조건을 엄격히 제한하였다. 이에 2006년 말이 되어서야 제3자 개입 금지 조항이 완전히 삭제되었다고 평가받는다.

### 3. 청계피복노조 강제 해산

사회자 60년대 박정희 정권에서는 산별 노조 체제를 만들어서 산별 중앙을 통제하는 걸로 법체계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신군부 들어와서는 당시에 민주화 운동을 뒤에서 지지하던 산업 선교회라든가, 지오세(J.O.C)라든가, 학생 운동 같은 불순 세력들이 뒤에서 지원하는 것들이 민주 노조가 된다면서 노조 체계를 기업별 노조 체계로 완전히 바꿔 버렸어요. 그러면서 청계노조는 자연스럽게 해산 대상이 돼 버린 거야. 법 자체를 기업별 노조 체계로 완전히 바꿔서 각개격파 하는 식으로 체계를 바꾸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청계노조는 81년 1월에 해산 명령을 받게 되고, 다른 민주 노조들의 경우 원풍이 제일 뒤에 해산되고, 그 이전에는 나머지 노조들도 다 해산 명령을 받았던가요?

신순애 제일 처음이 청계고요. 맨 마지막이 원풍이야.

사회자 아, 그랬었나요.

신순애 차례대로 했어요, 차례대로.

임현재 콘트롤데이타도 해산되고.

박재익 콘트롤데이타도 해산되고 그랬는데.

김영대 그때 뭐 반도, 콘트롤, 원풍.

사회자 원풍이 제일 마지막이고. 원풍이 제일 셉으니까.

신순애 청계가 제일 첫 번째고.

사회자 다른 데는 노조를 깨는 식으로 했는데, 기업별 노조 체계로 바꿔 버리면서 청계는 해산 명령을 내리죠. 청계노조가 청계천 전체 상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합 노조, 말하자면 지역 일반 노조 같은 거잖아요.

김영대 해산되고 나서 기업별 노조 체계로 제도가 바뀌었잖아요. 그때 신인령 교수가 법학을 했었기 때문에 한 번 불러서 강의를 들은 적 있어요. 그때 논쟁이 됐던 게, 우리가 기업별 노조라도 만들 거냐. 그리고 연합 단체를 만들 거냐. 그거는 합법이에요. 근데 그때 신인령 교수가 얘기한 게 “불법이라는 건 없다. 법외 노조가 있을 뿐이다” 해서 법외 노조로 가자는 게 정립이 된 거죠. 그건 나중에 나올 얘기들인데, 일단 그렇습니다.

사회자 그거는 저도 자료를 한번 더 뒤져 봐야 될 것 같아요. 청계노조가 제일 먼저 해산됐나요? 저는 중간쯤이라고 생각했는데. 나머지 노조들은 간부들 정화 조치 시키고 이러면서 노조 파괴 공작으로 나왔고. 민주노조 중에서 노조 해산 조치로 나온 건 아마 청계노조가 유일할 거예요.

박재익 아까 지부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당시 합수에 갔다가 나온 사람들 대다수는 삼청교육대를 갔거든요. 근데 저희는 삼청교육대를 안 갔어요. 저희가 나올 때 ‘노동 조합 해산하는 데 협조한다’는 각서를 쓰고 나왔었거든요.

사회자 아, 미리 각서를 썼어요?

박재익 예. 그때 이미 얘기를 했었어요. 해산한다, 협조한다, 각서

쓰고 나왔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산시키기 위한 수순이었던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였죠.

사회자 예. 노조 해산에 대해서는 또 말씀하실 게 있으실까요.

임현재 해산될 때는 끌려가서 조사받은 거. 그 외에는 ‘채네들이 그냥 하는 말이겠지. 정말 해산까지 하겠어?’ 했던 거.

사회자 끌려가서 사인까지 하셨다면 그 정도로 좀 순진하셨네? (웃음)

임현재 아니, 나는 사인을 한 기억이 없는데. 내가 잊어버렸는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없고.

신순애 아니야, 선배님은 지부장이어서 봐준 거 같애. 나처럼 쫓따구나 들입다 때리고 난리 쳤지. 그래도 선배님은 지부장이어서. (웃음)

임현재 그리고 사실 나는 관이나 기관 이런 거 대하는 태도가 조금 달라. 나는 겁먹어서 막 그러진 않지만, 또 그렇다고 쓸데없는 거 가지고 개들하고 싸움 안 하거든. “그냥 이렇게 해.” 그러면 “알겠어요.” 그렇게 순응하는 편이었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결판내는 것도 아닌데 내가 너하고 싸울 일이 뭐 있어. 너도 시켜서 하는 일인데.’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말았지.

사회자 나와서 다시 또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나왔네요.

임현재 예. 내 하고 싶은 대로.

사회자 근데 바로 해산 명령이 내려졌잖아요.

임현재 한편으로는 해산 명령이 내려와도 그냥 ‘너희들이 해산시킨다고 그러더라도 우리는 그냥 하면 되지. 그럼 뭐 어떡할 건데?’ 그런 배짱이 있었죠. 정작 사무실을 딱 폐쇄해 버리니까 실감이 나더라고요.

사회자 그렇지. 사무실까지 폐쇄를 해 버렸잖아요.

임현재 그때는 실감도 나고. 또 ‘저항하기 위해서 조합원들을 동원한다, 모은다면 과연 얼마나 올까?’ 또 거기에 ‘우리가 정말로 이길 힘은 있어?’ 이런 현실적인 질의응답을 계속하게 됐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연합 노조를 통해서 지시 오는 거, 이틀테면 ‘청산위원회 구성해서 청산하라’ 뭐 이런 것들 받아들여서 하고. 그러다가 정작 우리가 사무실도 없고, 갈 데도 없고, 그렇게 돼서 이제 어떻게 저항을 할 것이냐 하는 논의는 우리 간부들끼리 했잖아.

또 나하고 직접 통하지는 않지만 조합원들 의사가 나한테 전달이 되고, 내 의사가 조합원들한테 전달이 되고. 그렇게 해서 “그러면은 아프리가 어때?” 하면서 농성을 하는 것까지도 우리 같이 처음에는 검토하다가, “아무래도 그거보다는 길게 싸워야지. 지금 당장 해 봐야 바로 깨질 걸.” 그렇게 논의하는데, 이제 우리한테 전달돼 오는 메시지가 “어차피 형들은 못 할 거니까 우리가 할게. 형들은 모른 채하고 있어.” 이렇게 됐었지. 그래서 아프리로 간다는 것도 다 알고, 몇 시에 간다는 것도 다 알고,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 거지. ‘그쪽에서 깨졌다는 소식이 언제 올까…….’ 그랬더니 얼마 안 가서 그냥 연락 오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택시 타고 갔지.

사회자 조금 이따가 아프리<sup>5)</sup> 사건을 다시 얘기하고요. 노조 해산 명령서 내리고, 사무실도 폐쇄하고, 사무실에 관련된 권리나 이런 모든 것도 일방적으로 뺏어가 버린 거예요?

임현재 사무실도 회사 거니까.

사회자 단협에 의해서 한 거니까.

임현재 집기는 중구청에다 보관해 놓고.

사회자 돌려주지는 않아요?

임현재 돌려주지도 않고. 나중에 찾아서 뭐 할 건지도 애매하고.

김영대 제가 나중에 찾았습니다. 보상까지 받았습니다.

신순애 진짜요? 보상받아서 뭐 하셨어?

박재익 서류까지 다 있었어요?

사회자 87년 민주화된 다음에?

김영대 제가 위원장 된 뒤에.

---

5) 1981.1.30. 아프리(아시아 아메리카 자유 노동 기구) 한국사무소 점거 농성 사건.

사회자      합법화되고 난 다음이네요.

김영대      계속해서 내놓으라고 했죠.

신순애      그걸 찾아서 어떡하셨어요?

김영대      돈으로 받았어요.

신순애      아니, 그 조합원 명부는 중요하잖아. 제 기억하고 회의록을 보면 우리 조합원들이 약 8,800명 정도 됐거든요.

박재익      서류하고 이런 건 없었어요?

김영대      그런 건 다 없어지고, 집기 같은 건 돈으로 받았어요. 명세서가 있었어요. 책상 같은 거 목록 이런 게 있었는데, “이거 이미 없어졌다.” 이거야. “너네가 불법으로 가져간 거니까 잘 보관해 뒀다가 줘야지. 내놔라.” 하니까 우리에게 돈으로 청구하라는데, “아니, 너네가 계산해서 보상해라.” 했어요. 하여튼 그때 대충 천만 원이 안 되게 받았습시다. 그걸 받고 싶더라고 나는. (웃음) 정상화된 뒤에, 합법성 쟁취한 뒤의 얘기입니다.

신순애      잘하셨어.

사회자      사실 제일 중요한 게 관련된 서류나 이런 건데, 설마 이렇게 사무실까지 폐쇄할 줄은 몰라 가지고 미리 치워놓고 그러지는 않았네요?



신순애

신순애 만약에 그런 기미를 우리가 느꼈다 그러면 어디다 빼 놔  
줬죠.

박재익 그렇죠. 중요 서류라 생각되는 건 다 돌려 놔있겠죠. 전혀  
생각을 안 했었으니까. 당시에 우리가 해산되기까지의 기간이 굉장히 짧  
았어요. 일주일도 안 됐을 거예요. 우리가 합수 갔다 나온 게 12월 25일인  
가 26일경에 나왔거든요. 그리고 그다음 달에.

사회자 1월 6일.

박재익 1월 6일이니까 한 열흘 정도밖에 없었다구요.

사회자 해산 명령서 내리고 난 다음에 사무실 폐쇄는 1월 21일 이  
때예요. 지금 얘기 들어보면 약간 순진하셨던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80년 서울의 봄 그때 전국으로 비상계엄 내리고, 김대중 씨 등등 민주화  
운동 하는 사람 잡아다가 내란 음모죄로 구속시키고, 광주에서는 엄청나  
게 피에 젖은 살인도 일어나고. 그러니까 순서대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학  
생들도 엄청나게 끌려가고, 그다음에 노조 파괴하고. 그게 61년 5·16 쿠데  
타 때도 민주화 운동 했던 사람들, 통일 운동 했던 사람들, 그다음에 노조  
파괴, 깡패들도 처벌한다는 식으로 사회 정화 위원회 만들고 그런 것들이  
똑같은 순서였거든요.

박재익 합수부 있을 때 저희 방에는 소위 얘기하는 깡패들, 이런  
사람들이 같이 들어와 있고 그랬었는데요.

사회자 그렇죠. 합수부에서 소위 정화 대상자들 옆에 있고.

신순애 제가 77년도에 감옥에 갔는데 제일 억울했던 건 뭐냐면,  
교도관이 “야, 신순애. 너 누구 대신 왔어?” 이러는 거야. 나는 분명히 투쟁  
하고 경찰서 가서 얻어맞고 왔는데. 너는 얼굴이 생긴 게 절대 투쟁할 애  
가 아니라는 거야. (웃음)

사회자 기본적으로 애네들 생각은 다 뒤에서 배후 조종하는 애  
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애들이지. 주체적인 노동자라고 생각하지를 않는  
거지.

신순애 그러니까요. 재판받고 오면서 또 “야, 너네는 왜 이렇게  
말을 잘하냐?” 그래서 속으로 ‘아니, 우리 일인데 그 말도 못 하면 어째.’  
했죠. (웃음)

#### 4. 아프리 한국사무소 점거 농성

사회자 노조 해산 명령이 내려지고, 1월 21일에 노조 사무실까지  
폐쇄가 됩니다. 자연히 이에 항거해서 투쟁을 논의하게 되고, 그러면서 아  
프리 농성 투쟁을 전개하게 되는데요. 아까 임현재 지부장님이 말씀하셨  
듯이 젊은 친구들 중심으로 하자, 이렇게 논의가 시작된 것 같아요. 누가  
주도해서 했는지 그 논의 과정을 말씀해 주십시오. 신순애 선생님 집에서  
주로 모였다면서요?

신순애 네. 저희 집에서 세 번 모였어요. 당시 황만호, 서재덕, 신  
광용이 모였어요.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 혼자 살았으니까. 모의할  
데가 없으니까. 노조 사무실도 없고. 어쨌든 저희 집에서 논의할 때 아프



리로 결정하게 된 동기가 뭐냐면, 국내는 어디서 데모해도 언론에 나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사실은 언론을 타기 위해서 아프리라는 곳을 택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고 나름대로 머리 쓴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금방 끝나 버렸으니까.

저는 저희 집에서 세 번 만날 때 “내가 만나기는 하는데, 나는 더 이상 못하겠다.” 솔직하게 고백해서 황만호 그 친구가 “그럼 이번엔 누나 빠져. 우리끼리 할 테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장소만 빌려주는 걸로 했었죠. 그때는 제가 집행 유예 기간이어 가지고 주변에서 “너는 이번에 도망가 있어라. 안 그러면 너는 감옥에서 너무 오래 살 것 같다.” 그랬죠. 그래도 나중에 주동자로 돼 있다고 전국 수배가 내려져서 저는 좀 도망 댕겼죠.

**박재익** 이거 토의할 때 “최소한 한 일주일 정도는 갈 수 있을 거다. 그러니 언론 플레이를 하자”는 의미로 아프리를 선택했고, 그다음에 파트를 나눴죠. 일단은 점거 농성조,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갔을 때 뒤에서 서포트 할 수 있는 지원조로 이렇게 나눴어요. 처음에 민중덕 씨랑 황만호 씨 등 일부 사람들이 점거조로 들어갔고, 저하고 신순애 동지하고는 지원조로 남아 있었는데, 바로 진압되는 바람에 길게 갈 것도 없이 그냥 강제 해산이 돼 버렸던 거죠.

**사회자** 김영대 조합원께서는 준비 과정에 열심히 참여했다면 서요?

**김영대** 저는 당시 신순애 부녀부장님은 알기는 했지만 뭐 자세히는 몰랐고.

**신순애** 서로 인사는 겨우 할 정도였죠.

**김영대** 예, 그런 정도였고. 당시 저는 나름대로 팔팔한 조합원으로서 조합에도 약간 비판의식이 하나가 있었어요. 80년 임금 인상 투쟁을 저도 참여해서 끝냈고, 현장에 다시 들어가서 있는데, 그 뒤에 서울의 봄이라 그래서 서울역 시위, 그다음에 광주 항쟁이 일어났죠. 이때 당시 광주 항쟁에 대한 후속 시위에 조합원들 하고 여러 번 참여한 적이 있어요.

**신순애** 동국대 하고 주로 많이 했죠.

**김영대** 예. 그때 누구랑 참여했냐는 모르겠고, 조합원이 다수가 참여는 했는데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요. 어쨌든 어우러져서 갔으니까. 그리고 나서 노조 활동을 하고 있는 속에서 청계노조가 한 축으로는 야학이라는 게 있었고, 그다음에 문화팀이라는 게 있습니다. 소위 탈반 또는 풍물반. 이렇게 형성돼서 하고 있었어요. 그때는 연세대 탈춤반 이런 것도 있었고, 지금은 많이 알려진 연성수, 류이인렬 이런 분들이 와서 문화 활동을 도와주기도 했어요. 야학 쪽은 형제교회, 제일교회, 당시 김승훈 신부가 있던 동대문성당. 그리고 형제교회는 김동환 목사, 제일교회는 박형규 목사. 그 외에도 연동교회, 초원교회.

**사회자** 경동교회도 있었고.

**김영대** 동대문에 있는 제일교회라고 있습니다.

**박재익** 충현교회.

**김영대** 그래서 저희가 한 일곱 군데의 야학생들을 관리하고 그랬을 때예요. 학생 모집할 때 넣어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와중에 저랑 노

조 집행부랑 조금 부딪혔던 일이 있는데, 중부시장에 사무소를 개설했었어요. 중부 사무소라고 해서 열어놓고 쓰지를 않았었는데, 탈춤반이 연습할 데가 없어서 그걸 좀 빌려달라고 그랬더니 집행부가 안 빌려줬어요.

신순애 중부 사무소는 전태삼 씨 담당이었어요. (웃음)

김영대 그때 당시만 해도 소통이 좀 잘 안될 때죠. 안 빌려주길래 매주 목요일 모이는 날이면 저희가 몰래 창문을 열고, 거기 담 넘어가서 연습하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것도 집행부가 알게 됐는지 “너네 왜 허락도 없이 거기 가서 쓰냐?” 이렇게 해서 부딪혔어요.

신순애 나는 그런 얘기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네.

김영대 그게 저희가 집행부를 약간 불신하게 된 계기예요.

박재익 그거는 아프리 이후잖아?

신순애 아니지. 아프리 전 얘기야 지금.

김영대 아프리 전 이야기입니다.

박재익 전 얘기에요?

김영대 예. 왜냐면 사무소가 있었으니까.

신순애 거기는 전태삼 씨가 담당인데, 이제 제대로 보고를 안 한

거지. 경동교회는 내 담당. 충현교회는 박재익 담당.

사회자 나름대로 집행부 내에서 역할 분담을 했었네요.

신순애 그럼요.

김영대 저희가 볼 때는 ‘저거는 집행부 반대파들이 하는 활동이다.’ 이렇게 집행부에서 생각하신 거 같애. 우리는 순수하게 했던 건데. 그 때 같이 활동을 했던 탈반 사람들, 그다음에 초원교회, 형제교회, 제일교회 야학했던 사람들이 아프리 때 참여하게 됩니다.

신순애 경동교회에서 했던 동화 모임이 제일 많이 참석했어요. 서재덕, 황만호, 김준용 다 동화 모임이에요.

김영대 근데 아프리 때는 안 왔죠.

신순애 아프리 때 안 왔어요?

김영대 예. 그분들이 안 왔습니다. 어쨌든 핵심은 이 집행부랑 좀 거리가 있으면서 뭔가를 해 보려고 했던 그룹들이.

사회자 젊은 그룹들이.

김영대 아프리에 참여하게 돼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때 그런 장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활동하게 안 해 주냐는 불만.

사회자      왜 허용을 안 해 주냐.

김영대      또 하나는 퇴근 시간에 갔을 때 사무소 문이 닫혀 있어서 “아니, 누구라도 당직을 남겨 놓고 가야지. 이게 말이 되냐?” 그러면은 “집행부도 8시간 근로 시간을 준수하기 위해 그런 거다.” 저희가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가지고 비판을 저희쪽에다 하는 거예요. 그런 부딪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신순애 씨 집에서 하는 모임의 연장인지는 몰라도, 그 뒤에 신광용, 황만호, 민종덕, 저하고 4명이 아프리 점거 사건에 대해서 “집행부가 이런 계획이 있는데 안 할 것 같다”고 봤어요. 그때 당시는 집행부라고 들었어요.

신순애      근데 그 당시에 민종덕 씨도 집행부 아니었나?

김영대      아니, 민종덕은 집행부에서 들은 얘기를 갖고 온 거죠.

박재익      아니, 그때는 집행부 아니었었어요.

신순애      아니었어?

임현재      집행부였지.

박재익      아, 집행부였구나. 맞다 맞다.

사회자      집행부였으니까 그 계획을 듣고서 이야기했겠네요.

김영대      어쨌든 “집행부가 안 할 것 같으니 우리라도 결행하자”라

고 해서 한두 차례 모임을 가졌는데, 그때 제 판단으로는 이 사람들도 잘 안 할 거 같애.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장명국 씨와 같이 모임을 하고 공부할 때였는데, 만나서 “야, 이렇게 하는데 결행이 실제로는 안 될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장명국 씨가 제안한 게 뭐냐면, 김근태 씨가 그때 인천산선<sup>6)</sup>에 있을 때인데, “그럼 김근태 씨에게 가서 한번 상의해 보라. 아마 그런 정도 비중 있는 사람하고 같이 논의하면 실천을 안 할 수가 없을 거다”라고 조언을 해 줘서 제가 인천을 내려갑니다.

인천산선의 간사였던 김근태를 만나서 상의하니까, 그러면 자기가 그 논의에 참여를 한 번 하겠다 해서 계림극장 옆의 무슨 중국집인가에서 만나서 도원의 결의를 합니다. 민종덕, 황만호, 나, 신광용, 그리고 김근태 이렇게 해서 그날 날짜 정하고. 최종 점검하는 날 그때 당시로는 참여한다는 사람이 한 50명이 됐었어요.

사회자      최종 점검 했을 때.

김영대      예, 점검할 때. 그리고 나서 결행하는 날에 시구문 쪽으로, 지금 광희문이죠, 가는 쪽에 돌체 다방이 있었는데 거기서 모이는 거였어요. 모인 다음 건너와서 버스를 타고 서초동으로 가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때 모인 인원이 24~5명밖에 안 됐습니다.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저희는 약속대로 다 데리고 왔고 1명이 안 왔어요. 온 게 13명인가 12명인가 돼요. 제가 동원한 게 딱 절반이더라고요. 원래 50명이었는데 절반으로 줄었으니까 이걸 하느냐 마느냐 현장에서 논쟁이 있었어요. 그래도 할 거냐 말 거냐. 서로 점검했을 때 50명이었는데 왜 절반으로 줄었냐 이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모였으니까 결행하자.” 해서 버스를 타고 서초

---

6) 인천도시산업선교회.

동으로 가게 됩니다. 원래는 파라디노 씨<sup>7)</sup>가 공항에서 내려서 오기로 돼 있었잖아요.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고. 그때는 거기를 점거한 게 아니고 면담 요청하면서 앉아 있었던 거죠. 그랬더니 파라디노 씨는 안 오고, 결국은 조지 커틴인가요?

사회자      한국사무소 소장.

김영대      한국사무소 소장만 온 거예요. 오는 순간 저희가 온 목적 이야기하고, 성명서 낭독했어요. 거기서 그러니까 ‘어? 이거 이놈들이 그냥 온 게 아니구나’ 하는 느낌을 받아서 그 사람이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때 신광용하고 제가 붙잡았는데, 힘이 얼마나 좋은지. 키도 크고 하니까 둘이 잡았는데도 우리가 끌려 나가는 거야. 그때 신광용이가 재단 칼을 가지고 왔어요. 길게 된 거 있잖아요. 그걸 딱 목에 대니까 할 수 없이 따라 들어오더라고. 그러더니 신광용이 옆에 지키면서 그걸 나보고 갖고 있으래. (웃음)

그리고 농성이 시작돼서 몇 시간을 못 버텼죠. 그러는 상황에서 제가 들고 있던 칼이 걸리면 곤란하겠다 싶었습니다. 재판과정에서도 조지 커틴이 나와서 칼을 누가 들고 있었냐를 따지는데, 몇 개월 지나니까 그 사람이 구분을 못 하는 거야. (웃음)

임현재      개들이 한국 놈 보면 다 똑같지.

김영대      구분을 못 하고 넘어갔어요. 중요한 건 증거물도 없었고. 그걸 제가 어디다 감췄냐면, 패종시계 같은 게 있어요. 그 위에다 이렇게

---

7) 당시 본부장 모리스 파라디노.

엮어 났어요. 그리고 서랍을 뒤지니까, 색종이 같은 거 자르는 가위 있잖습니까. 나중에 그걸로 바깥 들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못 찾고 그냥 넘어갔어요. 재판 과정에서도 재판장이 누구인지 지목하라는데도 못 하고. 아니, 지나갔으니까 알면서도 모른다고 한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임현재      그랬을 수 있어.

김영대      예. 그래서 저는 뒤에 알았지만, 그 당시 지부장과 이승철이 현장에 온 거야. 저희는 오지 않으리라고 생각했어요. 차라리 도망가는 게 낫지. 현장에 올 것 같지 않았었는데, 왔었죠. 그때 바로 연행되신 거죠?

사회자      와서 해산하라고 요청하고 바로 연행되신 거죠?

임현재      우리는 가서 “아무개야!” 불러서 “죽으면 안 된다. 다 알려줬고, 이제 그만해라. 됐다.” 이렇게 외쳤지.

김영대      그때 마지막에 저희가 계속 농성하면서 바닥에다 석유를 뿌리고, 실제로 붙이려고 불을 켜는데 안 붙더라고요. 몇 시간을 거기서 버텼으니까. 뿌려 놓은 지 한참 되었고.

사회자      신나가 다 날아갔네요.

김영대      소방대원이 와서 사다리차 대 놓고, 아예 소방 호스를 대 놓고 있었어요. 그리고 팡팡팡 계속 문을 두드리는데. 두드리면서 한 게 뭐

나면 벽의 반대쪽을 다 뜯은 거야. 그냥 땡땡땡 두드리면서 다 뜯고, 마지  
막에 석고보드 하나 남은 거잖아요.

임현재       혹 밀면 들어오겠네.

김영대       예. 그냥 한꺼번에 혹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다 연행이  
된 거죠. 저도 공개적인 자리에서 근태 형 얘기는 처음 하는 거예요.

사회자       그러네요. 김근태 씨가 뒤에 있다는 거는.

김영대       그때도 당연히 집행부의 입장을 이해는 했죠. 어려울 거  
고, 하자고 하는 저희 입장에서라도 그거는 바위에다 계란 치기라는 비판도  
스스로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역사적인 뭔가를 남겨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했던, ‘이대로 청계가 죽을 수는 없다.’ 이런 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현재 형 등은 그때 현장에는 없었으니까 집행 유예로 나갔  
던 거고, 저희는 실형 살고 나왔던 거잖습니까. 신광용하고 전태삼은 뛰어  
내리는 바람에. 전태삼은 그나마 밑에 뭐 침대에 뛰어내렸고, 신광용이 그  
냥 바닥에 뛰어내려 부상 당해서 입원 해 가지고 구속이 안 된 거죠. 이제  
간부였던 황만호가 좀 오래 살고요.

임현재       너도 오래 살았지. 1년?

김영대       아니요. 저는 이제 1년 6개월<sup>8)</sup>.

---

8) 아프리 사무실 점거 농성 이후, 김영대는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이듬해 3월  
3일 광복절 특사로 석방되어 실제 수감 기간은 14개월 정도에 해당했다.

신순애       근데 황만호가 그때 간부였어요?

박재익       회계 감사인가 그랬어.

김영대       그때 당시 뭔가 직책이 있었어요. 회계 감사인지. 하여튼  
비상근 간부를 했었습니다.<sup>9)</sup> 그래서 황만호, 태삼이 형 둘이 오래 살았어  
요. 그리고 나머지 세 사람이 살고 나왔고.

사회자       임현재 선배님도 징역을 선고받았다면서요?

임현재       처음에 1년 받았다가, 나중에 항소해서 10개월 받은 거야.  
만기 출소한 셈이야. 10개월이 넘어 버린 거지.

사회자       넘어 버린 상황이네요. 그때 「우리는 사대주의자인가」 하  
는 성명서는 누가 쓴 거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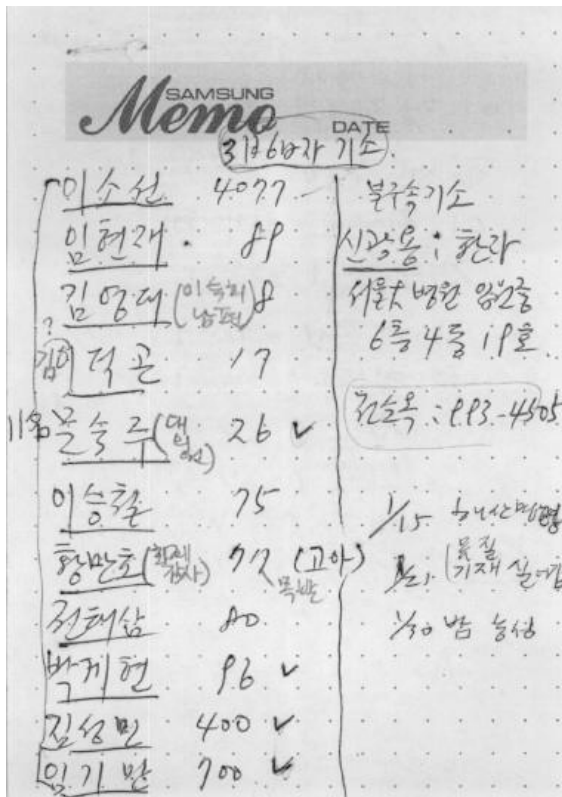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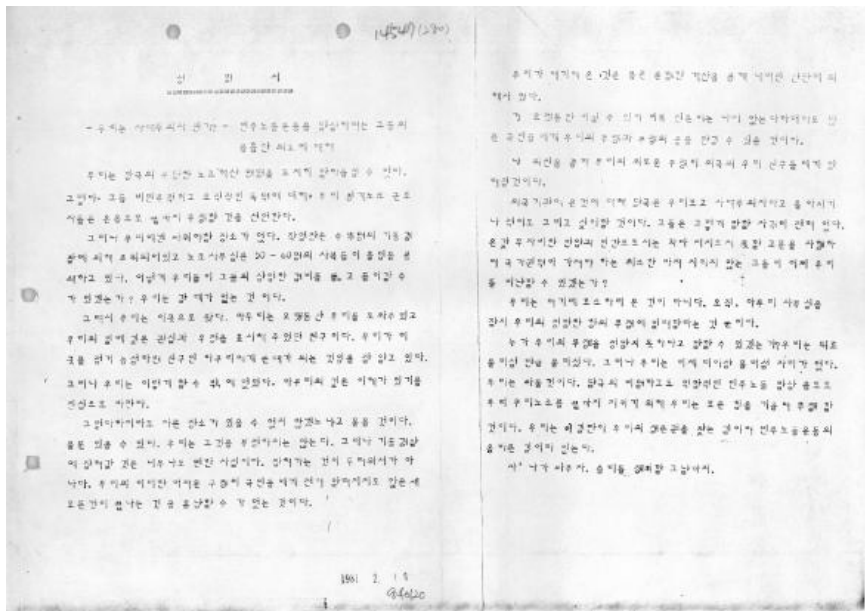
김영대       그건 종덕이 형이 쓴 거예요.

사회자       신순애, 박재익 두 분은 참여는 안 하고 옆에 있었다는 이  
유로 2년이나 수배 당하셨고 고생하는데요.

신순애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모의했다는 게 드러나니까 본의 아  
니게 제가 주동자가 됐죠.

---

9) 1979.06.20. 동화상가 회의실에서 개최된 제9차년도 정기 대의원 대회에서 회계 감  
사로 선출되었다. 이후, 1981년까지 회계 감사로 조직 내에서 활동하였다.



(위) 성명서 「우리는 사대주의자인가? 민주 노동 운동을 말할하려는 그들의 음흉한 의도에 대해」, 1981.02,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출처 :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민주화기념사업회 제공

(좌) 청계피복노조 강제 해산 명령에 항의하다가 구속·기소된 명단과 관련 메모, 1981, 전태일재단

사회자      애는 집을 제공하고, 자기는 짝 빠지고. 이런 나쁜……. 이렇게 됐을 거 같애. (웃음)

김영대      배후 조종자죠. (웃음)

신순애      아까 얘기한 이낙현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천안에 있는 자기 동생네 고물상에다가 나를 넣어 주더라고요.

박재익      당시에 저희 아버님이 중풍 걸려서 집에 있었는데, 같이 집에 잠깐 있었어요. 그때는 결혼하기 전이었는데. 그러니까 형사들이 이문동에 사는 큰 언니네 집으로 들이닥친 거야. 어디 있는지 소재를 모르니까.

신순애      내 주소가 쌍문동 208번지로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 사는지 모르는 거야.

박재익      큰 언니가 눈치가 빠르셨던 분이었는데, 잠깐 형사가 밖에 나간 사이에 상봉동에 사는 셋째 오빠한테 전화로 연락했어요. 그 셋째 오빠가 그날 저녁에 저희 집에서 저하고 소주 한 잔 먹고 갔었는데, 그 양반이 갑자기 11시 반인가 들이닥쳐서 “야, 큰일 났다.” 그러면서 이러이러한다더라 얘기를 해요.

사회자      튀어라.

박재익      예. 급박하게 들어서 그냥 웃도 제대로 못 입고. 그때 연립이었는데, 연립 정문으로 나가면 형사랑 맞닥뜨릴 거 같아 가지고 담을 넘었어요. 그때 낙찬이라고 낙현이 동생이 천안에서 고물상을 하고 있었어

요. 그래서 거기로 1차적으로 피신했죠. 거기서 고물도 좀 줌고 하면서 한 달 정도 있다가.

**신순애**      아니, 거기서 꽤 오래 있었어.

**박재익**      하여튼 한 달인가 좀 넘게 있다가, 성남시에다가 방을 조그마한 걸 얻어서 봉제 공장에 취직을 해요. 거기서도 한 6개월? 8개월 정도 있었나? 그러다 거기도 오래 못 있을 거 같아서 그다음부터는 강릉, 주문진, 이렇게 도피 생활을 했었죠. 한 1년 6개월 정도 그렇게 하고, 나중에 정리가 됐다고 해서 다시 동대문경찰서 가서 조사받고.

**사회자**      두 분은 그래도 무혐의 비슷하게 됐나요?

**박재익**      예. 무혐의로 해서 나온 거죠.

**사회자**      아프리 본부장 오는 건 어떻게 알았어요?

**김영대**      확인이 안 된 사실이긴 한데, 저희가 들은 거는 아프리가 한국 노동 사무소이지만 실제로는 한국의 노동 인권에 대한 감시 겸 한국에 있는 정보를 CIA에다 알려주는 기관이라고 얘기가 됐어요. 그런데 거기 본부장이 온다고 하고, 한국이 미국의 영향을 세계 받으니까 청계노조 해산에 대해서 항의를 하자.

당시가 또 전두환이 미국에 가 있을 때예요. 미국 방문해서 LA인가 어디인가 도착할 시점에 저희가 농성을 시작한 거거든요. 농성 딱 들어가서 보니까 뭐 우리가 예상한 장기전 이런 거는 게임도 안 되고. 서초동 그 넓은 거리가 전부 시퍼렇더라고, 군복으로. 그때는 경찰도 아니야, 군인. 전투복

인지 뭐 어쨌든 그걸 입고 전부 깔렸던 상황이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미국에서 파라디노 씨가 본부장으로서 오는 거니까 나름대로 비중 있는 사람 붙잡고 농성하면 해결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한 거죠.

**사회자**      원래 아프리가 청계노조에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좀 했던 건가요?

**임현재**      우리하고 사업을 많이 했죠. 70년 사건 나고 바로 우리한테 와 가지고 “우리가 뭘 좀 도와줬으면 좋겠냐?”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좀 하려고 한다 했더니 “우리한테 영사기 같은 거 있으니까 필요하다면 영화도 좀 들고.” 그렇게 하라고 해서 이스턴호텔 근처에 무슨 음식점 하나 있었는데, 거기서 조합원 교육도 몇 번 했어요.

**사회자**      그런 지원들이 쪽 있었던 거네요.

**임현재**      그거 가지고 외부도 좀 돌고 그랬었죠. 그런 인연으로 해서 나중에 노사 간 합동으로 노동 교실 처음에 만들었고, 함석헌 옹이 개소식에 오시는데.

**사회자**      예. 강사도 하셨고요.

**임현재**      그러는 바람에 관에서 사업주한테 “야, 이거 너네들이 맡아” 하는 바람에 뺏어가 버린 거지.

**사회자**      그래 가지고 9·9 투쟁이 있었죠.

**임현재** 원래는 동화상가에다가 노사 합동으로 노동 교실을 만들었는데, 그걸 사용주들이 점거하니까 아프리하고 우리하고 다시 ‘우리만의 교실을 가져야 되겠다.’ 했죠. 기자재는 먼저 쓰던 게 있으니까, 임대 보증금을 아프리에서 지원을 해 줘서, 거기 2층, 3층을 우리가 썼지.

**신순애** 4층까지 썼지. 우림빌딩.

**박재익** 2층, 3층, 4층.

**김영대** 그게 9·9 사건으로 없어진 거지. 아프리에서 지원했는데, 그 지원하는 걸 철회하니까 9·9 사건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사회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얘기를 간단히 하면은, 아프리는 아시아-아메리카 프리 레이버 인스티튜트(Asian-American Free Labor Institute)죠.

**임현재** 자유 노동 기구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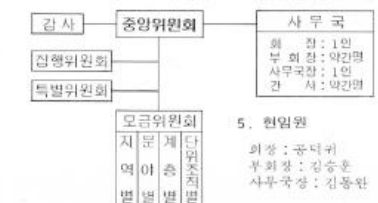
**사회자** 원래 세계 노총이 2차 대전 이후에 공산계랑 자유주의계를 다 같이 통합해서 있었다가, 좌익 계열이 너무 세니까 미국 노총이 따로 떨어져 나옵니다. 그리고 이후에 ICFTU라고 국제 자유 노련을 만들게 되고, 그다음에 미국 노동 조합 운동의 실용주의적이고 실리주의적인 운동을 전 세계에 지원한답시고 지역별로 만들었어요. 아시아는 아프리, 중남미도 또 비슷하게 하는 식으로.

**김영대** 소위 합리적 노동 운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구죠.

**사회자** 그런 식으로 만들고, 한국에는 한국사무소가 있었던 거죠.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노조 운동을 지원도 하고, 교육이나 이런 거 지원하는 그런 부분으로 돼 있었고. 그러면서 실제로 미국 노총의 돈뿐만 아니라, CIA에서도 조금 지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얘기들이 있었던 걸로 이해됩니다.

### 전태일 기념관 건립위원회 안내

- 목 적** : 전태일동지의 뜻을 거리고 이 나라 노동운동의 발전과 민주사회건설에 기여 할 수 있는 기념관을 건립하는데 있다.
- 조 직** : 지역(시·도 단위 또는 국외)별, 단위조직원, 분야별로 모금위원회를 조직하며 모금위원장은 중앙위원회의 대의원이 된다. 모금위는 회원 20명이 상으로 구성된다.
- 회 원** : 목적에 찬동하는 이는 모두 회원이 될수 있으나 참여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가. 일반회원 : 조정의 가입비와 월 1,000원의 회비 (3년간)  
나. 특별회원 : 조정의 가입비와 200,000 ~ 500,000원의 회비  
다. 종신회원 : 조정의 가입비와 5,000,000원 이상 한도 초과
- 기 구** : 가. 중앙위원회 : 각 모금위의 대의원으로 구성되는 최고 의결 회의  
나. 집행위원회 : 7~9명의 중앙위원으로 구성되는 집행의결 회의  
다. 특별위원회 : 특정과제를 수행하는 전문위원회  
라. 모금위원회 : 모금을 위한 단위조직



### 전 태 일 기념관을 건립합시다



### 전태일기념관건립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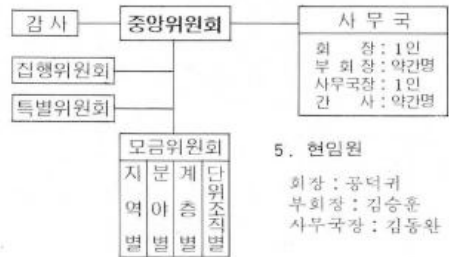
서울·동대문구 중년 2동 233-4  
동대문 전주교회 내  
전화 : 253-0239

전태일기념관을 건립합시다, 1982.01,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출처 :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민주화기념사업회 제공



## 전태일 기념관 건립위원회 안내

- 목 적** : 전태일동지의 뜻을 거리고 이 나라 노동운동의 발전과 민주사회건설에 기여 할 수 있는 기념관을 건립하는데 있다.
- 조 직** : 지역(시·도 단위 또는 국회)별, 단위조직별, 분야별로 모금위원회를 조직하며 모금위원장은 중앙위원회의 대의원이 된다. 모금위는 회원 20명이상으로 구성된다.
- 회 원** : 목적에 관동하는 이는 모두 회원이 될수 있으나 참여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 가. 일반회원 : 소정의 가입비와 월 1,000원의 회비 (3년간)
  - 나. 특별회원 : 소정의 가입비와 200,000 - 500,000원의 회비
  - 다. 종신회원 : 소정의 가입비와 5,000,000원 이상 찬조금
- 기 구** : 가. 중앙위원회 : 각 모금위의 대의원으로 구성되는 최고 의결회의  
 나. 집행위원회 : 7-9명의 중앙위원으로 구성되는 집행의결회의  
 다. 특별위원회 : 특정관계를 수행하는 전문위원회  
 라. 모금위원회 : 모금을 위한 단위조직



- 현임원**
  - 회장 : 공덕귀
  - 부회장 : 김승훈
  - 사무국장 : 김동환

전태일기념관을 건립합니다.  
 1982.01,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회  
 출처 :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회, 민주화기념사업회 제공

## 5. 전태일기념관 건립 추진 위원회 결성 및 활동

**사회자** 노조 해산이 되고, 이에 저항해서 사회적으로 알리고 노조 해산을 되돌리기 위한 아프리 투쟁까지 있었지만, 결국은 대규모 구속 사태로 결론이 나고, 이어서 노조를 다시 복구하기 이전에 전태일기념관 건립 추진 위원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초대 회장은 공덕귀 여사가 맡

게 되는데요. 전태일기념관을 건립하자는 아이디어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리고 누가 주동해서 추진이 되었는지,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자세히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재** 대다수 구속이 되고, 노동 조합도 없어져 버렸지만, 추도식은 해마다 돌아오는 거죠. 그동안 한 번도 거르지 않고 계속했던 추도식을 남아 있는 사람들과 지원 유관 단체하고 같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 이럴 게 아니라, 지금 노조를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면은 그래도 어떤 기념사업회라든지 뭐를 하나 준비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이 나왔죠. 저는 구속돼 있는 상태였고.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 하고, 우리 노조에, 또 전태일 정신에 우호적인 분들을 초빙해서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기념관을 건립하자. 이렇게 해서 준비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부녀부장을 했던 정인숙 동지가 간사 격으로 총괄을 맡고, “혹 불면 날아가지 않을 그런 울타리랄까 버팀목이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누구를 모실까 하다가 공덕귀 선생님을 추대해서 그렇게 진행했죠.

**신순애** 그러니까 그냥 어느 날 하루아침에 전태일기념관이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노동 교실은 반드시 필요한데 우리가 세를 얻으니까 계속 없어지고, 그래서 아예 우리 소유의 공간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아마 그 생각이 기념관으로 옮겨진 것 같고요. 외국에서도 지원을 좀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자** 예. 제가 알기로도 그렇습니다. 외국 기독교계나 이쪽에서 지원이 있었죠.

**신순애** 지원받고 이런 세부적인 사실은 어머니가 주로 하셨어요.

저희는 그저 약간 들은 걸로만 아는 거지.

**임현재** 그렇게 해서 세월이 흘러오는데, 우리는 이제 비상임이잖아. 우리도 다 사업하고 그러고 다니느라고 처음에는 주도식이 있을 때 정도만 참여하다가, 나중에 회의 기구가 만들어졌을 때 우리가 회의에 참여하는 그런 정도였는데. 그때 그 최혁배 씨가 연결해서 독일에 주소를 둔 단체, 그거 이름이 뭐더라?

**사회자** 인간의 대지<sup>10)</sup>.

**임현재** 그런 재단에 요청해서 거기서 기념관으로 얼마, 노조로 얼마. 그렇게 두 군데 지원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는 창신동에다가 한 칸짜리 자그마한 한옥 집을 하나 샀고.

**김영대** 그게 원래 노조입니다.

**임현재** 그게 노조고. 그리고 청계천 8가에 있는 상가 아파트.

**김영대** 나중에 노조 사무실로 쓰는 곳인데, 처음에는 거기가 기념사업회가 되죠.

**사회자** 원래는 이렇게 있다가 바뀌게 된 거네요.

**임현재** 그랬다가 나중에 노조가 없어져 버리니까 서의노<sup>11)</sup> 사무실로 그걸 한 때 썼지?

**사회자** 서의노는 청계노조 합법성을 얻고 난 다음에, 한참 나중에 이름을 바꾼 거고요.

**김영대** 어쨌든 청계천 8가는 전태일기념사업회로, 창신동에 있는 건 노조 사무실로, 그때 왔던 돈으로 사서 등기를 한 거고요. 저도 그때 6명인가 7명 되는 공동 등기자 중의 하나입니다. 기념사업회는 청계천 8가에 있는 사무실을 썼죠. 서로 명의를 다른데, 실제 사무실은 저쪽이 좋다 해서 서로 위치를.

**사회자** 맞바꾸게 된 거죠?

**김영대** 맞바꿨다기보다는 그냥 서로 바꿔서 쓴 거죠.

**임현재** 쓰기만 바꿔 쓴 거야. 어차피 소유는.

**김영대** 둘 다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임현재** 둘 다 전태일의 이름으로 온 거니까.

**김영대** 이쪽 명의자하고 저쪽 명의자가 거의 같았어요. (웃음)

---

10) '인간의 대지(Terre des Hommes)'는 생텍쥐페리(Antoine de Saint-Exupéry)의 소설 『인간의 대지』에서 따온 이름으로, 생텍쥐페리의 저작료로 설립된 독일의 재단이 다. 전 세계의 어린이 복지를 주로 돕는 활동을 전개한다.

---

11) 서울지역의류제조업노조.

**임현재**        명의자가 빠져나가면 세금 내고 이런 것들이 복잡해지는 이유 때문에, 하여튼 나중에는 어떻게 해 가지고 결국 전태일재단이 설립 되고, 그 재산들은 전태일재단으로 흡수된 거죠.

**사회자**        그렇게 된 거네요. 자료에 보면 원래 시작은 아프리 농성 구속자들 석방과 지원, 청계노조 재건을 위한 모임 장소 마련, 이게 주된 목표였다고 되어 있어요.

**김영대**        그때 당시 시대 상황으로 보면 그것도 맞는 얘기에요.

**사회자**        초기에 사무실을 얻기 전에.

**김영대**        기념사업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보다는 뭔가 모임 이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때만 해도 어려울 때니까, 저희가 한 달에 영치금으로 조직에서 받는 게 5,000원밖에 없었어요. 5,000원이면 같은 방에 있는 사람들 국수 한 그릇씩 사 주고 나면 땡이야. 나머지는 다 얻어먹는 거야. (웃음) 그때 국수가 500원인가 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한 7~8명 있는데 국수 한 그릇씩 사면 없었어요.

**임현재**        그때 구속자 숫자도 많았는데. 전태삼 동생 전순옥, 이승철 와이프 김수정, 그리고 지금 제 와이프 유정숙. 이 세 사람들이 걸인 행세를 많이 하고 다녔지.

**사회자**        걸인 행세를 했어요? (웃음)

**임현재**        종교 지도자들, 김수환 추기경도 만나고. 누구도 만나고.

또 손수건도 만들어서 팔고 어찌고 해 가지고 나름대로 옥바라지한다고 했는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받기는 새 밭의 피였구만.

**사회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구속돼 있던 상황이었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크게 했던 사업 중의 하나는 평전이 있었죠. 당시에는 『어느 청년 노동자의 삶과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조영래 변호사님이 만드신 평전이 전태일기념사업회 이름으로 출판되고, 그 수익을 기념사업회로 넘기는 걸로 됐던 것 같아요. 초기에는 사무실도 없이 있다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혁배 선배가 당시에는 NCC인권위원회에 있었던가 그래서 한국교회협의회 국제 사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지원을 끌어당길 수 있었던 거죠.

**김영대**        당시 아프리 사건은 광주 항쟁 이후에 거의 유일한 저항적 행동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북부 지원에 재판받으러 가는데, 가면 그 사거리에서부터 경찰들이 짹 깔려서 전체가 다 시커멓어요.

**임현재**        피고인도 많고. 방청객도 많고.

**사회자**        당시에 조합원들이 방청도 많이 가고 그랬어요?

**김영대**        방청도 가고, 소리치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 삼엄함의 정도가 어마어마했다 이거죠.

**박재익**        그래도 싸우긴 잘 싸웠어. 근데 되게 순진했어요. 엄청 순진했어. (웃음)

**사회자**        그럴 수밖에 없었던 시절이긴 하죠.

임현재      계엄하에서 그 정도면 용감한 거지.

사회자      청계노조가 일방적인 탄압에 의해서, 종이 쪼가리 하나에 의해서 그냥 이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용감하게 만천하에 알렸던 거 같아요.

임현재      그렇게 하면서 끊어질 듯, 끊어질 듯,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전태일의 사업은 그래도 확장이 되어 온 거고. 그래서 오늘날 전태일재단이 있다고 봐야 하지요.

김영대      그렇죠.

사회자      그렇죠. 전태일기념사업회가 현재 전태일재단의 전신이죠. 그렇게 해서 조금씩 힘을 모으고, 또 한편으로는 70년대에 야학이 있었던 것이 80년대는 더 크게 성장을 하고, 거기서 많은 의식화된 노동자들이 조금씩 성장하면서, 어떻게 보면 80년대 중반 이후의 합법성 쟁취 투쟁으로 이어지는 징검다리가 된 거였던 거 같아요.

## 6. 80년대 운동의 평가

김영대      제가 두 번째 구속됐다가 나왔을 때, 예비군 훈련 가면은 반공 교육이 그때도 되고 있었어요. 교육 내용의 중요 8개 용공 좌익 세력 단체 중에 청계노조가 들어갑니다. 민주화 직후인데도 그걸 틀고 있더라고. 그래서 거기서 제가 항의해서 그걸 중단시켰거든요. 불암산, 당고개 넘어가서 있는 예비군 훈련장 거기서, 그때는 6월 항쟁 직후였는데도 그걸



김영대

보여 주더라고. 8개 단체 중에 하나라면서 비취 주는데, 좌익 용공 세력 중에 하나가 청계노조예요. 옛날에 전민련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잖습니까. 그런 단체와 거의 대등하게 위치돼 있었고.

또 청계노조 출신들이 많았어요. 예를 들면, 하다못해 김문수도 청계노조에서 옛날에 또 또 쫓다고 하죠. 박노해까지도. 뭐 하여튼 내로라 하는 운동한 사람들, 장기표, 장명국, 김근태. 이름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고 현장에 있다가 다른 현장으로 간 사람들이 무수히 많다는 걸. 그게 그때 당시 청계노조의 사회적 영향력이라고 할까. 하여튼 현장 노동자들이 싸우면서 지켜왔던 것들을 학출들이 와서 배우고, 또 이들이 확산해서 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는 걸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사회자** 예. 또 말씀해 주실 게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신순애** 아쉬움이라 그럴까. 80년도 농성을 끝내고 우리가 좋아서 막, 그때는 사진 찍고 막 그랬으니까. “야, 우리 이제 동화상가 옥상에다 기숙사 만드는 거 하자.” 우리가 그랬었거든요. 그런 일들을 차근차근 해 나갔을 건데, 그런 일들이 무산된 게 되게 아쉽죠. 그러면 청계노조도 청계천도 훨씬 발전했을 건데, 그런 걸 못 한 게 되게 아쉽죠. 국가적으로 엄청나게 손해인 거 같애. 제 개인적으로 손해뿐만이 아니라.

**사회자** 80년 임금 인상 투쟁으로 일정한 성과를 얻었고, 그런 것이 사회적으로도 확산되는 부분이 있었을 텐데, 정권의 탄압으로 인해 민주노조들이 해산되고 그러면서 상당 기간 노동 운동이 침체되는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박재익** 정부도 손해를 본 거고. 궁극적으로는 저희들이 많은 희

생을 하면서도 끝까지 함께 지켜내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 그리고 그 이후에 사라지지 않고 후배들이 이어서 지금까지, 작지만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는 점. 이런 점에서는 전태일 형님의 정신이 계속 승계된다는 것 자체는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회자** 80년대 초중반까지 과정에 대해서 두 분 한 말씀씩 해 주시죠.

**김영대** 어떻게 보면 저는 약간 낀 세대인데요. 앞에 조금 알기는 했지만, 후세대·복구 세대로 쳐 주잖아요. 그래도 앞에 조금 껴 있었죠. 내가 양승조 씨나 신순애 씨 다 알고, 박재익 님도 다 아는 사이였으니까. 어쨌든 후세대로 치지만, 나는 그걸 충분히 이해해요. 근데 저랑 같이 활동했던, 어떻게 보면 완전 후세대, 이후 세대들이 선배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는 좀 있다. 또 거꾸로 제가 생각하기에 선배들 역시 후배들이 처했던 조건과 활동했던 치열함에 대해서 좀 평가절하하는 측면이 있다. 이걸 꼭 얘기하고 싶었어요.

**박재익** 그게 유대가 없어서 그랬던 거라고 봐요. 소위 말해서 전세대와 후세대로 이렇게 구분한다고 하면은, 노조 해산되고 난 이후부터 전세대는 자연스럽게 떠나면서 내 삶을 위한 현장으로 가 버리게 되는 거고.

**김영대** 그렇죠. 단절이 돼 버렸어요.

**박재익** 그리고 이제 후세대가 들어오면서 바톤을 이어받아서 하는 과정에서 전세대와 후세대가 교감이 없었다. 그렇게 보이는 거죠. 전

세대는 80년대서부터 먹고살기 위해서 노력을 해 나가죠. 그런 과정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보는 거고요.

신순애        또 하나는 전 세대는, 우리는 노조가 있었을 때 활동을 했던 사람이고, 복구 세대는 노조 자체가 없었을 때니까 그 치열함이.

박재익        더 힘들었지.

신순애        훨씬 후배들이 힘들죠. 그 싸움은 인정은 하지만, 선배들이 우선 나부터, 내 새끼하고 먹고살기 바쁜 상황에서, 우선 집에 쌀이 떨어지니까.

임현재        아무래도 선배들은 후배들 눈치 본다고.

신순애        그렇죠.

임현재        후배들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그러냐, 사실은 이거 굉장히 민감하게 보고 생각하고 있어. 물론 나중 사람들이 고생한 건 맞아. 노조도 없는 상태에서 노동 운동을 했으니까. 거리에서 투쟁했고. 반면 선배들 할 때는 노동 조합이 뭔지도 몰랐어. 즉, 무에서 유를 창조한 거야. 전태일 선배의 그 희생이 정말 그냥 사라져 버리고 말았을 수도 있어. 그거를 선배들이 불꽃을 살려 놓은 거야. 그 긴 시간 동안.

처음에 노동 운동 할 때 우리도 엄청 고생했지. 그 추운데 사무실 오면은, 사무실에 목탄 난로가 있었어, 나무 때는 난로. 그럼 나무가 어디 있어? 평화시장 돌아다니면서 의자 망가진 거, 버린 거, 말대 이런 거 주워다가 그거 피우면은 연기가 짙 차고 이래. 먹을 밥이 없었어. 그래서 교회에

서 누가 “아유, 고생하신다”고 오면은 어머니가 노상 “라면 좀 사다 주고 가라.” 이게 어머니의 인사야. 그러면 그거 갖다가 몇 개씩 들통에다가 끓여 가지고.

김영대        불어 가지고. (웃음)

임현재        응. 그러면 목탄은 나무 때는 거니까 이게 불도 세계 안 올라오잖아. 그거 불 살리고 있는 동안에 라면은 이미 다 퍼져. 처음에는 그걸 먹고 했었지.

친구들이 사무실에 꼭 찾았어. 나중에 책상에 앉을 사람이 모자랄 정도로 상근 간부들이 줄었어. 그건 왜 그러냐. 처음에는 책상 하나씩 주고 무슨 부장 그러니까 ‘야, 이제 뭐 좀 괜찮게 됐구나.’ 이러다가, 월급을 안 주거든. (웃음) 그러니까 한 놈 한 놈 직장 찾아서 떠나 버리고. 그런 세월을 우리도 겪었다. 그래도 우리는 행운이라고 그럴까, 노력해서 그 결실이 좋아서 그랬던가, 1년에 한 번 하는 전태일 열사의 추도식을 가지고도 노동 운동이 이어져 왔다는 거지.

끊임없이 이어져 오면서 어디서 후원을 받아 가지고 모임 장소도 만들었고, 그 뒤에는 그걸 합쳐서 건물도 가지고. 지금 건물 소유주잖아, 건물주잖아. 그런데다가 노동구술기록 같은 것도 서울시로 하여금 하게 만들고, 이거 우리 힘으로만 했으면 더 좋겠지만, 이렇게 정부를 움직여서 하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인 거지.

사회자        80년의 짧았던 서울의 봄이랄까, 그 과정에서 청계노조가 단체 협상을 맺어서 큰 성과를 거뒀고. 그게 또 80년 노동 운동의 기폭제가 되었고요. 전두환 정권에 의해서 노조 탄압받고, 해산되고, 아프리 농성 투쟁, 그리고 기념사업회 건립을 통해서 조금씩 토대를 만드는 과정까지

이어져 왔던 거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정말 고맙고요. 제가 보기에는 청계노조의 선후 세대의 갈등, 이런 부분들이 어떤 면에선 청계노조의 행복한 고민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다른 70년대 민주 노조들은 그 세대 사람들만 남아 있지 않습니까? 청피노조는 80년대 중반 이후에, 87년 민주화 노동 운동 때도 살아남아서 그 흐름이 계속 이어져 왔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70년대 세대와 80년대 세대 간에 일정한 갈등이 있는 부분은 인간적으로 어쩔 수 없는데. 한편으로는 노조가 강제적으로 해산되면서 폭력적으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선후 세대 간의 대화나 이런 것들이 너무 없었던 부분들 때문에 젊은 시절의 오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은 남아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서로 힐링하는 모임이라든가 이런 것도 한 번씩 해서 조금씩 서로를 이해하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일단 5차 노동구술기록의 첫 인터뷰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대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신순애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 2부 청계피복노조의 문화 활동 — 탈춤반 활동 중심으로

인터뷰 2회차

2024년 9월 2일(월) 14시~  
전태일기념관 2층



왼쪽부터 김영대, 김태현, 류이



## 1. 1980년대 초반까지의 민중문화운동

**사회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1980년대 청계노조 활동에 대해 기록하는 제5차 노동구술기록 사업의 2회차 시간입니다. 2회차 인터뷰에서는 노조의 일상 활동, 그중에서도 탈반, 탈패 또는 탈춤반이라 불렀던 문화패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보려고 합니다.

당시 노동자를 조직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이 모색되고 있었는데요. 한 축으로는 야학이 있었고, 또 다른 한 축으로 풍물패나 탈춤반 같은 민속 문화 예술 활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활동에 대해서 체계적인 정리가 여전히 부족하고, 특히 탈춤반 관련해서는 자료의 부족 등으로 실상을 파악하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청계노조에서도 이런 흐름이 그대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980년대 청계노조에서 주로 간부로 활동하셨던 김영대 선생님, 그리고 탈춤반 활동을 지도해 오셨던 류이<sup>1)</sup> 선생님을 모시고 말씀을 나눠 볼까 합니다. 진행에 앞서 1980년대 당시 본인의 역할을 중심으로 간단히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우선 김영대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김영대** 저는 78년도에 청계노조를 알게 됐는데요. 그때 가리방<sup>2)</sup>으로 써서 등사기<sup>3)</sup>로 밀어서 나눠 줬던 전태일 일기를 보고 큰 감명을 받은 것이 노조 활동을 하게 된 한 축이었고요. 또 한 축이 바로 문화 활동에 참여한 것이었습니다. 81년에 구속되기 전까지 봉산탈춤과 양주탈춤도 배우고 풍물반 활동을 하면서 의식화된 게 또 하나의 중요한 계기였습니다.

1) 본명 류이인렬. 이후 예명 '류이'로 표기.

2) 인쇄용 강철 줄판.

3) 인쇄기.

저는 청계노조 조합원이면서 그런 활동을 했던 김영대입니다.

**사회자** 예. 반갑습니다. 류이 선생님 잠깐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류이** 저는 1977년에 크리스찬 아카데미 노동자 교육 현장에서 민중덕 형을 뵈고, 그 당시에 유동우 형이나, 방용석 씨, 최순영 씨 등 민주노조 지도자들을 처음 만났어요. 거기에 탈춤도 선보이고, 촌극 지도를 하러 갔었습니다. 그리고 촌극 끝나면 대동놀이를 하는데, 3박 4일 교육의 마지막 날 밤에 그렇게 노는 것을 제가 지도하면서, 같이 놀고 이랬던 것으로 처음 만나 뵈었어요.

신인령 선생님이 그 당시를 회고하면서 “3박 4일 교육 중에 진정한 의식화 교육은 함께 노래하고 춤추고 노는 거였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때는 제가 큰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단지 같이 노는 거였는데, (웃음) 그랬던 게 중요한 역할을 했구나, 하고 생각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때 촌극 지도를 하면서 제가 생각하던 민중 연극, 민중 문화 운동에 대해서 새롭게 체험하고, 구상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사회자** 김영대 선생님께서는 지난 1회차 구술 때, 81년 아프리 점거 농성을 준비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청계노조 탈반 소속 조합원들이 큰 역할을 했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청계노조에 탈반이 구성되어서 활동했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당시 청계노조 탈반에 대해서 우선 여쭙보겠습니다.

김영대 선생님께서는 80년에 재단사이면서 청계노조 평조합원이고, 탈반 활동도 하셨다고 그랬는데요. 당시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탈반 활동에 참여하게 되셨는지, 탈반 활동은 주로 어떻게 이뤄졌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 그때 당시는 노조 간에 연대해서 어디 모여서 같이 교육을 받는 일이 많았어요. 그런 활동을 하는 과정에 저희도 탈춤반과 풍물패 같은 활동들이 필요하다는 논의를 했지만, 현장 노동자들은 전혀 모르는 것들이라 저희만으로는 안 되죠. 그러다가 누구한테 류이 씨 소개를 받고, 도움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크게 보면 학교에서 풍물반 했던 학생들이 와서 가르쳐 준 팀이 하나 있었어요. 주말이나 이럴 때 와서 지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졸업하고 나서 문화 활동을 하면서 참여하신 류이 씨 같은 분들도 있었는데요.

류이 씨나 이런 분들은 당시에 문화 활동을 전문적으로 했고, 장소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배우긴 해야 하는데 마땅한 장소가 없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사용하던 지하 연습실 같은 데서 정기적으로 모여 탈춤도 배우고, 풍물도 배우는 이런 과정, 만남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면서 행사 때 저희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들어가게 됐던 거 같습니다.

**사회자** 그러셨군요. 류이 선생님은 서울대 탈춤반에 활동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탈춤반 활동을 어떻게 시작했고, 어떤 활동들을 해 왔는지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류이** 저는 연극반이었어요. 그때 총연극회를 조직하고, 마당극을 처음으로 기획해서 공연했습니다. 마당극이라고 하는 게 탈춤과 연극을 융합해서, 마당에서 현대적인 공연물을 만들어서 공연하는 거였어요. 그런 활동을 주로 했습니다.

학교 바깥에서는 탈춤반 선배였던 채희완 선생하고 같이 현장 활동을 자주 다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노동자 교육, 농민 교육 지원을 많이 다

녔었구요. 그래서 제가 탈춤반이라고 아는 분들도 많은데, 그건 제가 ‘한두레’<sup>4)</sup> 활동을 했기 때문이죠.

**사회자** 정식으로 서울대 총연극회 소속이신 거죠.

**류이** 예.

**사회자** 탈춤 활동이라든가 농촌 계몽극이라든가 마당극,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해 오셨던 거 같구요. 70년대 말에는 대학들의 연합 활동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1979년에 ‘대학 탈반 연합회’가 결성되고, 공연이 있었어요. 80년 4월에는 서울대에서 <관악곡> 공연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런 활동들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류이** 문화 운동은 70년대 말, 80년대 초에 민주 노조 운동과 결합하면서 민중 문화 운동으로서 골격을 갖추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81~82년 그 시기의 교육 활동 중에 촌극과 대동놀이 같은 걸 소규모로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톨릭 농민회가 전국적인 추수 감사제 농민 대회를 하면서 줄다리기를 가지고 경찰과 붙고, 싸우고 이랬던 아주 재미있는 투쟁을 했었어요. 그때 촌극과 대동놀이가 결합이 되었고, 운동을 두레패와 뜰패로 나누는 설계가 그 당시에 됐었습니다.<sup>5)</sup>

마당극이라고 하면은 보통 지역마다 마당극패가 존재해서 전통적인 탈

4) 대학의 탈춤 운동을 사회로 확장시키는 연계 고리 역할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모임이다. 탈춤반 졸업생들을 중심으로 한국 문화 연구 모임으로 발족했으며, 1974년 4월 6일 전신 기념관에서 총회를 열고 창립되었다.

5) 흔히 ‘두레패’는 두레와 같은 일하는 집단 혹은 농촌 기반의 연행자 집단을 뜻한다. 즉, 농민 중에서 팽과리·장구·소고 등의 연주에 뛰어난 사람을 모아 만든 패거리이며, 남사당패와 같은 전문 예술인 집단을 ‘뜰패’라 칭하는 것과 대비된다.

춤과 결합한 현대적인 공연을 하는 것으로 흔히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당극의 본령은 노동자와 농민들의 촌극 경연이라든지, 투쟁적인 의식화 과정에서의 연극에 있습니다. 야학에서도 많이 하고, 노조에서도 문화패들이 만들어져서 활동하는 이런 계기들이 더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오늘날에는 커뮤니티 아트(Community Art)라고 해서 공동체 연극, 공동체 문화 활동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문화 예술이 내가 나를 표현하는 식의 커뮤니티 아트가 중심이 되는 것으로 가고 있는데, 민주 노조 활동하셨던 분들은 70년대 말, 80년대 초반부터 그런 활동을 해 오셨다고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사회자**      조금 전에 80년 청계노조 탈춤반이 지도를 받았다는 얘기도 하고, 장소 제공 같은 부분들도 역할을 하셨다고 얘기하셨는데요. 실제 청계노조의 탈춤반 활동에 대한 지도나 지원을 언제부터 하게 되셨는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류이**          79년인가, 81년인가 가물가물한데…….

**김영대**      79년일 겁니다. 왜냐면은 제가 81년에 구속됐거든요.

**류이**          아프리 사건으로 구속됐을 때는 탈반 후배들이 가서 탈춤을 지도했죠. 저는 그때는 아니고요.

**김영대**      그 뒤에 연극, 촌극을 꾸며서 복구대회 할 때 적극적으로 하셨던 거죠?



김영대

류이 예. 79년에는 코스모스 팀인가, 야유회 가서 대동놀이 하고 민요 부르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 거 같아요.

김영대 그러니까 류이 씨가 적극적으로 청계노조에 결합한 건 아마 제가 석방된 뒤인 82년 이후일 거예요. 그 전에 풍물반으로 해서 가끔 봉산탈춤도 배우고 그럴 때 학생들이 와서 지도하는 게 있었어요.

그 당시 청계노조에 중부 사무소가 하나 비어 있었거든요. 공간이 있었어요. 사실은 집행부랑 약간 갈등이 있었던 게, 그 사무소를 좀 쓰게 해 달라고 했는데도 잘 안 해 줬어요. 그래서 안 잠겨져 있는 창문을 열고 넘어가서 문을 열고 매주 한 번씩 모였던 기억. 그게 나중에 알려지면서 집행부랑 약간의 논쟁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배우다가 경우에 따라 장소가 없으면 이제 교회로 가죠. 정 없으면 영등포 산선의 지하에 공간이 있었는데, 거기 가서 풍물 연습도 하고 그랬던 게 기억납니다. 그 당시 청계 조합원들이 굉장히 열정적으로 풍물도 배웠고요. 지금 마당극 얘기하시는데, 예전에 탈춤을 추면서 했던 양반들 놀리는 언어 있잖아요?

사회자 풍자.

김영대 풍자극.

사회자 예. 탈춤이 풍자가 있죠.

김영대 예. 그런 것들도 책을 구해서 같이 보기도 하고, 책을 못 구하면은 복사해서 서로 돌려 보기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랬던 멤버들이 80년에 청계노조가 강제 해산 당한 후의 항의 싸움에 나섰던 인원의

절반을 이뤘다는 게 하나의 기록입니다. 그건 있는 그대로 사실이고요. 거기에는 어린 노동자에서부터 나이 먹은 노동자까지 있었습니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박계현이나 김성민처럼 풍물반을 했던 분들이 주축이 돼서 아프리 사건에 많이 참여했었고요. 그게 78년부터 80년까지 한 2년에 걸쳐서 이루어진 청계노조의 문화 활동이었다고 봅니다. 사실 그때는 좀 어설프었죠.

사회자 류이 선생님은 1978년도 서울 지역 연합 시위 미수 사건으로 구속되셔서 1년 동안 징역을 사셨고, 80년 5월 광주 항쟁 이후에 또 수배되기도 했었는데요. 그 당시 무엇 때문에 구속되고 수배되었는지, 그 후에 어떻게 마무리됐는지 잠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류이 80년 서울의 봄 때, 재학생들은 “시위를 좀 자제하자”는 입장이었고, 저희 같은 복학생들이 “빨리 치고 나가야 된다.” 이래서, 이것을 융합하면서도 빨리 치고 나가는 게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었죠. 그래서 <김지하 문학의 밤>, <관악곡> 같은 문화 활동 기획을 서울대에서 했고, 4·19 혁명 기념제 때 <노동의 횃불>을 해서 교문 앞까지 진출했어요. 그리고 5월 14일인가 13일에 계명대에 가서 <노동의 횃불>을 공연했습니다.

사회자 아, 지방대에 가셔도 공연하셨군요.

류이 계명대, 영남대, 경북대. 이런 학교들이 시가전으로 나갔죠. 그러니까 그 <노동의 횃불>이…….

사회자 시가 투쟁을 하게 된 매개 고리가 됐다.

류이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에 횃불을 들고 행진하는데요. 당시에 <횃불의 노래>도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횃불 행진이 유행했습니다. (웃음) 연세대에서도 공연했고, 그리고 이제 광주·전남으로 갈 찰나에.

사회자        5·18이 터지는군요.

류이            5·18 나기 전에, 15일 서울에서 ‘서울역 회군’<sup>6)</sup>을 했지 않습니다.

사회자        예.

류이            서울역 회군을 했는데, 제가 감이 이상해서 집에 전화했더니 “형사가 와 있다”고 해요. 그때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 5월 17일에 검속이 됐는데, 저는 이를 전부터 도망을 다녔었던 거죠. 왜냐하면 계명대에서 시가전을 했을 때부터 군대가 막았었어요. 대구는 사복을 입은 군대가 먼저 투입이 됐었는데, 보안사에서 “이놈이 누구냐?” 그러면서 저를 잡으러 왔던 거죠.

사회자        네. 80년 서울의 봄 당시에도 <관악곡>이나 <노동의 횃불> 이런 대중적인 마당극을 통해서 활동하셨던 것 같고요.

류이            <노동의 횃불> 작품의 첫째 마당이 ‘전태일극’입니다. 그

---

6) 1980년 5월 15일, 10만여 명의 대학생들이 서울역 앞에 운집해 민주화를 요구하며 대규모 시위를 전개하였다. 오후에 시작하여 밤늦게까지 시위가 이어지면서 수백 명이 연행되고 수십 명이 부상을 입는 격렬한 시위였다. 학생 운동 지도부들은 시위를 이어가자는 쪽과 군대가 투입되어 쿠데타로 이어지는 빌미를 줄 수 있으므로 해산하자는 쪽으로 나뉘어 논쟁을 벌였고, 결국 해산하기로 결정하였다.

리고 마지막 장이 김경숙…….

사회자        YH무역 투쟁 때 돌아가신 분.<sup>7)</sup>

류이            예. 그래서 전태일에서 김경숙까지입니다.

사회자        경찰 입장에서는 수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네요. 어떻게 보면 류이 선생님도 그렇게 해서 학생 운동 시절은 80년 초로 마무리가 되고, 이후에는 민중 문화 운동이라든가, 노동 운동과 문화 운동의 결합, 이런 부분들의 활동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그럼 류이 선생님께서는 70년대에 동일방직, 콘트롤데이타, YH무역 같은 단위 사업장 노조에 대해 지원하신 건 없었고, 주로 크리스찬 아카데미 교육으로만 결합을 하셨던 건가요?

류이            콘트롤데이타 탈반 가서 지도했던 기억이 나고요. 나중에 그 노조들 다 폐쇄하기 직전에 공연하려고 했다가 못 했던 팀이죠.

사회자        당시에 학생 운동 후배들, 문화 운동 후배들이 청계노조 탈출반 지도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청계노조 하고 긴밀하게 연계해서 문화 활동을 했던 단위가 서울대의 연극회나 탈출반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의 문화패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

7) 1979년 8월 9일, YH무역의 여성 노동자 200여 명이 회사 폐업 조치에 맞서 운영 정상화와 노동자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신민당사를 점거하였다. 8월 11일 오전 2시경, 경찰 병력이 투입되어 농성을 강제 해산 시키는 과정에서 여성 노동자 김경숙이 추락사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김태현

류이 초기에 탈반을 지도했던 팀은 기독교 문화패였던 걸로 기억하구요. 그 뒤에는 연극반 후배들 한두 명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영대 그게 연세대학교 전체 그룹 동아리였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78, 9년 이때에 청계노조에 와서 봉산탈춤, 양주탈춤 가르치고, 풍물을 지도했던 팀들이 있습니다. 그게 네다섯 명 되는데.

류이 그게 아마 기독교 문화패일 거예요. 거기 제일교회 주변에 야학들이 있었잖아요.

김영대 예.

류이 그쪽하고 이렇게 좀 결합도 되고. 그 당시에 기독교 문화패들이 제일교회에 많이 가서 모임도 하고 이랬을 거예요.

김영대 하여튼 문화 운동에 대해서는 치안 기관 쪽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지켜봤었어요. 그러나 현장에서 두드러지게는 안 나타나니까 지켜만 보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회자 예. 그랬던 상황이군요.

김영대 그리고 당시에 연세대 노래반이 이름이 뭐죠?

류이 기억이 안 나요.

김영대 하여튼 유명한 노래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학생들이

기타 들고 와서 했었어요.

사회자      일반적인 노래패인 거죠.

김영대      예. 메아리인가 뭐가.

사회자      메아리는 서울대고.

김영대      하여튼 연세대 팀이 하나 있었어요.<sup>8)</sup> 그 모임도 상당 기간 유지됐었습니다.

류이      청계피복이 70년대에도 소모임 활동을 굉장히 잘했어요. 그 소모임들이 엄혹한 80년대의 전두환 시절에도 조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버팀목이 됐으니까.

김영대      근간이 됐죠.

사회자      그렇죠.

김영대      그때 그러니까 야학, 노래패 같은 문화팀, 그다음에 또 하나 덧붙일 게 의사들 무료 진료까지 세 축의 활동이 있었습니다.

‘목요 무료 진료회’ 이렇게 해서 매주 일정한 공간에서 진료했어요. 그때는 진짜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진료받기 어려운 분들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치과 치료, 침을 놔주는 한방 등.

8) 구술자가 기억하는 노래패는 연세대학교 중앙 동아리인 ‘울림터’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울림터는 1984년에 창립되었다.

사회자      당시는 의료 보험이 대공장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해서 영세 사업장에 있는 청계 조합원들 같은 경우에는 의료 보험도 적용이 안 됐을 테고요.

김영대      그러니까 어지간히 아프면 그냥 참고 지냈는데, 무료 진료가 있으니까 와서 고민 털어놓고, 진료받기도 하고, 약도 지어 주기도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 2. 청계 지역 주변의 야학 활동

사회자      해산되기 전인 80년 봄까지는 청계노조의 간부들이나 조합원들을 받치는 기둥들의 하나가 야학이고, 또 하나는 탈춤반이나 노래패 같은 문화 활동 하는 문화패였는데요. 아까 제일교회 야학과 연계된 탈춤문화패가 있어서 지원이 됐다고 그랬는데, 제일교회 뿐만 아니라 당시에 굉장히 많은 야학이 청계 주변에 있었죠.

김영대      예. 그 당시 신광용이 저를 설득해서 처음에 활동하게 되었어요. 그 친구가 아프리 사건 이전에도 구속된 적이 있었습니다. 9·9 사건이 있어서 당시에 신광용 씨, 이숙희 씨 이런 분들이 구속됐었고요. 그때도 그렇고, 실형을 받으면 80년대까지도 머리를 뺄뻔했어요. 그러니까 머리를 뺄뻔한 친구가 와서는 책을 권하고 이래서 제가 거기서 빠져들게 된 거죠. 그 친구가 저한테 처음 준 임무가 의식화되도록 그런 책들을 읽으라는 거였고, 그다음에 과제가 뭐였냐면 야학 관리였어요. 당시에 형제교회, 제일교회는 그래도 좀 잘 돌아갔어요. 야학 인원이라는 게, 한 기수가 들어오면 거의 6개월씩 가거든요.

사회자 그렇죠.

김영대 그 인원은 고정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나와서 계속 활동하는 숫자는 절반으로 줄어든단 말입니다. 졸업한다 하더라도 그게 다 우리 조합원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일부는 노조로 오게 되는데, 일부는 현장에서 그냥 일하는 거죠. 처음에 야학할 때 검정고시 생각하고 왔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당시는 이름을 생활 야학이라고 붙였어요. 검정고시에 가까운 배움도 있지만, 약간의 의식화를 위해서 신문 기사 같은 거 읽어보고 평가하는 것도 있었고.

그래서 생활 야학이라고 해서 했던 게 형제교회, 제일교회입니다. 그 밖에 연동교회라고 종로에 큰 교회도 있었습니다. 거기서 예전에 여주에서 농민 활동 했던 선배들이 와서 야학도 만들고, 그리고 청계노조 사람들이 연계해서 했던 게 있고요. 한편으로는 김승훈 신부가 이끄는 동대문성당, 거기서도 야학을 했었고요. 그리고 동대문에서 이렇게 보면 동대문제일교회라고 있어요. 이름은 제일교회하고 비슷한데.

사회자 아, 제일교회 말고 또 동대문제일교회가 있었군요.

김영대 예. 동대문제일교회가 이대병원 있던 자리<sup>9)</sup> 옆쪽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없어진 것 같은데. 그다음에 서울운동장<sup>10)</sup> 뒤편에 있는 초원교회. 그래서 한 7개를 제가 관리했습니다.

9) 서울 종로구 종로6가에 있던 대학병원이다. 2008년 폐원했으며, 병원 건물의 일부는 한양도성박물관으로 리모델링 되었다.

10) 서울 중구 을지로7가에 위치한 동대문운동장의 예전 이름이다. 현재는 종합경기장과 야구장이 철거된 자리에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가 세워져 있다.

사회자 7개를 다 관리했어요?

김영대 예. 다 관리했죠. 관리라는 건 뭐냐면, 이제 학생들이 유인물 만들어서 노동자들 퇴근 시간에 뿌리기는 해요. 그렇게만 해서는 오는 경우가 드물죠. 야학을 유지하려면 그래도 10여 명은 처음에 모여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현장 가서 설득해서 가게 만드는 거죠. 유인물 뿌리는 것만 가지고는 안 오니까. 그런 식으로 모집하는 거 도와주는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야학에서 가르치는 게 끝나면 대학생들은 떠나지 않습니까? 계속 있더라도 밤에 만나는 것뿐이니까. 그럴 때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활동들, 다과 프로그램을 한다던지 이렇게 하면서 저희도 섞이는 거죠. 그러면 제가 7개를 다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돌아가면서 행사를 참여해서 서로 인사하고, 얼굴을 익혀서 나중에 졸업할 때 되면 자연스럽게 올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사회자 자연스럽게 청계 조합원으로.

김영대 그러면서 제가 강학은 아니지만, 야학이 원활히 돌아가도록 하고 교회와 관계도 맺는 사람이라고 알려지는 거죠. 그러면 졸업하고 난 뒤에도 인간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노조 활동으로 이끄는 겁니다, 사실 한 야학에 10여 명이 온다고 할 때, 그렇게 해서 건질 수 있는 사람은 서너 명밖에 안 돼요.

사회자 한 기수가 10명 정도 졸업하면, 그중에 3명 정도.

김영대 그렇죠.



사회자 30%면 그것도 괜찮은 거죠.

김영대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학을 많이 만들려고 하죠. 교회를 개척한다고도 했어요. 개척은 뭐냐면, 아무 생각이 없는 교회에 대학생을 보냅니다. 대학생들이 열심히 나오니까, 거기서 목사님을 설득해서 “우리도 야학을 합시다.” 이렇게 의식적으로 만드는 경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든 게 초원교회 야학입니다. 형제교회 김동완 목사, 제일교회 박형규 목사, 동대문성당의 김승훈 신부처럼 신부님이나 목사님이 그런 것들을 지원한 경우도 있지만, 목사님하고 전혀 관계없이 했던 교회들이 여러 군데 있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초원교회 같은 경우는 졸업생들 모임도 계속하고 이러면서 그분들이 또 탈반에 들어오기도 했어요. 졸업하면서 “이제 탈출 하자.” 해서 뒤늦게 들어와서는 82년부터 노조 복구대회까지 있었어요. 그런 분들이 복구대회 할 때 조합원의 주축을 이루게 되죠. 2년 동안 그런 활동 속에서 축적된 인원들이 복구대회 동력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사회자 야학 7개를 관리하셨다는데, 청계 지역 주변에 있는 야학이 주로 생활 야학이나 노동 야학이나 이런 이름으로 있었군요.

김영대 검정고시 야학도 있었어요.

사회자 검정고시 야학도 있었군요. 배움에 목말랐던 청계 지역의 노동자들이 이런 야학에 참여하게 되고, 조합 활동하시는 간부나 활동가들이 야학의 행사라든가, 끝나고 뒤풀이 과정에 참여하시면서 야학에 온 노동자들이 자연스럽게 노동 조합 활동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역할을 하셨습니다. 당시 야학의 학생과 선생이 서로 배운다고 해서, 학생 운동 출신의

선생은 가르치면서 배운다고 ‘강학’이라고 불렀고, 노동자 학생들은 ‘학강’이라고 불렀죠. 그렇게 같이 연계해서 활동해 왔던 거 같습니다.

### 3. 청계피복노조의 문예 운동

사회자 81년 청계노조가 해산되고 난 이후에 공식적인 합법 노조는 없었지만, 지하 활동 비슷하게 야학이라든가 소모임이라든가 문화패 이런 것들을 운영하였던 것 같은데요. 류이 선생님도 81년 이후에 많이 지원하셨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류이 이숙희 씨 소개로 만난 김영대 씨, 박계현 씨, 김성민 씨를 저는 ‘재단사 삼총사’라고 그랬는데요, 재단사가 운동한다는 것이 처음에 조금 낯설었어요. 물론 전태일 열사도 재단사 출신이긴 하지만. 제 기억에 처음부터 “복구대회 때 공연할 공연물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랬던 거 같아요. 언제 복구대회를 할지는 모르지만. (웃음) 그래서 “그러면 해 보자.” 그랬죠. 이승숙 씨가 야학에서 처음 연극을 하고 접했다고 들었는데, 그런 아주 어린 시다들을 한 10명쯤 데리고 왔어요. 그러고 혜숙 씨가 그때 왔었나?

김영대 김혜숙 씨.

류이 예. 조금 경험 있는 고참은 혜숙 씨밖에 없었던 거 같은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잠깐 고민했던 기억이 나고요. (웃음) 워낙 어려서. 그래서 그때 시작한 게 즉흥 춘극이었어요. 그때 제 처가 성산동에서 무용연구소를 했는데, 거기서 하기도 하고. 어디 장소 빌려서

하기도 하고, 서오릉 가서 한 기억도 있고.

**김영대** 맞아요. (웃음) 오죽 장소가 없었으면 야외에 가서 했어요.

**류이** 서울대에 가서 한 적도 있고. (웃음) 하여튼 그렇게 떠돌면서 역할 촌극이라는 것을 창안해서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생활 이야기를 즉흥 연극으로 보여 주는 거죠. 체계적인 커뮤니티 아트 방법론으로 등재될 수 있는 거라고 지금도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 그걸 전부 녹음했어요. 자기가 녹음한 테이프를 다시 들어 보고,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 되새김질하고.

**사회자** 평가도 하고.

**류이** 예. 그렇게 해서 공장에서의 시다 생활 이런 것들을 계속 이야기했어요. 늘 만나서 하는 게 그거였어요. 그중에 좋은 에피소드들을 몇 개 뽑아서 연결하여 <으하하하, 우습다>라는 공연을 83년도 전태일 열사 추모식인가, 그때 마석에 가서 추모하고 밑에 내려와서 공터에서 처음 공연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즉흥 역할 촌극을 통해서 스스로 자기 생활을 표현할 수 있게 하고, 그것을 노래로도 만들어 불렀어요. 그때 만들었던 “돌아라~♪ 미싱아~♪” 하면서 민요 곡에다가 노동자들이 가사를 붙인 게 나중에 대학가에서 유행했어요. 그때 공연하면서 팀워크가 생기고, 어린 여성 노동자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말하자면 의식화되기 시작했다고 할까요. 그 팀들이 형성돼서 복구대회를 준비하고, 복구대회까지 치렀던 걸로 기억합니다.

특별히 좀 더 기억이 나는 거는, 이게 마당극패잖아요. 처음에는 탈패였고요. 아프리 전에는 탈춤반 후배들이 와서 지도했으니까 탈패였고, 그다

음에 제가 지도했으니까 마당극패인데. 지금은 풍물패로 많이 이어져 내려간 거는, 그때 계현이하고 성민이가 풍물을 쳤는데요.

**김영대** 성민이가 팽쇠, 계현이가 장구였습니다.

**류이** 제가 그거를 굉장히 재미있게 생각하는데요. 무용연구소에서 제가 이 친구들한테 기본 가락만 가르쳤어요. 기본 가락 네 장단씩 굿거리 네 장단, 삼채 네 장단, 휘모리 네 장단 이렇게 딱, 아주 기본 가락만 가르쳤어요. 근데 엄청 신명이 좋은 친구들이죠. 그 기본 가락만 배운 걸 가지고 현장에서 계속 쇠와 장구를 치면서 진풍이를 하고, 노동자들을 끌고 다니는 게 이력이 붙었어요. 다른 어떤 노조에 있는 풍물패보다 나왔습니다. 나중에 민주 노조 연합문화패, 풍물패 식으로 활동하기도 했는데,

전태일기념관 '평화의 집' 집들이에서 풍물 공연을 준비하는 참가자들,  
1984.11.13, 박용수  
출처 : 박용수, 민주화기념사업회 제공



항상 둘이서 상쇠, 상장구를 잡은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가 정말 감동했어요.

사회자      마당극패는 주로 여성 시다나 미성사들 중심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는 식으로 활동했나요?

류이          재단사 삼총사도 항상 같이했어요.

사회자      남자분들도 같이 했군요.

류이          남자들이 있어야 구사대도 하고, 사장도 하고, 재단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촌극이 되니까. (웃음)

사회자      서로 역할극도 하고요.

류이          예.

사회자      매주 모이셨던 거예요?

류이          예. 그렇게 해서 82년부터 84년 초반까지 한 1년 반, 2년 가까이 그걸 축적해서 공연까지 했죠. 자기들 이야기를 스스로 공동 창작해서 공연하면 창작 능력이 생기잖아요. 창작적 능력이 같이 크는 거죠. 그것을 더 확장해서 노동절 행사 때 민주 노조 연합패도 하게 되는데요. 그 때 노동복지 뭐라고 있었는데?

사회자      한국 노동자 복지 협의회.

류이          예. 거기에서 노동절 행사를 85년인가 했을 때 연합패까지 공연하고요. 영등포 산선에서도 재공연하고 그랬던 걸로 알아요.

김영대      저희가 이제 탈춤도 배웠지, 풍물도 했죠. 또 나름대로 마당극이라고 하는 장르도 알았던 말이에요. 그러니 저희도 뭔가 표현하고 싶은 것들이 생기는 거죠. 근데 저희가 어떤 형식의 각본이 있는지도 모르고 하니까, 류이 씨가 소개받아서 오신 거예요.

근데 저도 특이하게 생각한 게, 와서는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고 매번 우리보고 뭘 짜 보라는 거야. (웃음) 실제로 해 보라고 하고, 뭘 현장에 있는 여러 가지를 계속 되풀이하라고 해서 처음에는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한 게 모아져서 그게 하나의 단락이 되고, 시작과 끝을 어떻게 맺을 건가 이런 논의를 해 가면서 결국 정리가 됐어요.

그때 당시 저는 풍물에 소질이 별로 없었나 봐요.

사회자      풍물패에서는 빠지셨어요?

김영대      빠진 게 아니고 같이 했는데. 주로 역할이 그거 정리하고, 좀 이렇게 대본 쓰고 이런 역할을 했죠. 물론 마지막에 감수는 류이 씨가 다 해 줬지만. 나름대로 그랬던 게 기억이 납니다.

류이          거의 조연출이죠. (웃음)

사회자      조연출이네요. (웃음)

김영대      근데 성민이하고 계현이는 인정을 안 하더라고. (웃음)

사회자      자기네들이 주도적으로 했다고?

김영대      자기들이 주도적으로 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조감독 정도 되는데 인정을 안 해. (웃음)

류이      풍물을 치고 앞장서면 이거는 주인공이잖아. 이제 조감독은 스태프지.

김영대      스태프야, 완전히.

류이      뒷패야, 뒷패.<sup>11)</sup>

김영대      나는 사실 내가 주인공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대화하다 보니까 “너는 시다바리였다.” 이 이야기야. (웃음) 아이, 나는 그때는 거의 감독이라고 생각하고 활동했는데. ‘아, 이거 정서적 차이가 많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 4. 1980년대 문예 운동의 역할

사회자      류이 선생님은 민중 문화 운동이라든가 예술 운동 관련해서 쪽 활동을 해 오셨잖아요. 그래서 80년대 당시에 노동 운동과 문화 운동의 연계, 이 속에서 활동해 왔던 것을 말씀해 주시거나, 그거에 대해서 회고해 보실 때 어떤 측면이 있었는지를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흔히 마당극 등에서 공연의 진행을 맡는 스태프 역할을 지칭한다. 무대에 서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지 않는 존재이기에 ‘뒷패’라고 부른다.



류이

류이           노동자들이 자기 생활을 연극 행위로 표현하는 것을 즉흥 촌극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무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동료들이 둘러싸서 보고 있는 마당에서 자기 표현을 하고, 거기에 서로 상호 응대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생활이 점검되고, 문제가 도출되고, 그걸 재인식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의식화인데요.

전태일 열사가 일기에 쓰신 구절 중에 그런 게 있죠. 상상 속에서 연극을 하시더라고요. “나 아닌 나.” 이런 표현이라든지, 인생을 연극적으로 표현하는 구절들이 군데군데 보여요. 그게 이제 노동자들이 의식화로 가는 길인 거죠.

저에게는 그런 경험이나 체험이 민중 예술론, 마당 예술론 이런 것들을 확장해 나가는 밑바탕이 됐습니다. 말하자면 그냥 하나의 촌극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촌극들이 쌓이고 쌓여서, 그리고 질적으로 고양이 돼서, 어느 정도 계속 반복하고 또 훈련하면서 스스로 발표력도 생기고, 그걸 가지고 놀게 되면서 새로운 단계로 넘어가서 이제 작품이 되는 거죠.

우리가 마당극 공연을 해 봤잖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풍물패로 조합원들 다 끌고 나와서 놀아 봤잖아요. 이런 것이 하나의 촌극에서, 자기 표현에서 확장되고 확장돼서 대동놀이가 되고. 그렇게 노동자들 속에서, 민중 속에서 생성된 이런 예술의 원리가 대학가나 일반으로 확장이 되는 거죠.

당시에 제가 「새로운 대동놀이를 위하여」라는 글을 썼는데. 그 이후에 최초로 대학가에서 대동놀이를 한 게 ‘안암 대동놀이’입니다. 83년인가 했어요. 서울대, 고려대 이렇게 번지기 시작해서 전국의 모든 대학이 축제 때 대동놀이를 했어요. 그 이후에 한 2000년 가까이까지 대학 문화를 완전히 바꿨어요. 문화 혁명을 했죠. (웃음) 절반의 문화 혁명을 해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문화로 바꿨는데, 그게 다시 상업 문화, 자본주의 문화, 연예인 문화로 돌아갔더라고요.

사회자           그렇죠.

류이           전태일 열사가 “나 아닌 나여”라고 말씀하신 것, 그게 연극이죠. 역할 바꾸기이고. 역지사지(易地思之)이고. “나 아닌 나”가 또 나를 돌아보는 그런 문화 활동, 의식화 활동, 이런 것이 체화되는 프로그램으로 했던 거예요. 청계노조가 복구대회까지 했을 때의 그 문화 활동이 되살아나서 지금도 여전히 살아 있는 문화적인 무기가 되고, 노동자들이 그렇게 놀며, 의식도 하고, 또 놀고, 이런 생태계가 좀 형성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문화 혁명을 해야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노동 운동이 임금 인상이라든지 생활 개선이라든지 이런 데 치중이 돼서 사실상 세상을 바꾸는 걸 못 했다면, 진정한 문화 혁명을 통해서 노동자들이 의식화되고, 세상을 바꾸는 데 앞장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영대           그거에 덧붙여서 한마디 드리면, 사실은 현장에서 “야, 이렇게 하는 게 옳고. 저렇게 하고. 우리가 뭐하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 조합에 가입해서 같이 활동하자.” 이게 쉽지 않아요.

근데 청계에서 문화 활동 하면서 중시했던 게, 여름에 하계 수련회를 안간 적이 거의 없습니다. 여주로 가든, 서해안으로 가든 최대한 같이 갈 사람을 모으는 거예요. 일레로 서해안 쪽으로 해수욕장에 갈 때 130여 명이 관광버스 3대인가 4대인가로 갔어요. 그때가 노조 합법성 쟁취를 한 직후인지 이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갔는데 형사들이 거기까지 쫓아온 거예요. 동대문경찰서 형사들이 왔어요. 뒤에 택시 두 대가 따라오잖아요. 저희는 그냥 놔 뒀어요.

저희가 해수욕장 가면은 민박 이런 데가 작기 때문에, 학교를 빌렸어요.

여름방학이니까 빌려 가지고 마당에서 마당극을 하고, 대동놀이를 했죠. 그때는 이미 우리는 완전히 자리잡을 때야. 전체 돌아가면서 하고, 마지막 이 햇불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간 준비팀이 각목에다가 철사 줄을 엮고, 솔방울 준비하고, 기름에 담가서 다 준비했어요. 불을 하나둘 붙여서 거의 전부 붙였을 즈음에.

사회자 130명이 다 붙여서.

김영대 예. 그때 갑자기 군인들이 10여 명이 딱 나타났어요. 나중에 안 스토리인데, 형사들이 “노동자들이 와서 해변가에서 이렇다”고 한 거예요. 저희끼리 그런 게 한판 어우러지면서 화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깨려고 군인들 동원해서 온 거예요.

소위가 지휘관이었는데 갑자기 와서는 “여기 책임자가 누구냐?” 그래서 “나다.” 그러니까 내 가슴에다 딱 총을 대고 빨리 끄라는 거야. 우리는 고집이 있지. 내가 징역을 두 번 살고 나온 놈인데 깡다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쏘려면 쏘라.” 그러면서 욕 같은 걸 하는데, 소위가 권총 같은 신호탄을 하나 빵 쏘더라고요. 하늘로 이렇게 불이 짹 올라가. 이제 총을 쏜다는 신호겠지. M16이라고 총알 30발 들어가는 소총을 들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30발을 다 갈긴 거야. 그 안에서 바바박 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여성이 거의 8, 90%였으니까. 그러니까 알아서 불을 끄고, 소리 지르고.

류이 엄청 놀랐겠네.

김영대 전부 쫓쫓. 알아서 꺼 버리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총 쏜 놈하고 먹살잡이를 하는데, 군인이 뜯어말려서 돌아갔어요. 그래서 “야, 안 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는 우리 조직하는 거 다

망친다. 여기서 반전을 안 시키면 끝난다”라면서 제가 고집해서 “군부대로 가자”고 해서 가려는데 그 경찰 놈들이 온 거예요. 사주했던 애들이. 그래서 “너희는 정말 나쁜 놈들이다. 민간인한테 총을 들이대고, 그냥 발포하고, 이게 뭐냐? 올라가서 문제 삼겠다.” 그러고 우리가 군부대 간다니까 잠깐 참으래요. 우리가 군부대 앞에 가서 농성한다, 뭐 한다, 실랑이한 끝에 소위가 왔어요. 와 가지고 공식 사과하고 갔습니다. 우리가 ‘전체 있는 앞에서 공식 사과하고 가야 문제 안 삼겠다.’ 한 거예요. 결국 새벽 3시에 와서 사과하고 가는 바람에 그나마 분위기가 다시 좀 나아진 거죠.

사회자 한참 분위기를 끌어올리는데 강제적으로 막으려 한 거네요.

김영대 그냥 거의 총을 난사했으니까 분위기가 아주 살벌했어요. 지금도 그때 여성들의 비명이 들리는 거 같아요. 저는 그때 진짜 ‘내가 총을 맞더라도 넌 죽이겠다.’ 그런 식으로 달려들었거든요.

매번 그런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는데, 문화 운동이 그나마 노동자들을 엮고 이렇게 유지하여 나오는 데 역할이 컸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사회자 81년에 노조가 해산되고, 84년에 청계 복구대회가 열리는 과정에서 말씀하신 대로 탈춤패도 있고, 즉흥 촌극도 하시고, 전태일 열사 추도식 때 공연도 하면서 조금씩 문화 운동이 활성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88년에 청계노조가 다시 신고필증을 받고 합법성을 쟁취하면서 문화 운동도 좀 더 대중적이고 대규모화된 것 같아요. 그래서 노조 수련회도 130여 명이 우르르 가기도 하고요. 또 자료에 보면 87년 말의 전태일 열사 추도식 때 노동자 문화제를 전태일 기념사업회, 민중문화운동연합, 한국기독교노동자 서울지역연맹 이렇게 세 군데가 공동 기획했다고 돼 있는

데요. 그런 대중적인 탈반 활동이나, 이 과정에서의 노동자 문화패의 역할 등에 대해서 혹시 말씀해 주실 것이 있을까요?

**김영대**      제가 82년 석방된 뒤에 한 2년 동안 야학, 탈반 이런 활동을 했던 사람들을 모아서 복구대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상당히 많이 동원됐던 게, 복구대회 날 연극을 했어요. 그때는 연극반이 실제 장소 섭외부터 해서 모든 행사 준비를 다 했을 때예요. 연극의 분위기 이런 것까지 생각해야 하니까.

故 전태일 열사 17주기 추모 노동자 문화제 계획,  
1987.11.13, 전태일재단

고 전태일 열사 17주기 추모  
노동자 문화제 계획

1. 목적 및 배경 : (2면)

2. 주 최 : 공동주최 - 전태일 열사기념회  
한국적독노동자 서울지역연맹  
전공문화운동연합  
전 한 - 전국민족문화회

3. 일시 : 1987. 11. 13, 14 - 밤 8:00 - 10:30  
11.15 - 낮 12:00 - 7:00

4. 장소 : 고깃골

5. 진행 순서

주요 계획

\* 1987.11.13 (금) 8:00 - 10:30  
\* 휴전 행 :  
\* 사 회 : 1

순서	시간	참석자	내 용	주최
01 주 1 주로 심				
02 전태일 열사	10'	노동자문화제	전태일 열사 회 노동자	노동자 문화제
03 전태일 열사	5'		전태일 열사 회 노동자	노동자 문화제
04 주 로 가	10'		전태일 열사 회 노동자	노동자 문화제
05 전태일 열사	10'		전태일 열사 회 노동자	노동자 문화제
06 주 로 가	10'		전태일 열사 회 노동자	노동자 문화제
07 주 로 가	10'		전태일 열사 회 노동자	노동자 문화제
08 주 로 가	10'		전태일 열사 회 노동자	노동자 문화제
09 주 로 가	10'		전태일 열사 회 노동자	노동자 문화제
10 주 로 가	10'		전태일 열사 회 노동자	노동자 문화제

884152

고 전태일 열사 17주기 추모  
노동자 문화제 계획

\* 1987.11.13 (금) 8:00 - 10:30  
\* 휴전 행 :  
\* 사 회 : 1

순서	시간	참석자	내 용	주최
01 주 1 주로 심				
02 전태일 열사	10'	노동자문화제	전태일 열사 회 노동자	노동자 문화제
03 전태일 열사	5'		전태일 열사 회 노동자	노동자 문화제
04 주 로 가	10'		전태일 열사 회 노동자	노동자 문화제
05 전태일 열사	10'		전태일 열사 회 노동자	노동자 문화제
06 주 로 가	10'		전태일 열사 회 노동자	노동자 문화제
07 주 로 가	10'		전태일 열사 회 노동자	노동자 문화제
08 주 로 가	10'		전태일 열사 회 노동자	노동자 문화제
09 주 로 가	10'		전태일 열사 회 노동자	노동자 문화제
10 주 로 가	10'		전태일 열사 회 노동자	노동자 문화제

\* \* \* \* \*

\* 전 태 일 열사 17주기 추모  
노동자 문화제 계획

\* 1987.11.13 (금) 12:00 - 7:00  
\* 휴전 행 :  
\* 사 회 : 2

순서	시간	참석자	내 용	주최
01 주 1 주로 심				
02 전태일 열사	10'	노동자문화제	전태일 열사 회 노동자	노동자 문화제
03 전태일 열사	5'		전태일 열사 회 노동자	노동자 문화제
04 주 로 가	10'		전태일 열사 회 노동자	노동자 문화제
05 전태일 열사	10'		전태일 열사 회 노동자	노동자 문화제
06 주 로 가	10'		전태일 열사 회 노동자	노동자 문화제
07 주 로 가	10'		전태일 열사 회 노동자	노동자 문화제
08 주 로 가	10'		전태일 열사 회 노동자	노동자 문화제
09 주 로 가	10'		전태일 열사 회 노동자	노동자 문화제
10 주 로 가	10'		전태일 열사 회 노동자	노동자 문화제

\* \* \* \* \*

故 전태일 열사 17주기 추모 노동자  
문화제 계획,  
1987.11.13, 전태일재단

**김영대** 명동성당 사도회관에서 했는데, 그때 함세웅 신부가 사도회관 쓰는 걸 허락을 해 줬습니다. 근데 아침 일찍 준비팀이 갔는데 쇠사슬로 잠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세웅 신부한테 “아니, 약속을 해 놓고 이걸 잠가 놓으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야, 그걸 나보고 열쇠를 달라 그러면 어떡하냐. 끊고 들어가면 되지. 나한테 와서 물어보면 어떡하냐?”라고 함세웅 신부가 얘기를 했어요. (웃음)

**사회자** 서로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하는 거죠. 공식적으로는 못 열어주고.

**김영대** 예. 그렇습니다. 자기가 내 주기로 했는데, 그걸 위에서 주교가 잠갔다는 거죠. 잠겼으니까 우리는 깜짝 놀라서 “그럼 어떡합니까?”라고 그러니까 “쇠사슬이라는 게 끊으면 끊어지지 않냐.” 그래서 ‘아, 끊고 들어가라는 말이구나.’ 하고 들어가서 한 거죠.

그때는 이미 그날 모여서 복구대회 한다고 다 뿌렸으니까 형사들도 그 정보를 알고 있었을 텐데, 명동성당 입장에서 보면 “우리도 잠가 놓고 못 쓰게 하려고 했는데, 저놈들이 끊고 들어왔으니 어쩔 수 없다.” 이런 거였어요.

그렇게 해서 복구대회를 진행했는데 그때 했던 연극의 반응이 좋았어요. 그 연극인지 모르겠는데, 어디 가서도 하고 이랬어요. 몇 차례 했던 공연이 있습니다.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어디서 불러 가지고 더 보완시켜서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사회자** 초청 공연도 가고, 순회 공연도 하고. (웃음)

**김영대** 순회 공연 정도까지는 아닌데. (웃음) 그리고 중요한 건 아까 말했듯이 마석에서 공연을 했던 거죠. 지금은 사람들이 공연하고 뭐하는 거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데, 그때만 해도 그런 반정부적 시위 내지는 공연이 거의 불가능했을 때입니다. 근데 유일하게 전태일 열사 추모식에 가서 뒤풀이로 공연하고, 마석 모란공원까지 행진해 오기도 하고, 뭐 이렇게 했던 게 그때 당시의 문화 활동이라고 볼 수 있죠.

**사회자** 류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랑 연대해서 활동하거



청계피복노조 연극  
공연 “우리 다시 일어  
서는 날”, 1984.06.24,  
전태일기념관



나, 지원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까?

류이            그거 박계현 씨나 김성민 씨가 잘 알 거예요. 자기들이 민주 노조 연합문화패 활동을 했으니까.

김영대            그렇죠. 같은 문화패끼리 서로 같이 가기도 하고 이랬던 거 같아요.

사회자            아무래도 87년 이후에는 서노협<sup>12)</sup> 차원에서도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전노협<sup>13)</sup> 차원에서도 문화패들이 노래패나 탈패 등으로 다양하게 활동했던 거 같아요.

김영대            그때는 차원이 좀 달라져 버렸어요. 그전까지만 해도 청계 문화패가 나름대로 유명했었는데, 노조들이 많이 만들어지니까 큰 노조 같은 경우는 전부 선수들이 있더라고요. 서울지하철만 해도 모이면 금방 모이고, 과거에 좀 놀았던 사람들이 와서 하니까 금방 발전하게 되고요. 아까 말한 대동놀이를 하는데, 당시 문화패만 해도 100여 명씩 모였습니다.

사회자            예, 맞아요. 87년 직후가 가장 활발했었죠.

김영대            이렇게 행사 때 보면 각자 노조에서 온 팀들만 해도 한 무더기로 모여서 같이 놀고 그랬을 정도였죠. 그게 한 1, 2년 정도 지나니까

전문 공연패들이 생겨났습니다. 집회도 워낙 커지고 하니까 그렇게 흘러갔던 거 같아요. 그리고 모든 지역에 가서 싸우기 전후에 풍물패들이 항상 등장했었고, 구사대 같은 거 막을 때도 있었고요.

사회자            류이 선생님께서는 쪽 문예 운동을 하시다가, 87년에 서울노동조합운동연합 결성하는데도 주도적 역할을 하십니다. 청계노조도 같이 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문화 예술 운동과 노동 운동의 결합에 있어서 당시 역할을 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류이            문화패와 노동 운동의 결합, 이런 측면은 이제 조금 결이 다른 거 같고요. 실제로 서노협 만들어지고 전노협 만들어지고 이럴 때는 김정란<sup>14)</sup> 씨가 아예 협의회 문화국장으로 들어가서 전체를 기획했으니까요.

사회자            맞아. 전노협 문화국장을 하셨죠.

김영대            그랬죠.

류이            그쪽이 더 잘 아실 테고. 그 당시에는 학생 문화패들이 학생 언더 서클보다 숫자가 훨씬 많았는데, 결정을 언더에서 해 가지고 문화패 학생들은 좀 도구화되는 거 같다는 불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후배들이 저한테 문화패 언더를 만드는 걸 도와달라고 하는 바람에 ‘해방 문화연구회’라는 문화패 언더가 만들어졌습니다. 처음에 대학탈반연합회도 말씀하셨듯이 문화패가 전국적으로 연대가 잘 되었어요.

12) 서울지역노동조합협의회. 1988년 5월 29일 출범.

13) 전국노동조합협의회. 1990년 1월 22일 창립.

14) 구술자 류이의 부인이자, 1970~80년대 문화운동 및 여성 노동자 운동에 참여한 무용가이다.

그 뒤에 제가 노동 운동으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서노련 이후에 서울 지역에서 조직 사건도 많고, 굉장히 노동자들이 힘들어하고, 우왕좌왕하고, 인텔리들의 사상 투쟁에 갈 바를 몰라 했죠. (웃음) 영등포 산선에 문화패 노동자들이 있었는데 한 명이 PD로 가면, 다른 한 명은 주사로 가고, 이 형 따라가면 PD가 되고, 저 형 따라가면 주사가 되고. 노동자들이 정말 헛갈리는 그런 지경이 됐었어요.<sup>15)</sup>

그러다 보니까 ‘아, 이 판을 좀 수습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서울 지역 노동 운동을 좀 수습하자고 해서 주의자 그룹이 생기고, 그 그룹에서 서울노련을 조직했어요. 구로, 영등포, 성수, 청계 이렇게 참여한 서울노련이 형성이 된 거죠. 인천 지역하고 달리 서울 지역은 노동조합운동에 중점을 뒀어요. 그래서 서울노련이 이름도 서울노동조합운동연합이었고요.<sup>16)</sup> 이제 이 세력이 서노협 주축으로 성장해 갔고, 전노협 만드는 이런 쪽으로 가면서 대중조직 운동을 커져 가죠.

서울노련이 그런 방식으로 노조 운동을 축으로 전화돼서 성장해 갔으며, 그런 의미에서 청계피복과 서울노련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5. 문화 활동 관련 일화들

**사회자** 지금까지 80년대 청계노조가 재건되는 과정, 그리고 재건된 이후에 대중 운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의 문화패 역할을 살펴봤습니

15) 1980년대 중반 운동권 내부에서 격렬히 전개되었던 노선 투쟁을 이르는 말이다. 간단히 정리하면 PD(People's Democracy)는 민중 민주를 지향하는 그룹이었고, 주사는 주체 사상파의 약칭으로써 흔히 NL(National Liberation)이라고 불리며 민족 자주를 지향하는 그룹 내의 강력한 세력이었다.

16) 1987년 11월 1일 창립.

다. 오늘은 문화패 활동, 특히 탈반이라든가, 연극 활동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정확히 기록되지 않은 문화 활동에 대해 다양한 얘기를 들을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던 거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해주시겠습니까?

**김영대** 청계를 정점으로 한 문화 활동에 대해 얘기를 했는데요. 몇 분 거명할 분이 있는 거 같아요. 연성수 씨의 ‘민요연구회’가 있어요.

**사회자** 84년에 창립되었던 거죠.

**김영대** 이게 부인이 같이했던 민요연구회죠?

**류이** 예.

**김영대** 그러니까 요즘 알려진 개량 한복에 대해서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나라의 전통복에서 좀 개량된 한복을 만들어 보자.” 그 제안을 처음에 민요연구회에서 했었어요. 그래서 서울대 미술팀이 민화 가운데 호랑이 담배 피는 그림, 그다음에 봉산탈춤과 양주탈춤을 상징화한 그림들로 디자인해서, 최초로 개량 한복을 만들었어요. 당시 어머니 살던 창동에 제가 같이 살았거든요. 거기 미싱 놓고 한 3,000벌을 만들었는데, 그게 개량 한복의 효시가 된 거죠.

**사회자** 이후에 그게 ‘질경이’<sup>17)</sup>가 되었던 거죠.

17) 1986년 서울아시안게임,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우리 것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생겨나면서 ‘우리옷 입기 운동’에서 출발한 (주)질경이우리옷 사업단

김영대 이후에 생활 한복이 보편화 됐는데, 문화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런 시초가 있었다는 거죠. 이걸 또 나름의 중요한 역사적 사실이어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때 당시 CBS가 그걸 선전해 주고, 홍사단에서 자리를 내 줬어요. 그래서 한 3,000벌 만든 게 이틀 만에 다 동이 났을 정도로 인기가 좋았었습니다. 그 뒤에 한참 좀 지나면서 개량 한복이 대중화되기 시작했죠.

사회자 그 부분도 잊지 못할 한 측면이라는 말씀을 하신 거 같아요. 류이 선생님도 말씀해 주시죠.

류이 지금 말씀하신 거는 민요연구회가 아니고 연성수 씨가 했던 민족생활문화연구소예요.

사회자 맞아, 그러네요.

김영대 생활문화연구소인가요.

류이 그쪽이었고, 이기연 씨.

김영대 네. 연성수 씨 부인이 이기연 씨.

류이 홍대 미대 출신이고, 탈춤반 출신이고. 기연 씨가 생활 한복의 효시를 같이 만든 거네요.

김영대 제가 재단하고 봉제했어요.

류이 그랬구나. (웃음)

사회자 항상 조감독 역할을 하셨다, 이거지요. (웃음)

김영대 그렇지. (웃음)

사회자 남들은 주인공이라고 알아 주지 않고, 본인은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고.

김영대 저는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는데 남들은 기억을 안 해 줘.

사회자 마지막 한 말씀 해 주시죠.

류이 참 감회가 새롭네요. 감회가 새로운데, 제가 그 기억이 나네요. <노동의 햇불>에서 ‘전태일굿’을 만들었는데, 그게 촛불 의식이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촛불 들고 모여서 전태일 열사 앞에 자기의 마음을 써서 짧게 얘기하고, 공동으로 모아서 제문을 만들어서 낭독하고. 말하자면 결의하는 노동자들 모였을 때, 노동자 문화패가 졸업할 때라든지, 이럴 때 그런 걸 했어요. 영등포 문화패 1기가 처음에 그걸 했어. 이렇게 ‘전태일 굿’이라는 이름으로 하면서 노동자들의 글을 모아 제문을 썼는데, 감동이 흘러나오는 너무나 명문인 거야. 그래서 ‘아, 이걸 보관해야 하겠다. 태우기 아깝다.’ 그래서 그걸 갖고 있다가 검문에 걸렸어요. (웃음)

사회자 아주 중요한 기록이었는데.

김영대 그래서 뺏겼습니까?

류이            뺏겼죠. 그걸로 또 감옥에 갈 뻔했는데, 민중교육연구소의 허병섭 목사님이 구출해 주셨어요. 그걸 뺏겨서 너무 아쉽고. 그다음에 즉흥 촌극 한 걸 다 녹음하고, 서로 나눠 갖고 가서 글로 옮겼어요. 내가 그걸 한 상자를 갖고 있었는데, 도망 다니면서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게 정말 아쉽습니다.

사회자        역사적 기록이었는데 아쉽게 됐네요.

지금까지 80년대 청계노조 활동과 관련해서 탈춤반, 민중 문화 운동에 대해서 들어 봤습니다. 노동 운동의 대중화 과정에서 문화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고요. 그것이 87년 이후 이어져서 대중적인 민중 문화 운동, 노동 문화 운동으로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류이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그런 민중 문화, 노동 문화의 흐름들이 많이 취약해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을 다시 되살릴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청계노조의 문화 예술 운동과 관련된 구술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대        수고하셨습니다.

류이            수고하셨습니다.

# 3부 청계피복노조의 연대 활동 — 구로동맹파업 중심으로

인터뷰 3회차

2024년 8월 21일(수) 10시~  
전태일기념관 2층



왼쪽부터 김영대, 김태현, 김영미

## 1. 1984년의 민주 노조 연대 활동

**사회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1980년대 청계노조의 활동에 대해서 기록하는 제5차 노동구술기록 사업의 3회차 시간입니다. 오늘 진행할 3회차 인터뷰에서는 85년도에 전개되었던 구로동맹파업을 중심 사건으로 두고, 이를 전후한 시기의 청계노조의 연대 활동이라든가, 구로동맹파업 당시 활동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로동맹파업이 80년대 노동 운동에서 굉장히 크고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고, 그 자체로서는 회고와 연구가 좀 되고 있습니다만, 그 사건과 관련해서 청계노조의 역할에 대해서는 잘 알려진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1984~85년 당시 청계노조의 연대 활동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구로동맹파업이 있었던 85년 당시 청계노조에서 간부 역할을 맡았던 김영대 선생님, 그리고 청계노조 출신으로 당시 구로동맹파업의 한 가운데에서 동맹 파업을 전개했던 김영미 선생님(효성물산 노조위원장)을 모시고 당시 활동에 대해서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두 분 잠깐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김영대** 저는 청계노조 해산 당시 구속됐다가 82년도에 나와서, 그때부터 노동조합 복구 또는 합법성 쟁취 그리고 노조 결성을 위해 활동하는 사람들을 모아 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84년 4월 8일 명동성당에서 청계노조 복구대회를 열었을 당시 민중덕이 위원장, 제가 상근 사무장이 되었습니다. 85년 구로동맹파업 당시에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사회자** 네. 당시에 노조 사무장으로 활동하셨군요. 그럼 김영미

선생님은 당시에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김영미** 저는 80년도 이전부터 청계피복에서 일했었구요. 봉제 부문에서 일하다가, 뭔가 좀 나은 삶을 위해서 야학에 들어갔는데 그게 제일 교회 야학이었어요.

**사회자** 그게 몇 년도였죠?

**김영미** 80년도에. 그 당시 80~81년도 현실이 어땠냐면, 그때가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바뀔 때였어요. 산별 노조 형태였죠. 그래서 야학에서 공부를 하는데, “청계천은 15명, 5명 이렇게 일하는데 기업별 노동조합을 만들기가 좀 힘들지 않냐” 이래서 “대기업으로 가자”. 그때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사회자** 당시에 청계노조가 해산되고, 노조도 기업별로만 결성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었으니까.

**김영미** 네. 그래서 기업별 노조를 만들려면은 청계천에 있는 것보다는 대기업으로 진출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래서 여러 곳을 전전하다가 효성물산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자** 구로동에 있는.

**김영미** 네. 그러니까 82년도에 야학에서 공부를 하고, 그때 효성물산에 취업했죠. 82년에 취업을 해서 84년 7월에 노동조합을 결성했어요.

사회자 그리고 노조위원장까지 하시고.

김영미 네. 노조위원장이 됐습니다.

사회자 원래 하고자 했던 소원을 성취하신 거네요? (웃음)

김영미 일단은. (웃음)

사회자 81년에 청계노조가 해산되고, 이후 활동가들끼리 모임으로만 존속하다가 84년도에 청계노조 합법성 쟁취대회를 진행했던 거 같아요. 당시에 청계노조 같은 경우 다른 민주 노조라든가, 학생들과 연대 활동을 벌였던 부분을 많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84년 3월에 홍제동 성당에서 2,000명의 노동자, 학생, 시민들이 모여 한국노동자복지협의회, 줄여서 노복이라 그랬던 거 같아요.

김영미 네.

김영대 네.

사회자 그랬죠. 노복이 발족하는데요. 청계노조에서도 당시 위원장이었던 양승조 동지와 사무장 했던 민종덕 동지가 참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동자복지협의회 결성 당시에 청계노조가 참여했던 이유라든가, 어떤 방식으로 참여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 잘 아시다시피 광주 항쟁 이후에 청계노조가 최초로 해산이 됩니다. 그걸 시작으로 해서 원풍모방, 콘트롤데이타, 그리고 몇 개 사

업장들이 연이어서 탄압받고 해고되고, 노조가 와해되면서 무너지게 되었죠. 80년대 노조 운동 전체를 없애려고 할 때, 해고됐던 노동자들 중심으로 모여서 노동자복지협의회를 만들었던 거 같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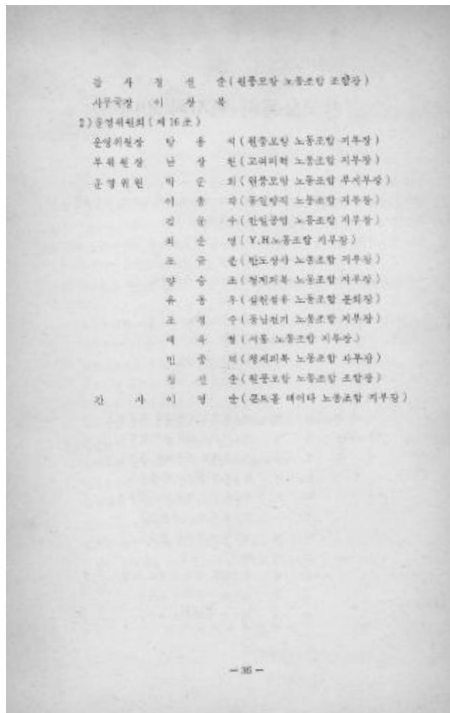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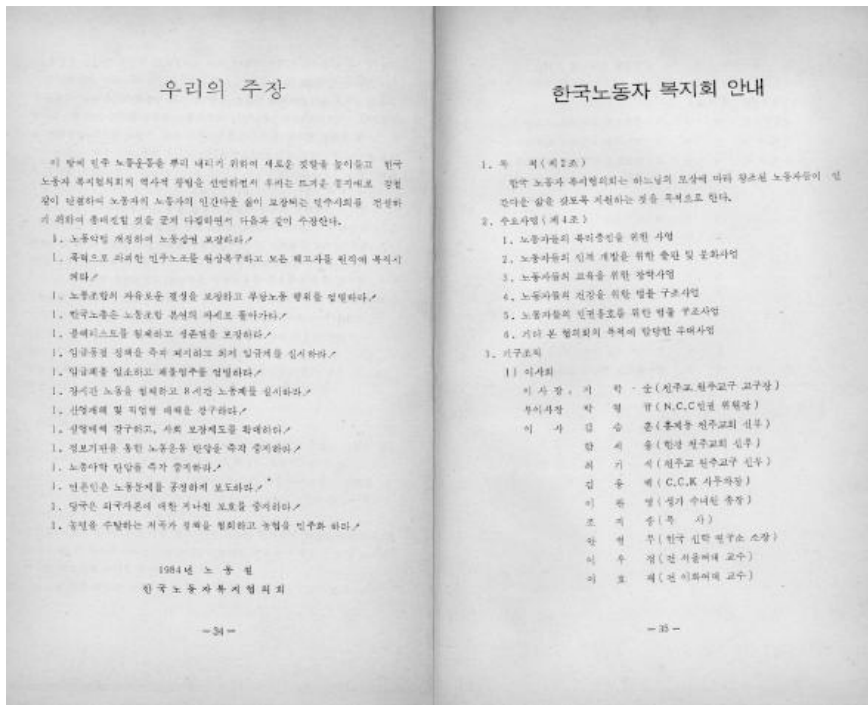
청계노조의 일부 간부들과 조합원들도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청계노조는 “합법성 쟁취를 계속하자” 이런 논의가 중심이었고, 그래서 노동자복지협의회에 관심이 있고 같이했지만은 활발한 연대는……. 그러다가 저는 구로연대투쟁이 나면서 바로 구속돼서, 그 뒤의 활동들에 대해서는 자세하게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사회자 효성물산의 경우에는 84년 7월에 노조가 결성되면서 위원장을 맡으시고, 그 이후에 구로동맹파업에 참여하시는데요. 노조 결성 과정에서 노동자들 간의 연대 같은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노동자복지협의회 결성이 효성물산 노조 건설에 영향을 주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저는 82년도에 효성물산에 들어가서 소모임 활동을 했어요. ‘한마음’이라고 하는 소모임이었는데, 한꺼번에 너무 많이 모이면 표시가 나니까 7명 단위로 나눠서 7기까지 활동했어요. 그 모임에서 우리가 노동야학 학습을 하면서, 실천한 게 뭐냐면 각종 행사에 다니는 거였어요. 이제 근로자의 날 행사를 우리끼리 한다든가, 성당에서 마당극을 한다든가. 이런 걸 할 적에 적극적으로 ‘한마음’ 팀들이 같이 다닌 거죠. 그러다 보니까 노복 결성식에 우리도 참가했었어요.

사회자 아, 그러셨군요.

김영미 노동조합 만들기 전에는 가까이에 있는 대우어패럴 김준



노동절 기념 대회(자료),  
1984.03.10, 전태일재단

용 위원장이 그때 소모임을 하고 있었는데, 그 팀하고 우리 효성물산 팀이 같이 1박 2일로 수련회를 가기도 했었구요. 또 그 이전에는 인천에 있는 영창악기라든가, 대우전자, 대우자동차, 삼익악기 이런 데하고도 같이 미팅을 하는 그런 연대가 활발히 이루어졌는데 그 배경이 뭐냐면 야학이예요. 그때 야학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사회자 그렇죠.

김영미 제일교회 출신 야학들이 구로로 와서 팀을 꾸려서 야학을 했어요. 그리고 인천에 동국무역이라고 있었는데, 제가 효성물산에 들어가기 전에 거기서도 야학을 3기까지 하다가 들켜서 고문받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또 그때 전국적으로 대학생 중심의 야학 연대가 있었어요. 대학생들이 야학 연대를 통해서 저한테 정보를 주면, 저는 노동자들을 엮어서 같이 수련회를 한다거나 그런 야학 활동을 2년 정도 했었어요.

2년 동안 소모임 공부를 일주일에 두 번 이상 하면서 간부의 역할 같은 것들은 훈련이 되어 있었어요. 각 사업장에 인원은 많은 것은 아니지만 3, 40명 정도의 토론이라든가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는 역량 같은 것 말이에요. 근데도 노동조합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있었죠.

사회자 예.

김영미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700명이 넘었는데, 40명 갖고 시작해도 할 수 있나 이런 공포감이 있었어요. 근데 대우어패럴이 먼저 6월에 노동조합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자네 회사도 만들면 좋겠다.” 그래서 대우어패럴이 노동조합의 깃발을 들자마자 우리도 들었죠. 저희가 7월 14일에 노동조합을 만들었는데, 그때만 해도 노조에 대한 탄압이 엄청 심



했을 때였어요. 노동조합을 결성하면 구청에 접수를 하고.

**사회자** 설립 신고 하기 위해서죠. 신고증을 받아야지 정식으로 노조 활동을 할 수 있으니까요.

**김영미** 예. 그리고 결성식을 해야 하잖아요. 합정동에 있는 섬유 연맹에서 결성식을 하는데, 경찰한테 들켰어요. 59명이 모여서 결성식을 하는데, 거의 한 500명 정도의 경찰이 둘러싸고. 우리는 그 안에서 바리케이드 치고 결성식을 했어요.

토요일 날 결성식을 하고 월요일 날 구청에 접수를 해야 하니까 우리가 그 안에 마냥 갇혀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또 한 명씩 나가면 다 탈퇴서를 받을 게 너무 뻘하고. 회사 관리자들도 다 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후문으로 한 명씩 야반도주식 탈출을 했는데, 이미 집집마다 관리자들이 와서 탈퇴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월요일 날 접수하러 가는데, 또 구사대가 덮쳐서 서류를 뺏어 갔어요. 신고필증이 원래 15일 안에 나와야 하는데, 특수재물손괴로 고발을 하고 뭐 이런저런 빌미로 해서 한 달 넘게 있다가 나왔죠.

**사회자** 굉장히 어렵게 노조 결성식을 성공하셨네요.

**김영미** 그때 조합원이 사무장하고 위원장하고 두 명만 남았습니다. (웃음)

**사회자** (웃음) 그래도 어쨌든 설립신고증을 받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네요.

**김영미** 받았죠. 받았는데 조합원이 2명 남았어요.

**사회자** 당시 상황을 제가 좀 아니까 설명을 드리면,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기 전에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고, 엄청난 탄압을 지속했어요. 그러다가 83년도 하반기에 약간 유화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특히 학생 운동 하다가 구속된 학생들이 많이 풀려나오고, 제적됐던 학생들도 다시 학교에 복귀하게 되고, 그 시기를 유화 국면이라고 얘기해요.

그때 학생 운동 했던 친구들을 중심으로 민주화운동청년연합이라고, 민청련이라는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김근태<sup>1)</sup> 씨가 민청련 의장이 되면서 약간 공개적이고 반합법적인 운동을 하게 되고요. 83년도 하반기에 그런 조직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조직을 만들어도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퍼지게 됐죠. 이런 흐름 속에서 노동자복지협의회도 84년 3월 10일 근로자의 날에 맞춰서 결성을 했어요.

**김영미** 네, 맞아요.

**사회자** 기존에 야학 운동을 하고, 소모임 활동을 했던 노동자들이 거기에 같이 참여하게 되고요. 원풍모방, 콘트롤데이타, 청계피복 등의 노동조합에서 활동했던 동지들이 많이 참여했던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효성물산의 경우에도 노조 결성 이전에 소모임을 했고, 구로동과 다른 지역에 있던 노동자 소모임들과 연대 활동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

1) 서울대학교 재학 시절부터 학생 운동에 적극 참여하였으며, 1970년대에도 각종 용공 조작 사건과 민주화 운동 관련 탄압 사건에 연루되었다. 1983년 출범한 민주화운동 청년연합 초대의장을 역임하는 등 1980년대에도 민주화 운동가로 활동했다. 1985년에는 서울대학교 민주화추진위원회 사건으로 구속되어 모진 고문을 받기도 하였다. 1990년대에는 정계에 입문하여 이후 국회의원과 보건복지부 장관을 역임하였다.



김영대

김영미 네. 인천, 성남 지역의.

사회자 청계노조의 수련회에 다른 공장 노동자들이 참석하기도 했다는 자료를 봤는데요. 청계노조의 연대 활동에 대해 소개해 주실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 큰 틀에서 보면 5공화국이 들어서면서 노조뿐만 아니고 사회 전체를 탄압했던 시기가 있었잖습니까? 그때 그나마 저항했던 게 청계피복노동조합이고. 원풍이나 콘트롤데이타 이런 데도 강제 해산당하면서 소규모적인 저항이 있었지, 큰 저항은 없었습니다.

그런 이후에 활동할 수 있는 합법적인 공간이 없어져 버리니까, 청계에서도 제일교회, 형제교회, 초원교회, 연동교회, 동대문성당 등 주변에 있는 6, 7개의 야학 관리하면서 활동을 지속해 왔어요. 그리고 당시 여름수련회 이럴 때는 100여 명씩 모여서 여주도 가고, 꽃지해수욕장도 가고 했죠. 여름휴가 때 대우어패럴도 참여한 적이 있었어요.

김영미 저희도 했었어요.

사회자 아, 효성물산도?

김영미 노동조합이 없을 때도.

김영대 그러니까 청계가 중심이 되긴 했지만, 청계에서 파생되어 나가서 활동하는 분들과 연계해서 같이 그 어떤 우리의 의지를 다지는 행사들을 계속 이어 왔습니다. 그게 구로연투 전에 있었던 활동들이었던 거 같아요.

김영미 그리고 구로연투 이전에 가장 상징적인 연대 활동이 벌어진 것이 11월 13일의 전태일열사추도식.

사회자 그렇죠. 마석에서.

김영대 그렇죠.

김영미 그건 어떤 경우라도 다 갔죠.

김영대 수도권에 있는 노동자들은 거의 다 왔었던 활동이었습니다.

김영미 거기에서 진짜 동지를 확인하고 가는 거예요.

사회자 맞습니다. 그리고 84년도 9월에 제일교회에서 폭력배들이 박형규 목사를 끌어내고 교회를 점거하는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가 있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일교회가 야학을 해서 노동자 의식화에 도움을 주기도 했는데요. 그때 당시 청계 노조원들이 제일교회에 몰려가서 항의했죠. 매주 수요일마다 길거리 예배 집회가 있었는데 혹시 거기도 가셨나요?

김영대 저희 조합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고요. 목사님이 거의 쫓겨나다시피 했지 않습니까. 그런 수요일마다 모이는 집회에 같이해 주고, 또 확인하고 이랬던 게 이어졌죠. 어떻게 보면 주일 항의 집회의 시초였던 거 같아요.

사회자 그렇죠.

김영미 거기 경찰서 앞에 가서 하기도 하고.

사회자 구로동에서 직장을 다녔는데도 참여하셨어요?

김영미 수요일 날은 못 갔어도 참여했죠. 84년도 당시는 주일마다 우리가 쉬지 못했어요. 격주로 쉬었거든요. 여건이 될 때는 가고, 여건이 안 될 때는 못 가고. 근데 그때 그러면서 경찰과 대치하는 연습을 우리가 한 것 같아요. (웃음)

사회자 그랬었군요. 결국은 제일교회 야학이 문을 닫고, 거기서 운영되던 무료 진료소가 전태일기념관으로 84년 12월부터는 옮기게 되었어요. 그거 관련해서 기억나시는 게 있으십니까?

김영대 그때 연대의 흐름을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야학에 참여하면서 함께 연대했던 학생이 있었고, 또 한 축으로는 문화 활동이 있었어요. 풍물반이나 탈춤반을 운영할 때 봉산탈춤, 양주탈춤 이런 거를 가르쳐 줬죠. 나머지 한 축으로는 의사들의 활동이 있었습니다. 당시는 학생들이었으니 미래의 의사들이죠. 그분들이 일주일에 하루 요일을 정해서 무료 진료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경희대 의대와 한의대에서 와서 치과나 한방 쪽 진료를 했었어요.

사회자 그리고 84년 11월 30일에 민경교통노조 복지부장을 맡았던 박종만 열사가 해고되고, 해고 철회를 요구하면서 분신 항거하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청계노조가 조합원 교육을 취소하고 영안실로 달려가서 63명의 조합원들이 모였다는데요. 그때 같이 참석하셨죠?

**김영대** 당연히 참석했습니다. 그때는 살벌했죠. 당시만 해도 분신하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정부가 시신을 탈취해 가서 강제로 화장시키고 그냥 처리해 버렸어요. 유족들을 매수하고 시신을 빼돌리는 거죠. 당시 박종만 열사가 분신하고 나서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영안실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지켜야 한다고 해서 저희 조합원이 한 6, 70명이 병원에 갔었던 거죠.

영안실을 지키고 있었는데, 결국 야밤에 전경들이 쳐들어와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그때 저는 치고받고 하면서 마지막까지 저항하다가 신광용이라는 분하고 버스에 끌려가서 집단 폭행을 당했어요. 근데 버스 안에 전경 헬멧도 있고, 방망이 같은 것을 위에 걸어 놔요. 우리가 폭행당하다가 분노를 해 가지고서는 그걸 빼서 둘이서 죽자 사자 붙으니까 전경들이 결국은 다 쫓겨 나갔어요. 저희 둘만 남겨 놓고 나가면서 사과탄 2개를 던지고 문을 닫아 버렸어요. 버스 안에서 거의 숨이 막힐 정도였죠. 그때 다른 노동자들은 다 연행하면서도 문익환 목사만 유일하게 연행을 안 했었는데, 목사님이 구두를 벗어서 버스 유리창을 깨겠다고 밖에서 아무리 두드려도 끄떡 안 하더라고요.

**사회자** 유리창이 안 깨지고.

**김영대** 신광용과 저는 서대문경찰서로 연행되었고, 북부 지원에서 즉결 재판을 받았어요. 그때가 유화 국면이었기 때문에 구속까지는 안 됐었죠. 당시 청계노조에는 여성 조합원들이 많았는데, 재판받을 때 얼마만큼 저항했냐면, 즉결 심판하는 재판관한테 신발 던지고 뭐 하고. 그러니까 전경들이 4명이 한 조가 되어서 재판장에 노동자를 한 명씩 들고 들어갔어요. 그냥 들고 들어가서 땅땅땅 때리고 나가고. 또 한 명씩 들고 들어가고, 그 정도로 살벌하게 했어요.

**사회자** 강력하게 항의하셨네요.

**김영대** 그런 정도로 싸워서, 그때 당시 10여 명이 29일 형량을 받았어요. 저도 29일 받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회자** 약식 재판의 최고형이 29일이었는데, 최고로 때려 버렸네요. 굉장히 고생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 2. 구로공단 지역의 노동자 연대

**사회자** 85년 6월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최초의 노동자 정치 투쟁이자 동맹 파업으로 평가받는 구로동맹파업, 구로연대투쟁이 전개됩니다. 그 준비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로공단에 84년도 들어서 대우어패럴부터 시작해서 효성물산, 부흥사, 선일섬유, 가리봉전자까지 쪽 노조 결성이 이어지면서 공단 내에서도 상당히 규모가 있는 노조들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김영미 선생님은 당시 기업별 노조만 인정되었기 때문에 청계노조가 바로 복구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따라서 조금 큰 사업장에서 대규모 노조를 만들고자 구로동에 가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효성물산 노조가 만들어지고 난 후에도 구로 지역의 노조들끼리 연대 활동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노조 결성 이후의 연대 활동들이 어떠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영미** 노동조합 결성 이전부터 소모임으로는 대우어패럴하고 효성물산만 만났는데, 노동조합 결성하고 나서 보니까 선일섬유도 섬유 쪽이잖아요. 당시에 섬유 연맹에서 하는 공식 행사들이 있었어요. 공식 행

사에 신규 여성위원장 모임이라든가, 신규 위원장단 모임이라든가 이런 데 갔을 때, 거기서 비슷한 연배의 위원장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부흥사 위원장도 만나게 되고, 남해어망이라고 거기 위원장도 만나고, 그 밖에 많은 위원장들을 만나게 되는데, 몇 번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 ‘아, 우리가 결이 좀 비슷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죠. 진정한 민주 노조를 만들고 싶다는 열망이 있는 위원장들끼리 모임을 했어요.

그리고 신규 위원장단 모임 같은 경우는 한국노총에서 주최하거든요. 그런 위원장 모임 같은 데 갔을 적에, 문성현 통일중공업 위원장, 그다음에 성남에 제화 쪽 오길성 위원장, 이런 사람들을 거기서 만난 거예요. 우리한테는 보너스죠. 그렇게 해서 눈빛만 봐도 ‘소모임 해서 노조 만들었겠다.’ 이런 느낌이 있는 사람들이 기가 막히게 인연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들끼리 내부적으로 그 모임을 한 거예요.

구로에는 그런 세력이 많았죠. 가리봉전자 위원장, 선일섬유 위원장도 대화가 됐어요. 선일섬유는 양평동에 있었는데 거의 매일 구로에 왔어요. 근데 우리가 위원장으로서 노동조합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어야 하잖아요. 노동조합은 뭘 해야 하는지, 어때야 하는지 같은 것들을 얘기했어요. 그다음에 우리가 전부 탄압받고 있으니까 “탄압받을 때 어떻게 대응했더니 사측과 경찰이 꿈쩍 못 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말려 들어갔다.” 이런 것을 서로 공유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 노조 활동의 초보자니까 위원장들끼리만 만나지 말고 확장시키자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교육부장단 모임, 정의부장단 모임, 사무장 모임을 만든 거예요. 근데 모임 한다고 모여서 날마다 그냥 얘기만 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야학에서 했던 프로그램을 부장단 모임에 접목을 시킨 거예요.

사회자      교육 프로그램들을.

김영미      예. 교육 프로그램을. 예를 들면, 그때는 조선일보 이런 게 한문으로 나와 있거든요. 한문으로 나와 있는데 사설을 읽고 사회를 토론하자 그러면 어떤 노동자가 하겠어요?

사회자      그렇죠.

김영미      “우리가 한문을 못 배웠으니까 신문 사설을 읽으면서 한문을 배우자.”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소모임 시작하면서 한문 공부를 하기 위해 사설을 읽는 거예요. 그러면 사설을 읽을 적에 강학들이 해설을 해줄 거 아니에요? 사설은 옳든 그르든 당시에 주어진 팩트를 갖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개인의 생각을 이야기해 보라고 하면서 토론 역량을 키우고요. 이런 공부를 다 같이 하다 보니까 부장단 모임을 할 때, 어디 가자 그러면 100명이 훌쩍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힘이 생긴 거죠.

1년 동안 그런 모임을 하다가, 이 모임에서 그야말로 각종 토론들을 하면서 임금 인상 투쟁 준비를 같이하게 된 거예요. 85년도에 임금 인상 투쟁을 준비하면서 공동으로 목표를 정하고, 공동으로 날짜도 정해서 공권력을 분산시키자. 이런 야무진 꿈을 꾸는 거죠. 운동장에다가 조합원들 다 모아 놓고 연설을 하게 되면, 막 경찰 몇백 명에게 둘러싸여서 무섭잖아요. 근데 똑같은 날 투쟁하고 결과보고대회를 하면 군사력을 분산시키는 효과도 있고 괜찮겠다 생각한 거죠.

대우어패럴이랑 효성물산이 마주보고 있었거든요. 한쪽에서 합성을 지르면 서로 대답해 주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생기는 자부심이 엄청 있었어요. 그게 서로 기를 살려 주는 거죠. 기가 좀 살아야 투쟁할 맛이 나잖아요.

85년도 임금 인상 투쟁 준비를 84년 9월부터 했어요. 노동자들이 얼마만큼의 월급을 받아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노조에서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라, 조합원들한테 월급 얼마 받았으면 좋겠냐고 묻는 설문조사를 했

어요. 그 결과보고대회를 하고,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같이 이야기했어요. 근데 교섭을 할 적에 사장단이 짝 나와 있으면, 반대편의 우리 노동자들은 졸잖아요. 우리 답력을 좀 키워야 당당 하게 교섭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노동조합끼리 모의 교섭 연습을 해요. 모의 교섭 하기 전에 전체 조합원들한테 보고대회도 하고요. 노동조합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사실들을 조합원들한테 공유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활동했었어요.

사회자 전반적으로 70년대 민주 노조 활동들에서 배운 거죠.

김영미 배운 거죠, 네.

사회자 구로지역 노조들이 같은 지역이란 공통성에 기반해서 공동 임금 인상 투쟁의 시기를 맞추고, 조합원들이 민주적으로 참여해서 요구를 맞춰 나가는 활동들을 통해 임금을 대폭 인상하는 상당한 성과가 있었네요.

김영미 있었죠. 33% 임금 인상<sup>2)</sup> 했어요.

사회자 예. 굉장히 큰 성과를 거뒀던 거 같습니다. 그렇게 노조가 결성되었던 구로동맹파업의 주역들은 성과를 거두었는데, 한편으로는 탄압으로 노조를 결성하지 못하고 해고당하거나 이런 사업장들이 꽤 많았던 거 같아요.

2) 구술자가 언급한 33% 인상률에 대한 정확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한국노동자복지협의회에서 발간한 《민주노동》 제12호 내용 중, 1985년 상반기 구로 지역 임금 인상 투쟁에 대한 결과로 효성물산의 임금 인상률은 26.5%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당시 상당한 성과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구로동맹파업 및 연대투쟁 참여업체 현황

회 사 명	연대투쟁 참여형태	투 쟁 기 간	참가자수	노 동 조 합 현 황		
				노조설립일	상반기임금인상률	조합원수
대우어패럴	파업농성	6. 24~6. 29	350	84. 6. 9	20.5%	600
효성물산	파업농성	6. 24~6. 26	400	84. 7. 14	26.5%	400
가리봉전자	파업농성	6. 24~6. 27	500	84. 6. 8	17.5%	600
선일섬유	파업농성	6. 24~6. 27	70	84. 6. 11	13 %	150
부흥사	파업농성	6. 28	120	77. 9. 23	34%(초임기준)	600
남성전기	준법농성	6. 25~6. 26	300	77. 2. 12	17.6%	1270
세진전자	준법농성	6. 25~6. 26	200	77. 1. 23	15.5%	890
롬코리아	준법농성	6. 25~6. 26	70	78. 7. 1	17.5%	670
삼성제약	중식거부	6. 27~6. 28	150	75. 8. 11	10 %	150

민주노동 제12호-구로 동맹 파업 수기, 1984.08.01, 전태일재단

85년 4월 10일에는 ‘노동운동탄압저지투쟁위원회(약칭: 노투)’라고 해서 구로공단에 주로 남성 중심 사업장이었던 동일제강과 성원제강 해고자하고, 경인 지역 노동자들이 함께해서 노투를 결성하고요. 또 구로 지역에 노조 결성 실패한 사업장들이 모여서 ‘구로 지역 노조민주화 추진위원회 연합(약칭: 노민추)’이 결성되는데요. 노투나 구로 지역 노민추에 대해서 아시는 바가 있으신가요?

김영미 잘 알죠. 왜냐면 동일제강, 성원제강은 저희 노동조합이 성공하고 난 다음에 노조를 만들면서 엄청 힘들었잖아요.

사회자 그렇죠.

김영미 그래서 우리가 지원 투쟁을 집단적으로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관계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다음에 구로 지역 사업장 중에서 노동조합 결성에 실패했던 곳들은 대학 출신 노동자들이 쫓겨났어요. 주도를 한 학출이 다 거덜 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교육부장 모임, 쟁의부장 모임, 사무장 모임에 이런 인력을 선생으로 쓰면서 굉장히 긴밀하게 연대가 됐어요. 왜냐면 그들은 목적을 갖고 현장에 왔기 때문에 노동자가 나가야 할 길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짚어 줄 수가 있었죠. 그래서 구로 지역 노조는 밖으로도 연대 활동을 조직적으로 펼칠 수 있었죠.

우리 효성물산만 해도 학생 출신이 8명이나 있었거든요. 노조의 부장은 노동자로 세우고, 차장은 모두 학생 출신으로 세웠어요. 부장을 보좌하도록 했고, 대외 활동도 그렇게 했어요.

부장단 모임에서도 현장에서 활동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현장 밖으로 쫓겨난 사람들도 연대해서 계속 공부를 같이했어요. 동맹 파업 이전의 임금 인상 투쟁 시기 때도 유인물 같은 걸 만들어서 구로 지역의 사업장에 돌려야 하잖아요. 쫓겨난 사람들이 유인물을 써서 집에서 다리미로 다린 다음 공장 근처 닭장집 같은 방에다가 넣어 주는 역할들을 했었어요.

사회자 85년 5월 1일에 영등포에서 대규모 가두 투쟁이 노투 주도로 전개되었다고 하거든요. 거기에 청계노조도 참여했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영미 그때는 소모임을 했던 사람들이 있으니까 우리 노동조합이 거의 50명 대오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대규모로 참가했죠. 구로에서 많이 했어요.

김영대 청계도 당시에는 워낙 공간이 없어서 저희가 영등포산업선교회(약칭: 영등포산선)에.

김영미 거기 밖에는 갈 데가 없었어요.

김영대 영등포산선 외에는 갈 데가 없었어요.

사회자 공개적으로 노동자들이 모일 수 있는 곳이.

김영대 예. 행사를 하든 뭘 하든.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는 게 익숙해요.

김영미 너무 익숙해. (웃음) 구로에서도 너무 익숙해.

김영대 그때 당시는 구사대 출동했다 그러면 몇 명이라도 우리는 가야 한다. 이렇게 해서 남자들 중심으로 모아 가지고 가기도 했어요. 그때 청계는 자기 조직을 키우는 것도 필요했지만, 연대 투쟁에는 저희가 빠진 적이 없었어요.

김영미 최고였어.

사회자 그렇죠.

### 3. 구로동맹파업 결의 과정

**사회자** 자연스럽게 서울뿐만 아니라 경인 지역 전체적으로도 민주 노조 간의 연대가 활성화되었던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구로동맹파업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6월 22일 대우어패럴 노조 김준용 위원장을 비롯해 간부 3명이 구속되고, 24일부터 대우어패럴, 효성물산, 가리봉전자, 선일섬유 4개 노조가 동맹 파업에 들어가게 되고, 29일 강제 해산되는 것으로 파업이 끝을 맞게 됩니다.

이 과정과 관련해서 우선 김준용 위원장 구속 당시 청계노조 내에서의 분위기, 대책 논의 등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대우어패럴 간부들이 구속되고 난 다음날인 23일에 청계노조 사무실에서 긴급 대책 회의가 열리고, 이 자리에 김영대 사무장님하고, 김영미 위원장님이 참여하셨다고 하네요. 거기서 어떤 논의들이 오고 갔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 크게 보면 전두환 5공화국이 들어서면서 한 번 탄압을 당해 청계나 원풍 이렇게 쪽 해산되고. 그 뒤에 가리봉전자, 효성물산 등등이 신규 노조로 활동해서 커 나가고 있을 때예요. 근데 이게 한꺼번에 탄압이 쪽 들어오고, ‘여기서 못 막으면 연쇄적으로 다 무너질 거다.’ 이런 위기의식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청계노조에서 만나고 결행할 때는 노조 사무실에서 만나는 게 위험하니까, 제 기억에 저희 친구 공장에서 만났어요.

**김영미** 창신동 쪽대기에 있는 공장에서.

**김영대** 공장에서 만난 기억나죠? 2층 다락방 있는 창신동 공장에

서, 진짜 시다 의자에 걸터앉고 이래서.

**김영미** 미싱 앞에서.

**김영대** 그게 상징적이죠.

**김영미** 근데 구로동맹파업의 이야기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에 제가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대부분의 기록에 당시 구로에 있는 노동자들의 의식 상태가 삭제되어 있다는 것이 제가 분노하고 있는 지점입니다.

22일 10시에 김준용 위원장이 연행됐어요. 효성물산하고 대우어패럴이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어서 아래윗집과 같아요. 우리 회사에서 무슨 일만 생겨도 대우어패럴 위원장이 와서 진두지휘를 했어요. 그리고 대우어패럴 위원장한테 무슨 문제가 생기면 제가 가서 지휘해도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회사에서조차도 그걸 간섭하지 않을 정도였어요. 그날 전화를 받고 갔는데, 이미 상황이 끝난 거예요.

원래는 김준용 위원장하고 나하고 11시에 한국노총 조사통계국장인가, 유종설 국장<sup>3)</sup>을 만나서 그날 저녁에 있을 교육 자료를 복사하기로 했었어요. 그게 어떤 교육이었냐면, 피정선 씨라고 아프리 기구인가 국제노동기구에서 프로젝트를 따다가 민주 노조에 엄청 지원했던 분이 계셨어요. 그분 지원으로 3박 4일, 2박 3일 연합 교육을 하는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그 비용이 1인당 만 원씩 해 가지고 70명을 교육시키는 프로젝트로 돼 있었어요. 식사비하고 장소비를 써야 하니까.

그래서 22일은 효성물산이 그 프로젝트 돈을 받아서 교육을 하는데, 우리 간부만 하긴 너무 아깝잖아요. 밥은 반씩만 먹어도 되니까, 그리고 끼어

3) 1984년도 한국노총 사업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유종설은 1984년 조사부장으로 역임한 것으로 확인되나, 1985년도의 정확한 직책은 확인된 바가 없다.



자면 되니까. 그러니까 70명분 방과 식사 요청을 해 놓는 거예요. 비용에 맞게 해야 하니까. 그리고 한 200명씩 들어가서 교육을 하는 거예요. 밥은 나눠 먹으면 되고, 장소는 좁아도 우리는 귀찮지 않으니까. 그래서 대우어패럴, 가리봉전자, 선일섬유, 부흥사, 롬 코리아 이런 데하고, 그다음에 해고자들 있잖아요. 우리 선생 했던 분들.

**사회자**      아까 얘기했던 노투라든가, 구로 노민추.

**김영미**      예. 그 해고자들이랑 다 해 갖고 모임을 거기서 하기로 이미 한 달 전에 예약이 돼 있었어요. 근데 오전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노동조합에도 어용 간부들이 있었는데, 섬유 연맹에도 국정원에 노조 상황을 일일이 보고하면서 탄압의 빌미를 줬던 박근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양반을 1차 교육에 초대했어요. 그리고 지금 한국 노동사회연구소에 계시는 이원보 선생님이 섬유 연맹에 계셨어요. 이원보 선생님하고 김유선 선생님 두 분을 밤늦게 교육 시간을 배치했었어요. 그렇게 총 3강을 하는데, 원래는 김유선 선생님이 제일 먼저 강의하시고, 중간에 박근식이라는 사람이 강의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교육이 아니라 뭔가 모의를 해야 하잖아요.

**사회자**      대책을 세워야죠.

**김영미**      근데 박근식에게는 걸리면 안 되니까, 이 사람 왔을 적에는 대우어패럴 구속 사건에 대해 아무도 뺨긋 안 하기로 했어요. 교육을 착하게 받고, 이 사람을 먼저 보낸 거예요.

그다음에 이원보 선생님이 강의하시는데, 이원보 선생님이 “아이, 김영미 대표는 맨날 뭘 해 달라고 구체적으로 요청해. 강사 불러 놓고.” 막

이렇게 농담도 하시고 그랬는데요. 그날도 “우리가 여기서 따로따로 구경하고 있으면 탄압받을 거 같으니, 교육 프로그램을 바꿔서 70년대 선배들의 원풍, 청계피복 탄압부터 시작해서 동일제강 와해 되는 날까지 교육을 해 달라. 한 사업장씩 싸우고 옆에서 구경만 하다가는 다 당한다는 사실을 도출해 달라.” 그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선생님이 딱 얘기하니까 애들이 갑자기 멍해졌을 거 아니예요, 100명이.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주제를 이원보 선생님이 딱 정해 줘요.

그리고 김유선 선생님 강의 시간이 다가오는 거예요. 오셨을 적에 양해를 구하고 우리가 토론을 했어요. 100명을 10명씩 나눠서 10팀을 소모임으로. 대우어패럴 노동조합의 탄압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근데 토론하는데 저를 포함해서 거기서 ‘동맹 파업’이라는 단어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없죠. 근데 투쟁은 해야 하는데. 스카프를 벗자. 점심을 굶자. 가운을 뒤집어 입자. 퇴근 후에 대우어패럴에 가서 맨날 시위하자. 별의별 안이 다 나왔을 거 아니예요, 그날? 소모임 토론을 하면 앞에 나와서 제목 써 가지고 발표회를 하는데, 투쟁을 하자는 데까지는 다 동의했어요. “이거는 민주 노조 탄압의 신호탄이다. 여기에 우리가 전면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 근데 결론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때 사실은 전체 조합원들의 선일섬유 김현옥 위원장하고 저에 대한 신뢰가 엄청났었거든요. 다른 사업장의 해고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의 결론은 “어떤 방식으로 투쟁할 것인지 김현옥 위원장하고 김영미 위원장한테 일임한다”였어요. 그날 대우어패럴은 그 사달이 났으니 현장에 참가를 못 했고.

그래서 그다음 날 김유선 선생님에게 교육을 맡겨 놓고, 현옥이하고 저는 여기에 참가하지 않은 민주 노조 위원장들을 만나러 나왔어요. 우리는 그때 어느 정도로 밀집해 있었냐면 서로 간부들 집을 다 알았어요. 가리봉전자 위원장 집으로 갔더니 사무장이랑 둘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아무래도 투쟁을 해야 할 것 같은데, 내가 위원장 의견을 듣고 싶어서 왔다.” 그리고 그날 슈어프로덕츠 위원장도 만나고, 다 다니면서 만난 거예요. 세진전자 위원장도 만나고.

그리고 가리봉전자 위원장한테서 연락이 온 거예요. “오늘 밤 8시에 청계노조에서 만났으면 좋겠다고 심상정한테 연락이 왔다.” 그래서 우리도 “그러자.” 그렇게 하고 우리는 거기로 간 거예요. 우리가 거기 가기 전에 내린 결론은 뭐냐면, “이건 파업밖에 없다.” 당시 가리봉전자가 3교대였어요. 가장 많은 사람을 불러 모아서 투쟁하려면 오후 2시인 거예요. 퇴근할 사람 잡아 놓고, 출근하는 사람하고 결합하는 게.

사회자      교대 시간이죠.

김영미      그래서 2시에 파업하기로 결정하고 청계피복에 갔죠. 쉽게 말하면 “우리 뒤를 부탁한다.” 이 얘기하러 간 거예요. 그러려고 갔더니 김영대 당시 사무장님이 우리를 골목으로 데려가요. 한꺼번에 우르르 움직이면 안 되니까 한 명씩 그리로 주워 나른 거야. 다른 데서 각자 대기하고 있다가 거기로 갔어요. 엄밀하게 말하면 그 자리에 심상정은 없었어.

그때 간부들은 다른 데다 놔 뒀어요. 우리 효성물산 간부들도 한 9명이 전태일기념사업회에 갔었는데, 나만 창신동 공장에 갔어요. 선일섬유도 몇 명 같이 갔는데 위원장만 가고, 가리봉전자도 위원장만 가고.

사회자      비밀 작전 하듯이.

김영미      예. 비밀 작전 하러 가서 거기에서 동맹 파업을 재결의 했어요. 위원장을 제가 하기로 하고, 사무장을 김현옥 위원장이 하기로 하고, 홍보총괄대외국장을 김영대 사무장님이 하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 입장을 담은 유인물을 써야 하잖아요. 뭐 하자, 이런 걸 거기서 써 가지고, 김영대 사무장님이 복사해서 구로에 있던 조흥은행으로 아침 10시에 전달해 주기로 했어요. 그 유인물을 배포하고 해야 하나까. 그래서 선일섬유 위원장이랑 나랑 또 떨리는 가슴으로 조흥은행 남자 화장실에서 유인물을 받아 가지고. (웃음)

이제 오후 2시에 시작하기로 했으니까 그전에 다른 사업장을 설득시켜야 되잖아요. 우리 사업장은 지도부가 부서별로 다 있어서 내가 없어도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삼경복장, 롬 코리아를 갔고요. 그리고 민주 노조라고 하지만 민주 색깔이 별로 없는, 어용도 아니고 약간 중간적인 노조들이 몇 군데 있었어요. 그런 데를 김현옥이랑 나랑 설득하러 다니고 와서 2시에 짤하고 시작한 거예요.

근데 모든 기록에 보면 심상정이나 김문수가 마치 동맹 파업을 해야 한다고 우리를 막 구슬렸고, 우리는 그것도 몰랐는데 따라간 것처럼 해석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죠. 우리를 믿어 줬던, 그 결의를 했던 노동자들의 숭고한 정신이 진짜 그냥 1초도 안 되는 사이에 부정당하는 거 같아서 내가 40년이 다 되어 가는 지금까지 한이 되어 있다니까요.

사회자      예. 그러시군요.

김영미      예. 삭제를 해 버리고.

김영대      정확한 지적인데, 그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마치 그냥 처음부터 청계에 모여 가지고 결의된 것처럼 보면 안 된다는 것은 정확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 4. 신민당사와 노동부 중부지방사무소 점거 농성

**사회자** 당시에 청계노조도 조합원 동원해서 파업에 동참하기로 하셨다는데요. 노조 사무실에서는 이소선 어머니하고 민주화 운동 지도자들이 농성도 전개하고, 가리봉 오거리에서 투쟁하는 데도 참여했다고 그러는데, 그 과정에서 청계노조 활동이 어땠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 아시다시피 청계노조는 소규모 사업장의 연합체잖아요. 그러니까 파업해도 효과가 별로 없었어요. 그나마 저희가 싸운 경험도 있고 하니까 활동적인 조합원들이 농성하고, 창문에 현수막 걸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정도로 하면서 저희가 한 역할은 주로 아까 말했듯이 유인물 전달해 주고 뭐.

**김영미** 사실 잡무를 다 했지 뭐.

**김영대** 뒷심부름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웃음)

**김영미** 아뇨. 그건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사회자** 어쨌든 유인물을 직접 복사해서 전달해 주시고 그러셨으니 추억이네요.

**김영미** 그럼요.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비상 연락망을 가져야 하잖아요. 그러려면 청계피복이 우리 거점이었어요. 각 사업장의 사정과 관계를 알아야 하는데, 우리는 모르니까요. 비상 연락책이 담 넘어서 도망다니며 연결되어서 비상 대책 회의 할 때의 보호막 역할도 했고요.

**사회자** 당시에는 핸드폰도 없던 시절이었으니까요.

**김영미** 아무것도 없었지. 그때는 뽀빠도 없었지. 그거를 청계피복에서 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구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영등포에서 일어나고 있는 동맹 파업의 현황을 대외적으로 알려서 진짜 민주 인사까지 다 오게끔 홍보를 해 줬어요.

**사회자** 홍보위원장 하셨다니까.

**김영미** 그럼요. 사실은 제일 큰 역할을 한 거죠. 언론 플레이도 거기서 거의 다 하다시피 했죠. 언론은 농성 중인 우리랑 못 만나니까.

**김영대** 그리고 또 청계에서 얘기하면 언론이 많이 받아 줬고, 그런 게 있었죠.

**사회자** 예. 그렇죠.

**김영미** ‘평화의 집’에서 했던 역할은 조합원 몇 명이 구속됐다고 하는 것보다 동맹 파업 하는 것을 가장 가치 있게 대외적으로 알리고 홍보 활동을 해줬던 데 있죠. 우리들의 투쟁의 정당성을 확보해 주는 데 엄청난 기여를 한 거죠.

**김영대** 그리고 구로에서 사업장이 구사대에 점거당하잖아요. 그러면 갈 데 없는 조합원들이 전부 여기 와 가지고. (웃음)

**김영미** 다 그리로 가서 숙식하는 거야.

김영대 그때 이소선 어머니가 쌀을 조달하는데 엄청나게 힘들었다고 그러더라고. (웃음) 항상 북적댔어요.

김영미 맞아요. 그리고 먹을 게 얼마나 없으면 시장에서 갈치 대가리하고 고등어 대가리, 그거 주워다가 씻고, 시래기 주워다가 씻고 그랬어요. 뭐래도 먹여야 하잖아요. 그것도 어머니가 하시고 그랬었다니까요.

사회자 그러면 「노동 조합 탄압 저지 결사 투쟁 선언」 이런 것도 김영대 선생님이 만들어서고 전달했었고요. 그다음에 6월 26일은 청계노조가 중심이 돼서 종로지구당, 신민당사 농성에 돌입하게 되고, 6월 27일 노동부 중부지방사무소 점거 농성을 전개하죠.



거리에서 대우어패럴 농성 지지 유인물을 시민들에게 나눠 주고 있는 한 청계피복노조 조합원, 1985.06.26, 박용수  
출처 : 박용수, 민주화기념사업회 제공

노동조합 탄압 저지 결사 투쟁 선언

아 아 민주노조의 동지들이여!! 대우노조의 탄압을 남의 입으로 받아들이는가?  
6월 22일 대우 어패럴 노동조합 위원장과 간부들이 지난 4월, 임금 인상 투쟁에서 있었던 한나절의 피압박 때문에 구속되었다  
지금 정부는 노동법외법칙 심리 시위법, 언론 기본법등 온갖 악법을 갖다붙여 우리민주 노동운동에 앞장섰던 대우노조를  
짜는 것이다. 도대체 우리가 임금을 올리고 단결을 한것이 무슨 큰 죄가 된단 말인가?  
올해 구조조정에 모든민주노조들은 농성파 시위, 파업을 통하여 임금인상에 큰 성과를 올리지 않았던가?  
그런데 우리가 임금인상에 대한 우리의 주장을 편 것이 집시 위반이니!! 오, 우리가 만든 소위적률 동조들여  
압박은 일이 언론 기본법 위반이니!! 그리고 우리가 단결한 것이 노동쟁의법 위반이면, 우리는 임금인상도 못한단  
말인가? 저들 이름대로 들어 그해 높은 노동조합법칙을 가미하여 매어 우리의 정당한 권리행사로가 불쌍하여 미안하면  
노동조합이 무슨 소용인가?  
대우노동조합 탄압은 모든 민주노조의 첫 신호이다.  
오늘의 대우노동조합 탄압은 80년의 제 무시무시한 노동조합탄압을 되새기게 한다. 80년 당시 헌정원은 과거 70년대  
열심히 싸워왔던 민주노조들을 하나씩 차례로 깨부수 버렸다. 80년 민주노조의 기수였던 성격리부노동조합을 끝으로  
반도, 원공, 콘크리트메이커들의 민주노조들이 차례차례 깨졌다. 이제 저들은 70년대 민주노조들을 부활이 짓밟았던 그  
간악한 술수를 되풀이 하려 하고 있다. 지난, 대우 어패럴, 효성, 가미동, 선일섬유등 민주노조들의 동성과 기술노동자  
들의 치열한 투쟁에 겁먹은 정부가 노조결성방해, 맥락해고로도 모자라 이제는 민주노조파괴의 음모를 꾸미고 있음을  
그 누가 모른단 말인가? 그 뼈나 이리한 구 식대의 장책가 오늘 이 순간에도 돌아다니고 있는가? 돌이켜 보면, 80년 이후  
5년간, 우리는 노동자의 기본권리를 한차례 역용하지 않는 압박한 헌신을 들고 일어섰다. 같은 탄압과 위압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민주노조의 전통을 이어온 우리가 불려설 수 있겠는가? 80년 이후 그날에 한 투쟁을 수행해 온 선진노동자들  
이 아닌가?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이다. 더 이상 전대의 노동자들을 꺾는 정부와 기업주의 손아래에 놓아줄 수는 없다.  
우리는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는다.  
우리는 한치도 물리칠 수 없다.  
우리는 이번 대우노조의 파배움로 모든 민주노조에 대한 사형선고와 같은 것을 알고 있다. 이번 마당에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 할것인가? 임금인상도 차도 못하는 노동조합으로 비굴하게 살아남을 건가? 가만히 안 아서 민주노조가 차례 차례로  
깨져나가길 기다리고 있을 건가? 우리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두 번 다시 되풀이 하지 않는다. 우리의 숨통을 조이는 적들의  
탄압에 온몸으로 싸워 이길 것이다.  
민주노조 선진노동자들이여!!  
우리는 지금 굴복하여 구차한 목숨을 이어가거나 아니면 싸워서 승리하느냐의 중대한 갈림길에 서있다. 물지연 살고 물  
지면 죽는다. 함께 일어나 싸우자. 천만 노동자의 동지여로서 최후의 일인까지!! 최후의 입구까지!!  
1. 정부당국은 대우어패럴 노동조합위원장 김운용 동지를 비롯한 구속자 전원을 즉각 석방하라.  
2. 정부당국은 민주노동운동을 짓밟은 모든악법 ( 심리시위법, 언론 기본법, 노동조합법 )을 즉각 철폐하라.  
3. 정부당국은 부당해고자 전원을 즉각 복귀시켜라!!  
4. 정부당국은 정례적인 이용노조설립을 즉각 중단하라!!  
5. 정부당국은 임금동결정책을 포기하고 최저생계비를 보장하라!!  
6. 민주노동조합 파괴에 앞장서온 조원노동부장관은 즉각 물러가라!!  
우리의 행동지침 7.6월 24일을 기해 모든민주노동조합은 위원요구가 관철될때까지 무기한 파업에 들어간다.  
2.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 노동자들은 전원 파업을 통해 투쟁에 참여 한다.  
포성출산노동조합 가미동전기노동조합 세진전자노동조합 성격리부노동조합 선일섬유노동조합  
899697

노동조합 탄압 저지 결사 투쟁 선언,  
1985.06, 전태일재단

**김영미** 그건 제가 이야기할게요. 신민당사 점거는 청계피복 주도로 한 게 아니에요. 청계피복은 직장 다니고 뒷바라지하기 바빠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역량이 많지는 않았어요.

저희가 24일 2시에 파업 들어갔잖아요. 당시 회사에 모든 화장실이 1층에 있었어요. 2층에는 화장실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전략적으로 잘못 생각한 게, 2층 현장이 제일 넓거든요. 아래층은 칸막이가 있어서 다 조각나 있고. 그래서 2층으로 전체 조합원이 올라왔는데, 오히려 회사 측에서 바리케이드를 쳐 버린 거예요. ‘애네들 화장실을 못 가게 하고, 먹을 거를 안 주면은 백기 들고 나올 거다’ 생각한 거죠. 우리가 여성 중심 사업장이잖아요. 그때 파업에 참가했던 사람이 600명이 넘었는데, 내려가지 못하니까 쓰레기통을 옥상에다가 놓고 불일을 봤어요. 근데 600명이 쓰레기통 몇 개 가지고 안 되잖아요.

**사회자** 그렇죠.

**김영미** 또 여성들은 생리를 하잖아요. 생리대도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었던 거예요.

**사회자** 갑자기 파업 들어가서.

**김영미** 게다가 여름이었잖아요. 24일에서 하루 지나니까 그때부터는 굶고 탈진하고……. 이런 상태가 되니까 자살 소동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옥상에서 떨어져 죽겠다.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하나.” 그러니까 위원장이 동맹 파업을 이끌어가기보다 조합원들 자살 방지, 현장 상황 수습하기에 급했어요. 또 당시는 영양실조도 많았잖아요. 하루 이틀 굶으면 쓰러지는 사람들도 속출하고 그랬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큰일 나겠다, 여기서 인명사고 나면 큰일 나겠다 싶어 가지고 우리가 대책 회의를 했어요. 600명이니까 200명씩 조를 짜 가지고 나가서 목욕하고, 먹을 거하고 생리대 같은 거 사 갖고 교대를 하기로 한 거야. 그래서 회사하고 협상해 갖고 200명을 내보냈어요. 근데 회사에서 못 돌아오게 문을 막아 버린 거지. 그러니까 애네들이 어디를 가야 하나 고민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평화의 집에 가는 수밖에 없으면서 200명이 우르르 몰려간 거예요. 근데 거기는 또 어떡해. “그러면 이것도 투쟁이니까 신민당사를 점거하자.” 그래서 사무장하고 우리 부위원장 중심으로 신민당사 점거를 한 거예요. 효성물산에서 나갔다가 못 들어온 사람들이 모여서 간 거죠.

**김영대** 그때 야당 당사죠.

**김영미** 예. 근데 비하인드 들어 보면 직원들이 김밥 한 줄씩 들고 와서 처먹으라는 식으로 던지고 그랬다고 막 화내면서 얘기하더라고. 어쨌든 그래서 그리로 120명인가 들어갔을 거예요. 136명인가 그렇게 들어갔고. 그쯤 되면 무서워서 거기 안 간 조합원도 있겠죠.

그렇게 하고 27일 됐는데, 당시 조합원들이나 다른 회사 간부들이 제가 투쟁심이 제일 강하다고 믿은 거예요. 효성물산 위원장이 “이제 협상 끝났으니까 내려와도 된다”라고 할 때까지 무기한 투쟁을 하기로 한 거예요. 근데 제가 먼저 백기를 들고 나왔어요. 저는 이거 부끄럽지만 얘기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노동부라든가 경찰에서 저를 집중적으로 압박하는데, “어떤 피해 보상도 요구하지 않고, 모든 사업장 복귀하고, 한 달 이내에 대우 어패럴 노조 간부 석방 시킨다. 그러니까 오늘 밤이 아니면은 그 기회 다시 없다.”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김영대 회유를 한 거네.

김영미 회유를 한 거죠. 사실은 우리가 회유를 당하기에는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저는 그 말을 믿지는 않았어요. 일단 이 현장을 벗어나서 다른 방법의 투쟁을 모색하는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조합원 해산대회를 하면서, 저는 이제 한국노총을 점거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27일 밤에 해산하면서 조합원들을 대기시켰어요. 한국노총 주변에 신호조를 두는데, 누구 대장 중심으로 10명, 20명 짝 짜여 있었거든요. “오전 10시에 한국노총을 급습할 거니까 9시까지 근처에 전부 대기하고 있어라.” 그랬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날 밤에 현장에서 나오자마자 기념사업회로 간 거예요. 기념사업회로 갔더니 거기에 김문수, 심상정, 오재현 등등이 있으면서 막 해산을 했다고 얼마나 나를 몰아붙이고 구박하는지. “나는 제2의 투쟁을 하기 위해서 나왔지, 포기하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다.” 이런 격론이 벌어졌죠. “우리가 한국노총을 점거할 거다.” 그랬는데 중부지방사무소에서 투쟁해야 정치력이 있다는 거야. “한국노총은 우리 집에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현장에서 투쟁하는 거 이상의 정치적 파워가 없다. 정치적 파워를 가지려면은 노동부 장관 면담을 요청하면서 서울지방사무소를 점거해야 한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또 비상 연락망을 통해 가지고 내가 여의도까지 가서 사람들 끌고 중부지방사무소에 다 모였어요. 그래 갖고 2시를 기해서 딱 깃발 들며 올라가는 걸로 해 가지고 그때 점거를 한 거예요. 두 시간도 안 돼서 털려나오긴 했는데, 그때 김영대 사무장님도 거기 같이 들어갔고, 오재현이라고 노루표페인트 해고자 동지도 같이 들어갔었어요. 김영대 사무장님의 기분은 그 뒤로 내가 안 물어봐서 모르는데, 오재현 씨는 나 때문에 지금도 엄청 분노하고 있어요.

김영대 왜?

김영미 개 들어가서 2년 살았잖아요. 근데 심상정이랑 김문수가 “김영미는 투쟁력이 없어서 거기 치고 못 들어갈 거니까 네가 앞장서서 들어가라”고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는 왔다는 거야. 근데 와서 보니까 김영미가 자기가 애기로 들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자기는 왜 거기 들어가서 2년씩 살았는지 모르겠다는 거지.

김영대 오재현이 2년 다 안 살았는데.

김영미 아, 자기가 좀 더 늦게 나왔구나.

김영대 나는 만기 채웠고. 개는 미리 나왔어.

김영미 아냐, 쪼끔 일찍 나왔어.

김영대 조금 일찍 나왔어.

김영미 아주 조금 일찍 나왔는데, 오재현이는 분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리여리한 여성 노동자들을 진두지휘할 대장이 없다고 해서 자기가 대장으로 갔는데, 효성물산 조합원들이 자기 말 안 들을 거 아니예요.

사회자 그렇지. 위원장이 있는데.

김영미 “저 남자는 왜 왔어?” 이런 식인 거야. 그러니까 경찰서 끌려가서부터는 ‘어, 내가 여기 왜 왔지?’ 이런 자괴감이 생긴 거죠. 그 빗

이 있어서 지금까지도 내가 개 요구를 무시 못 해요. (웃음)

사회자      아니, 끌어들인 사람은 탄 사람인데. (웃음) 그 사람한테 얘기해야지 왜.

김영미      그 사람한테 먹살을 잡았어야지.

사회자      여기 청계는 또 조합원들하고 같이 들어가셨다면요?

김영미      아니에요. 혼자 들어갔는데.

사회자      아, 여기도 혼자 들어간 거야?

김영미      그럼요. 내가 약해서. (웃음)

김영대      아니, 그게 아니고. 효성에 전부 여자여서 “그래도 싸움 경험도 있고 좀 의지할 만한 사람이 하나 들어가야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청계노조에서 결정하기를 “그러면 사무장이 들어가는 게 제일 낫겠다”고 해서 오케이 한 거죠.

사회자      파견된 거네?

김영대      그러니까 얼마나 준비가 안 됐으면, 결정한 게 몇 시간 안 돼요.

김영미      몇 분일 거야.

김영대      몇 분이죠. 지금도 안 잊어버리는 게, 저녁에 나오면서 다 행히 이소선 어머니를 만났어요. 나보고 “어디 가냐?”고 그래. 그래서 내가 “지금 효성물산 조합원들하고 노동부 점거 들어가야 합니다.” 이러니까 어머니는 금방 알아먹지. ‘아, 이거 구속되겠구나.’ 어머니는 “어떻게 갑자기 그런 결정을 했냐?” 이거야. 그래서 그때 어머니한테 “그건 그렇고. 내가 오늘 저녁에 76,000원인가 우리 애 학비 뭘 낼 게 있어요. 돈을 구해가지고 줘야 하는데, 어머니 그거나 좀 빌려 주시라”고 그랬더니 “알았다”고 했던 기억이 나요. 얼마나 급박하게 결정해서 왔는지.

김영미      그때 진짜 급박했죠. 우리는 한국노총을 점거하려고 했는데, 이 부대를 또 이리로 끌고 오고.

사회자      장소를 다시 옮기고 이렇게 됐군요.

김영미      그전까지 내가 내 마음대로 노조 활동을 해 왔는데, 내 의지와는 관계없이 너무 쫓아서 타인의 결정에 따른 것이 그 중부사무소에요. 그래서 지금도 잘한 건지 못 한 건지를 떠나서. ‘아, 지도자는 끝까지 자기 신념을 버리지 말아야 하는데’ 싶죠. (웃음)

김영대      신념을 안 버렸으면 제가 구속당할 일이 없었을 거 같은데. (웃음)

김영미      김영대, 오재현 두 사람의 구속은 피했겠지. 우리는 결국 간부들이 많이 구속되기도 하고 그랬는데.

김영대      내가 주동했다고 해서 제일 오래 살았어요.

김영미 그렇게 본 거죠.

사회자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자기네 사업장도 아닌데 가서 그랬으니까.

김영미 구형은 똑같이 받았는데, 항소심에서 저는 나왔어요.

사회자 오히려 당사자가 짧네요.

김영대 여기는 초범이고. 저는 재범이고.

김영미 초범이고, 김영대가 시켜서 했을 거라는 믿음을 경찰에서도 저버리지 않았던 거죠.

사회자 두 분 다 그 사건으로 구속되어서 실형을 사셨는데요. 농성 진압 과정이나 연행 이후에 재판, 수감 생활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 중부지방사무소가 5층인가 그 정도 됐는데, 여성들이 걸터앉아 있고 위협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 말렸죠. 예전 YH사건 생각이 나기 때문에 제가 그걸 철저히 막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김영미 잠시 면담하러 간 사이에 떨어져 죽는다고, 우리 조합원들이 막 매달리고 그랬었죠.

김영대 그렇게 희생하는 운동은 지양해야 한다 싶어서 그걸 철저



김영미



히 막는 역할을 제가 했었어요. 김영미 위원장이 지도력이 있으니까 괜찮은데, 그래도 남자가 들어가서 아마 위안은 됐을 거예요. (웃음)

사회자 (웃음) 어때요. 위안이 됐어요?

김영미 나는 굉장히 동지애를 느끼고 갔는데, 재판 받고 나와서 재현이가 나한테 따지니까. (웃음)

## 5. 구로동맹파업 2주년 행사 때의 일화

사회자 결국 구로동맹파업이 29일 대우어패럴 농성장과 부흥사에 경찰이 투입되고 강제 해산이 되면서 끝이 나는데요. 두 분은 구속되어서 감방에 계신 상황이라 이후의 일들에 대해서는 잘 모르실 텐데, 당시에 진압이 이렇게 빨리 될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동맹 파업 시작했을 때 계획이나 예상은 어땠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저희는 구속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핵심 간부들이 누구누구는 구속될 거다. 우리 회사에서 최소한 5명 내지 10명은 될 거다. 그래서 효성물산은 제2기 지도부를 꾸려 났었어요. 근데 구속 예상됐던 사람은 구속이 안 되고, 구속이 될 거라고 전혀 상상도 안 했던 사람들이 구속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도 안목이 없는 거죠. 인상이 좀 강렬해보이는 사람 중심으로 찍어서 구속시키는데, 노동조합에 그다지 협조적이지 않은 사람만 구속시켰어요.

사회자 아, 그랬어요?

김영미 저희 회사에서 5명이 구속됐는데.

사회자 중부사무소 농성으로 해서 구속이 된 게 5명. 효성물산 농성에서는 그냥 그걸로 끝난 거고.

김영미 밖에서는 준비가 돼 있어서 활동을 잘했어요. 근데 감방 안에서는 이 친구들 마음 단속하느라고 내가 너무 힘들었어요. (웃음)

김영대 지금 그 얘기하니까 기억나는 게, 그때 아마 종로경찰서죠?

김영미 종로경찰서.

김영대 유치장에 같이 있었어요. 유치장이 동그랗게 있고, 방에 빙 둘러서 있는데, 주말인가 토요일에 아무도 면회도 안 오고 그럴 때 노래 대회를 했어요. (웃음)

김영미 토요일 날 노래 대회. (웃음)

김영대 지금도 안 잊어버리는데. 우리 김영미 위원장이 ‘저 청한 하늘~’ 그게 뭐죠?

김영미 <새><sup>4)</sup>.

---

4) 김지하의 시 「새」를 토대로 노랫말을 만들어 부른 노래이다.

김영대 그 노래를 불렀는데, 저는 진짜 가수가 부른 줄 알았어요.  
너무 잘 부르고, 다 울렸어요.

사회자 노래가 애절하고 그렇죠.

김영대 예. 애절하게. 지금도 그 장면이 기억나요. 그때 5명이나  
구속됐어요?

김영미 5명. 근데 전혀 준비 안 된 사람이 구속된 거야.

사회자 그래서 추스리느라고 굉장히 힘들셨겠네요.

김영대 그분들은 다 집행 유예로 나왔겠죠?

김영미 집행 유예로 나오긴 했는데, 그 몇 달이 나한테는 몇 년보  
다 더 힘들었어요. (웃음)

사회자 그렇게 구로동맹파업이 끝나고 난 이후에 노조 같은 경우  
는 해산이 됐나요?

김영미 노조가 해산된 게 아니라, 효성물산 같은 경우는 회사가  
문을 닫아 버렸어요. 문을 닫고 공장을 아예 폐쇄시켜 놔어요. 지금 마리오  
아웃렛 있는 데가 효성물산 자리인데, 대지가 엄청 컸었죠. 제가 감옥 갔다  
가 나온 이후까지 폐쇄를 시켜놨는데, 투쟁하면 이렇게 된다는 상징물로  
대우하고 마주보게 폐쇄를 시켜 놓고 있었어요.

사회자 나머지 사업장들을 어떻게 됐었나요?

김영미 가리봉전자는 그냥 어용 노조 세워서 가고, 부흥사는 원  
상 복구 되고 그랬는데, 대우어패럴하고 저희는 문을 닫았어요. 문을 아예  
닫았어요.

김영대 청계 조합원 출신이 가서 만든 두 사업장을 상징적으로  
없애 버린 거지.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게 된 거야.

사회자 그리고 보니 그렇게 됐네.

김영미 없었는데도 지금까지도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2기 간부  
들을 만들어 놓고 간 게 저희는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활동을 계  
속해 나가는데, 감옥 갔다가 나와 보니까 서노련<sup>5)</sup>의 깃발 아래 여전히 열  
심히 하고 있었어요.

사회자 구로동맹파업의 여파로 어쨌든 서노련이 만들어지고, 주  
로 정치 투쟁 중심으로 많이 갔었죠.

김영대 구로동맹파업 이야기니까 잠깐 말씀드리자면, 제가 2년  
만기를 살고 나왔어요. 그때가 6월 항쟁 시기였는데, 6·29 선언 직후에 모  
든 양심수들이 다 나옵니다. 7월 8일에 전원 석방이 되는데, 제가 7월 5일  
에 만기로 나와요. 3일 전에.

---

5) 1985년 구로동맹파업 이후 노동자의 조직적이고 통일된 정치 투쟁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체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결성된 연대체이다. 1985년 8월 25일, 서울노동  
운동연합(서노련)이라는 이름으로 출범하였다.

김영미 그러니까 다 석방되기 3일 전에. (웃음)

김영대 3일 전에 만기로 나오는데, 나오는 날 영등포산전에서 구로동맹파업 2주년 행사를 하고 있었어요. 기념식 겸 토론회. 아마 평가토론회겠죠?

사회자 운동권의 모든 세력들이 다 와서 난리를 쳤던.

김영대 제가 새벽에 나와서 영등포산전으로 직행해서 가서, 오후쯤 시작하기 직전에 도착해 가지고 옥상에 있었어요. 구로동맹파업 기념식이니까 당연히 내 소개를 할 거라고 생각했죠.

김영미 당연히 해야지. 주역인데.

김영대 정말 상징적인 얘기인데, 아무도 소개를 안 하고 끝나 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소위 말하는 사상 투쟁이죠. 그런 논쟁이 엄청 많았었잖아요. 네 입장이 NL이냐 PD냐.<sup>6)</sup>

김영미 NLPDR이니 NL이니 PD니 제헌 의회니 해 가지고.<sup>7)</sup>

6) NL과 PD는 1980년대 한국 민주화 운동 세력이 크게 나뉘었던 정파들을 뜻한다. 흔히 NLPDR(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 National Liberation People's Democracy Revolution)을 주장하던 그룹들이 다시 분파를 형성하면서 만들어졌다고 평가된다. NL(National Liberation)은 민족해방파 혹은 민족자주파라고 불리며, 남북 분단과 대미 종속을 한국 사회의 근본 모순으로 꼽았다. PD(People's Democracy)는 인민민주파 혹은 민중민주파라고 불리며, 계급 문제를 한국 사회의 핵심 문제로 보고 노동 운동과 연계하여 자본주의 모순을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7) 제헌 의회파는 직선제 개헌이 근본적인 모순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 하에 제헌 의회를 소집하여 헌법을 새로 구성할 것을 주장했다. 제헌 의회의 영문 앞 글자를

김영대 하여튼 그 용어도 다양했는데. 옥상 위에 올라갔을 때 나의 입장을 묻는 젊은 애도 있었어요. 나는 진짜 어이가 없어서 대답도 안 했어요. 어쨌든 소개도 안 하고 끝났어요. 끝나는 건 좋은데, 그러면 나중에 간부들이라도 와서 인사를 해야 하는데 그것도 없어. 다 가 버렸어요. 그런 황당한 일도 있었어요.

끝나고 난 뒤에 또 청계에서 당연히 모임을 가졌는데, 거기서도 논쟁하고 있더라고. 지나간 2년 동안 진짜 사람들의 정신이 어디에 가 있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한 예라고 생각해요.

김영미 그때는 다 미쳤었어요.

김영대 정말 씁쓸한 하루였어요.

사회자 구로동맹파업 자체는 엄청난 사건이었죠. 70년대 민주 노동자들이 5·18 이후 전두환 정권에 의해서 각개격파 당했던 사례의 교훈을 잊지 않고, 연대 투쟁으로 이걸 돌파하겠다는 거니까요. 물론 강력한 탄압에 의해서 와해되긴 했지만. 사실 그 이후에 투쟁이 너무 정치 투쟁 일변도로 가면서 문제가 됐는데, 구속됐다가 나오셔서 굉장히 황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소회가 많았을 텐데 어땠어요?

김영미 구속이 됐다가 집행 유예 결정이 되면 6시에 나오는 거잖아요. 저는 11시에 나왔어요. 왜 그러냐면 83년도에 노동조합 만들기 전에 야연 사건이라고 있었어요.<sup>8)</sup> 제가 야연 사건에 노동자 출신으로 유일하게

따서 CA(Constituent Assembly)라고 부르기도 한다.

8) 1983년 9월부터 1984년 2월까지 치안본부 대공과에서 야학의 강학과 학생 568명을 강제 연행하고 구금하였던 일명 '노동야학연합회 사건'이다.

수배가 걸려 있었어요. 근데 검찰 측에서 그게 이 김영미라는 걸 그때 안 거예요.

김영대 그래서 이걸 그냥 내보내냐.

김영미 애를 다시 징역 살려야 하나 내보내야 하나 이랬는데, 그 래도 명색이 위원장 나온다고 다행히 교도소 앞에 우리 조합원들이 엄청 나게 많이 와 있었던 거예요. 막 “김영미 왜 석방 안 되냐”고 소리지르고 이러니까 저는 일찍 나왔어요. 11시에 나오는데, 내가 가장 오른팔이라고 믿었던 홍보부장이 연투에서 그때 부위원장인가 이래. “위원장님. 위원장 님은 개량주의고 노동조합주의잖아요. 사상을 바꿔야 합니다.” 딱 그러는 거예요.

사회자 나오자마자?

김영미 교도소에서 나와서 집에 가는 길에. (웃음) 근데 저는 어떻게 놀랐냐면, 너무 희망적으로 놀란 거예요. ‘우리가 투쟁하고 나니까 진짜 혁명가가 돼 있구나. 이제 내가 옛날 생각하면 큰일 나겠구나. 내가 야 학에서 키운 애가 벌써 혁명을 얘기하고, 노동자 세상이 오나 보다’ 이러 면서 내가 너무 눈물겨울 정도로 심장이 벌렁벌렁 뛰어 갖고 집에 도착했 을 거 아니예요? “위원장님, 갔다가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이러더니 《서 노련신문》을 잔뜩 갖고 왔어요. 이것을 정독해야 한다는 거예요. 《서노련 신문》을 봤는데 도대체 뭔 애긴지를 모르겠는 거야. 삼민투가 어찌고 저찌 고 하는데.

사회자 삼민헌법 쟁취하자.

김영미 예. 삼민헌법 쟁취하자는데 삼민이 뭔지도 잘 모르겠고.<sup>9)</sup> 그 언어도 도대체 북한에서 온 언어인지 뭔지 모르겠어. 부정이 아니라 내 가 이해를 못 하겠는 거야. 나도 책깨나 읽은 사람인데. ‘아, 혁명 운동을 하려면은 이런 지식을 진짜 알아야 하나 보다.’ 그러면서 정말 성실하게 읽었어요. 근데 끝내 모르겠는 거야. (웃음) 그리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우 리 간부들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맨날 집단으로 모여 다니면 서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유인물을 돌리는 게 이 사람의 행동 양식의 전 부인 거예요. 저는 납득을 할 수가 없었어요.

사회자 현장 활동에 집중하기보다는 이제.

김영미 아니, 현장 활동 중심이라는 그런 논리도 없었고. 생존에 대한 자기 스스로의 책임을 지는 것이 노동자잖아요. 노동자의 본질은 생 존에 대한 자기 책임이에요. 저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게 정의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노동 행위를 하면서 부가 가치를 만들어서 자기 생 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데, 지금 혁명군을 먹여 살려야 된다 그래요. 집단도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가난하게 생활해요. 라면 하나도 불어야 먹 어요. 안 불으면 못 먹어. 배가 너무 고프니까. 라면 3개 삶아서 6명이 먹으 려면 불 때까지 뚜껑을 못 열게 하고, 단무지도 반 입씩만 먹으라고 하면 서 일주일에 한 번씩 유인물 돌리는 게 다여. 그게 노동자 선도투<sup>10)</sup>래. 나

9) 삼민(三民)은 민족, 민주, 민중을 의미한다. 삼민투와 삼민헌법에서 주창되었던 삼민이 념은 민족 통일, 민주 쟁취, 민중 해방을 내세운 것이었다.

10) 선도투는 앞장서서 투쟁에 나서는 것을 의미한다. 노동조합과 같은 대중 조직을 통해 운동을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자각된 사람들이 선도적으로 싸움을 벌여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반영된 운동 전략이다. 따라서 선도 투쟁을 담당하는 이들이 몸담은 조직은 ‘대중 조직’이 아니라 앞으로 돌출되어 있는 ‘전위 조직’이었던 셈이다. 정치 투쟁을 강조하며 강력한 의식화를 요구했기 때문에 사상이 급진적이고, 투쟁이 전투적인 경향이 있었다. 자신들의 활동을 혁명을 위한 투쟁으로 위치 지었던

는 반대야. 그래서 반대하기 시작했고요.

선일섬유랑 가리봉전자 위원장이 저보다 먼저 나왔어요. 이 친구들은 1심에서 집행 유예로 나오고, 저는 항소심에서 나왔기 때문에 내가 제일 늦게 나온 거예요.

사회자      한 9개월 정도 있다가 나온 거죠?

김영미      예. 9개월 정도 있다가 나온 거예요.

사회자      김영대 선생님은 제대로 2년 살고.

김영미      제대로 살고 있고. 그때 안 나온 거 다행이야. 진짜 내가 평생 먹을 욕을 그때 다 먹었어. (웃음)

김영대      나도 그래서 개량주의라고 찍혀 가지고, 그래서 소개도 안 시켜 줬네. (웃음)

김영미      그러니까. 김영미랑 같이 놀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네들 무조건 현장에 들어가야 한다. 일주일에 하루 유인물 돌리는 거, 밤에 몇 시간 일하기 위해서 이렇게 놀고먹는 건 노동자가 아니다. 취직해야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평가하자. 남들이 최초의 정치 파업이었다 뭐였다 하는 거 다 빼고, 우리 스스로가 노동자로서 이 투쟁을 통해서 무엇을 잃었는지, 무엇을 건졌는지, 무엇이 성장했는지 우리끼리 자체 평가를 하자. 돈은 김현옥하고 나하고 둘이 어떻

게 해서든지 마련해 올게.” 그래 가지고 날짜를 정했어요. 한 달 뒤로. 장소는 그때 일꾼 자료실이라고 동암역에 있었어요. 일꾼 자료실이 숙식하면서 평가하기가 되게 좋았어요.

사회자      인천산전에서 운영하는 거였죠.

김영미      네. 그래서 거기다 예약을 해 놓고. 대우어패럴은 빠졌죠. 효성물산, 가리봉전자, 선일섬유. 그다음에 슈어프로덕츠, 부흥사 일부 이런 사람들 포함해 갖고 한 120명 정도가 그 좁은 데서 먹고 자고 하면서 2박 3일 동안 토론했어요. 근데 그 돈을 마련하느라고, 그때 당시에 정일영 위원장.

김영대      정일영 위원장. 사무직 노조위원장이었어요.

김영미      나중에 삼성증권으로 바뀌는데, 당시에 한일투자금융 위원장인 정일영 위원장을 찾아가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활동을 해야 하는데 돈 좀 구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범한화재였나, 흥순계.

김영대      흥순계는 현대해상화재.

김영미      현대해상화재. 이런 데서 사무직에서 일하는, 옛날에 야학 선생 했고 이런 사람한테 십시일반으로 돈을 걷어 가지고 만들고. 모자라서 문동환 목사한테 “해방채권 사세요.” 막 이래 가지고 그것도.

김영대      하여간 돈 모으는 데는 일가견이 있구만. (웃음)

사회자      옛날부터 그런 재주가 있었네요.

---

만큼 노동조합운동에 대해서는 대중주의, 개량주의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김영미 (웃음) 돈을 모아서 2박 3일 동안 거기서 평가회를 했어요. 평가회를 하면서 울기도 많이 울고. 평가서도 어디 있는데, 관리 능력이 없어서 지금은 어디 갔나 모르겠네요. A4 용지로 만들어서 주변에 돌리기도 했었거든요. 그런 평가할 적에 김금수 선생님하고 이원보 선생님 초빙해서 강의도 다시 한번 듣고 이러면서 평가회를 했어요.

그 평가 끝나고 현장에 다 들어갔죠. 선일섬유 위원장도 현장에 들어가고 저도 현장에 들어가고. 조합원들 그때 거의 다 현장에 들어갔어요. 노동 조합을 새로 만들어서 나온다 그랬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일주일도 안 돼서 뺏록이 났죠.

사회자 워낙 유명 인사셨으니까.

김영미 그래서 저는 나왔고. 선일섬유 위원장하고 우리 효성물산 노조 간부는 그 뒤로 노조를 만들었어요. 그때 서노련에서 이옥순 씨하고 이봉우 선배님이 사무장, 위원장을 했는데, 다 수배 중이니까 저보고 위원장 맡으라고 그랬어요. 저는 “내가 당신들의 논리를 설명할 수가 없는데 뭘 놔의 위원장이냐.” 이러면서 안 했죠. 그래서 그때부터 서노련에 대박 미움을 받으면서 살았어요.

김영대 위원장이 조금이라도 마음이 풀렸으면 좋겠다는 심정에서 얘기하는데요. 그날 행사가 어떻게 됐냐면, 우리가 먼저 잡아 댔어요. 우리는 ‘구로동맹파업동지회’였어. 동지회 이름으로 2주년 행사를 오전 10시에 산전에서 하기로 했어요.

그때 서노련에서 김문수 씨 부인 설난영 씨가 이근복 목사님을 붙잡고 “노동 운동의 정식 계승자는 서노련”이라면서 “애네들은 정통성이 없다. 애네들은 개개인이고, 명망가 출신들이 모아 놓은 쓰레기이고. 서노련은 운동의 정통성을 가진 데다”라고 해서 목사님이 기에 밀린 거예요.

사회자 이근복 목사님이.

김영미 그래서 애네들 행사를 10시에 하라고 하고, 우리를 2시로 미룬 거예요. 2시로 미뤄 댔는데, 내가 그걸 양보할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 논리가 안 통하니까. “우리는 10시에 하기로 분명히 약속했으니까 10시에 집행하겠다.” 이랬는데 서노련 애들이 강당을 막고, 우리가 출입을 못 하게 계단까지 다 막고, 진을 치고 일방적으로 10시부터 행사를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상하기로는 서노련과 우리와의 대립일 줄 알고 우리는 준비해 갖고 갔는데, 서노련하고 제헌 의회하고 붙은 거예요. 우리는 설 리도 없고. 그래서 지내들끼리 마구 싸우고, 사람의 입으로는 답을 수도 없는 논쟁을 벌이고 이랬어요. 그랬는데 이소선 어머니가 우리한테 격려사를 하러 오셨어요. 동지회 격려사를 하러 올라왔는데 “기회주의자 이소선 처단하자!”

사회자 그런 구호까지 나왔어요?

김영미 그럼요. 그리고 내가 대회사를 하는 동안 내내 “이소선 따かり 김영미, 김현옥”이라고 외쳤어요.

김영대 나는 옥상에 있으니까 그런 상황은 전혀 몰랐네. (웃음)

김영미 그런데 어디에다가 인사를 하고 그래. (웃음)

김영대 진짜 나는 황당했었는데, 들어보니 나를 소개 안 시킬 만했네.

김영미        내가 대회를 하는데, A4 용지 석 장을 읽다가 쉬었다가 했어요. 누가 석방이 되었네, 안 되었네가 중요한 상황이 아니야. 지금 내가 여기서 살아 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 (웃음) 이런 속에서 마지막 선언문 까지 읽었어요. 그 아수라장에서도 우리 행사를 다 했어요.

사회자        질 수 없다, 이래 가지고 또 했겠죠.

김영미        그럼요. 그때가 유구영 씨가 거기서 실무를 보고 있었을 때예요. 그 아수라장에도 행사를 다 했더니 유구영 씨가 “역시 김영미, 김현옥이는 왜 동맹 파업을 했는지 알겠다”고 해요.

어머니를 향해서는 진짜 막 “찢어 죽이자”까지 나왔어요. 그런 상태인데 어떻게 인사를 시키고 그래. 무대에 빠듯이 올라가서 대회사하고 선언문 읽고 내려왔다니까.

김영대        어쨌든 그 상황은 오늘 내가 처음 듣는 얘기이고.

김영미        오해 푸세요. 그거 되게 섭섭했겠네.

김영대        섭섭한 게 아니라 황당하지.

김영미        황당하지. 그리고 아팠겠어. 언젠가 김영대 사무장이 “나도 동맹 파업 때문에 구속돼서 제일 오래 살은 놈인데, 동맹 파업 그룹에서 나를 인정도 안 해줘.” 그런 얘기 한 번 했던 적이 있어요. 20주년 행사 할 때. 근데 그런 것까지는 내가 몰랐지.

김영대        이 자리에서 할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2년 살 때 목포교

도소에 있었거든요. 목포교도소에 한 10명이 있었어요. 김문수도 거기 있었습니다. 목포교도소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김문수, 그리고 최우영이라고 김문수 보좌관으로 갔던 두 사람이 이제 한나라당. 그리고 이원욱이라고 있는데, 거기는 민주당.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고 싶냐면, 각 당에 다 나뉘져 있었다.

사회자        나뉘졌다.

김영대        그만큼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던 겁니다. 제가 징역 살던 목포교도소에도 문건이 들어오고, 책도 들어오고 하면서 토론이 당연히 있었을 거 아닙니까? 제가 이 얘기는 더 이상 할 데가 없어서 얘기 드리는데, 제가 그 안에서 『러시아 혁명사』에서부터 『프랑스 혁명사』 다 봤죠. 『자본론』도 읽고 그랬는데. 마지막에 본 게 베른슈타인이 쓴 『사회민주주의론』이라고 하는 두꺼운 책이 있었어요. 그걸 누가 넣었는지는 지금 기억이 없는데.

제가 그걸 보고 나온 이후에 민주노총 오면서 일관되게 합법의회주의를 주장했고, 대중적 노선을 갖게 됐습니다. 제가 스스로 ‘사회민주주의자다’라고 생각하고 나왔어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실제 사회민주주의당, 사민당을 만들려고도 생각했는데 결국 이뤄지지 못 했죠. 노동당 만들 때도 내가 사민당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었는데, 결국은 노동당이 됐잖아요.

사회자        민주노동당 만들 때.

김영대        예. 국민승리21 지나서 민주노동당 만들 때. 제가 그때 사무총장이었으니까 영향력을 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더라고요. 유구

영, 영등포산선, 이근복 목사님, 저쪽에 성수에 활동하던 분, 이런 분들이 나온 직후에 일관되게 대중적 활동했고, 아마 김영미도 그런 생각 비슷하게 가졌을 텐데.

**김영미** 그때 나와서 우리 같이 활동했지.

**김영대** 그런 활동 하면서 서노협, 전노협으로 가게 된 계기가 됐다는 거. 그게 청계노조에서 활동하면서 얻은 제 사상적 결론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6. 구로동맹파업 투쟁에 대한 소회

**사회자** 자연스럽게 마무리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구로동맹파업의 전개와 청계노조의 연대 활동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 봤는데요. 두 분은 그 사건으로 인해 구속까지 되셨고, 그 사건 직후에 질풍노도의 시간이라고 할까요. 운동권 자체가 굉장히 급진화 되면서 온갖 소용돌이와 논쟁의 시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벌써 3, 40년 가까이 지났죠. 구로동맹파업과 연대 활동에 대해서 소회와 평가가 있으실 거 같은데요.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오늘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말씀씩 해 주시죠.

**김영미** 저는 이런 일을 할 때마다 조합원이 가슴에 남아요. 뭐냐면,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가 있을지라도 함께 동참하고, 함께 결의하고 앞장서는 사람들이 없으면 어떤 뜻도 이뤄질 수 없고, 표면화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제가 동맹 파업 위원장을 했지만, 그때 그 조합원들의 눈빛 하나하나가

지금도 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근데 그들은 역사에서 아무도 인정을 안 해 주고 있잖아요. 제 생각에는 간부도 아닌 단순 조합원일수록 더 열정적으로 했거든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어디에도 한 줄 나와 있지 않은 게 저는 못내 한이 될 정도로 마음이 아파요.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야기하는 거지만, 함께 해준 조합원들이 있어서 어떤 일도 할 수 있었다.

감옥 가고 이런 게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었겠어요. 그런데 나보다도 더 두렵고 공포스러웠을 조합원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끝까지 함께 해 주고, 믿어 주고, 이랬던 것들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거든요.

지금도 길에서 만나면 빙긋하고 안 갚은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때 그런 일이 없었더라면 이 친구가 조금 더 밝게 살지 않았을까?’ 또 한편으로는 “아유, 언니. 내가 지금 동네에서 아파트 부녀회장 이런 거라도 하면서 사는데. 언니가 없었으면, 우리 노동조합 활동의 그런 당당함이 없었으면 중학교도 못 나온 내가 부녀회장 하겠어? 우리 아파트에 대학 나온 사람 엄청 많아.” 이런 얘기할 때 보람과 미안함이 함께 섞여 있어요. 그래서 어떤 기회가 있다면, 간판 하나도 달지 않았는데 열심히 뛰었던 그런 조합원들의 새로운 이야기가 쓰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사회자** 김영대 위원장님은 원래 기획했던 것도 아닌데 몇 분 만에 남의 투쟁에 어떻게 끌려가서 구속까지 되시고, 2년 만기 꼬박 살고, (웃음)

**김영대** 그러니까 전날까지도 생각 안 했던 구속이 당일에 이뤄졌는데. 당시에 결정할 때도 “아유, 그럼 뭐 가지.” 이런 생각이었고.



김영미      너무 덤덤하게. (웃음)

김영대      저는 아마 또 그런 기회가 주어지면 갈 겁니다. 같이 계단 뛰어 올라가고 이랬던 장면이 지금도 생각나거든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 때 같이 올라갔던 그분들이 실제 주인공이죠.

그리고 제가 나오자마자 위원장이 돼 가지고 합법성 쟁취하거든요. 그때 도와줬던 조합원들이 지금 생각납니다. 그 뒤에 제가 민주노총 임원까지 하다가 나와서 노무현 대통령 때 인수위원도 하고 국회의원도 하면서, 그 과정 자체가 치열했고, 의원을 하면서 하루도 쉴 날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후회스러운 게, 과거에 이 조합원들, 같이 했던 사람들을 못 챙겨 보고, 내가 좀 나은 조건에 있었을 때 정말 어려운 사람 위로해 주고 이런 노력들을 전혀 못 한 게 좀……. 아까 김영미 위원장 생각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사회자      예.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말씀 나눠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이번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미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대      수고했습니다.



# 4부 노동자 대투쟁 속 청계피복노조 — 합법성 쟁취 투쟁 중심으로

인터뷰 4회차

2024년 8월 6일(화) 10시~  
전태일기념관 2층



왼쪽부터 김영대, 김태현, 양수일

## 1.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전의 청계피복노조 상황

**사회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980년대 청계노조 활동에 대해 기록하는 제5차 노동구술기록 사업의 4회차 시간입니다. 1981년에 청계노조가 강제 해산 되고, 84년에 노조 복구를 선언하면서 법외 노조로써 가두 투쟁을 포함하여 합법성 쟁취 투쟁을 가열차게 전개해 왔습니다.

오늘 진행할 4회차 인터뷰에서는 이러한 가두 투쟁이라든가 합법성 쟁취 투쟁이 전개되었던 이후의 역사를 짚어 보려고 합니다. 87년 민주화 운동 및 노동자 대투쟁이 전개되는 상황 속에서 노동조합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리고 청계노조가 합법성을 실제로 쟁취해 내는 과정 등이 주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김영대 선생님하고 양수일 선생님 이렇게 두 분을 모시고 말씀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간단하게 두 분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김영대** 저는 72년도에 평화시장에 들어와서 78년쯤에 노조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청계노조 강제 해산에 항의하는 투쟁으로 구속이 됐다가 나와서 84년도 복구대회 때 사무장을 맡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구로연대투쟁 때 구속되고, 87년 석방되어 나와서 청계노조 위원장을 하게 된 김영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양수일** 저는 1982년도 14살 때 시다로 공장을 처음 다녔구요. 그 때만 해도 하루에 16시간 일하고, 한 달에 1번 정도 쉬는 근무 형태였기 때문에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처음에 시다 때는 야학을 못 다니다가, 제가 16살에 재단사가 돼서 사장하고 협의를 했어요. (웃음) 7시에 야학을 다니고, 10시에 다시 공장에 돌아와서 새벽 2시까지 일을 했습

니다. 그렇게 해서 한 1년 6개월 검정고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검정고시를 86년도에 패스하고, 대학에 대한 꿈을 꾸다가 야학 선생님들인 대학생들 하고 대판 싸우고, (웃음) 그때 현실을 좀 깨달으면서 노동 운동에 대한, 전태일 선배에 대한 책을 보면서 좀 현실 자각을 하게 됐구요.

그러면서 인천, 구로공단 이런 데 돌아다니다가 청계노조에 속하게 됐습니다. 86년도에 청계노조에 가입을 했구요. 87년도 박종철 열사 투쟁할 때 선배들하고 처음 미팅하고, 그렇게 해서 청계노조의 비합법 시기에 가입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점조직 형태로 노조 간부들을 만날 수밖에 없었어요. 월세방을 돌아다니면서, 버스를 몇 번씩 갈아타면서 그렇게 만나 가지고 모임을 시작했죠. 초기에 사무실 탈환 투쟁이나 복구 투쟁, 이런 과정에 같이 했었고, 합법성 쟁취 후에는 제가 평화시장으로 아예 직장을 옮겨서 재단사를 포기하고 다시 시다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90년대에 노조 상근을 시작했어요. 그때 상근자들이 대부분 26살 정도였는데, 저는 20살 때 시작을 한 거죠. 그렇게 한 5년 정도 상근 활동을 하다가 부위원장까지 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서 노조에서 상근은 그만두고 현장 조합원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사회자** 예.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87년 민주화 운동, 그리고 노동자 대투쟁 직전이었던 86년, 87년 초가 청계노조로서는 가장 어려웠던 시기였던 거 같아요. 합법성 쟁취 가두 투쟁이 있고, 서노련 정치 활동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가열차게 투쟁했을 뿐만 아니라, 노조 내부적으로도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기면서 비합법 시기에 굉장히 어려웠던 거 같습니다.

조금 전에 그 당시 점조직 형태로 조직이 운영됐다고 그랬는데요. 노동자 대투쟁 직전에 청계노조가 어떤 식으로 활동했는지, 그걸 보면서 느꼈

던 생각들을 말씀해 주시죠.

**양수일** 저 같은 경우는 야학 검정고시 끝나고 나서 공부했던 게 주로 옛날 금서들이죠. 그러니까 『자본론』, 『노동자의 철학』, 『전태일 평전』 등의 문화와 역사 관련된 서적들을 쭉 읽었습니다. 점조직으로 만나서 주로 ‘노동자들의 삶의 투쟁이 왜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공부했어요.

그때만 해도 누나들한테 담당 형사들이 다 있었죠. 우리가 ‘곰’이라고 불렀는데, “곰들을 따돌린다”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동대문경찰서 담당 정보과 형사들이 누나들한테 한 명씩 있었고, 저도 노조에 가입한 후로 제 담당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나중에 합법성 쟁취 투쟁 할 때 “네가 양수일이구나?” (웃음) 이런 식으로 형사들이 얘기하긴 했었어요. 아무튼 저는 청계노조에 많은 비합법 정치 세력들이 다 연을 맺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사회자** 그렇죠.

**양수일** 나름 왼쪽에서부터 오른쪽까지 많은 정치적인 정파 그룹들이 있었고, 저도 나중에는 노회찬 대표가 이끌던 ‘노동 계급’이라는 정파 조직의 일원이었습니다.

**사회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양수일** 아니요. 알고 있었어요.

**사회자**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양수일** 그래서 그 안에서 형들이나 누나들하고의 입장 차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도, 저는 그게 어떤 정파의 입장이라기보다는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간의 차이라고 생각했어요. 어차피 누나들이나 형이나 저나 다들 어렸을 때, 10대 때부터 현장에서 공장 생활하면서 컸기 때문에 서로 그런 입장 차이가 있더라도 합의점들을 찾아낼 수 있었던 거 같아요. 실제로 노조 탈환하는 시기나 비합법 시기에 70일간 농성 투쟁을 하면서도, 사실은 각각의 입장이 달랐겠지만, 그래도 뭐랄까 바닥에서 큰 자기 인생들이 있다는 현장감을 공유했기 때문에 동질감이 많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어쨌든 청계노조가 제일선에, 노동 운동의 최선봉에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다들 인식하고 있었어요. 또 그때만 해도 우리가 혁명으로, 길거리에서 진짜 세상을 바꿀 수 있겠다, 내 목숨쯤은 내놓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결의를 다들 가지고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지금 돌아보면 다들 투사로서의, 어떤 전사로서의 자기의 인생을 목숨 걸고 싸웠던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회자** 아까 점조직 형태로 누나들 중심으로 만나고, 학습을 같이 하고 그런 활동이었다고 하셨는데요.

**양수일** 예, 그런 시기가 있었죠.

**사회자** 청계노조 차원에서의 공개적인 활동 이런 것들은 없었습니까?

**양수일** 박종철 열사 관련 싸움을 할 때, 제가 처음으로 점조직에

서 택<sup>11)</sup>을 받은 게 “남대문 어느 지점으로 몇 시까지 와라”였어요. 그때 누나들 만나고 뭐 이렇게 해서, 남대문시장 골목에 그 많은 시위대들과 누나들하고 함께 했었구요. 그때 가두 연설대도 있었어요. 이제 저도 그때는 못 모르고 가 가지고. (웃음)

사회자      가두 연설도 한 번 해 보시고? (웃음)

양수일      예. 그 남대문시장 안에서. (웃음) 17살짜리 꼬맹이였을 때인데, 거기서 제가 살아 온 어린 시절, 그리고 왜 현재 독재 정권을 무너뜨려야 하는지 뭐 그런 말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정치적인 기점들이 있을 때는 택들이 떨어지면, 그럴 때 이제 각각이 모이곤 했죠. 처음에는 김한영, 한영이 누나하고만 점조직으로 학습을 하고 이랬었거든요. 그때 나와서 누나들도 몇몇 만나게 되고, 형들도 보게 되었어요. 나중에 새벽에 노조 사무실 탈환할 때 보니까 다 그 사람들이더라구요.

사회자      청계노조는 전태일 열사 기일에 항상 추도식을 했잖아요. 70년대 엄혹했던 시절에도 했었는데, 80년대는 어땠나요?

양수일      87년도에 했죠.

사회자      80년대 말에, 그때도 한 번 대중적으로 했죠?

양수일      그때는 좀 크게 했습니다.

11) 운동권 은어로 영어 ‘택틱스(tactics)’의 줄임말이다. 시위 과정에서의 ‘전술’ 내지는 ‘계획’을 의미한다.

사회자      예. 제가 알기로도 크게 했죠.

양수일      87년도 그때는 일정 기간을 가지고 했었고.

사회자      86년도에도 하지 않았나?

양수일      86년도에는 제가 그때는 참석을 못 했구요, 87년도 할 때 참석했어요. 그때는 연극도 준비해서 고려대학교 소극장에서 연극도 했었고, 일주일 동안 전태일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여러 행사들이 있었죠. 그때가 서노협이나 각각의 지역별 노동조합협의회들이 생기는, 전노협 건설 바로 전이었어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어요.

사회자      그 얘기는 나중에 하구요. (웃음) 그러니까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전에는 주로 점조직식으로 활동하시면서, 그다음에 당시 민주화 운동 중심의 정치 투쟁에 동원돼서 같이 하고, 심지어 가두에서 연설도 하시고 그런 식으로 활동하셨던 것 같습니다.

김영대 선생님께서는 85년 구로동맹파업 때 농성으로 구속돼서 6월 항쟁 직후에 나오신 거잖아요.

김영대      예. 만기 출소로 나왔습니다.

사회자      그래서 그 어려웠던 시기에 같이 있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나와서 많은 얘기들을 들었을 텐데요. 들었던 얘기를 토대로 86년, 87년 민주화 운동, 노동자 대투쟁 직전에 청계노조의 엄혹했던 상황 등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다면?

**김영대**       제가 2년 형을 받고 목포교도소에서 만기 출소를 했어요. 목포에서도 시위대가 교도소 주변까지 와서 구호를 외치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6·29선언이 나오고 대 석방이 된다 그런 소문이 돌았어요<sup>12)</sup>. 그러는 사이 7월 5일에 제가 석방되고, 3일 뒤인 7월 8일 모든 양심수가 석방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안에서 놀림감이 됐죠. 만기 채우고 나가는 사람으로. (웃음)

그런데 제가 출소한 날 상징적인 사건이 뭐가 있었냐면, 영등포산선에서 구로연대투쟁 2주년 토론회가 있었어요. 영등포산선에서 2주년 기념식을 한다고 하니까, 토론회도 하고 관련자들 소개도 할 거라고 생각해서 새벽에 출소하자마자 저도 갔었어요.

**사회자**       석방된 사람들 환영도 해 주고.

**김영대**       그렇죠. 그랬는데, 옥상에 앉혀 놓더니 그냥 끝났어요. 소개도 안 하고. 그게 무슨 일이었냐면, 제가 들어가 있는 2년 동안 운동권 내부에서 여러 가지 논쟁들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사회자**       그렇죠.

**김영대**       논쟁들이 굉장히 심한 시기였었고. 운동권에서 얘기하는 소위 사상 투쟁이라고 할까, 그런 게 그날도 벌어졌던 겁니다. 그거에 정신

---

12) 1985년 2월 12일 치러진 총선에서 신한민주당이 제1야당이 된 후부터 정치범을 석방해야 한다는 논의가 정치권 내부에서 차츰 나오기 시작했다. 1987년 일련의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그 요구는 더욱 커졌고, 6·29 선언에 정치범을 석방하겠다는 약속이 포함되었다. 1987년 7월 8일 시국 사건 관련으로 형이 확정되어 복역 중이던 443명 가운데 357명에 대한 가석방 및 형 집행 정지 조치가 단행되었으며, 이튿날에는 2,335여 명에 달하는 사람들의 사면·복권이 이루어졌다.

이 매몰되다 보니까 제 소개도 안 해요. 구로연대투쟁으로 제가 제일 감옥에 오래 살았거든요. 그게 좀 상징적이었다고 생각해요. 끝나고 나서는 제가 청계노조에 저녁에 불러 갑니다. 환영식이라고 해서 갔는데, 환영해 주는 음식은 없고 또 토론을 시작하는 거야. (웃음)

**사회자**       또 토론을 시작해. (웃음)

**김영대**       나중에 큰 보따리 2개를 주더라고요. 내가 2년 동안 구속돼 있을 때 논쟁이 되었던 문건이라면서 보자기로 두 보따리를 저한테 싸줬습니다. (웃음) 그날 제가 석방돼서 밤 12시까지 보내면서 참……. 그 당시의 상황을 이해하게 됐구요. 어떻게 보면 다행스럽게도 제가 2년 동안 들어가 있는 바람에 밖에서 벌어졌던 여러 가지 논쟁들, 청계노조 내부의 여러 가지 갈등으로부터는 좀 자유로울 수 있었던 거죠.

**사회자**       감방에 있었기 때문에.

**김영대**       예. 청계노조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어머니와 조합원들의 갈등, 선배들과 다음 세대들의 갈등, 이런 것이 그 시기에 많이 벌어졌어요. 그러다 보니 제가 상대적으로 자유로우니까 위원장으로 추대되고, 위원장이 되게 됩니다. 물론 저도 구속돼 있으면서 자유롭지 못했어요. 그 안에서 논쟁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버티면서 6월 항쟁을 만들어 내고, 그런 속에서 새롭게 열린 노동자 7·8월 투쟁에 제가 휘둘러 들어가게 됩니다. 당시 그런 상황이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사회자**       87년 민주 항쟁, 그리고 노동자 대투쟁 직전에 한국 사회

의 변혁과 관련해서 다양한 노선이 제기되고, 그것이 대중 조직인 노동조합 내에 들어와서 조합원들 간의 노선 갈등, 신구세대의 갈등 같은 것을 일정 부분 야기해서 청계노조로서는 어려웠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그 당시에 조합에 가입했던 양수일 선생님 같은 경우는, 노선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신뢰가 있었다고 하셨는데요, 그런 것들이 청계노조가 다시 새롭게 복원되는 과정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 2. 1987년 6월 항쟁 직후의 청계피복노조 활동

**사회자** 김영대 선생님께서 석방되기 직전인 7월 1일부터 청계노조 사무실 탈환 투쟁이 전개됩니다. 참 그런 거 보면 이소선 어머니가 정치적으로 굉장히 영민하신 것 같아요. 그 당시는 양수일 선생님이 계셨을 때니까, 7월 1일 어머니가 경찰에 반환 요구한 것부터 시작해서 그 과정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양수일** 제가 어머님하고는 바로 연결이 안 되어서.

**사회자** 예. 점조직으로 했으니까. (웃음)

**양수일** 예. (웃음) 어머님은 나중에 사무실 탈환하고 뵈었구요. 그 전까지 이소선 어머니는 그냥 책 속에서만 봤죠. 그래서 새벽에 전경들이랑 몸싸움하고 사무실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상황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나중에 책을 통해서 어머님이 동대문경찰서를 찾아가서 정식으로 반환 요청을 하셨고, 사무실에 들어갔다가 끌려나오시는 과정들이 있었다고 알게 됐어요.

어쨌든 저는 또 누나들한테 택을 받았죠. 노조 사무실 있던 건물이 신발상가니까, 새벽이면 신발을 사러 지방에서 올라오신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분주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끼리도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 아무튼 저기 서성이는 사람들이 다 우리 조합원들이겠구나 싶었죠. 좀 나이가 어린데 서성이고 있으면 다 우리 조합원들이었던 거죠. 새벽 3시 반, 4시 그때부터 신발 사는 듯 돌아다니다가 호각 소리를 듣고 한꺼번에 다 같이 4층으로 뛰어 올라갔어요. 사실 전경들이 줄고 있어서 크게 부딪힘은 없었습니다. 그냥 지나가면서 한 번 발길질하고 쑥 들어가는 정도였구요. (웃음)

처음에 거의 한 40명 가까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바로 전경들이 들이닥칠 수 있었기 때문에 들어가자마자 집기들 가지고 바리케이드 치고, 각목 같은 거 분질러서 조금 날카롭게 한 다음 창문이나 이런 데로 못 들어오게 막고. 바깥쪽, 대로변 쪽으로는 치고 들어오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판단했고. 골목 쪽, 복도 쪽으로 들어올까 봐 그쪽에 좀 집중해서 바리케이드를

1987년 청계피복노조 합법성 쟁취 투쟁,  
1987, 전태일기념관 (김영대 기증)



쳤어요. 그리고 현수막 내걸고, 사진에서 보이듯이 구호 외쳤고. 크게 격렬한 싸움이 있을 거라고 각오하고 들어갔는데, 조금 맥없이 들어갔습니다. (웃음)

다행히 그렇게 크게 불편함 없이 사무실 탈환했고, 뭐 경찰 쪽에서도 인정하고 그래서 하루만이었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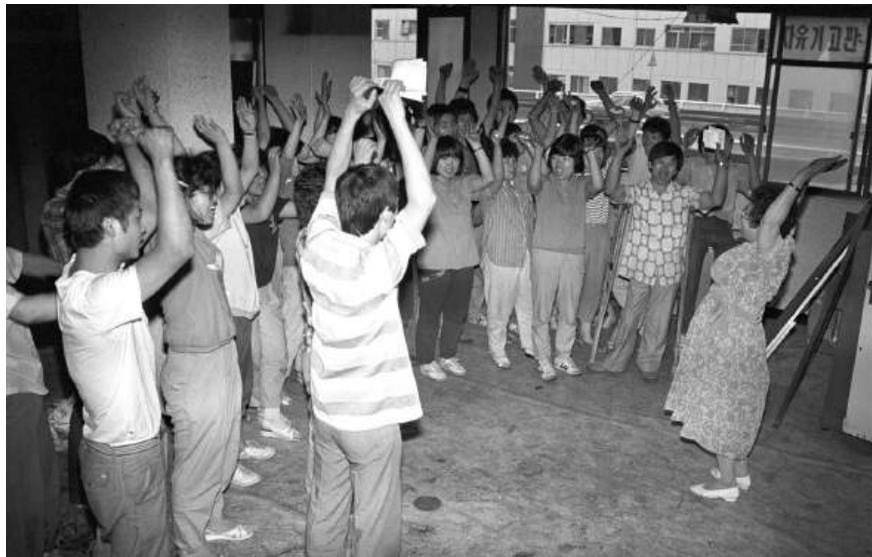
사회자      농성 8시간 만에.

양수일      아, 8시간 만이었나요?

사회자      경찰이 요구 조건을 수락해서 사무실이 반환됩니다.

양수일      그렇게 해서 드디어 다들 오랜만에 모였어요. 그때 신당

청계노조 사무실을 탈환해 만세 외치는 이소선과 회원들, 1987, 박용수  
출처 : 박용수, 민주화기념사업회 제공



동 사무실 얘기도 모여서 듣기도 했고, 신당동에 있는 사무실 집기를 이쪽으로 옮기고 청소하는 일들을 했었습니다.

사회자      7월 1일 어머니가 바로 경찰에 반환 요구를 하고, 7월 7일에는 들어가셔서 노조 사무실 청소를 하다가 경찰에 끌려나왔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택을 받아서 새벽에 들어간 거는 7월 15일이었고. 그렇게 해서 8시간 만에 노조 사무실이 반환이 된 거죠.

김영대 선생님은 7월 5일 석방되어 나오고, 7월 25일 임시 대의원 대회에서 위원장으로 당선 되셨잖아요. 석방되어 나오신 이후에 노조 내부의 의견 수렴 과정이랄까, 어떻게 해서 위원장으로 당선되셨는지, 그 과정을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영대      우리 전태일 선배님의 분신 이후로 그 친구들이 노조를 설립해서, 70년부터 80년까지 한 10년을 그분들이 청계노조를 일구고, 조직하고, 여러 가지 단체 교섭도 맺고 해 왔는데 결국은 80년에 강제 해산당하지 않습니까?

사회자      그렇죠.

김영대      그때 싸웠던 분들이 어떻게 보면 뒤에 청계노조를 이끌어 가는 분들이 됐는데요. 일부 구속되고, 또 석방되어 나오고, 야학과 문화 활동 이런 걸 해오면서 84년도에 노조가 복구 돼요. 그때 당시는 비합법 노조이죠. 합법적인 노조가 아닌, 법에서 인정하지 않지만 어쨌든 노조를 결성해서 활동합니다. 그때 제가 사무장을 하다가, 그 뒤에 구로 연투로 구속되어 징역 살고 나왔죠. 합법성 쟁취도 해야 하고, 그다음에 노조의 기본 기능이 사용주로부터의 단체 교섭인데, 이런 것들을 이끌어 나갈 책임





청계노보 제15호, 1987.08.04,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출처 :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민주화기념사업회 제공

이라고 해서 제가 추천이 된 것 같습니다. 물론 2년 고생했으니까 위원장도 해 봐라 이런 것도 있었겠지만. (웃음)

사회자 한편으로 다양한 갈등에서 좀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여러 세력에 의해서 추대되고 합의될 수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김영대 그렇습니다. 두루두루 추천이 돼서 거의 만장일치로 거저 먹기 위원장이 됩니다.

양수일 (웃음) 출소하신다고 얘기 들었을 때, 저는 대단한 선배님이 나오시는 걸로 들었어요.

사회자 아유, 대단하시지. (웃음)

김영대 아유, 대단했죠. (웃음)

사회자 그래서 이견들이 없었던 거군요.

양수일 위원장님 출소하면 뭔가 좀 새롭게 전체적으로 힘이 모이겠다는 기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김영대 그래서 위원장이 되니까 엄청 부담이 됐죠. 왜냐면 아직도 합법성 쟁취가 안 됐으니까 그 싸움도 해야 하고, 사무실 탈환 싸움도 해야 하고. 나오자마자 그런 논의가 돼서, 제가 직접 투쟁하진 않았지만 조합원들을 조직해 가지고 사무실을 쟁취하게 된 거죠. (웃음) 그리고 그 직후에 탈환한 사무실에서 대의원 대회를 열고 위원장이 됐습니다.

양수일 그렇죠.

김영대 그래서 창문에 이렇게 했던 사진이 기록으로 남아 있는데요. (189p 김영대 기증 사진과 동일) 제가 위원장이 되고 나서 합법성을 따내야 교섭도 하고 하니까, 그걸 위해서 두 가지 일을 합니다.

하나는 시간 단속반 활동이었어요. 당시 근로 조건이 엉망이었죠. “노조가 있든 없든 지켜야 할 건 지키자. 근로기준법을 지키자” 해서 시간 단속반을 만들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직접 가서 불을 내렸어요. 법을 어기니까 더 이상 일을 못 시키게 불을 꺼 버리는 거죠. 그 활동이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합법성 쟁취를 위한 싸움들을 병행했습니다.

그러니 노동부가 굉장히 당황했죠. 왜냐하면 “아유, 근로기준법을 안 지키니까 우리가 현장 가서 단속하는 거다”라면서 자기네가 제대로 안 하는 걸 우리가 하니까. 나중에 노동부에서 타협안이 들어온 게, 우리가 단속하는 걸 노동부도 인정할 테니까 제발 ‘단속반’이라는 완장이라도 하나 채워서 내보내라는 거예요. 아무나 와서 불을 내리고 간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나면서, 뭐 자기네도 할 말이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저희가 합법성에 대한 쟁취 투쟁을 계속해 나가고, 이러면서 결국은 합법화를 만들어 냅니다. 8년에 걸친 비합법 노조 활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현장에서는 노조가 되살아났고, 현장에 가서 이제 직접 불을 내리고 뭐.

양수일 그러면서 조합원들도 많이 늘어났어요.

김영대 예. 그러면서 노조에 가입하고,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사무실에 ‘박카스’를 갖다 놓고. 그때 박카스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었어요. 너무 고맙다고 그냥 몰래 놓고 갑니다. 그런 일도 있었고.

또 하나의 활동이 임금 체불 관련한 일이었어요. 당시 임금 체불이 많았기 때문에 그에 관한 신고를 받고 노조에서 직접 해결했습니다. 거의 뭐 억대 이상으로 연간 기록이 남아 있는데, 심지어는 봉제 공장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고, 이용업에 있는 사람, 철공소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왔어요.

양수일 해결해 달라고 청계천에 왔어요.

사회자 뭐 ‘떼인 돈 찾아드립니다’ 이런 거네요. (웃음)

김영대 예. 월급 받아 달라고 왔어요. 그때 당시 저희가 임금 체불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좀 가혹하게 했습니다. 신고 들어오면 노조 사무실로 출석하라고 하고, 안 오면 바로 우리 양수일 같은 열성 조합원들 모아서 (웃음) 새벽 4시부터 출동합니다. 새벽에 가게 문 여는 시간이 4시잖아요. 대여섯 명이 가게 앞에 가서 문 열자마자 난리 치니까 이젠 뭐.

양수일 장사도 못 하게.

김영대 도저히 해결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체불 임금에 대해서는 거의 100% 받아냈었어요. 심지어는 임금 체불이 상습적인 사람 있었어요. 두 번, 세 번. 이런 경우는 노조 사무실 불러다가 좀 혼도 내 주기도 했어요. 그래서 사용주로부터는 공포의 대상이었다는 걸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양수일 지금 봉제인지회장 하는 이정기도 그때 시간 단속반 같이 했죠.

**김영대** 그렇습니다. 이정기도 시간 단속반 출신이죠. 하여튼 그때 활동을 저희가 현장 경험 위주로 다양하게 하면서 실제로 조합원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했어요. 그게 성과가 있었고, 눈에 보이는 성과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만들면서 조직도 굉장히 커지고 이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 3. 청계노조 합법성 쟁취의 이론적 논쟁

**사회자** 양수일 선생님은 그전에는 점조직으로, 비합법적으로 운동하다가 이제 대중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처음 해 보셨을 텐데, 느낌이 어떠셨나요? (웃음)

**양수일** (웃음) 저는 되게 좋았어요. 누나들하고 얘기할 때도 다 현장 출신이다 보니까 “우리도 현장에서의 싸움이 필요하지 않냐?” 그랬어요. 아까 위원장님 얘기하신 대로 시간 단속반이나 임금 체불 투쟁도 했지만, “내부의 조직 활동도 좀 해야 하지 않겠냐?” 해서 몇몇이 팀을 짜서 현장에 다시 또 들어가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지수희, 수희 누나랑 저랑 종암동에 있는 아가방 하청 업체인 화인상사에 취직하게 돼요. 누나는 미싱사로, 저는 시다로 들어가서 누나는 미싱사들을 조직하고 저는 시다들을 조직했어요. 그때가 87년도 여름에 사무실 탈환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인데, 아마 8월?

**사회자** 8월이네요.

**양수일** 예, 8월이었을 거예요. 그때 3주 동안 파업 투쟁을 했었습니다. 한 6개월 정도 조직 활동을 했는데, 원래는 그게 조직이 아직 덜 된

상태였어요. 당시 사회적 분위기의 영향도 있었고, 같이 일했던 현장 동료들의 요구들이 계속 모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한 측면이 있는데, 그때 임금 인상하고 근로 조건 개선을 기치로 걸었어요. “일요일은 좀 쉬게 해 달라. 수당이나 이런 거 제대로 챙겨 줘라.” 그다음에 시다들이 기숙사에 있었는데,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하게 기숙사에 전기라든지 냉난방 이런 거라도 좀 제대로 챙겨 달라고 하면서 했어요.

하자마자 그냥 앞에 문 때려 잠그고, “너네 그러면 거기서 못 나와. 굶어 죽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 이러더라고요. 당시 공장이 2층이었습시다. 나중에는 누나들이랑 조합원들이 밖에서 2층으로 음식물을 집어던져 주고, 창문에서 받고 이러면서 3주를 버텼죠.

그때 그 싸움도 잘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화인상사 싸움, 아가방 싸움이 잘 해결이 됐고. 그 싸움에 영향을 받아서 그 이후에도 노조의 조합원들이 현장에 들어갈 때, 그냥 무작정 가지 않고 조를 짰습니다. 미싱사-시다 이렇게 한 조로 해서 각각의 현장에 역할들을 맡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 이게 가능하겠구나’ 싶었어요. 동화상가, 연세상가, 을지상가, 통일상가 이렇게 4개 상가는 워낙 조직이 돼 있고, 우리가 싸움의 대상도 분명히 있는데, 나머지 신당동, 창신동에 분포되어 있는 많은 사업장에는 우리가 좀 더 계획적으로 준비해서 들어가자. 이런 것들이 그때 좀 만들어지게 됐죠.

그래서 어렸을 때 제가 진짜 그야말로 망치로 맞아 가면서 싸웠던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많이 좋았고. 특히나 청계노조 와서 제가 ‘아, 이게 가능하겠다’ 생각이 들었던 게, 와이셔츠 공장들은 80년대에도 8시간 노동이 지켜졌었어요. 그게 70년대 선배들의 싸움의 결과예요. 70년대 청계노조가 이미 와이셔츠라고 하는 단일 업종에 대해서는 8시간 노동을 완전히 정착시켜 났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노동자들의 싸움이, 책에서만 봤던 이런 계급 투쟁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조직되는지에 대해서 저는 공개적인 활동들 하게 되면서 좀 확신과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을 하게 됐죠.

**사회자** 이제 노조 설립 신고서 쟁취가 큰 부분이 되는데요. 설립 신고서를 제출하고, 신고필증을 받기 위한 절차를 밟기로 결의하신 거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87년 노동자 대투쟁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다 불법적인 파업 투쟁이에요. 80년 신군부가 만들어 놓은 노동법 자체가 워낙 노동조합 활동을 엮매는 악법이었고 지역 노조도 설립할 수 없게 되어 있었던 상황이었죠. 근데 11월 28일 노동조합법이 개정됩니다. 거기에 보면은 지역 노조도 설립이 가능하도록 됐었고요. 아마 그래서 설립 신고서를 제출하는 투쟁을 하면서 합법성 쟁취 투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거 관련해서 혹시 노동법 개정 과정의 분위기라든가, 그다음에 설립 신고서를 12월 1일에 제출하고 바로 반려가 되는데요. 그런 설립 신고서 쟁취, 합법성 투쟁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 당시 청계노조는 워낙 상징적인 노조였어요. 8년 동안 계속 반려해 왔기 때문에 종로구청에서 신고필증을 내준다는 게 쉽지 않죠. 물론 전국적으로 노동조합의 투쟁이 있었고, 조직이 막 만들어지고, 여러 가지 곳곳에서 싸움이 있었죠. 그럼에도 청계노조는 끝까지 설립 신고를 주지 않으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사회자** 법이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김영대** 예, 그렇습니다. 반려 이유는 “상급 단체 인준이 필요하다”는 거였죠. 옛날에는 연합에서 해줬거든요. 그거 하나 하고, 두 번째는

해고자 신분이라는 거. “위원장 자격 요건이 현장의 조합원이어야 되는데, 청계노조는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결국은 그런 걸 빌미로 해서 안 준 거죠. 내가 현장에 지금 당장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회자** 그렇죠. 상근 활동을 해야 됐었고.

**김영대** 예. 그래서 그때 당시 합법성 쟁취를 위한 특별 결의를 하고, 아예 합숙하면서 싸울 사람들을 모집해서 일단 훈련을 합니다. 지속적인 가두 투쟁에서, 또 사무실에서의 플래카드로써, 그 당시에는 청계천에 있었던 고가도로 위에서 투쟁도 하면서 여러 가지 투쟁을 계속했어요. 노동부 항의 방문도 가고, 경찰청 항의 방문도 가고 뭐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니까 나중에 타협이 들어왔어요.

당시 관계 기관 합동 회의에서 어느 정도 정리됐던 것 같아요. 안기부, 경찰, 노동, 그다음에 기무사가 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쪽에서 정리돼서 온 것 같아요. 계속 설립 신고를 반려한 이유가 위원장이 직장이 없다는 거였기 때문에, “처음 내는 건 직장 있는 사람으로 내라. 그다음 날 다시 바꾸는 건 너네 마음대로다.” 그래서 당시 현장에 있었던 김한영 부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냅니다. 그리고 신고필증을 받고, 다음날 제 이름으로 다시 대표자 변경 신고를 냈는데, 바로 내 주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반려 명분으로 삼았던 상급 단체 인준증을 받아 오는 거, 그다음에 현장에 적을 둔 사람이 내는 거. 저희도 타협을 한 거죠. 끝까지 버티면서 싸워야 되냐, 아니면 저쪽에서 타협안을 제시했으니 요 정도는 넘어가자 하는 논쟁이 내부적으로도 있었어요. 결국 후자를 선택하게 된 거구요. 그때 저희가 싸웠던 동력들, 당시 젊어서 굉장히 열성적으로 했던 분들을 중심으로 한 조직이 바로 단체 협약을 위한 준비팀으로 바뀝니다.



김영대

그 전에 드리고 싶은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석방된 직후에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다고 했잖습니까? 그때가 딱 7·8월 투쟁이 벌어지고 있을 때인데요. 청계노조 내부에서도 논쟁이 있었습니다. 무슨 논쟁이냐면 합법이나, 반합이나, 비합이나 하는 3가지를 놓고 하는 논쟁이었습니다.

7·8월 투쟁이 대중 투쟁으로 벌어지고, “이제 합법 공간으로 간다. 그러니 그동안 비합 활동했던 사람들도 합법 노조에 가서 위원장도 하고, 이렇게 해라” 하는 게 하나의 큰 흐름이었고. 또 한 흐름이 뭐냐면 “지금은 열린 공간은 잠시 열린 거다. 여기서 과거에 비합 공간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이 다 드러나면 탄압 시기에 방어를 못 한다. 그러니까 여전히 비합으로 가야 한다.” 이런 주장이 있었고. 반면에 장명국<sup>13)</sup> 씨나 이런 분들은 합법과 비합을 섞어 가면서 해야 한다. 김금수<sup>14)</sup> 선생님도 아마 약간 그런 쪽에 있었는데.

그 당시 서울노련이라고 있었는데. 서노련이 아니고.

**사회자** 서노련은 85년 구로동맹파업 이후에 만들어진 조직이었고, 서울노련은 87년 노동자 투쟁 직후인가 그때 만들어진 거죠.<sup>15)</sup>

**김영대** 제가 나와서 위원장이 되면서 인계받은 거예요. 조직 내

13) 1980년부터 ‘금성냉동기술학원’을 열어 대학 졸업 후 노동 운동에 투신하는 학출 노동자들과 현직 노조 간부를 교육하는 활동을 했다. ‘석탑노동상담소’를 통해 노조 방문 지도 활동을 전개했다. 노동 운동의 대중적 토대와 합법성을 활용해야 한다는 ‘대중노선’을 중시하는 입장을 지니고 있었다.

14) 1964년 8월 인민혁명당 사건으로 옥고를 치른 후 노동 운동에 투신하여 한국노총 연구위원, 정책연구실장을 지냈다. 1985년 한국노총에서 ‘각종 노사 분류와 관련해 위원장과 의견 대립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후에는 ‘한국노동교육협회’(이후 ‘한국노동사회연구소’로 개편)를 결성하여 노조 간부들을 대상으로 교육 활동을 전개하였다.

15) 서울노동운동연합(서노련)은 1985년 8월 25일 출범, 서울노동조합운동연합(서울노련)은 1987년 11월 1일 창립.

부적으로 인계받은 거는 서울노련인데. 그게 성수동에 황인범. 그다음에 영등포산선 쪽에 진방주 목사랑 유구영. 그러니까 유구영, 황인범, 청계노조 3자가 모인 게 서울노련입니다. 예전의 서노련하고 달라요.

사회자 그렇죠.

김영대 거기서도 논쟁 끝에 제가 주장해서 “합법으로 가야 한다”로 결정됐고. 거기에 영등포산선이 동의했고. 황인범 씨는 끝까지 반대하다가 어쨌든 따라는 왔어요. 그게 청계노조도 합법성 쟁취를 하게 되는 하나의 이론적 공간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서노협을 만들자는 게 서울노련에서 이야기가 됩니다. 그건 나중의 얘기인데, 어쨌든 밀바탕에서 그런 논쟁이 있었다는 걸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그런 배경하에서 저희는 “노조 본연의 활동을 되찾자”고 결의하고, 청계노조 합법성 쟁취를 이루자마자 단체 협약 준비에 들어갑니다.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과 준비가 있었고, 굉장히 큰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사회자 아까 얘기하신 조직 논쟁에 관한 부분들은 아마 86년도 얘기죠. 그러니까 서노련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굉장히 많은 논쟁들이 있었는데요. 물론 당시는 엄혹한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런 해프닝이 있었던 것 같기는 합니다만.

“노동자들의 대중적인 조직이 뭐냐?”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어쨌든 대중 조직으로서의 노동조합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반합법 투쟁 조직을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비합법 정치 투쟁 하는 조직을 주장하는 식의 다양한 논쟁들이 있었던 거 같아요. 어떻게 보면 87년 노동자 대투쟁의 흐름 속에서 “노동자들의 대중 조직은 노

동조합이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정리됐던 것 같습니다.

#### 4. 합법성 쟁취를 위한 70일간의 농성 투쟁

사회자 아까 신고필증 쟁취되기까지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하셨는데, 사실은 상당히 길어요. 12월 1일 설립 신고서를 제출했는데, 신고필증이 안 나와서 계속 투쟁했고요. 신고필증이 계속 안 나와 가지고 2월 15일에는 구청에 항의 방문 갔다가 농성에 돌입하는데. 그게 70일 가까운 농성이 전개됐던 거 같아요.

양수일 누나들하고 형들이 같이하자고 할 때, 처음에는 이틀만 하면 된다 그랬어요. (웃음) 왜냐면 다들 현장에 있었거든요. 70일 농성을 했던 사람들이 상근자들도 있지만, 나머지 조합원들은 다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때 휴가도 앞두고, 명절 때도 이래서 한 2, 3일만 하면 된다고 했어요. “지금 재네들이 신고필증 내 주려는데 구실이 없어 하는 것 같으니까, 우리가 대차게 한 번 하면 내 줄 거다. 한 2, 3일만 하자.” 이래서 저도 한 3일 할 줄 알고 갔다가 70일 한 겁니다. (웃음)

사회자 그러면 계속 현장에는 못 들어가신 거예요?

양수일 그렇죠. 그냥 현장 못 간 거죠. 농성에 들어왔고, 그 현장은 그냥 없어진 겁니다. 못 다니게 된 거죠.

사회자 그럼 농성장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하셨어요?

김영대 2, 3일은 거짓말이고. (웃음) 한 일주일 내지 열흘이면 끝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두 달이 지나도록 안 끝나는 거예요. 출근도 안 하고, 집에도 안 갔으니까. 그 인원 몇십 명을 계속 투쟁에 돌리는 거죠. 노동부 앞에도 가고, 뭐 이렇게 하는 속에서 두 달이 지나니까, 이게 위기의식이 오는 거예요.

사회자 그렇죠.

김영대 이 싸움을 끝을 내야 하는데. 우리가 패배했다고 하든지, 아니면 쟁취하든지 둘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내가 그 당시 조합원들한테도 얘기도 안 하고 가슴에 묻어 뒀던 얘기인데, 정말 막판에는 안기부 담당을 만났어요. 제가 일부러 정말 술을 많이 먹었어요. 많이 먹고 “정말 제2의 전태일이 나올 것 같다”고 약간 결연하게 협박했습니다. 사실 당시 심정이 그렇기도 했고. 어쨌든 그러고 난 뒤에 “잘 될 것 같다”고 따로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서 타협안을 가져온 거예요. 아까 얘기한 다른 사람을 위원장에 세워라.

사회자 위원장을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 하면은 내 준다.

김영대 예. 다른 사람으로 하고. 어디 가면 인준증을 줄 거다. 그 때 아마 섬유노련 쪽으로 갔지 않았나요?

양수일 어디요?

사회자 상급 단체를 섬유노련으로?

양수일 섬유노련에서 받았죠. 아까 위원장님이 농성 과정에서 제2의 전태일이 나올 수도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실제로 저희가 농성하고 있던 조합원들 내에서는 그런 시도들이 있었어요.

김영대 신나 병을 뺀 적도 있었고. 그 얘기도 전하면서 “제2의 전태일이 나올 것 같다”고 했죠.

양수일 처음에는 사실 되게 분위기 좋았습니다. 왜냐면 금방 신고필증이 나올 것 같았어요. 노동법이 개정된 상태였기 때문에 법적으로 크게 문제없는데 애네들이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상황이었고. 저희는 87년 투쟁의 여운이 있고.

그때 당시만 해도 저희가 수도권에 있는 대학을 안 가 본 데가 없었어요. 대학 축제나, 무슨 행사가 있을 때마다 저희가 가서 공연도 하고, 투쟁 선언도 하고. 또 다른 데 노조들 파업이라든지 하면 쫓아가서 구사대들 하고 싸우고.

김영대 탄압 받을 때 쫓아가고.

양수일 그러면서 거기서도 청계노조의 현황을 알리고. 또 아까 얘기하신 서노협 준비 과정과 관련된 선봉대 조직을 만든다든지, 뭐 이런 거 하면서 처음에 되게 분위기 좋았거든요. 근데 가면 갈수록 점점…….

사회자 일주일, 열흘, 그다음에 한 달, 두 달 넘어가니까.

양수일 그때까지만 해도 농성을 70일까지 하는 데가 없었어요. 나중어야 뭐 100일 이렇게 넘어갔지만, 그전까지만 해도 농성을 그렇게

70일까지 한 데가 없었죠. 사실 그래서 준비도 부족했구요.

사회자        준비도 부족했고, 또 대공장이나 이런 경우랑 달라서 당장 생계 문제도 있고.

양수일        예. 조합원들 나이도 다 10대 후반, 20대 초반이었기 때문에 구청 가서 한 번 대판 싸우고 오면 울분이 쌓여서, 밤에 술 먹으면서 욕도 좀 하고 그러다가 진짜 한두 명은 분신 시도도 해서 우리가 뜯어말리고 막 난리가 난 적도 몇 번 있었어요.

사회자        상당히 격앙된 분위기가 됐네요.

양수일        위에서는 저렇게 논의가 있었는데는 몰라도, 농성하고 있



청계피복노조 노조 설립 허가를 요구하며 장기 농성에 들어간 노동자들, 1988.02.23, 박용수 출처 : 박용수, 민주화기념사업회 제공



청계노보 제22호, 1988.03.18, 전대일재단



개정노동법상의 노동조합 설립 형태에 관한 공청회 개최  
- 청계노조는 당연히 합법이다 -

[illegible]

다음은 노동교육현황에 김금수 실장님이 사회를 본시켜 진행해 준회의  
에 공술인으로 참석하신 박인재변호사, 세종측 신동아 차장, 박홍섭 통일  
민주당 노동국장, 김석희 천하의주당 노동위원 박관철 민중의당 노동국장,  
배일모 지리원 공서 노동조합 위원장, 이삼학 교육보건 노동조합 위  
원장등들의 공술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이다.

[illegible]

서준식 신봉아 차장

...우선 어려운 노동운동의 성격에 대해 올바르게 보도록 하지 못했을 사과 드린다. 그리고 작업조건이나 임금, 직업안정 등을 갈망한 국민에게 사립을 이끄는 정책노조의 필요성을 언급하다 또한 정치노조의 합법성은 이미 28년전에 확인된 것이므로 세속 합법성을 논할 필요가 없다.

다고 생각된다. 노동운동이 자유롭게 활동하면서 진정한 민주화는 오는 것이다.

**박용섭 민주당 노동국장**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힘으로 권력이 행사되는 것이며, 노동조합은 특히나 18년 이상 역사를 있는 공기업에서 아까리 공영화하기보다 합법적인 노동조합으로 선언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

한국의 정리된 노동력  
[우선 84년 통계청 자료] 정부는 노이 출  
로 두번째는 정제노 조와, 제화노  
의 두를 적어 적어 하는 바이다. 개정  
노동관계법의 내용은 어찌거나 노동자  
노동조합 결성의 자유성을 보장하는 것  
인데 신교원제를 내주지 않는것은 관제  
당국에 생장되는 것이다. 법률을  
마르르 결성하지 않는 한 정부에서 정  
인력, 제화노조에 대한 신교원제를 작  
모르하고 법을 준수하기를 강력히 촉  
하는 바이다.

박관철 민중의당 노동국장

계정권 노동조합 밖으로 가동되지  
되어있는 지역별·산업별 노조를 원형화  
하지 않으면 한 세대의 노동조합력이 노  
노동층 뒤집어칠 위험이 있다. 그러고  
현재노조는 과거를 돌본 한계법 상으로도  
한계노조에서 추진하는 데 계속해 극적적  
의지를 표명하는 마다나. 아울러 11  
주, 원민·한겨레 단위에 설립 차원에서  
이 문제를 조사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  
법들을 찾아나갈 것을 정식으로 제안하  
는 마다이다.

**배임도 지하철 공사 노동조합**  
**위원장** : 17년동안 법을 공부해 온 저는, 보장이 아닌 한알의 수단이라고 하는 법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느껴 자라볼까 들어왔다. 노동법 중에서 노동 3권이 보장되고 있는 것은 노동조합과 노동쟁의가 있기 때문에 노동자가 연가도

이삼학 대한교육보험 노동조합

**원인질** : 청 계·안계·백계 노조  
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신고 필  
증을 내주지 않는 행위라도 가산벌을 폭  
로 제재하는 것이 우리의 입법다. 사관가  
격은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결정을 하고  
결정한 자유금출은 등재에 대해서도 조지  
가 존중한다는 등 보안을 구할도 필증  
을 내주지 않고 있으며 3개 노조에 대  
한 필증법규 지천도 벌을 정한 연 필증  
가 스스로 회피할려는 자는 결코 어떤  
발하여 이렇하고도 생각한다. 그러보 이  
[한겨레 1997. 12. 26. 1면]

문제는 전 노동자가 함께 반대하여 #

다기아 하는 문제이며, 자유금융노조도 함께 싸워 나갈것을 이 자리에서 결의하는 바이다.

공청회 2부에서는 정세·민생·세화  
조감위원의 열악한 작업 실태와 노동조  
감의 필요성, 현재까지의 과정과 이후 수  
리방안 마련하는 노동조합의 구상, 의지

게 불기 때문에 고용보험을 절감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건 많이 안된다. 더구나 영세업 같은 작은 사업장에서는 노동조합이 있어도 재 역할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역노조가 필요한 것이므로 경제노조를 비롯한 인화·재화노조에 대한 신고필증도 따로 별의 별글래서 형식적 노동자들도 자신들의 권리를 알고 인간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

문물으로 표현하는 사제국이 있었다. 시간대 겹친 사제국의 모든 정책과 일생애는 반드시 평가되어야 한다는 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지역노조 결하여 인민집에 살아보지' 모두가 하나인 마음으로 합작계 구호를 외치며 조차 대가로는 지역노조 행렬을, 노동자의 승리를 확신하며 광명리를 다녔다.

## 진 청계노조의 합법성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 2020년 7월 10일

[illegible]

나. 정당성이 실제 확보된  
상태에 있었다. 이후 우리  
우리를 기만한다면 실제로  
정체론은 순종과, 나아가 원  
의화노를 세울 것이다.

정수인장면계 도라지, 고오의 시

\_\_\_\_\_

던 젊은 조합원들 내부에서는 “진짜 이거 뭔가 큰일 내지 않으면 안 되겠다.” 뭐 이런 다툼이 있었습니다.

**사회자**        이게 당시 사회적으로도 많은 물의가 됐던 것 같아요. 심지어 심야 토론에도 청계노조 합법성 문제가 제기되어서 토론이 있었던 걸로 나오거든요. 당시에 청계뿐만 아니라 지역 노조로서 제화 노조, 인쇄 노조까지 세 군데 다 설립 신고서가 안 나왔던 상황이었어요. 심야 토론회에서 노동부 노정국장이 한 얘기가 재미있어요. “내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그때 당시에 했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아까 공안기관 대책 회의라 그랬나, 거기서 노동부의 입장  
장은 아니고 누군가 강하게 지역 노조 설립, 특히 청계노조 설립에 대해서  
반대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물론 신고필증을 주게 되기는  
하지만, 어디가 그렇게 끝까지 반대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김영대 사실 경찰하고 노동부는 내줘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사회자      법도 개정됐고 그러니까, 특히 노동부는 그럴 수밖에 없죠.

김영대 그렇죠. 노동부야 법을 보면 당연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보기관 쪽인 거 같아요. 당시는 안기부, 기무사 이쪽이 입김이 세니까.

**사회자** 그렇게 사회적으로도 여론화되면서 제화하고 인쇄가 먼저 나오고, 청계가 제일 마지막인 5월 3일에 신고필증이 나옵니다. 5월 2일에 준다고 얘기가 나왔고, 실제로 그렇게 되어서 발급이 됩니다.

## 청계피복 노동조합 합법성 드디어 쟁취되다!

- 농성 70일만에 쟁취한 우리들의 승리 -

그얼마나 뜨겁게 갈망했던가!  
그얼마나 애타게 기다렸던가!  
청계피복 노동조합의 합법성을!!

제 55-17 호	
노무조작발달심고초	
노무조작발달심고초	장기적 노무조작
주요발달심고초	서울 노무조작 심고초 4대 발발 장기적조작을 11대
발달심고초	1948. 3. 28.
제 주	서울 노무조작 심고초 4대 - 13
조 주	98015 - 2047013
제 주	장 간 장
제 주	전국 발발 노무조작 연방
<p>이제 55대 노무조작 심고초 주제를 위하여 노무조작 발달 심고초를 주정 11대.</p> <p>1948. 5. 2.</p> <p>서울 노무조작</p>	

청계천 2만 5천 노동형제 여러분, 기뻐해주  
십시요.

5월 2일 / 바로 어제 오후 6시30분, 청계피복 노동조합은 신고필증을 발급받았습니다. 드디어 우리들의 청계노조가 명실공히 합법노조로서 다시금 희망한 활동을 할수 있게 된것입니다. 지난 70일간의 긴나긴 농성투쟁은 가열차게

전개하며 우리는 정말이지 피가 마르도록 기다렸습니다. 우리는 정말이지 목이 터지도록 외치고 또 외쳤습니다.

하루빨리 청계노조의 합법성을 인정해주시기를,

현장 동료 여러분!

우리는 드디어 승리하였습니다. 우리 청계노조의 위대한 투쟁은 끝내 승리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이상 사장님들의 일방적인 횡포에 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우리는 더이상 하루 12-13시간의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우리는 하루하루를 오로지 일만하는 기계와같은 지겨운 생활을 벗어날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청계조는 우리 청계천 노동자들의 유일한 희망이요, 꿈입니다. 이번 청계조조의 합법성 쟁취는 바로 우리들의 힘의 확인이며 새날의 시작입니다.

현장 동료 여러분!

오늘 오후 7시 우리모두 청계계조조사 무실에 모여 승리를 자축하는 보고대회를 갖기로 하였습니다. 우리모두 한자리에 모여 위대한 우리들의 힘으로 정취한 승리의 기쁨, 8년만에 되찾은 청계계조사의 합법성 정취의 기쁨을 함께 나누어봅시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이루어야 할 활동들에 대하여 서로 확인하고 힘찬 전진을 약속합니다.

현장 동료 여러분 !

앞으로 노동조합에서는 여러분이 갖고계시는 모든 애로사항을 시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용주들과 단체협약을 통해 작

업시간을 단축하고 작업조건을 개선해나갈것입니다.

또한 아직까지도 지켜지지않는 근로기준법의 준수  
수를 위해 싸워 나갈것입니다.

노동자들의 생활에 꼭 필요한 교육과 건전한 문화를 만들기 위한 문화활동, 조합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활발한 활동도 전개해나갈것입니다. 재미있고 알찬행사도 많이 준비하여 사회명이 넘실거리는 청계천을 만들기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현장 동료 여러분 !

이제 우리들도 당당하게 노동조합아래 단결하여 우리의 권리를 찾고 인간다운 삶을 찾아나가는 오늘 / 청계노조가 새롭게 출발하는 오늘 / 한자리에 모입니다. (청계노조 사무실로)

청계노조 조합원 만세!  
청계피복 노동조합 만세!  
청계천 2만 5천 노동자 만세!  
민주노조 연대투쟁 만세!  
민주세력 연대투쟁 만세!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5월 2일 신고  
필증이 발급되어 오는 저희가 준비한 “지  
역노조 완전정착을 위한 평화대행진” 대  
신 오후 7시 청계천 7가에 있는 노동조  
합 사무실에서 승리를 자축하는 **보고대회**  
를 갖기로 하였습니다.  
현장동료 여러분! 퇴근후 꼭 참석하여주  
십시오.

## 신고필증 나왔다!

조합원들의 소감 한마디...

2) 신고필증을 보니까 너무너무 거분이 좋다.  
이것을 때때기위해 조합원 모두가 열심히 싸  
웠으니, 이제는 오로지 전진만이 있으리라-영-

3) 지난해 12월부터 치면 5개월이 넘고, 2월  
23일부터 농성에 들어간것을 치면 70일이 넘  
네? 우리모두 열심히 잘 싸웠다. -민-

- 머리통결, 머리병병, 너무기빠서 할말이 없다. 나만 앞으로는 더욱 열심히 노동조합 활동을 해야지 - 일 -
- 일단은, 우리가 정말 우리의싸움이 승리했다는게 기쁘고 아직도 신고필증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실감이 안난다. - 성 -
- 대동단결, 대동투쟁, 합법성을 쟁취했다 - 순 -
- 지난 70일간 아니 지난 8년간의 수많은 일들이 눈앞에 떠오르니 자꾸만 눈물이난다. 하지만 난 분명하게 확인하였다. 누가 뭐래해도 우리에게는 단결이 필요하고 우리노동자들의 단결은 꼭 승리한다는것을, 이것은 전리인것 같다. - 주 -



- 농성 70일동안 배운것도 많고 느낀것도 많
- 온대 그중에서도 제일 중요한게 노동자는 단결해야 한다는것과 노동자는 서로 사랑할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 이제 우리에게 남은것은 70년대처럼 사용주들과 단체협약을 통해 차근차근 우리의 권리를 쟁취하고 많은 현장동료들과 함께 우리의 위간다운 삶을 찾아나가는 것이다. -재-
- 너무나 좋다. 앞으로 시간단축등... -정-
- 너무나 좋다. 앞으로 시간단축등 현장에서 요구한다는것들을 이루어나야 겠다고 마음을 다진다. -숙-
- 마음껏 소리지르고 싶다. 온세상이 떠나가도록. 지난 8년간의 불법이라는 악선전이 지금이순간 거짓일이 드러났다. 이제 우리는 당당하게 공개적인 활동, 활기찬 노동조합 활동을 벌여 나갈것이다. 마구신난다. -승-
- 신고필증이 나온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설레이미상이 체대로 되지 않았다. 하열쁜 무지무지 기쁘다. -정-
- 나는 일하다 다리에 매 대기도하고 쫓카위로 찢어먹고 이렇게 기쁜일은 처음인것같다. -옥-

## 5. 1980년대 후반의 노동자 연대

**사회자** 청계노조가 합법성 쟁취하는 것과 더불어서 노동자들의 권익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들도 하셨는데요. 당시에는 노동자들 간의 연대 활동도 활발했었던 시기죠. 지역별로 민주 노조들이 만들어지고 연대해서 서울지역노동조합협의회, 소위 서노협이 87년 12월에 제일 먼저 만들어졌던가요? 마창노련이 제일 먼저 만들어지고, 그다음이 서노협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sup>16)</sup>

서울지역노동조합협의회가 만들어지고, 그와 같은 연대 활동에 청계노조가 많은 역할을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김영대 선생님은 위원장이니까 아마 여기저기서 불렀을 텐데요. 현장에서 연대 활동 하셨던 거라든가, 서노협 만드는 과정 등 다른 곳에서 투쟁하는데 많이 동원되었을 것 같은데요. 연대 활동에 대해서 한 말씀씩 얘기해 주시죠.

**김영대** 제가 석방되자마자 성수, 구로·영등포, 청계 세 지역이 모여서 서울노련을 만드는 데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서울에서는 운동 단체 사이의 연대 활동이 이미 있었던 것이죠. 그 활동과 관계되면서 노조가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면 유명한 맥스테크라든지, 구로공단에서 전자회사 노조들이 많이 만들어지잖아요.

**사회자** 대한광학이나.

16) 마산창원노동조합총연합(마창노련)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창립된 노동자들의 지역 연대 조직이다. 1987년 12월 14일, 마산·창원 지역의 19개 노조 대표자 및 간부 약 50여 명이 모여 결성되었다. 서노협 결성일은 1988년 5월 29일이다. 1987년 12월 15일 '맥스테크 노동조합 투쟁 승리 제1차 보고대회'에 참석한 15개 사업장 노조 위원장들이 서울 지역 차원의 연대 조직 필요성에 대해 논의한 바 있으며, 이후 서노협 결성에 대한 활동이 본격화되었다.

**양수일** 삼지전자. 많지.

**사회자**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집니다.

**김영대** 나우전……?

**사회자** 나우정밀.

**김영대** 예. 나우정밀. 그리고 아남도 있고. 이제 영등포 쪽에서도 기계 산업 부문 노조가 만들어지는데, 그게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과거에 활동했던 사람들이 들어간 현장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양수일** 유구영 선배가 영등포 기계 공단 노동조합 사무장이었잖아요.

**김영대** 그렇습니다. 특히 당시로는 구사대가 제일 큰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노-노 싸움을 일부러 만든다든지, 아니면 용역 깡패를 불러다가 노조를 제압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점에서 우리가 몰려다니면서 그걸 방어해 내기도 하고, 같이 싸워 주기도 하는 활동을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었죠. 왜냐면 여성 중심 사업장들이 특히 그런 탄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사회자** 구로동이라든가 뭐 이런 곳들. 섬유, 전자 회사들이 많았어요.

**김영대** 그렇습니다. 전자 회사들이 여성 숫자가 많았었고.

사회자 근데 사측으로 동원된 게 주로 남자들이죠.

김영대 구사대나 용역 깡패들이 남자들이다 보니까 청계에서 가게 됐습니다. 그때 맥스텍 투쟁이 다른 곳의 지원을 받으면서 오래 전개가 되었는데, 그러면서 “서울 지역에 합법적인 연합체를 만들자”는 논의가 내부에서 먼저 시작됐어요. 연합체 결성을 목표로 해서 연대 활동을 더 열심히 했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가서 도와야 한다는 생각이었지만은, 나중에 가서는 ‘합법적으로 서울 지역 전체가 모이면 진짜 큰 힘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 때문에 더 의식적으로 했어요. 우리 청계노조는 당시 몇십 명씩은 몰려다닐 수 있었으니까, 먼 지역까지 지원을 나가더라도 동원력이 있었죠. 그것도 큰 거거든요. 이제 다른 지역까지도 끌어내서 동원하고, 이러한 과정들이 자연스럽게 훈련되면서 청계노조가 서울 지역 연대 활동의 주축이 되었던 거 같아요.

양수일 그때도 가을에 산악대회, 등반대회를 여러 노조들이 같이 간 적이 있어요. 북한산 쪽으로 갔는데, 그때 단병호 위원장을 처음 뵈어요. 동아건설 창동공장 위원장으로 계실 때인데 그날 같이 참석했었어요. 등반대회가 그냥은 못 끝내잖아요. 끝나고 투쟁 사업장에 바로 지원을 갔죠. 당시에 어디였더라? 이름이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여성 중심 사업장이었어요. 강북구 어디였는데.

사회자 논노패션?

양수일 논노패션이었나?

사회자 논노패션 위장 폐업 철회 투쟁에 참가했다가 백골단에 연행됐다고 되어 있는데요.

양수일 아, 연행된 거 말구요. 그건 나중 일이고. 그때 단 위원장님하고 몇몇이서 바리케이드를 사이에 두고 구사대들하고 싸움이 됐어요. 저는 그때만 해도 단병호 위원장님이 나이가 훨씬 많은 줄 알았어요. (웃음) 머리도 까지고 이려서 가지고.

김영대 방학동 쪽 아니에요?

양수일 예, 방학동 쪽에 있던 여성 중심 사업장인데. 구사대들이, 남자애들이 앞에서 진을 치고 못 나오게 하고 난리를 치고 있었어요. 그때 산에 등반대회 갔다가 그 인원이 전부 같이 내려왔어요.

김영대 거기가 원단회사 같은 데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양수일 그래서 싸움이 붙었는데, 단 위원장님이 키가 크시고 또 나이가 좀 있으니까 맨 앞에서 끌려들어 갔어요. 단 위원장님 끌려갈 때 그거 붙들다가 저도 같이 끌려들어 가서 “아유, 어르신 때리지 말라”고. (웃음) 제가 단 위원장님 위에 얹어졌었거든요. 그래서 단 위원장님 하고 개인적으로 그때 통성명하고 이랬습니다. 나중에 단 위원장님이 전노협 의장할 때도 제가 선봉대로 경호조도 맡게 되고요.

그런 식으로 여러 노조들이 같이 투쟁 사업장을 방문하고, 구사대랑 함께 싸우고, 그러면서도 또 결과물들을 얻어낸 것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서노협을 만드는 게, 연합 조직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쉽게 서로 동의할 수 있게 했던 거 같고요. 자연스럽게 그런 싸움들 하면서 유구영

선배랑 “서노협 선봉대 만들어야겠다.”

김영대 선봉대가 그때 만들어집니다.

사회자 아, 서노협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선봉대도 같이 만들어지는군요.

양수일 예. 선봉대도 같이 만들어져요. 유구영 선배랑 저 포함해서 한 6명이 모여 가지고 “서노협 선봉대 만들자.” 그래서 청계노조, 영등포산선 뭐 이렇게 모였었어요.

김영대 합숙 훈련도 하고 막 이랬다니까.

양수일 아유, 뭐 합숙 훈련만 했나요. 그때 연수원 가서 사과탄 까고 화생방 훈련도 하고 난리가 났었지.

사회자 흠쳐 온 최루탄 까서 훈련하고 그랬던 건가요? (웃음)

양수일 그때 가두 투쟁에서 주운 사과탄들을 한쪽에 모아 났다가. 선봉대 훈련 가면 저희가 교관들이었는데. (웃음)

사회자 교관이었어. (웃음)

양수일 선배랍시고.

사회자 군대도 안 간 사람이.

양수일 예. 저는 군대도 못 갔지만. (웃음) 비닐하우스에다가 최루탄 까 놓고, 그 안에서 참고.

김영대 청계노조가 교관을 할 만한 게, 87년 이전에.

사회자 87년 이전부터 단련됐으니까.

김영대 예. 밤새 소주병 모아서 화염병 만들고 했던 경력이 있기 때문에. (웃음)

양수일 그렇죠. 진짜 위원장님 말씀대로 87년 가두 투쟁 때도 청계노조 사무실에서 여러 번 화염병 만들고. 공장에 일감들 신고 다니는 짐자전거에 그걸 위장해서, 이렇게 싸서 신고 나가서 종로에서 집어던지고 이랬던 일들이 있었죠. 사실 그때만 해도 어쩔 수 없이 청계노조는 최선봉에서 열심히 싸울 수밖에 없는 곳이었죠. 그런 과정들이 자연스럽게 서노협 활동에 영향을 많이 줬던 거 같아요.

사회자 청계노조가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에 만들어진 노동조합들을 지원하면서, 또 선봉대 이런 부분들에 역할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노동조합 연대 활동에 적극적인 주체로 나섰고. 그 활동을 통해서 서울지역노동조합협의회 결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된 거죠.

김영대 결국 주도적 역할 하면서 제가 거기 사무처장을 하게 됩니다. 제가 경력이 청계노조 사무장, 청계노조 위원장. 서노협 사무처장, 서노협 의장. 그다음에 민주노총은 사무총장까지만 했어요. (웃음) 사무→위원장, 사무→의장 이렇게. 아이고, 참. 역사가 그렇습니다.

## 6. 상가별 단체 협약 체결 투쟁

**사회자** 신고필증이 나오고 합법 노조로 되면서 단체 협약 활동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합법성 쟁취 이후에 현장 조직 활동 강화, 그리고 연대 활동으로서 서노협 활동. 두 가지 활동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영대** 일단 제가 합법 노조 위원장이 됐잖습니까. 합법성을 만든 주체들이 됐으니까 조합원들도 긍지가 굉장히 컸죠. 제가 선배들한테 들은 얘기로는 해산당할 때 거의 2,000명 가까운 조합원이 있었다고 그래요.

**사회자** 예, 그렇죠.

**김영대** 저희도 서류를 인계받지 못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인원을 알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도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 싶었죠. 그래서 우선 우리가 지역 노조이기 때문에 단체 협약을 맺을 지역을 그렸습니다. 지도를 놓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단협을 맺자.

**사회자** 그러니까 평화시장, 동화상가.

**김영대** 그렇죠. 동화상가, 통일상가, 연세상가, 을지상가 뭐 이렇게 집단적으로 공장이 이루어진 큰 건물이 있어요. 한 건물에 몇십 개씩 들어가 있는 건물. 물론 밑에는 가게고, 위에는 공장인 상가도 있었구요. 대표적인 게 동화상가가 제일 컸었죠. 그런 상가 중심으로 우선 계획을 그었어요. 지도상 보면 가장 밀집되어 있는 쪽으로.

**사회자** 우선 적용해야 할 대상으로 이렇게 해서 정하시고.

**김영대** 예. 한꺼번에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거기를 그어 놓고, 실제 단체 협약에 들어가려면은 그 사업장 전체 전수 조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어 놓은 선 안에 있는 사업장을 전수 조사해서 무슨 품목이고, 인원은 몇 명이고, 이런 것부터 시작했죠. 전수 조사 시작하고. 그다음에 전체 백몇 개 되는 사업장이었는데, 거기에 공문을 보냅니다.

**사회자** 단체 교섭 하자고 공문을 발송하는 거죠.

**김영대** 예. “단체 협약을 맺자” 이러니 누가 나오니까? 각자 받으면 아무도 안 나오죠. 그다음 단계가, 단체 협약에 안 나올 때 할 수 있는 방법은 불법적인 활동을 단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단속이 들어가고, 또 여러 가지 홍보 활동도 들어가고, 동시에 여러 가지로 압박을 하는 거죠. 그리고 노동부에 가서도 단체 협약 위반으로 고발하는 거죠. 왜냐하면 단체 협약을 맺자고 시간 장소 정해서 나와라 했는데 안 나온 거거든요.

**사회자** 정확하게는 단체 협약 위반은 아니고, 단체 교섭 불응이죠.

**김영대** 단체 교섭 불응에 대한 부당 노동 행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노동부를 압박할 수밖에 없어요.

**사회자** 그렇죠.

**김영대** 그렇지 않으면, 뭐 사용주가 스스로 응하는 게 아니니까.

사회자      교섭에 나오지 않으니까.

김영대      그러니까 노동부도 가서 항의하고, 계속 괴롭히니까 노동부가 다 모읍니다. 사용주랑 모아서 대표를 뽑고요.

사회자      교섭단을 꾸려라.

김영대      노동부가 그렇게 나서니까 할 수 없이 교섭단을 꾸역꾸역 꾸려서 나오긴 했는데, “아유, 뭐 내가 이거 잘 알지도 못하고” 하는 식이죠.

사회자      사용주들은 다 하기 싫은 거지 뭐.

김영대      예. 하기 싫은 거죠. 그걸 저희가 다 교육시켜야 하고. (웃음) 진짜 교육시켜야 할 정도야. 사용자 교육시키고, 뭘 하고.

사실 저도 나중에는 사용주들한테 인기가 좋았어요. 왜냐면 조합원들을 설득했죠. “옛날 단협 그대로 맺고 싶지만 100%는 어렵고, 일단 단체 협약에 도장 찍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시간 지키는 문제하고, 임금 인상이나 이런 기본적인 것 우선하고.” 그것도 어려웠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조합원 교육시킬 수 있는 걸 그때 따냈죠.

사회자      노조 활동 보장.

김영대      예.

양수일      예. 돌아다니면서 교육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죠.



양수일

김영대 근데 그것도 다른 사용주들은 안 하는 거예요. 왜냐면 와서 도장 찍고 나면 다른 사용주들한테 욕을 엄청 먹을 거니까 계속 뭉그적 대고 안 해요.

그래서 저희가 하루 총파업을 하기로 했어요. 그 하루 파업을 위해서 거의 한 달간 우리 간부들 20여 명이 숙식하면서 일일이 사업장 찾아다니고, 공문 보내고, 또 현장에서 피케팅 합니다. 예를 들어 5월 1일이면 “5월 1일에 그날 하루 파업을 청계노조가 이 지역에서 합니다” 해서 사전에 유인물을 출근 시간에 뿌리고, 퇴근 시간에 뿌리고. 또 여러 가지 홍보 활동하고. 결국 그날 하루 정말이지 전체 파업을 했어요. 당시 백몇십 개 사업장이 있었는데 한 공장도 돌아가지 않았어요.

양수일 저항이 엄청 컸어요.

김영대 오히려 우리가 파악 못하고 있는 한 공장이 나중에 추가로 파업에 들어간 걸 확인했어요. 조사가 안 된 사업장인데 그날 하기로 한 날 아침에 한 거예요.

우리가 보통 파업할 때는 길에서부터 이렇게 유인물 뿌려 주면서 “오늘 쉬는 날입니다” 하잖아요? 그러면 일단 출근까지는 해요. 공장 앞까지는 오는데, 유인물을 받는 순간 받고 돌아가요. 다 약속한 듯이.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날 청계노조 사무실에 박카스가 엄청 쌓였습시다. 나중에 “오늘 파업이 잘 이루어졌다” 하고 사무실에 갔더니, 우리도 모르는 공장 사람들이 사다 놓고 간 거예요. 너무 감격적이었어요.

그날 하루 파업이 되니까, 그다음부터 단체 협약 나온 사용주 대표들도 자신 있게 도장을 찍었어요. 왜냐하면 ‘이거 잘못하다가는 하루가 아니고 이틀도 또 파업이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위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합법성 쟁취보다 그게 굉장히 상징적이고 큰 사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양수일 그렇죠.

사회자 하루 파업하고 단체 협약을 쟁취하게 되었네요.

양수일 그다음에 한 달에 2시간씩 사업장별로 교육했죠.

사회자 노조 교육이요. 한 달에 2시간이면 굉장히 큰 거죠.

김영대 아유, 나중에 우리가 감당을 못 했어요.

사회자 사업장이 다 흩어져 있기 때문에.

양수일 아예 딱 공장을 멈추고, 미싱사랑 시다들이 같이 모여서 노조 간부들 와서 교육하면 그거 2시간 동안 듣고. 합법적인 노동조합 교육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다는 게 굉장히 컸던 거 같고요.

아까 1일 파업할 때 별일 없었던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별일 있었어요. 와이셔츠 만드는 사업장들은 잘 올라갔어요.

사회자 70년대부터 노조 활동 했으니까.

양수일 예. 워낙에 조직이 딱 되어 있으니까. 근데 동화상가 4층에 있었던 한 사업장은 사장 동생이 재단사였거든요. 근데 그날 공장 문을 못 열게 하니까, 문 잠그고 사람들이 못 나오게 하는 거예요. 이미 출근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업장에 저랑 몇몇이 쫓아갔어요. 근데 이 양반이 그 아침에 술을 잔뜩 먹고서는, 재단 가위 이만큼 큰 거 딱 들고 나와서 간부들 죽여 버리겠다고. 그래서 제가 배 까고 찔러 보라고 그랬더니



찌르지는 못 하고. (웃음) 그래 가지고 제가 옥상에 올라가서 문 열고 다 나오라고 하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김영대 나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 (웃음)

사회자 역시 선봉대 할 만한 실력이 되시네요. (웃음)

양수일 아무튼 그게 굉장히 컸어요.

김영대 컸어요.

양수일 임금 인상 폭이 크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단체 협약 맺고 하면서 노조 활동이 시장 내에서 공식적으로 인정이 되었죠.

사회자 대중적으로 되고 조합원도 늘어났겠네요.

양수일 확 늘어났죠.

김영대 지금 전태일기념사업회 이사로 있는 정경숙이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교육을 나갔는데 어느 날 울고 들어왔어요. 최근에 얘기하니까 자기는 운 적이 없대. 근데 엉엉 울었습니다. (웃음) 엉엉 울고 들어와서 하소연하는 거예요. 진짜 못 하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가서 교육하려는데 문을 안 열어 주잖습니까.

양수일 그런 데도 있었어요.

김영대 그냥 가서 교육만 하는 것도 힘든데, 엄청 싸워야 하는 거예요.

사회자 서류상으로 2시간 확보됐다고 해서 그대로 인정되는 게 아니고.

김영대 그래도 힘들어요. 생각을 해 보세요. 한 달이라고 하지만 백몇십 개 사업장을 2시간씩 하는 걸 간부들이 하는데.

양수일 몇 명씩 조 짜서 다녔어요.

김영대 왔다 갔다 하는 시간에서부터, 간다고 쉽게 문을 열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막 엉엉 울면서 도저히 힘들어서 못 하겠다는 거야. 엄청 당하고 왔던 거예요. 그래서 “아, 그 사업장?” 그러면서 내일은 남자 몇 동원을 했죠.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전달하고 똑같은 행태예요. 술 먹고 낮을 들었어.

사회자 재단 가위도 아니고 낮을. (웃음) 낮은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건데.

김영대 준비를 했어요. 그게 통일상가 쪽의 사업장이었어요. 그때 이정기랑 몇 사람 데리고 가서, 똑같죠 뭐. “그래. 나를 찍어 봐라” 하니까 찍을 수는 없잖아요.

사람들이 거기 점심시간이라 엄청 많이 모여 있으니까. 낮을 들고 있었던 게 확인이 됐으니까. 옆에 남자들이 딱 잡고 낮을 뺏은 다음에, 현행범 이니까 파출소까지 애를 끌고 가야 하는데, 파출소가 거기서부터 멀어요.

을지로 계림극장 뒤에 있거든요. 거기까지 가면서 애가 얼마나 발버둥을 쳤겠어요? 발버둥 치는데 넷이 붙잡고 계속 때리면서 간 거야. 파출소 가서 보니까 옷이 다 찢어졌죠. 진짜 나중에 파출소 가서도 애는 엉엉 우는 거야. (웃음) “낫을 들고 설친 놈을 잡아왔다”고 하니까 경찰이 들으면 우리 말이 사실이잖아. 근데 애는 오면서 맞았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사회자        증인도 없고. (웃음)

김영대        예. 증인은 없고. 그러니까 거기서 애는 분통이 터져서 난리를 치는 거야. 파출소 직원이 “여기서 합의하고 나갈래? 아니면 경찰서로 갈래? 경찰서로 가면 너 더 힘들 텐데.” 이제 중부경찰서로 넘기는 거죠. 결국은 지가 그냥 여기서 그냥 끝내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가서 다음날 바로 이사 갔어요. 하여튼 며칠 사이 개가 이사 갔어. 그 뒤로는 교육 가는 데 방해하는 놈이 싹 사라졌습니다.

사회자        혹시 그 과정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양수일        아닙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노조 간부들이 갔을 때 예전의 모습과 다르게 조합원들이 친절하게 대해 줬고, 조합원 가입도 꽤 많이 늘었어요. 제일 많을 때는 한 3,000명까지 조합원이 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자        지금까지 87년 6월 항쟁을 전후하여 청계노조가 새롭게 조직을 정비하고, 합법성을 쟁취하기 위해 투쟁했던 역사에 대해서 당시 위원장이었던 김영대 선생님하고, 조합원으로 또 선봉대원으로 열심히 투

쟁하셨던 양수일 선생님 두 분의 말씀을 들어 보았습니다. 오랜 시간 말씀 나눠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대        수고하셨습니다.

양수일        감사합니다.

# 5부

## 합법성 쟁취 이후의 청계피복노조

인터뷰 5회차

2024년 8월 26일(월) 14시~  
전태일기념관 2층



왼쪽부터 김영대, 김태현, 김정호, 이정기

## 1. 합법성 쟁취를 전후한 청계노조의 상황

**사회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980년대 청계노조의 활동에 대해서 기록하는 제5차 노동구술기록 사업의 5회차 시간입니다.

지난 인터뷰를 통해 1980년대 청계노조 활동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서울의 봄과 함께 단체 협상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지만, 전두환 정권에 의해서 노조가 강제 해산당했습니다. 노조 복구 선언 이후에는 노조의 합법성을 쟁취하기 위한 힘겨운 투쟁들이 이어졌습니다. 청계노조는 연대 단위와 함께한 투쟁을 통해서 1988년 5월, 드디어 합법성을 쟁취하게 됩니다.

오늘 진행할 5회차 인터뷰에서는 합법성을 쟁취한 이후의 청계노조 활동, 그리고 청계노조의 변화 내지는 후신으로서 90년대 이후 섬유·의류산업노조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법성 쟁취 투쟁 당시 청계노조 위원장이었던 김영대 선생님을 비롯해서 열성적으로 조합 활동에 참여했던 김정호, 이정기 선생님을 모시고 말씀을 나눠 보고자 합니다. 우선 간단한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김영대** 87년 7·8월 투쟁 이후에 청계피복노동조합을 복구했을 때, 그 싸움에 함께 했고 위원장을 맡게 된 김영대입니다.

**김정호** 저는 88년도에 청계노조 가입하고 이후에 서울의류업노동조합까지 활동을 해 왔던 김정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정기** 저는 87년 4월에 청계노조에 가입했었고, 88년 농성 들어가면서 좀 활동다운 활동을 했다고 할까요. 91년에 군대 가면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활동을 건너뛰었다가, 다시 2018년부터 서울봉제인지회

라는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는 이정기라고 합니다.

**사회자** 88년 5월 청계노조가 합법성 쟁취 투쟁에 승리했습니다. 두 분은 87년 이후에 노조 활동에 참여하셨기 때문에, 그 당시 조합원 입장에서 청계노조 활동을 경험했던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특히 어떤 경로를 통해서 노조에 가입했는지, 가입하고 난 다음에 조합원으로서 활동했던 경험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먼저 87년도에 노조 가입했던 이정기 선생님, 그 당시 활동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시죠.

**이정기** 처음 청계노조를 알게 된 계기는, 제가 첫 직장이 충신동에 록희사라는 나름 큰 규모의 공장에 있었거든요. 충신시장 바로 옆에 있던 공장이었는데, 한 층에 미싱이 25대 있었어요. 미싱이 25대라는 이야기는 미싱사 선생님이 25명, 시다가 25명이라는 거죠. 비교적 충신동 내에서는 규모가 있는 공장이었습니다. 그때 청계노조 활동을 열심히 하시던 장경화, 이태원이라는 분을 알게 되어서 “심심하면 나 따라가자. 놀러 가자. 놀이 있다”라고 해서 참여하게 된 게 노조 활동의 계기가 되었고요. 당시 제 나이가 17살이었는데, 어떤 목적 의식이 있다기보다는 저를 지도해 주시는 선배님들을 믿고 따라던 거 같습니다.

**사회자** 친구 따라 또는 선배 따라 자연스럽게 노조에 가입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87년 이후에는 노조 활동이 합법화되기 때문에 좀 더 공개적이고 대중적인 활동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정기 선생님은 노조 등산 모임이랄까, ‘청산회’ 활동도 하셨다고 그러는데, 청산회 활동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고 다른 활동에 대해서도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기** 청산회 시작한 게 87년도 9월 쯤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남녀 성비가 8 대 2 정도로 단연 여성 노동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남성 노동자들을 조직하는 것에 대한 고민은 많이 없었던 거 같아요. 그런데 저를 지도했던 선배들 몇 분이 “등산 모임을 한번 해 보자.” 했던 게 시작이었어요. 당시 남자 노동자라고 해 봐야 재단사, 재단 보조가 다였었는데요, 고려대학교 앞에 माम집이라고 좀 쌀 막걸릿집이 있었어요. 거기서 선배님들하고 13명이 “한번 해 보자.” 하면서 조직했었는데, 인기가 너무 많아졌죠.

한 번 갈 때마다 30명, 40명씩 늘어나면서, 세 달 후에 저희가 송년회를 했었는데 100여 명 넘게 오신 것 같아요. 산장 하나를 통째로 빌려서 했었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교통이라는 게 뻥하니까 버스 타고 이렇게 움직일 때였는데, 버스에 버너 싣고, 큰 냄비 싣고, 그다음에 간단하게 해 먹을 수 있는 카레 같은 거 써서 수락산, 북한산 등산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참 좋은데, 저희가 88년 3월에 농성 들어가면서 신경을 덜 쓰게 되면서 관리를 좀 못하게 됐죠. 그러면서 모임이 유명무실해진 게 안타깝습니다.

당시 제 나이가 17살에서 18살로 접어들다 보니까 제가 주도했다기 보다는, 주로 제가 믿고 따르는 선배들의 지시를 따라서 활동했던 것 같아요. 농성에 참여할 때도 제가 어떤 의식이 있어서 농성에 참여했다고 말하기는 어렵고요. 당시 제가 시다였고, 저랑 같이 일하셨던 미성사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때는 미성사를 ‘오야’라고 했는데, 김점복이라고 청계노조 조합원이셨습니다. 그분 따라서 한 2, 3일이면 끝날 거라는 생각으로 들어갔다가 70일이라는 시간을 참앓했죠. 저는 성격상 한 번 시작하게 되면 결과가 좋은 안 좋은 끝까지 있어야겠다는, 당시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가슴 아픈 기억으로는 농성 중에 안양 그린힐이라는 봉제 공장 화재가

났었어요.<sup>17)</sup>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당시에 22명의 여성 노동자들이 철장 안에 갇힌 채로 거의 몰살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안타깝게 돌아가셨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진반 활동을 좀 했었는데, 김상현이라는 선배와 둘이서 장례식장에 갔었습니다. 13살 어린 여성 노동자의 장례식장이었는데, 그때 기억이 지금도 많이 남습니다. 엄청 많이 울었어요. 대충 이런 기억들이 좀 있습니다.

**사회자** 김정호 선생님은 88년에 노조 가입하고, 쟁의부장 활동도 하셨다고 했는데요. 어떻게 노조 가입하게 됐는지, 그리고 쟁의부장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하셨는지, 소모임이나 이런 활동을 하셨던 부분이 있으면 같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저는 83년도에 처음 평화시장에 시다로 들어왔습니다. 86년도에 방위 들어가고, 88년도 4월에 제대하면서 후배들을 통해서 철학이니 경제학이니 세미나를 했었고요. 그때는 청계노조라는 존재를 저는 잘 몰랐었습니다. 당시 무슨 특별한 정파에 소속된 건 아니었어요. 9월 말이나 10월쯤에 청계노조라는 데가 있으니까 거기서 활동하면 좋겠다 해서 처음에 혼자 와서 노조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와이셔츠 업종하고 대인복 업종하고 구분돼 있었거든요. 지금 기억하기로는 내가 객공 미성사였었으니까 대인복대책위원회 중에서, 이제 객공대책위원회 쪽으로 활동한 기억이 있어요. 돌이켜 보면 끝날 때까지 객공 문제 가지고 싸웠던 것 같아. 취미 활동은 그때 그림반이 있었죠.

17) 1988년 3월 25일 안양시에 위치한 비산종합상가 3층의 그린힐 봉제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기숙사에서 잠을 자던 여성 노동자 22명이 이 화재로 목숨을 잃었다. 여성 노동자들은 3.7평의 방에서 5~8명씩 새우잠을 잤으며, 기숙사는 밖에서 쇠창살을 내리고 문을 잠근 후 아침에 경비원이 문을 열어 주는 식이었다. 따라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여성 노동자들은 대피할 수 없었고, 대규모의 인명 피해를 가져오게 된 것이다.

그림반 활동을 좀 했었습니다.

‘이건 뭐가 세상이 잘못됐고, 노동자들이 진짜 깨어나야 한다.’ 그런 생각이 약간 있는 상태에서 노조에 들어갔기 때문에 좀 열심히 하다 보니까 대의원도 되고, 또 미싱사 그만두고 들어와서 전임하라고 그래서 전임하고.

사회자      쟁의부장으로 전임하신 거예요?

김정호      예. 쟁의부장으로 전임했어요. 그때 내 월급이 한 150만 원 될 것 같은데, 전임하니까 3만 원. 아, 7만 원 줬나, 5만 원 줬나……. 하여튼 그런 기억이 나네요.

사회자      자료에 보면 ‘새벽울림’이 일일 찾집을 성황리에 마쳤다는 등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혹시 위원장님께서 보시기에 여성 노동자들의 소모임이나 활동이 기억나시는 거 있으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      87년 6월 항쟁 직후에 6·29 선언에 의해서 양심수들이 다 석방됐습니다. 그때 제가 구로연대투쟁으로 2년 살고 나와서 위원장으로 막 활동을 시작할 때였어요. 당시 과제는 당연히 청계노조 합법성 쟁취였고, 그 다음에 노동조합이니까 조합원들 모임하고 이런 거였어요.

여기 보면 『청계노보』에 일일 찾집이라는 게 나오네요. 이때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일일 찾집을 열어서 그 당시에 정태춘 씨를 최초로 을호다방에 모셨어요. 을호다방이 덕수중학교인가요?

김정호      예. 맞은편 지하.



청계노보 제26호, 1988.07.30, 영등포산업선교회  
출처 : 영등포산업선교회, 민주화기념사업회 제공

김영대 예. 거기 2층에 있었습니다.

김정호 아, 2층에 있었나요?

김영대 동화반점이라고 1층에 중국집이 있었고. 그 2층이 을호다방이었는데.

이정기 제일다방 아닙니까?

김영대 아니요. 을호다방. 거기에서 할 때, 정태춘 씨를 어떻게 어떻게 해서 만나게 되고 설득해서 모셨었죠. 정태춘 씨도 나중에 큰 집회에서 본인이 얘기했는데, 자기가 민중 가수라고 하는 활동의 최초가 그 다방에서 한 거였대요. 그냥 다방의 뽕뽕대는 마이크에다 대고 〈떠나가는 배〉 그런 노래를 불렀었거든요. 그리고 찌개 한 그릇 얻어먹고 가셨습니다. 그렇게 최초로 시작해서, 그다음에 서울지역노동조합협의회 또는 전노협, 민주노총 집회에서도 그 당시에 노래를 불렀고, 그 이후에 작곡도 여러 가지로 하게 되었죠.

그런 문화적인 측면을 통해 조합원들이 좀 많이 모일 수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조직을 늘려 나가는 하나의 방안으로써 그런 활동들을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우리 이정기 위원장님이 얘기한 모임들도 그렇게 커 나갔단 얘기에 지금 저도 깜짝 놀랐는데. 청산회가 회보도 내고 이러면서 해 왔던 활동들이 끊임없이 이어지다가, 6월 항쟁 직후의 합법 공간에서 저희가 합법성을 쟁취하게 되는 과정까지 이어질 때의 그 조합원들의 동력이라는 게 있었다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김영대

## 2. 단체 협약 투쟁 및 시간 단속반 활동

**사회자** 87년 이후에 대중적으로 민주 노조들이 대거 건설되었죠. 청계노조가 70년대부터 이어왔던 민주 노조의 정통성이랄까 이런 것들도 있어서, 이후의 연대 활동이나 서울지역노동조합협의회 건설, 전노협 건설에 굉장히 열성적으로 활동하게 된 것 같습니다. 김영대 위원장님은 서노협, 전노협에 상근으로 올라가시게 됐는데요. 청계노조가 어떤 식으로 연대 활동에 참여하게 됐는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 당시 위원장으로서 연대 활동은 당연한 거죠. 왜냐면 수시로 노조 탄압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쟁의부장도 계시지만, 구사대가 막 뭐하면 우리가 남성 노동자들이 중심이 돼서 가서 지원해 주고, 함께 싸워 주고, 뚜드려 맞고 오고 그랬던 게 일상화되어 있었는데.

그러기 전에, 지난하게 농성하고 싸워 가면서 합법성을 이뤄내고 나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게, 청계노조도 이제 제대로 된 노조로서 활동해야겠다는 거였어요. 그게 단체 협약이었습니까. 당시에 단체 협약 맺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었어요. 그때 한 축으로는 과거에 단체 협약을 맺었던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게 동화상가, 통일상가, 동신상가, 연세상가. 하여튼 “상가 중심으로 되어 있는 집단적인 건물에서 단체 협약을 맺자.” 이게 하나였고. 또 한 축으로는, 예전에도 노조를 피해서 밖으로 많이 나갔었거든요. 신당동, 창신동 이런 데.

**사회자** 가정집으로 들어간 거죠.

**김영대** 예. “그런 곳에 대한 시간 단속을 하자”는 거였어요. 당시로는 단체 협약을 맺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 단속반을 조직해서 외

곽 지역에 있는 곳으로 자주 갔었습니다. 그때는 보통 한 10시까지도 하고 했거든요. 8시까지의 오케이. 근로 시간 2시간 연장하는 걸 인정해 주고, 8시에 가서 불을 내리는 싸움들을 계속했어요.

그러면서 단체 협약을 맺기 위한 준비에 또 들어갔습니다. 단체 협약을 맺는데 그것도 “준비를 철저히 하자” 해서 목표를 세웁니다. 단체 협약을 맺을 때 그냥 노동부를 압박하고, 사용주를 압박만 해서는 맺어지지 않죠. 그래서 하루에 힘을 보여 주자 해서 전체 사업장, 우리가 이렇게 선을 그어서 안에 들어와 있는 140여 개 사업장에 하루 파업을 제대로 만들자는 목표를 정했어요.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상근자도 있었지만, 상근 아닌 분들의 지원도 받아서 당시 한 27명인가, 하여튼 많은 숫자의 조합원들의 참여하에 단체 협약을 반드시 맺어 내자고 하는 결의를 했습니다.

이제 조사 활동하고, 선전 활동하고, 홍보도 하고, 한편으로는 노동부 가서 단체 협약 안 맺는 사용주들의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해서 고발도 하고, 그 고발 조치가 제대로 처리되냐 안 되냐를 가지고 따지기도 하는 활동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축으로는 노동부가 방기하고 있는 장시간 노동, 근로 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한 시간 단속도 병행했어요.

이렇게 중층적으로 해 나가니까 결국 노동부가 견디다 못해서 사업장들의 사용주 모임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통일상가 대표도 뽑고, 동화상가 대표도 뽑고, 을지상가, 연세상가에 대표도 뽑았어요. 그런 식으로 노동부가 힘을 발휘해서 단체 협약 장소에 나오는 데까지만 해도 시간이 한참 걸렸고요. 나온다고 해서 바로 진행이 안 되죠. 사용주들도 단체 협약안을 처음 보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과거에 단체 협약을 했던 사용주들도 바뀌었잖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용주 교육부터 하다가, 결국은 안 돼서 하루 파업을 조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정한 바운더리에 있는 141개인가 되는 사업장에 하루 파업을 진행하고 성공적으로 마쳐요. 그게 효과를 발휘하고 급진전해서 단체 협약을 결국 맺게 됩니다.



- 단체인격제정없이 근로조건 개선한다 /  
- 경제노동자 단체로써 단체협약 체결하지 /  
- 노동조합 깃발이 노동자에 안착하지 /  
- 대동단결 대동투쟁 노동 3원 완전한지지 /  
- 민주노조 연대하여 노조활동 분화하지 /

# 청계노보

단체교섭 속보 제4호

발행일: 1988. 11. 14.  
발행처: 청계피복 노동조합  
전 화: 745-1706

## 단체협약 46개항중43개항 타결! 타결! 타결!

드디어 단체협약43개항 타결되다.

지난 11월 11일 오전 11시 동화시장 옥상 회의실에서는 제5차 단체교섭이 열려 기쁜 소식이 있기에 조합원 여러분께 알려 드립니다. 이날 단체교섭은 노동일사들에 대한 폭력과 애국가 제창으로 시작되어 오후 4시 30분까지 점심식사로 생략한 채 마라톤 회의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협약은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협약한 제46개 조항중 근무시간 중의 교육시간(제7조 2항), 최저기본급의 설정(제25조), 상여금의 지급(제30조)의 3개항만을 남겨 놓은 채 43개 조항이 타결되었다.

이제 청계천의 봄은 왔다.

지난 9월 1일 단체교섭이 시작된 지 62일만에 단체협약이 거의 다 체결됨으로서, 이제 역사적인 8년만의 청계노조 단체협약 체결이 눈앞에 다가왔다. 이미 근무시간, 휴일, 휴가, 퇴직금 등 중요사항이 체결되었고, 남아있는 3개 조항도 곧 체결되리라 믿는다. 이로써 청계천의 사업장에도 다른 업종처럼, 아니 다른 업종보다 나은 자당스러운 근로조건 개선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다.

다음은 사용자 대표와 조합대표가 도장을 찍은 협약안 복사본이다.

본 협약은 1988. 11. 14. 동화시장 옥상 회의실에서 사용자 대표와 조합대표가 도장을 찍은 협약안 복사본이다.

1. 근로시간: 1일 8시간, 1주 40시간, 휴일, 휴가, 퇴직금 등 중요사항이 체결되었고, 남아있는 3개 조항도 곧 체결되리라 믿는다.

2. 임금: 1) 선상(3월) 2) 구상(5월) 3) 노동자의 날(5월 1일) 4) 추석(5월) 5) 노조창립일(11월 27일) 6) 학기휴가(3월) 7) 4대절(7월 17일, 8월 15일) 8) 기타 휴일은 노동자의 날, 노조창립일, 7월 17일, 8월 15일이 없고, 이 휴일에 일할 시키면 250%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물론 일요일은 제외한 휴일이다.

3. 퇴직금: 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자에 대하여 근무연수(일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한다. 평균임금이란 일하는 기간에 받은 임금 모두를 합한 임금을 말한다. 그런데 재고미상사와 같이 대할 때는 월급이 다른 경우에는 퇴직하기 전 최종 3개월의 임금을 평균으로 계산한다. 따라서 퇴직금의 계산을 공식으로 만들어 보면, 평균임금 = (퇴직전월급 + 퇴직 전월급 + 퇴직 전월급 월급) ÷ 3

4. 상여금: 상여금 = (퇴직전월급 + 퇴직 전월급 + 퇴직 전월급 월급) ÷ 3

5. 우리 모두 지켜보자! 단체협약 완전체결! 제 6차 단체교섭; 11월 18일 오후 2시 동화시장 옥상회의실

6. 안전: 협약안 제 7 조 2 항 (근무시간중의 폭행 등) : 회사는 근로자에게 조합원들을 위한 시간으로 월 2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한다.

7. 휴일: 협약안 제 25 조 (최저기본급 및 수당의 설정) : 사용주는 임금을 8시간을 기준으로 기본급이라고 인정근로비 명칭을 붙여 지급한다. 단, 15분은 이하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8. 상여금: 협약안 제 30 조 (상여금의 지급) : 회사는 연당 기본급의 200%의 상여금을 지급한다.

## 타결된 단체협약 내용을 살펴본다

### 제 10 조 (사업장의 제정)

: 사용자들은 조합사무실을 상가내에 만들어 준다.  
조합사무실을 조합원들의 공간으로 활용하여, 모임이나 각종 문화행사 (연락, 노래자랑, 영화상영 등) 을 할 수 있으며, 도시락의 운반이 가능하다.

### 제 12 조 (종교활동의 보장)

: 각 공장과 상가에 조합계사관을 만들어 조합활동을 조합원에게 알릴 수 있다.

### 제 21 조 (근로시간)

: 작업시간, 조식, 청소, 교육, 뒷마무리 등을 근무시간에 포함한다.  
뒷마무리도 근무시간에 포함하므로 재단과라 사이 재단도 미청과 과 작업이 오후 8 시에는 퇴근해야 한다.

### 제 23 조 (휴 일)

휴일은 1) 선상(3월) 2) 구상(5월) 3) 노동자의 날(5월 1일) 4) 추석(5월) 5) 노조창립일(11월 27일) 6) 학기휴가(3월) 7) 4대절(7월 17일, 8월 15일) 8) 기타 휴일은 노동자의 날, 노조창립일, 7월 17일, 8월 15일이 없고, 이 휴일에 일할 시키면 250%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물론 일요일은 제외한 휴일이다.

### 제 24 조 (휴 가)

: 1) 생리, 안근, 연차, 안전산후 휴가를 준다.  
2) 다종의 경우에는 특별휴가를 주고 경조비를 지급한다. (단, 6개월 이상 근무자에게 한한다.)  
3) 본인결혼식(5일-10만원) 4) 자녀결혼식(2일-3만원)  
5) 동업가구내 청계자매 결혼식(1일-3만원)  
6) 처의 분만식(2일-5만원) 7) 형제자매 사망식(3일-5만원) 8) 부모 및 배우자 사망식(5일-5만원)  
9) 배우자 부모사망식(3일-5만원) 10) 부모회갑(2일-3만원)

결혼, 회갑, 사망 등의 경조사에 복직금, 조의금 정도는 회사에서 부담하고, 편한 마음으로 다녀 올 수 있다. (물론 다녀와서는 열심히 일해야 한다.)  
여자의 경우 월 1회의 생리휴가를 1일 결근시에 대체할 수 있음으로서 1일을 결근하여도 월급에서 공제하면 안된다.

### 제 26 조 (임금의 결정)

: 매년 2월에는 임금인상을 위한 협정을 사용자 대표와 조합이 체결한다.

### 제 27 조 (공간의 사전점검)

: 해당공의 공임은 디자인이 바뀐후 15 일 이내에 결정한다.  
공작을 할당개산일까지 기다렸다가 결정함으로써 서로가 만족하지 못하는 사태가 적지 않게 있었는데 이제 15 일 이내에는 결정해야 하므로 적정한 공임이 정해질 수 있게 되었다.

### 제 28 조 (퇴직금)

: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서는 퇴직금을 지급한다.  
재고 미상사를 포함하여 1년이상 근무자에 대하여는 30일분의 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 제 32 조 (기숙사)

: 회사는 기숙사 유지에 있어 및 식비 중 일부를 협조한다.  
사용주는 기숙사유지비(발세, 전기세, 수도세, 오유세, 연탄값) 전부를 사용주가 부담하며, 근로자들이 요구하면, 식비를 받을 수 있다.

### 전태일 선배님의 생애와 청계노조의 활동이 TV에 소개된다.

오는 11월 20일 일요일 오후 8시 KBS 1TV 뉴스비전 동시 남북 프로에 청계천의 현상이 소개된다.  
이번 프로그램은 전태일 선배님의 18주기 추모식을 맞아 제작된 것으로 「선배님의 생애, 청계천의 작업장 및 청계노조의 활동」이 방송된다. 이틀에서는 지난 11월 11일 제5차 단체교섭 장면도 나온다. -다함께 시청합시다-

## 퇴직금, 상여금은 어떻게 받나?

◇ 퇴직금: 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자에 대하여 근무연수(일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한다. 평균임금이란 일하는 기간에 받은 임금 모두를 합한 임금을 말한다. 그런데 재고미상사와 같이 대할 때는 월급이 다른 경우에는 퇴직하기 전 최종 3개월의 임금을 평균으로 계산한다. 따라서 퇴직금의 계산을 공식으로 만들어 보면,

$$\text{평균임금} = (\text{퇴직전월급} + \text{퇴직 전월급} + \text{퇴직 전월급 월급}) \div 3$$

$$\text{퇴 직 금} = \text{평균임금 (30 일치)} \times \text{년수}$$

$$\text{평균임금} = \frac{\text{월급} \times 12}{\text{일수} \times 360}$$

예를 들어 재고미상사 순회비가 어느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퇴직하였다. 일한 기간은 3년 3개월 15일, 퇴직된 받은 월급은 35만원, 40만원, 45만원 최종 3개월 평균임금은 (35만 + 40만 + 45만) ÷ 3 = 40만원

따라서 퇴직금은 40만원 × 3년 + 40만원 × 3월 + 12 + 40만원 × 15일 ÷ 360일 = 1,314,444 원

◇ 상여금 (아직 체결안됨) : 상여금은 지급받고 있는 월급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8시간 기준의 기본급으로 계산한다.

기본급 = 현재 월급 (10시간 기준) ÷ 318 ÷ 240시간

이 공식으로 계산하면

현재의 월급	20만원	30만원	40만원	50만원
상여금 100%	150,720	226,320	300,192	377,280
상여금 200%	301,440	452,640	600,384	754,560

위와 같이 상여금이 100% 미만 지급되도 아깝 구경, 여습수가, 주식으로 나누어서, 시다 같이 (월급 20만원) 주석에 짚어 갈 때는 50,240원의 상여금을 받아서 부모님 내의 안락함과 고기라도 맛나 사갈 수 있다.

청계노보-단체 협약 46개 항 중 43개 항 타결! 타결! 타결!

1988.11.14,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출처: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민주화기념사업회 제공

청계노조가 합법화된 이후에 시간 단속반 하고 단체 협약 맺은 거, 이게 굉장히 큰 성과로 됐어요. 그 결과로 140여 개의 사업장에 조합원들이 유니언 쉘을 맺었고, 조합원이 돼서 조합비를 걷게 되고, 또 사용주가 노조 사무실을 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을호다방 있던 그 건물 4층 인가 5층에 노조 사무실을 사용주가 얻어서 저희가 입주하게 됩니다. 여기 까지가 근 1년 가까이 고생하면서 얻은 성과입니다.

동시에 청계노조는 그동안 노학 연대뿐만 아니고, 노동자 간에 어려울 때 도와줬던 그런 활동을 기본적으로 계속했어요. 그때 서울 지역에 노동 조합들이 많이 만들어졌고, 그러면서 다른 노동조합과의 연대 활동을 계속 해 나가면서 서울지역노동조합협의회를 준비해 나가는 과정에 제가 함께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자** 김정호 선생님은 그 당시 쟁의부장 맡으셨으니까 시간 단속반 활동 등을 열심히 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 활동에 대해서 좀 재미난 에피소드나 이런 것들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정호** 에피소드는 없고요. 공장 가서 불 내리면 그쪽 재단반 사람들이 좀.

**사회자** 티격태격할 수밖에 없잖아요.

**김정호** 예. 망치 들고 뛰어나와서 싸우려고 그러는 경우도 있었어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단체 협약 투쟁하면서 같이 파업 대오를 형성하고, 협상에 힘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역할들을 꼭 해서 영세한 업체를 집단적으로 형성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와서 생각해도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나는 특별한 에피소드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방침 떨어지면 가서 싸우고 그랬어요.

**사회자** 그때 좀 이렇게 우락부락했나요? (웃음)

**김정호** 그런 거 없었어요. 그냥 조용히 가서 싸우는 편입니다. (웃음)

**사회자** 단체 협약이 맺어지고, 유니언 쉘까지 됐으면 그때 조합원 수가 최대로 올라갔을 거 같은데요. 얼마 정도까지 조합원이 확대된 거예요?

**김영대** 그때 저희가 “각 사업장별로 인원수 정리하고, 조합비를 일괄 공제해라.” 이렇게 했었습니다. 물론 주는 사업장도 있고, 안 주는 사업장도 있고. 초기에는 굉장히 정리가 안 됐어요. 뒤에 점차 정리되면서 우리 스스로 조사했을 때 거의 2,000명 그렇게 된 것으로 압니다.

**사회자** 2,000명 정도. 옛날 최전성기에 육박한 수준까지 됐네요.

**김영대** 거의 육박하는 정도로 갔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단체 협약이 맺어지니까 교육을 2시간 하게 됐거든요. 이게 사실은 너무 벅찬 거였어요.

**사회자** 그렇죠. 사업장별로 다 흩어져 있으니까. 백몇십 개 되는 사업장을 다 2시간씩 돌려면.

**김영대** 생각을 해봐요. 한꺼번에 모여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할 수

있는 공간도 없었고 그러니까 상당히 힘들었죠.

**이정기** 시간 단속을 88년도 여름휴가 끝나고 가을에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 좀 힘으로 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 단속 반장이 키가 184였습니다. 평균 키가 한 180되는 남자들 로만 다섯 명이서 처음에 조직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다 분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우리가 갔는데 대놓고 좋아하지는 못하지만, 우리 오면 이렇게 손 흔들면서 인사하는 표정들이 있죠. 그리고 “여기 사업장은 언제 오나.” 이런 신고도 많이 들어왔어요. 그럴 때 노동조합의 힘이라는 것을 제가 좀 많이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어떻게 일하고 있는데 가서 감히 힘으로 불을 내리나’라고 했었는데, 하니까 되더라고요. 경찰 앞에서든, 사업주의 앞에서든, 어느 누구 앞에서든 간에 굴하지 않는 그 당당함, 선배들의 그런 모습들을 보고 노동조합의 힘을 좀 느꼈었어요.

시간 단속 같은 경우는 89년도에 <인간극장>에서 5부작으로 방영한 적도 있었던 걸로 기억나요. 되게 현장에 친화적으로, 후속까지 해 가지고 되게 열심히 하셨던 걸로 기억이 나구요. 솔직히 가서 많이 싸웠죠.

**김영대** 파출소에 “남의 사업장에 주거 침입한다”고 신고가 들어 가서, 진짜 경찰이 오기도 했었어요.

**이정기** 근데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싸우는 사업장은 더 자주 가게 됩니다. 한번 해 보자는 식으로 계속 그 공장만 가게 되는 거예요. 당시는 미성년자 노동이 좀 심했을 때인데. 17살, 18살은 지금으로 보면 소녀잖아요. 소녀 노동을 8시 이후까지 하면 안 된다는 법적인 내용도 타당했기 때문에, “노동조합법이라든가 근로 계약 관련된 이런 법이 있다고 하니 지

켜라”라고 당당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영대** 나중에 노동부에서 위원장인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다 좋은데, 너무 깡패같이 그런다. 옷 좀 단정히 입고, 노조에서 시간 단속반이라는 완장을 하나 만들어 주고, 한 사람만 들어가도록 해라.” 그래서 완장도 만들어 가지고 단속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회자** 단체 협약을 쟁취하고, 시간 단속을 통해서 노동조합이 대중성을 갖게 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 김영대 위원장님 같은 경우는 서노협, 전노협에서 나중에 의장이라든가 수석부위원장까지 맡게 되는데요. 조합원들도 굉장히 열심히 연대 활동을 하셨던 것 같아요. 김정호 선생님은 전교조 합법성 쟁취 투쟁 과정에서 구속까지 되시는데, 이게 청계노조 연대 활동과 연계해서 일어난 거예요? 아니면 개인의 활동인 겁니까?

**김정호** 개인적으로 한 적은 없죠. 그때 서노협 선봉대가 있었는데, 이제 나는 중동부지구 선봉대 책임을 맡았어요. 종로 쪽은 학생들이 맡고, 우리 노동자들이 청계천 쪽에 맡고, 을지로를 아마 또 다른 단체가 맡고. 그렇게 해서 한 라인씩 딱 맡았어요. 싸움이 터졌을 때 선봉대원들 다 모으고, 각 조직들 다 모아서 어쨌든 청계천에서 책임지고 싸우는데, 금방 밀렸죠. 한 30분 만에 밀리고.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참여한 거죠. 그때는 무슨 대회 있으면 꼭 갔었으니까요.

**김영대** 그때 유구영 씨가 했던 선봉대 맞나요?

**김정호** 예. 맞습니다.



김태현

사회자      그렇죠. 서노협 선봉대. 구속까지 되셨는데 금방 나왔어요?

김정호      금방 나왔는데, 원래 내가 책임자니까 만약 내가 잡히면 목숨 걸고 나를 구한다는 호위대가 7명이 있었어요.

사회자      사수조 같은 분들이네요.

김정호      근데 사복형사 애들이 총 들이대니까 다 도망가더라고요. 그래서 나 붙잡혀 들어간 파출소에 화염병만 잔뜩 던져서 방화범으로 또 몰리고.

김영대      방화미수? (웃음)

김정호      예. (웃음) 구하지는 못하고 형량을 더 올리기만 했어요.

사회자      이정기 선생님도 연대 활동에 참여하셨던 기억들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죠.

이정기      당시 가두 투쟁 같은 걸 많이 했잖아요. 시간 정해서 번개 가두 같은 걸 좀 많이 했었는데, 청계노조 특성상 조합원이 여성일 수밖에 없잖아요. 보시다시피 신체 건강한 남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당시에는 고려대하고 노학 연대가 되게 끈끈했을 때인데, 주로 가두 준비 같은 걸 많이 했어요.

당시가 화염병 같은 게 난무할 때잖아요. 병 구하기가 되게 힘들었을 때였는데, 조직적으로 병을 구하러 다닌 기억이 있고요. 연세대 노학 연대 관

런해서 1박 2일 동안 병 만들려 파견 나간 적도 있습니다. 또 87년부터 88년도 중후반까지는 올림픽 준비할 때라 거리 청소같은 게 많을 때였는데, 그 당시 연대 싸움이 되게 치열했던 기억이 납니다.

양수일 조합원이랑 종로3가에 있는 지방노동청사무소에 가서 “새벽에 저걸 불질러 버리자”는 모의도 한 적이 있었어요. 당시 한 3번 정도 모의를 나갔어요. 3층에는 철창이 쳐져 있었는데 4층은 안 쳐져 있어서, “저기까지 던질 수 있을까”라면서 연습을 해 봤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가 구로 쪽 사업장에 구사대 이런 게 만연했었을 때인데, 여성 간부들 데리고 같이 연대했던 활동이 많이 기억납니다. 선배님들도 24살, 25살 이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많이 어릴 때였죠. 솔직히 10대 후반의 저 같은 사람 서너 명, 여성 노동자 너댓 명이 간다고 해서 그분들에게 어떤 큰 힘이 될까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의외로 청계노조의 이름에서 오는 무게감이라든가 든든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좋아들 하셨어요.

### 3. ‘서울지역의류제조업노동조합’ 건설

**사회자** 예. 이렇게 합법성 쟁취, 단체 협약 체결, 그리고 유니언숍으로 인해 조합원이 확대되었는데요. 그러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고민들이 중첩되는 시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영세사업장들이 기존에는 상가에 밀집되어 있다가 가정집으로 점점 떠나가면서 그나마 밀집된 노동자들을 조직해 왔던 토대가 좀 약화되는 부분이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조직 내부적 고민, 89년도쯤 투쟁에 대한 평가에서 나오는데 “중견 활동가들을 제대로 키워 내지 못 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청계가 자랑스러웠던 측면 중 하나가 노조가 해산된 시절, 어려운 비합 시절에도 활동가들을 끊임없이 키워 내고 그것을 토대로 새

로운 노조를 건설했다는 것인데요. 합법성 쟁취 이후에 오히려 중견 활동가들을 키워 내지 못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청계노조라는 한계를 벗어나서 서울 지역 의류업 전반을 조직하자는 논의들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89년도쯤 이미 “서울지역의류제조업노조”를 건설하자.” 이런 제안이 나오는데요. 그때 당시 문제의식이라든가, 그런 문건이 나오게 된 배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정호 선생님이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정호** 그때 김영대 위원장님이 구속돼 있었었나, 아무튼 안 보였던 것 같아요. 89년 초인가, 그때 상근하는 사람들끼리 토론하는 구조였는데, 다른 거는 다 생각 안 나고요. 지금 딱 생각나는 건 두 가지예요. “청계노조가 주도할 거냐. 아니면 공동으로 할 거냐.” 그 얘기를 제일 많이 했던 기억이 나요.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은 전반적으로 위기의식이 있었던 거 같아요. 이제 상가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좀 확대해야 한다. 그런 문제의식으로 그 문건이 나왔었고요. 그래서 토론은 조금 했지만, 더 이상 발전은 안 된 걸로 기억이 납니다.

**사회자** 깊이 들어가지는 않았나. 김영대 선생님은 그 당시에 구속됐어요?

**김영대** 제가 90년 말에 구속됐으니까.

**김정호** 아, 그러면 계속 계셨었네요.

**김영대** 있었습니. 왜 그런 얘기가 나왔냐면, 우리가 단체 협약을 맺었으니까 눈에 띄게 이사 가는 사업장이 많았어요.

**사회자** 상가에서부터 점점 더 밖으로 나가고, 가정집으로 파고 들어가고, 점점 더 분산화되는군요.

**김영대** 예. 그래서 이거는 빨리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위기의식을 느낀 거예요. 두 가지 대책이죠. 다른 지역까지도 빨리 포괄하든지, 아니면은 못 떠나게 싸우든지. 못 떠나게 싸우는 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언제 떠날지도 모르고, 어느 날 가 보니까 공장이 비어 있고 움썹터란 말이죠. 물론 조합원들이 눈치채서 미리 알려 주는 곳이 있으면 가서 항의도 해서 주저앉히기도 했지만, 그걸 다 조사해서 하기는 어려운 거거든요. 그리고 미리 그런 걸 알게 되면은 와서 항의도 하고 그러니까, 사용주가 아예 일하는 사람한테 안 알려 주고 떠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빨리 서울 지역 전역을 포괄하기로 하고, 청계노조는 별도로 지부를 두든지 하자는 당시 논의가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왜냐면 강남 쪽에 있는 사업장들도 있었어요. 대표적인 게 앙드레킴 사업장입니다. 강남에 있는 사업장에서도 저희 청계노조로 의뢰가 와서 같이 활동하기로 했는데, 저희가 청계피복 지부라니까 앙드레킴 쪽에서 “왜 청계피복 지부에 우리 사업장이 들어가냐. 이게 말이 되냐?” 이런 논쟁도 사용주랑 하게 되니까, 이거는 나름대로 형식과 내용을 바꾸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전태일의 정신을 이어받은 청계피복 지부는 서울의류노조 산하에 둘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형식으로 둘 건지 말 건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서울 지역에 노조들이 많이 만들어지면서 의류 제조업뿐만 아니고, 구로공단, 여러 사무직 노조에서부터 싸움이 곳곳에서 있었거든요.

**사회자** 예. 그렇죠.

**김영대** 그러면서 구사대 활동이나 여러 가지 탄압이 많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청계노조를 또 제일 먼저 불러요. 그러면 저희는 다만 진짜 몇 사람이라도 최대한 조직해서 달려가기도 하다 보니까 내부적인 결창기지 못했죠. 어떻게 보면 청계노조 같은 경우 당장 필요한 건 단체 협약 맺은 사업장들을 안착시켜 내고, 조합원들을 확보하고, 상근자들도 정당한 월급을 줘야 하는 거였어요. 그동안은 현장에 있다가 간부로 오게 되면은 완전히 희생당하는 셈이었습니다.

**사회자** 오히려 임금이 더 줄어들고.

**김영대** 그래서 그것에 못 견디고 떠나 버리는 경우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이런 점들을 안착시키는 노력들이 부족했던 거죠. 그런 속에서 서의노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던 게 있었고요. 한편으로는 청계노조가 서울 지역 연대 활동에 함께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이 그 당시의 상황이었던 거 같습니다.

**사회자** 초기 논의에서는 청계가 주도하자, 공동으로 하자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공동 건설안에 들어갈 만한 다른 주체들이 있었습니까?

**김정호** 문건에 보니까 옷만사<sup>18)</sup>도 나오고, 북부도 일부 나오는데요. 저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이 문건을 보면 당시에는 지도부에 제안을

---

18) 옷을 만드는 사람들(옷만사).

## (가칭) 서울지역 의류제조업 노동조합 조직을 시급히 건설하자!

### 1. 의류제조업 현황과 추세

지속적인 국제경쟁력 약화로 인한 내수시장의 경쟁 치열 - 중소기업의 도산화  
중소기업의 국내시장 선취에 따른 하청공장의 남립  
제조업노동자의 노동력 감소 추세 - 설비 자동화와 인건비 상승  
\* 이후 연구팀의 연구성과를 토대로 구체적으로 분석 필요합니다.

### 2. 청계노조의 상태

지도구심의 실종  
사업전망의 부재  
지도부내부의 갈등과 패배의식 팽배  
조합원들의 지도부 불신과 이탈가중

### 3. 청계노조가 나아가야 할 방향

"청계노조의 시대는 이미 끝났다. 아무리 청계노조에서 조직력 전향과 개인적 이성을 실현하려고 골머리를 굴려봐도 도대체가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이제 청계노조는 대중조직이 아니라 상징성으로 존재하는 재야단체로 남아 있을 뿐이다." 이런 소리들이 곳곳에서 들리고, 조직자체에서 무너져서 들려오고 있다. 정말 사실일까 그동안 조직에 몸담고 있었던 자신조차도 현재로서는 청계노조의 전망은 불투명하다. 이대로 가다간 정말 망하지!

망할때 망하더라도 발전적으로 망하기 위해서 청계노조는 최소한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새로운 노동조합 조직건설에 어떤 식으로 기여하여야 한다.

한국의 노동조합 운동에서 최초로 업종별지역노조를 건설하였고, 지역노조의 모태 역할을 충실히 했던 청계노조는 평화시장식 재래시장이 소멸해가면서 영세공장 노동자의 축소, 업종전환, 등 객관적 요인으로 인해 조직자체가 사멸해 가는 위기감에 젖어있다. 그러나, 아직도 청계피복노동조합은 서울지역 200인 이하 의류제조업 노동자를 대상으로 합법적으로 조직활동을 인정받고 있는 업종별지역노동조합이다. 전망이 불투명한 것은 부인할 수 없으나, 전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전망을 못찾고 있으며, 더구나 조직 자체 문제로 인해 조직의 발전을 저해하는데 한몫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언젠가부터 청계노조는 평화시장 등 특정지역에 한정된 조직활동의 한계를 인정하고 (가칭) 서의노건설로 조직전향을 잡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진행속도나 내용으로 봐서 지부건설의 전망은 현재로서는 불투명한 상태이다. 옷만사의 경우 지역노조의 합법적인 간판을 내걸고, 공개적인 활동을 청계노조에 제안하고 지원을 요청한 적이 있으나, 청계노조의 주체적 조건때문에 거부의사를 밝히고, 대신 지역내 비공개로 독자적인 활동을 통해 지역적토대를 구축하여 이후 지부건설을 공개적으로 하자는 쪽으로 결정되면서 지부건설과정상 서울지역을 포괄하는 (가칭)서의노건설 각 주체들이 공통테이블을 정기적으로 가지면서 (가칭)서의노사업을 구체화시키는 것으로 정리된 바가 이미 있다.

장안동의 경우 또한 청계노조내 (가칭)서의노 건설 사업중 실현적 내용을 가지고 각 사업장중심의 조직건설을 지양하고, 사업장을 토대로한 지역을 하나로 묶는 지부건설을 지향했으나, 각 현장활동의 객관적 활동의 한계와 소수의 활동가들의 제한으로 공

- 1 -

886606

(가칭)서울지역의류제조업노동조합 조직을 시급히 건설하자, 199\*, 전태일재단

좀 했었나 봐요. 어쨌든 청계노조에서는 거부했다는 표현이 있고.

아까 영대 형이 얘기했던 것처럼 외곽으로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사실은 전체적인 위기였죠. 시장의 위기, 자본의 위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구책으로 통일상가 1층, 2층 보면 사장들끼리 모여서 브랜드도 만들고 뭐 했었는데도 안 돼서 다 붕괴됐었잖아요. 그런 와중에 92년도에 베트남하고 중국하고 수교하고.

김영대 물건이 들어오기 시작하죠.

김정호 그 전부터 또 물밑으로 중국으로 나가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면서 이미 구조 조정이 시작되고, 자본 자체가 위기를 맞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구조가 닥친 거죠. 그게 금방 닥쳤어요.

김영대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됐죠.

김정호 92년, 93년, 94년에 이미 거의 다 됐었어요. 특히나 그때 소련도 붕괴됐죠.

사회자 의류 제조업은 장비가 워낙 간단하니까 옮기기도 제일 쉽죠. 그래서 87년에 산업 구조 조정에서 섬유 의류 산업이 가장 먼저 중국이나 베트남 이런 동남아로 많이 진출했던 것 같습니다.

김영대 중국으로 먼저 갔죠.

사회자 중국이 가까우니까 이전하기 엄청 쉬웠죠.

**김영대** 대표적으로 충남방직, 이런 데가 다 기계 뜯어서 중국으로 들어갔으니까. 원단 자체도 구하려면 이제 중국으로 갔어야 해요. 바로 그렇게 된 건 아니었는데, 이제 대구를 중심으로 대전이나 이런 쪽에 방직 공장이 많았거든요. 그 당시에 옷감을 짜는 그런 공장들이 기계 뜯어서 중국으로 갔어요. 그때 유명했던 사건이 원진레이온인데, 기계 다 뜯어서 중국으로 가게 되면서 그거에 대한 싸움하고 그러기도 했었는데요. 이제 중국 시장이 커지고, 평화시장에도 제품을 거의 만들어 가지고 오는 식이 되었죠.

당시 제가 중국에 한 번 갔었는데 바지 한 장에 1,000원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경쟁이 안 되는 거죠. 여기서 공임 줄 거면 아예 옷을 사서 왔을 만큼 심했을 정도니까. 그 당시는 못 느꼈지만, 위기가 오고 있었던 거 같습니다.

**김정호** 노동조합도 결국 경제 조직이잖아요. 사실 중견 활동가 키우는 문제도 그런 게, 내가 그때 기억으로 진짜 3만 원, 5만 원, 7만 원 받고 활동했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의식이 있어야 하고, 뭔가 내가 돈을 안 받고 해야 하는 거죠.

**사회자** 의식 플러스 자기희생까지 있어야 하는.

**김정호** 예. 중견 활동가가 희생까지 감수해야 하니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이상은 좋지만 얼마 못 가서 다 붕괴될 상황이죠.

**사회자** 지속 가능성이 없는 상황이네요.

**김정호** 그렇죠. 전혀 담보 안 되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당시 월급으로 최소한 25만 원을 책정해 놓든가. 근데 조합비는 안 되지. 우리한테 조합비를 주는 사장들은 이미 망하고 있지. (웃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이상을 얘기했던 거 같고요. 그다음에 바로 다가올 미래를 충분히 예측하지 못했던 건 아닌가 싶기도 해요. 나도 서의노 만들면서 계속 재정 문제 때문에 정말 힘들었거든요.

**사회자** 청계노조 차원에서는 김영대 위원장님이 서노협, 전노협으로 무게 중심을 옮겨 가시면서 황명진 선생님이 잠시 위원장을 하다가, 94년에 김정호 선생님이 위원장이 되는데요.

위원장을 맡으셨을 때, 본인이 생각하기에 앞으로 청계노조를 어떻게 꾸려가야 되겠다 싶으셨는지. 특히 구조 조정으로 점점 조합원 수도 줄고, 공장들도 분산되고 흩어지는 조건에서 어떤 고민을 하셨는지. 이런 부분들 좀 말씀해 주시죠.

**김정호** 나는 그때 결혼하고 송인동에서 공장을 잠깐 했었어요. 잠깐 하고 있는데, 명진이가 와서 “위원장 할 수 있는 사람은 너밖에 없다. 좀 해라.” 그래서 고민 끝에 그냥 하게 된 거고.

근데 전임인 황명진 위원장도 ‘서울지역의류제조업노동조합’을 고민 안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고민을 좀 했으나, 한계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같이 “결국 서의노 건설해 내는 게 과제 아니겠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위원장 하면서 옷만사 플러스 3개 단체 해서 남부지부 준비 위원회식으로 묶고. 그다음에 북부에는 옛날에 의류 쪽에 있었던 분들 찾아가서 새날동지회를 중심으로 북부지부 준비 위원회. 저희야 그때 단체 협약 사업장도 몇 개 있었고, 어쨌든 존재하고 있으니까. 조급하긴 하지만 그렇게 해서 준비 위원회를 빨리 만들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직접 가서 만나 가지고 설득하고, 결합시키고.



사회자 위원장 되자마자.

김정호 예. 그러면서 준비 위원회 활동을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 한 것 같아요.

사회자 옷만사 하고 새날동지회는 노동조합은 아니고, 정확히 어떤 곳이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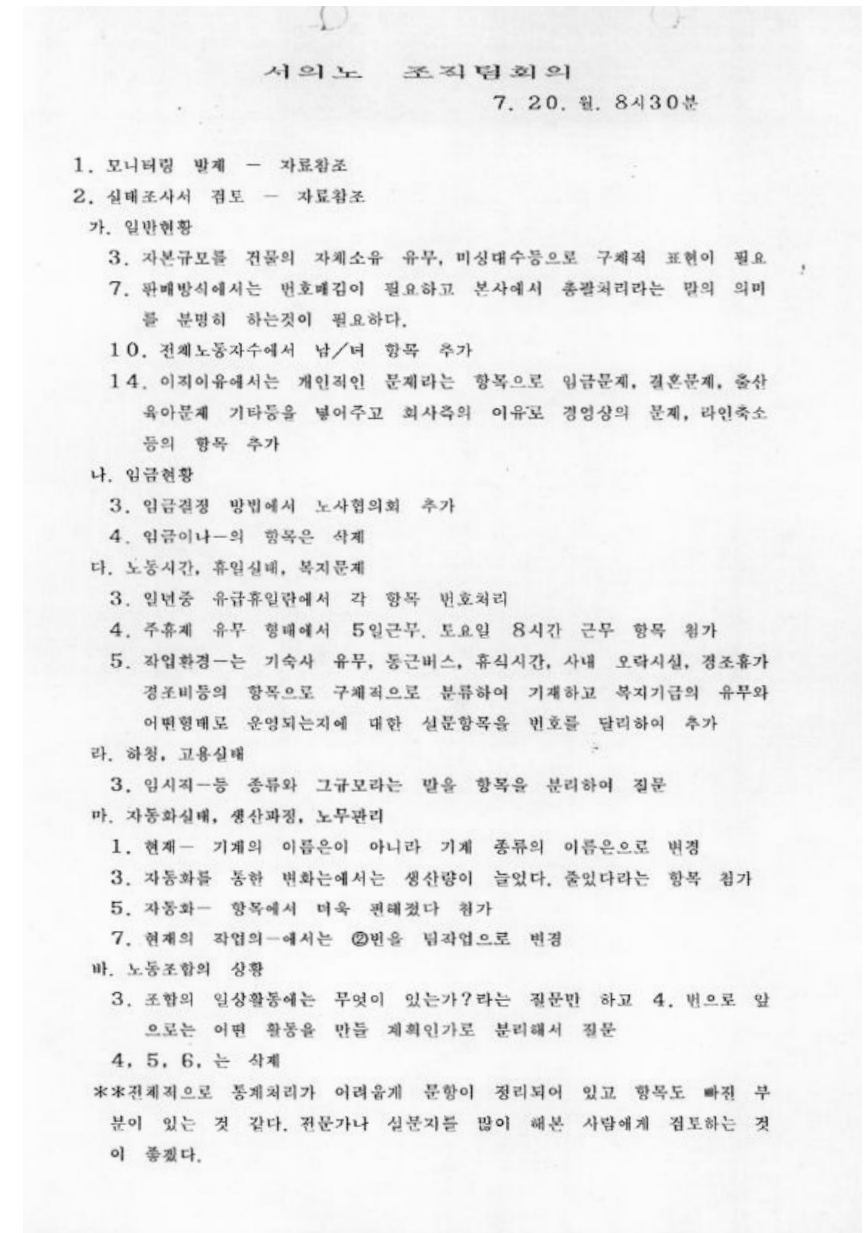
김정호 단체였어요. 옷을 만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단체.

사회자 그냥 단체였군요. 어쨌든 서울 지역 전체를 묶어서 의류 노조를 만드는 데 찬성했던 단체여서 자연스럽게 준비 위원회가 결성된 시점인 거 같네요.

김정호 또 그 시점이 IMF 전후여서 의류 업체에서 문제들이 좀 많이 발생했어요. 물론 노동조합으로 건강하게 조직돼서 나타난 게 아니라, 회사가 거의 망하거나 또는 구조 조정이 막 들어가는 상태였기 때문에 구조 조정 위기에 있는 의류 업체는 저희한테 상담 와서 지부나 지회를 만들기도 하고 망해 가는 데는 퇴직금 지급 싸움들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준비 위원회가 형성됐던 것 같아요.

사회자 문건에 92년도부터 조직팀 회의는 있었다고 돼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김정호 선생님이 위원장 되고 난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준비 위원회 이름을 걸고 활동들을 하신 거네요?

김정호 88년도 말인가 89년도 초에 제가 전임할 때 전임자가 16



서의노 조직팀 회의, 199\*.07.20, 전태일 재단

명이었어요.

사회자 합법성 쟁취 직후에, 그때가 제일 전성기이기 때문에.

김정호 예. 16명으로 기억하는데, 94년도 되면은 4명인가 5명으로 줄어요. 그러니까 거의 80% 정도 붕괴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회자 조합원 수도 굉장히 많이 줄은 거죠?

김정호 예. 단체 협약 사업장이나 와이 업체가 점점 없어졌으니까요. 그러니까 실제 서의노를 논의할 수 있는, 조직 전망이나 이런 걸 논의할 수 있는 구도 자체가 붕괴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회자 상가들이 거의 없어지니까 단체 협약 자체도 없어진 셈이고.

김정호 점차적으로 유명무실해지거나 없어지거나 거의 망하거나 그렇게 되는 거죠.

#### 4. ‘서울지역의류제조업노동조합’의 투쟁과 활동

사회자 자연스럽게 다른 단위들과 묶어서 서울 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것으로 될 수밖에 없었던 조건인 거 같네요. 98년에 서의노가 결성 되는데요. 청계노조는 중부지부가 되고, 나머지는 북부, 남부지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된 거예요?

김정호 청계지부로 이어갔는지, 중부지부로 정리됐는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는 않는데요. 어쨌든 청계지부, 남부지부, 북부지부 이런 식으로 형성돼서 각자 일정을 잡고, 조직 목표도 잡고, 또 투쟁이 벌어지는 데는 같이 싸우면서 이제 98년 4월 26일까지 쪽쪽 나간 거죠. 그래서 4월 26일에 고려대에서 각 지부 조합원들 200명 정도 최대한 참여시켜서 결성했던 것 같아요.

김영대 그게 몇 년도예요?

김정호 98년 4월 26일.

사회자 98년 봄.

김정호 그때 김영대 위원장님은 감옥에 계셨었던 것 같은데요. 왔으면 기억이 있을 텐데, 안 왔으면은 어디 다른 데 계셨거나.

사회자 가지 않았을까? 그때는 구속돼 있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김영대 95년도에 민주노총이 만들어졌고, 98년이면 제가 한창 부위원장 할 때니까.

김정호 IMF 때 싸움 한 번 크게 있었었잖아요. 그때 권영길 위원장 있을 때.

김영대 그렇지. 그때가 노동법 개악 투쟁할 때. 그때 워낙 바빴으니까.

사회자 아니, 98년 봄이면 IMF 구조 조정으로 인해서 민주노총이 한창 어려웠을 때예요.

김영대 총사퇴할 때.

사회자 노사정 합의로 인해서 2월에 사퇴하고, 그다음에 비대위가 구성돼 가지고.

김정호 맞다. 투쟁을 제대로 못 해서 사퇴했지. ‘뭐하고 뭐하고 바뀔치기 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김영대 집행부가 총사퇴하고, 다시 선거를 해서 내가 부위원장이 돼요. 당시 “전교조 합법화하는 걸 정부에서 받아들이는 대신 대법원 판례에 의한 정리해고를 제도화한다”는 합의 사항이 문제가 됐어요. 대법원 판례로 이미 “이러이러한 경우에 정리해고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어요. 거의 부도가 났거나, 또 노력했는데도 안 되는 경우 등 몇 가지 사례에 해당하면 정리해고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고, 그게 대법원 판례로 정립이 된 겁니다. IMF에서는 그거를 “법적인 제도화를 해라”라고 주장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다 이해가 되는 것들이예요.

김정호 합의한 것에 대해 현장에서는 비판을 많이 했죠.

김영대 그렇죠. 현장에서는 당연히 비판을 하지.

사회자 그게 오늘의 주제는 아니니까.

김영대 서의노 결성 당시에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김정호 그때 단병호 위원장이 왔던 거 같아요.

김영대 서의노 결성 때?

김정호 예.

사회자 그러면 그때가 비대위 시절이었던 것 같네요. 단병호 위원장님이 비대위원장을 하셨을 때거든요. 그리고 선거가 되기 직전인가 봐요. 그럴 수 있네요. 그러면 결성 당시에 조합원 규모가 200명 정도였나요?

김정호 실제 조합원은 380명 정도 됐고요. 결성 대회에 오신 분들이 한 200명 정도였습니다.

사회자 중앙 간부 구성이나 이런 거는 청계노조 중심에다가 남부, 북부지부를 합친 거예요?

김정호 각 지회 임원이 중앙 운영 위원회를 구성하는 형태로 됐었죠.

사회자 중앙 임원으로 같이 참여하고 그런 식으로.

김정호 예. 지부 임원이 그렇게 됐죠.

사회자      지부들도 별도의 사무실 공간이 있었던 거예요?

김정호      예. 공간이 있었죠. 그러니까 사실 힘들었죠. 조합비는 안 들어오는데 그쪽 월세는 내야 하고. 청계노조야 돈 안 내도 되는데.

사회자      청계는 그래도 기존에 노조 사무실이 자체적으로 있었던 데 비해서, 남부와 북부지부는 별도 공간인데 그것까지 같이 챙겨야 하는 거네요.

김영대      쉽게 말하면 각자 생존하기가 쉽지 않은 데를 끌어안은 거죠.

김정호      예. 그래서 재정 사업부를 따로 둘 정도로 계속 허덕였죠.

사회자      서의노 건설하자마자 IMF 외환 위기로 인해서 구조 조정이 더 심하게 되고, 아웃소싱 됐을 거 같은데요. 그런 상황에서 서의노 활동이 주로 구조 조정에 대한 저지나, 부도난 사업장에 떼인 돈 찾아 주는 거.

김정호      예. 그거랑 구조 조정의 위기를 맞이한 미싱사들이 지부를 만들어서 대응하는 것도 있었고요.

사회자      연대 투쟁 했던 사례들이 98년 우아미, 그다음에 이신우.

김정호      우아미는 와이 업종이고. 이신우부터 시작해서.



김정호

**사회자** 2005년 루치아노치, 2009년 디자이너 신장경 공장, 2010년~11년 형제어패럴 등이 있었던 것 같네요.

**김정호** JR, 주식회사 로라 같은 부티크 쪽의 미싱사들이 “우리도 구조 조정 당한다. 빨리 노조 만들자.” 그래서 그게 짝 퍼진 거예요. 셀리나운부터 시작해서. 셀리나운 같은 경우는 그때 양평동에 있었는데, 재단 부문(재단사+재단 보조)하고 미싱 부문(미싱사+미싱 보조)을 합하면 거의 120명 정도 됐었어요.

**사회자** 꽤 컸네요.

**김정호** 예. 제조 쪽만 해도 그 정도였으니 꽤 컸죠.

**김영대** 그때 보면 바지나 티셔츠를 대량 수입해 오는 거 외에, 브랜드 사업장들은 그래도 국내 생산 한다는 게 자부심이었어요. 그게 일정 정도 먹혀서 판매가 됐는데, 나중에 그거마저도 무너지게 된 것 같아요.

**김정호** JR이나 로라나 루치아노치 미싱사들이 다 객공이었어요. 어쨌든 이분들을 월급제로 다 전환했으니까 이제 특수 고용직에서 정규직이 된 거잖아요. 그런 거는 좀 좋은 사례였던 것 같아요. 객공이 다 월급제 전환된 거야.

**사회자** 그렇게 싸워서 승리한 경험도 있으신데요. 이후에는 그게 안착이 된 거예요?

**김정호** 안착이 됐죠. 단체 협약 체결해서 매년 임금 협상하고, 근

로 조건 개선에 대해서 얘기하고. (주)로라, JR, 셀리나운, 루치아노치, 울티모, 행자원 등 디자이너 브랜드와 2004년부터 단체 협약을 체결해서 2011년까지 매년 단체 협약을 했습니다.

**김영대** 근데 장기적으로 오래 가진 못했다는 거지. 공장 자체가 붕괴되는 과정이었으니까.

**김정호** 예. 계속 구조 조정 중이었고, 아웃소싱하고 있었으니까요. 루치아노치, 셀리나운 등 일부 업체는 2011년 이전에 분회조직이 붕괴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단체 협약을 체결하고 투쟁을 했던 성과는 무엇보다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단결해서 특수 고용직(객공 미싱사)를 정규직 월급제로 전환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온환부띠끄는 객공 미싱사도 퇴직금 소송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대법원 판결<sup>19)</sup>을 이끌어 내기도 하는 성과를 이뤘습니다.

**사회자** 결국은 구조 조정으로 인해 그나마 남아 있던 브랜드 업종조차도 해외로 생산 시설이 전부 이전되면서 노조의 토대 자체가 붕괴되는 조건이 이어지는 거죠?

**김정호** 젊은 애들이 제조 쪽으로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는 이유가 전망도 전망이지만, 여전히 노동자에 대한 대우랄까 조건이랄까……. 처음에 대학교 졸업해서 장밋빛 꿈을 가지고 들어올 거 아닙니까. 다 깨지는 거예요. 다 깨져서 견디지를 못 해요. 그래서 젊은 미싱사도 거의 없죠. 어쨌든 CAD(Computer Aided Design: 컴퓨터 응용 디자인)

---

19) 대법원 판결(2009다51417. 퇴직금 청구 사건)

쪽이나 들어갈까. 미싱 쪽 없고, 패턴 쪽도 의외로 좀 드물고 그렇죠.

**사회자** 젊은 사람들은 디자이너나 이런 계통만 남아 있고, 생산 직에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김정호** 이제 자식들이 좀 하죠. 가업 승계로 이어서 하는 식으로.

**김영대** 노동력 자체가 안 들어오니까 힘들고. 또 외국에서 만들어 오면 워낙 싸게 들어 오니까 그쪽에 의존하게 되는 과정으로 간 것 같아요.

**사회자** 2011년까지도 형제어패럴 투쟁이나 이런 것까지 하셨는데, 이후에는 조합원 자체도 취약해지면서 서의노 활동은 중단하신 거 같은데요.

**김정호** 예. 형제어패럴 집회를 마지막으로, 내가 여기 오기 전에 소식지를 보고 왔어요. 내가 2011년 4월에 마지막으로 《영원한 불꽃》을 냈더라고요. 그때도 형제어패럴 뿐만 아니고, 새롭게 디자이너들이나 이런 분들을 조직해서 현장 소식 같은 거 써서 노보도 만들고, 좀 활동하려고 했었어요. 그러다가 마지막 호를 보니까 집필진이 보강은 됐는데 그다음에는 안 나왔더라고요. 그다음에는 교육 센터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사회자** 현재는 조합원들도 거의 다 떠나 있는 상황인가요?

**김정호** 지금 떠나 있는데, 나를 비롯해서 조합비를 내는 사람이 있기는 하고요. (웃음) 근데 지금은 조합 활동을 목적으로 모임을 하기도, 교육 센터 운영 쪽으로 모이고 있어요. 이제 내 개인적으로는 마음의

빛이 있어서 계속 고민하고 있죠. ‘언제 좀 젊은 사람들과 함께 재건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은 하고 있죠.

**사회자** 더 이상 노조로는 어렵다는 판단을 하시면서 교육 센터 활동으로 전환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교육 센터는 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김정호** 조합 활동은 어렵죠. 솔직한 얘기로는 내가 포기한 거예요. 포기했는데 이제 마음만 있는 거죠. 도저히 운영 자체가 안 되니까. 조합비를 가지고 조합 사무실 월세 내고, 최소한 상근자 1~2명 월급 줄 수 있는 것들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좀 물러나 있어야 하겠다. 그리고 다른 조건을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런 고민을 하면서 지금은 주로 패턴이나 봉제, 그리고 CAD, 그다음에 어려운 공장들에 기계 같은 거 약간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을 하면서, 1년에 한 번씩 젊은 애들 데리고 여기 전태일 기념관 와서 선배님들 모시고 계몽 교육 하는 식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한 5년 정도까지는 『자본론』을 공부한다거나 유명한 강사 데리고 짧게라도 세미나를 한다든가 그런 것들을 조금 시도한 적이 있었으나, 근본적인 활동은 못 했어요.

연락은 많이 받았죠. “우리가 지금 구조 조정 위기에 있는데 같이 싸우자.” 그래서 내가 “안내는 해 줄 수 있는데, 내가 직접 나서지는 못 한다.” 그런 게 이제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죠.

**사회자** 교육 센터는 봉제나 패턴, CAD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을 위한 직업 교육하는 건가요?

**김정호** 예. 교육시켜서 업체로 연계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젊은 애들 중에 미싱을 하려고 하는 애들이 좀 있어요.

사회자 아, 있어요?

김정호 예. 샘플사<sup>20)</sup>를 꿈꾸는 애들이 있죠. 그러니까 왔다 갔다 빙빙 돌아요. 어디 가서 조금 지원받는 거 6개월 하다가, 또 어디 6개월 하다가 이러니까 기술 성장이 안 되죠. 그런 애들을 주목해서 미싱사로 키워 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김영대 그러니까 어떻게 구조가 바뀌었냐면, 과거에는 객공이 한 달에 당시 돈으로 150, 200만 원 이렇게 벌었어요. 그게 당시로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지금 화폐가치로 따지면 한 1,000만 원 가까이 되는 금액이에요. 보조 하나, 시다 둘 자기가 고용해서 수익 낸 다음 셋을 월급 줬잖아요. 근데 그 당시 객공이 받은 돈이 지금 월급이야. 지금 200만 원 남짓이죠?

김정호 객공이요? 200만 원 더 되죠.

김영대 객공이 아니고 월급쟁이가.

이정기 25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영대 그니까 한 20년 전에, 30년 전에 객공이 250만 원을 벌었다고.

이정기 맞습니다.

김영대 그러니까 옛날 그대로 돼서 월급이 지금 250만 원이라는 건데, 중요한 거는 시다도 250이예요. 옛날에는 미싱사가 250만 원을 받았으면 시다는 4, 50만 원 받았어야 해. 예를 들면 그런 정도 격차가 났는데. 지금은 기술자라는 걸 기술로서 대접하는 게 아니라, 현재 외국에서 들어오는 노동의 가치랑 비슷하게 보는 거고.

지금 김정호 위원장이 얘기하는 샘플사나 이런 문제는 약간 특수한 상황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패션이나 이런 쪽에서는 따라가기도 하지만 우리가 만드는 K-유행에 의해 만들어지는 창조 제품이 많이 있어요. 그런 쪽으로 해서 기술력, 디자인이라든지 미싱사라든지 양성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좋을 거 같아요, 내가 보기엔.

김정호 그래도 저희가 기술 교육 센터로서 이제 자리는 좀 잡았어요. 그래서 젊고 기술을 배우고자 하는 분들이 알고 오는 편이고요. 요즘 젊은 사람들 보면 자기한테 0.01이라도 도움이 안 되면 움직이지 않아요. 진짜 움직이지 않아요. 차라리 1억 받는 패턴 기술자 밑으로 가서 특강이나 듣고 하지, 잘 안 옵니다. 그래서 이해관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네트워크 만들어 주는 역할을 좀 하려고요.

20) 샘플사는 디자이너의 작업 지시에 따라 신제품의 견본품이나 공장 대량 생산 이전의 견본품을 만드는 역할을 한다. 각각의 봉제 과정을 각각의 미싱사가 나누어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봉제의 전 과정을 한 미싱사가 맡는 형태로 업무가 진행된다. 따라서 다양한 종류의 의류 제작에 필요한 재단, 봉제 등의 전반적인 기술의 숙련이 요구된다. 한국의 의류 산업이 다품종 소량 생산 형태로 바뀌면서 샘플사의 역할과 수요가 커지고 있다고 평가받는다.

## 5. 서울봉제인지회 창립과 활동

사회자 서의노 활동이 2010년대 중반 이후에는 휴면 상태에 이르

면서, 청계노조의 후신이라고 할 수 있나요, 2018년도에 새롭게 서울봉제 인지회가 창립됩니다. 이정기 선생님이 청계 출신으로서 봉제인지회장이 되셨는데요. 창립 준비 과정과 활동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기** 김영대 선배님이나 김정호 선배님이 지금 말씀하신 봉제 관련 문제들을 다 떠안고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저는 청계노조 활동 잠깐 하고, 이후로는 봉제 현장에 계속 있었으니까 계속 청계노조 조합원들 중에 현장에 남아 있는 분들과 접촉도 하고, 선후배 모임도 하고 했었었어요. 그러던 중에 2016년도에 전태일재단하고 화섬식품노조<sup>21)</sup>에서 다시 봉제 인 노조를 활성화 해야 하지 않느냐는 고민들을 했고, 제가 당시에 전태일 재단 운영위에 있었기 때문에 계속 보고는 받았었죠. 2018년에 노조를 만들자는 제의를 제가 받았어요. 저는 봉제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당시에는 일단 힘들다고 의사 표현을 했습니다.

**사회자** 이제는 노동조합 형태로는 조직하기 어렵다.

**이정기** 예. 봉제 산업이 쇠퇴기다 뭐다, 이러저러한 말들이 많았다 하더라도, 당시 현장에 남아 계신 분들이 산업 통제로만 서울에 거의 10만 명 있었습니다. 근데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자본과의 협상력을 키워서 권리를 되찾는 거.

**사회자** 단체 교섭을 통해서 협약을 맺는 게 중요한 거죠.

**이정기** 맞습니다. 여기는 그것과 전혀 맞지가 않고요. 김정호 위

21)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원장이 서의노 할 때보다 현장이 더 쪼개졌거든요. 지금 살짝 인원이 줄어서 9만 명 조금 안 되는데, 5인에서 10인 사이인 사업장이 거의 80% 가까이 됩니다. 그런 데서 노동조합을 이야기할 때…….

그때 제가 공제회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공제회가 계같은 개념이잖아요. 내가 얼마씩 내서 십시일반으로 위험에 대처하고, 그걸 매개체로 해서 모이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쨌든 조직은 필요하지 않습니까? 사측과의 교섭만 있는 게 아니고, 행정을 담당하는, 산업을 담당하는 서울시나 정부 기관과의 교섭력을 키워서 봉제 산업을 활성화시키자. 방금 김영대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교섭해서 처우 개선을 이뤘는데 사업장이 없어져 버리고, 공장이 달아나 버리고 그러면 좀 유명무실하지 않냐. 이걸 서울 안에 묶어 두면서, 봉제 산업 활성화를 꾀하면서 노동조합으로서 조직을 이루고, 그 조직된 걸로 협상력을 키워서 산업을 활성화시키자는 취지로 제의를 받았습니다.

그때 제가 좀 생활이 넉넉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의를 받았지만, 한번 해 보고 싶은 욕심은 있었습니다. 제가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았지만 청계노조는 그때그때 중요한 매개체로서 운동을 이끌었던 측면이 있어요.

**사회자** 그렇죠.

**이정기** 우리나라 양대 노총에서 해 보지 않았던 시도를 한 건데, 전태일재단과 화섬식품노조에서 제의받고 여러 자치구 센터와 협력해서 만들어 가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그때 청계노조 출신 중에 현장에 계신 분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분들을 간부로, 매개체로 했고, 2018년 11월 27일 청계노조 창립일에 맞춰서 창립했습니다. 당시 조합원이 38명이었는데, 그중에 반이 청계 선배님들이었습니다. 후원하시겠다는 선배님도 계셨고, 현장에 있는 분들도 계셨기 때문에 이들을 초동 주체로 시작



하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이게 여러 문제점들이 있는 거죠. 활동하는 상근자들에 대한 대우가 지금도 똑같거든요. 이런 데서 오는 경제적인 어려움 같은 것은 지금도 여전합니다. 그나마 저는 현장에서 계속 일을 하면서 회의 참석이라든가 조직을 하고 있으면서, 일반인들이 가진 노동조합에 대한 인식을 바꿔 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저희도 처음에는 봉제하시는 분들을 그냥 일반인이라고 표현했었거든요. 근데 전태일이라는 선배를 둔 후예들이 보는 노동조합에 대한 인식이 너무 안 좋았어요. 물론 이분들이 한 가지 기술로 평생 생활을 일궈 내시는 분들이라 프레임에 갇힌 측면이 있는데, 의식 바꾸는 게 되게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활동해 오는 데요.

창립 당시에 제 꿈이 있었습니다. 한 50명이라도 우리 조합원들만으로 집회를 한 번 이뤘으면 좋겠다는 꿈이 컸습니다. 저희가 올해 5월 20일부터 6월 1일까지 2주간 서울시를 상대로 5대 요구안을 내걸고 집중 실천을 했고, 6월 1일에 집회를 한 번 이뤄 내면서 그 꿈을 조금이나마 이룰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조합비를 100% CMS 계좌로 받기 때문에 조합원 실명으로 참가자 수를 확인했는데, 당시 조합원이 380명 됐었거든요. 조합원의 한 43%가 집회를 나오셨던 겁니다.

사회자      많이 나오셨네요.

이정기      170여 명 참여했는데 150여 명은 봉제인들, 20여 명은 사회단체, 산별 간부들이 왔었습니다. 이처럼 완전하지는 않지만 조직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노동조합의 대상을 정할 때, 어디까지 노동자라고 볼 것이냐는 걸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지금은 예전하고 달리 영세 사업주도 본인의 노



이정기

동력을 가미해야 공장이 운영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일반 종사자보다 사업주가 더 일찍 나오고, 더 늦게까지 일해서 내 임금을 가져가는 구조가 고착화되어 있어서 “그러면 10인 미만 인원이 일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들도 우리는 노동자로 보고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겠다”라고 했습니다. 현재 조합원이 한 400여 명 되는데, 이 중에 사업주가 한 140명 됩니다. 그다음에 미싱사가 230~240명, 재단하는 사람 20명 정도 됩니다. 조합 내에 직군이 다양하다 보니까 마찰이 생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사업주, 재단, 미싱 대의원을 조합원 수에 비례해서 직종별로 배분합니다. 대의원 수가 지금 14명 정도 됩니다.

**김영대** 결국 이 사업주라는 게 조그마한 하청 공장 하는 분들이죠.

**이정기** 맞습니다. 저도 사업주입니다.

**사회자** 원청에 의해서 종속 받는 위치는 똑같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정기**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회자** 처음 창립할 때 청계노조 출신이 반이라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그동안 청계노조 출신들의 후속 모임이라든가 소모임이 쪽 있었던 거예요? 어떤 계기로 그렇게 참가할 수 있었는지?

**이정기** ‘청우회’라고 해서 청계 선후배 모임이 전통적으로 계속 있었고요, 저는 재단 운영위 활동하면서 이런 문제의식은 늘 가지고 있었죠. 저는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지금 사회 어느 곳이든 나를 대변

하는 단체들이 노동조합 형태든 협회 형태든 있죠. 물론 봉제 사업주들도 협회가 한 35개 정도 있는데, 각 자치구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서울시를 상대로 봉제 산업 관련해서 협상력을 가질 수 있는 단체가 없다는 점. 그런 단체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하나가 있었고, 그렇지 않으면 노동조합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지금 현장에서는 노동조합에 대한 인식이 많이 변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일반 회사처럼 출근 시간이 정해져 있다가, 한 사업장에 출근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 70년대 청계노조 활동했던 분들, 우리 김영대 위원장님, 김정호 위원장님께서 하셨던 활동이랑 똑 같습니다. 찾아다니면서 만나고 모임하고 이런 활동들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사회자** 서울봉제인지회가 결성된 과정을 다시 짚어 보면, 서의노가 사실상 휴면 상태에 있는 조건하에서 청계노조의 활동을 다시 한번 되살리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전태일재단 내에서 의견이 있었고, 화섬노조에 제안해서, 화섬노조가 승낙하고. 한 2년 동안 활동 조사를 하면서, 봉제인들의 상황이 영세 사업주와 노동자를 가를 상황이 아니다. 그리고 당장 단체 교섭을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처음으로 공제회 활동을 하기로 시도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폴빵’<sup>22)</sup>처럼 공제회 하는 노동조합이나 노동 단체들도 상당히 늘어났는데요. 봉제인공제회를 하게 된 배경, 그다음에 공제회가 가져온 성과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이정기** 저희가 2018년 서울봉제인지회라는 노동조합을 만들고

22) 사단법인 노동공제연합 폴빵.

나서 첫 사업으로 공제 수요 조사를 바로 진행했습니다. 여기 선배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봉제 공장에서 설문 조사, 수요 조사하는 게 어마어마하게 힘든 사업이거든요.

**사회자** 그렇죠. 흩어져 있고.

**이정기** 계속 손발을 움직여야 하고, 눈을 움직이는 상황에서 나의 1분, 지금 옷 한 장이 수입하고 직결되는 분 상대로 10분에 가까운 설문지를 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한 달 동안 한 500개의 설문지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청계노조 후신이었던 후배들, 조합원 중책들이 열심히 했죠.

그렇게 공제 품목 수요 조사를 진행했는데, 사업주들까지 같이 했거든요. 1위가 비수기 때 실장님 월급이나, 공장세 정도라도 대출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미싱사, 재단사들도 똑같은 말 하시는 거죠. 비수기에 한 달이라도 생활할 수 있는 생활 임금이라도 좀 편하게 빌릴 수 있는 데가 있으면 좋겠다. 봉제 같은 경우는 종사자의 90% 이상이 4대 보험 이런 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은행 이자를 무지막지하게 비싸게 써야 하거든요. 기본이 카드 대출이고, 당시만 하더라도 금리 22%짜리 그런 걸 써야 하는 상황인데.

이게 제일 많아서 저희가 첫 사업으로 대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사회가치연대기금 통해서 저희가 최초 3억을 받고, 조합원 증가에 따라서 1,000명 되면 2억을 추가로 받기로 했습니다. 물론 이거는 공짜로 받아 온 돈이 아닙니다. 1% 이자를 내고, 3% 이자로 저희가 조합원들한테 대출해주는 사업입니다.

대출 사업을 할 때 기억에 남는 게 있는데요. 제가 사회가치연대기금에 대출 신청하고 심의받을 때, 그분이 금융 전문가이지 않습니까. 저한테 이

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은행도 신용 관리를 이렇게 하는데, 당신네들은 조합원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조합비 6달만 내면은 대출 500만 원씩 대출해 주는데, 그걸 어떻게 감당할 거냐?”라고 했을 때, 저는 그냥 당당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제 경험상 봉제를 하시는 분은 보통 한 직군에서 30년 이상 계신 분들이다. 서울 전역에 있다 하더라도, 인맥을 통한 직업군들 많이 있거든요. 특히 봉제가 그렇다. 500만 원 떼어먹고 이 돈 안 갚으려고 도망가는 사람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이번 달 기점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10억 정도가 됐습니다.

**사회자** 그동안 대출해 준 자금이?

**이정기** 예. 그게 뭐냐면 저희가 조합원 증가에 따라서 한 달에 대출할 수 있는 한도를 정했습니다.

**김영대** 이제 늘어난 거네. 키워 준 거네.

**사회자** 그리고 몇 년 지나면 회수된 걸로 또 다른 분한테 해 줄 수도 있고. 그래서 총 10억까지.

**이정기** 예. 저희가 월 대출 한도를 3,0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대출 승인을 할 때, 좀 급한 순위가 있지 않겠습니까. 가장 급한 건 병원비, 아팠을 때 들어가는 비용을 1순위로 선정했습니다. 저도 사실은 처음에 이게 불안하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한 5년 정도 운영을 해보니까 99.5%가 약속을 진짜 잘 지킵니다. 지금까지 사고는 한 건도 없습니다. 다만 사람이 살다 보면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사회자 그렇죠.

이정기 그래서 상황이 좀 늦어졌다거나 해서 관리하는 분들은 한 두 분 계시는데, 지금까지 대출금으로 사고 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사회자 대단하네요.

이정기 그리고 하나 기억에 남는 것은, 저희가 사망 위로금도 있거든요. 상호 부조에 의해서 자녀 결혼, 아니면 부모님상이라든가, 내가 죽었을 때도 좀 받는 게 있습니다. 봉제 같은 경우는 삼삼오오, 아니면 혼자 일하다 보니까 누가 죽어도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길이 별로 없어요. 근데 조합원 신분으로 계신 분이 조합비를 좀 안 내시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나 연락을 드리는 과정에 따님이 받으셔서 “어머님이 8달 전에 돌아가셨다”고 해요. 100만 원이라는 돈이 그렇게 큰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막상 100만 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규약을 찾아서 그걸 지급했는데, 자녀분이 되게 고마워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어쨌든 아직까지는 잘 지켜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자 봉제인공제회가 노조 활동에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정기 저는 90%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단체 협약을 통한 노동 조건 개선이 없는 조건에서 그나마 공제가 조직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정기 예. 조합원 수가 증가하면 지금 공제 혜택보다도 공제 품목도 더 발굴도 할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조합 활동하고 공제 활동을 연계하다 보니까 발생하는 문제가 있는데. 저희가 산별 노조 산하지 않습니까. 산별에서 교부금이 내려오면, 그 교부금에서 5,000원을 떼서 공제에 매칭을 합니다. 조합비 15,000원에서 공제 부금이 5,000원이거든요. 20,000원이면 10,000원을 적립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가 교부금을 받고 나서, 지회 활동에서 쓸 수 있는 돈이 한 2,800원 정도 되는 거예요. 저희가 초기에 자본 없이 시작했기 때문에 조합원이 400명이라고 하더라도 1명당 2,800원이면 부족하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다못해 대의원이라든가, 회의에 참여했을 때 회의비라도, 아니면 상근자들은 반상근비라도 줄 수 있는 여력이 되면 좋은데……. 조합원이 한 700명 정도는 돼야 반상근비라도 줄 수 있어서, 저희가 지금 목표는 조합원 700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사회자 700명까지 조직이 확대돼야지 단순 재생산이라도 할 수 있는 조건이네요. 지금은 화섬노조의 지원이라든가, 공제회 활동도 사회가치연대기금에서 대출로 지원받는 것인데요. 이것도 또 기한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끊어지는 부분이잖아요.

이정기 예. 맞습니다. 2027년까지.

사회자 그런 기금을 만드는 부분들도 필요한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공제회 활동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아까 같이 집회한 경험을 감격적으로 얘기해 주셨듯이 서울시나 정부를 상대로 한 제도 개선에도 굉장히 신경을 쓰시는 거 같아요. 그 활동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시죠.

**이정기**      법제도 개선 관련해서는 서울시에 봉제하고 비슷한 환경에 있는 봉제, 제화, 주얼리, 인쇄 4개 업종이 있습니다. 2022년도에 저희가 민주당 이동주 의원실 통해서 소공인법을 개정했어요. 소공인법이라는 법이 있는데요. 소상공인이 절대 우위를 차지해서 소공인에 대해서는 불분명하고 지원이 약한 부분이 있거든요.<sup>23)</sup> 그래서 일부 법 개정을 통해서, 올해 3월에 서울시에서 봉제 관련 조례가 또 통과된 게 있거든요.<sup>24)</sup> 조례를 통해 서울시장이 해야 할 역할이라든가 서울시가 해야 할 역할을 계속 주문하고 있고요. 아무리 좋은 조례가 있다고 한들 현장 조직의 감시가 없으면 유명무실해지는 일들이 많잖아요. 조례를 보면 협의체 구성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지키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18년 초기에는 서울시에서 되게 적극적으로 “이런 사례에 대해서 서울시하고 협의하자”라고 했고, 조직의 방향성이 되게 밝다는 느낌을 갖고 시작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다가 반노동조합적 시선, 2022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지나면서 서울시의 의원들 수가 국민의 힘으로 많이 넘어가는 과정에서 힘들게 보냈었고요.

가장 물 들어왔을 때 노 저어야 할 타이밍에 코로나라는 직격탄을 맞게 되었죠. 저희가 트래킹 모임이라든가, 등산 모임 이런 게 활성화되는 과정에서 그걸 맞고.

**사회자**      오프라인 모임, 대면 접촉을 할 수 없게 되니까 어려웠던 거겠죠.

23) 구술자가 이야기하는 2022년 개정된 소공인법은 도시형 10인 미만의 제조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 지원 체계를 위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상위법이다

24) 「서울특별시 패션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회 서울 패션/봉제인 한마음 운동회 포스터,  
2024.10.12, 봉제인지회

**이정기** 예. 2년 반 정도. 어쨌든 조직이 있어서 좋은 점은 되게 많습니다. 봉제인들의 추억을 찾아 주려는 노력도 많이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 ‘봉제인의 기차 수학여행’이라고 해서, 희망철도재단하고 수학여행이라는 타이틀로 여행을 한 번 했습니다. 125명이 기차로 움직이고 버스로 이동하는데, ‘수학여행’이라는 단어 하나에 눈물을 글썽이고 이런 분들이 되게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수학여행은 가 봤고, 우리가 초등학교는 많이 나오셨으니까. 올해 10월 12일에는 봉제인 운동회를 한번 해 보자”고 해서, 500명 정도가 참가할 수 있는 운동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sup>25)</sup>

## 6. 소감과 남기고 싶은 말

**사회자** 어려운 조건하에서 새로운 스타일의 노동 운동을 전개하시는 좋은 사례를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청계노조가 87년 이후에 합법성을 쟁취하고 단체 협약을 쟁취했던, 어떻게 보면 영광된 시절을 지나 산업 구조 조정 등을 통해서 사업장이 없어지거나 많이 흩어지는 굉장히 어려운 조건하에서 노동조합을 복원하기 위해 노력했던 ‘서울지역의류제조업노조’, 또 새롭게 2018년에 결성된 서울봉제인지회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 보았습니다. 청계의 역사에서부터 현재의 노동 현실까지 폭넓게 들을 수 있어서 더욱 의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인터뷰에 참여하신 소감과 앞으로 봉제나 의류 산업에 종사할 노동자

25) 2024년 10월 12일, 제1회 서울 패션/봉제인 한마음 운동회가 개최되었다. 사업의 예산 60%, 조직도 70%에 봉제인지회가 관여하였으며 450여 명의 봉제인이 운동회에 참여하였다.

들, 노조 활동을 할 후배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마무리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 저도 임기 마친 이후의 일에 대해서 몰랐던 점을 이번 기회에 많이 알게 된 것에 의미가 있고요. 봉제업은 패션, 디자인과 관련된, 어떻게 보면 의식주 중의 하나인 의에 속하는데. 그런 점에서 생산 기반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산업이 단절되지 않고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이어 나가는 데 청계 출신들이, 지금 남아 있는 조직들이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점에 대해서 저도 앞으로 노력해야 하겠다 이런 반성을 해 봅니다.

**사회자** 김정호 선생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정호** 특별히 할 말은 없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회자** 제일 막내지만 지금 새롭게 노조 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정기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이정기** 저는 처음 노조를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말하지 않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청계노조라든가, 전태일 열사의 후배 이런 무게감이 너무 무겁습니다. 그래서 제 입 밖으로 그 이야기를 절대 꺼내지 않습니다. 그 무게감 때문에.

어쨌든 패션이라고 하면 화려하고, 한 해에 경제적으로 한 50조 가까이 된다고 해요. 눈에 보이는 건 허울 좋은 봉제 산업인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것은 왜 변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좀 많이 하고 있고. 최대

한 제가 원하던, 꿈꿨던 조직화 목표에 다다를 수 있도록, 또한 제 후배가 일정한 반상근이라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나갈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사회자      오늘 인터뷰에 참여해 주신 세 분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것으로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대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정기      고맙습니다.

# 1980년대 청계피복노조 활동 —2024 전태일노동구술기록 5

2024년 12월 10일 발행

펴낸곳 아름다운청년 전태일기념관

총괄 전순옥

기획 양윤미

연구 및 진행 정유선

질문 및 정리 문민기

촬영 허철녕

편집대행 걷는사람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계천로 105

전화 02 2273 0906

팩스 02 318 0881

홈페이지 [www.taeil.org](http://www.taeil.org)

전자우편 [teail@taeil.org](mailto:teail@taeil.org)

ISBN 979-11-980330-3-1

ISBN 979-11-970538-2-5 [04330]세트

비매품

\*이 책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하려면 반드시  
서울시와 전태일기념관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